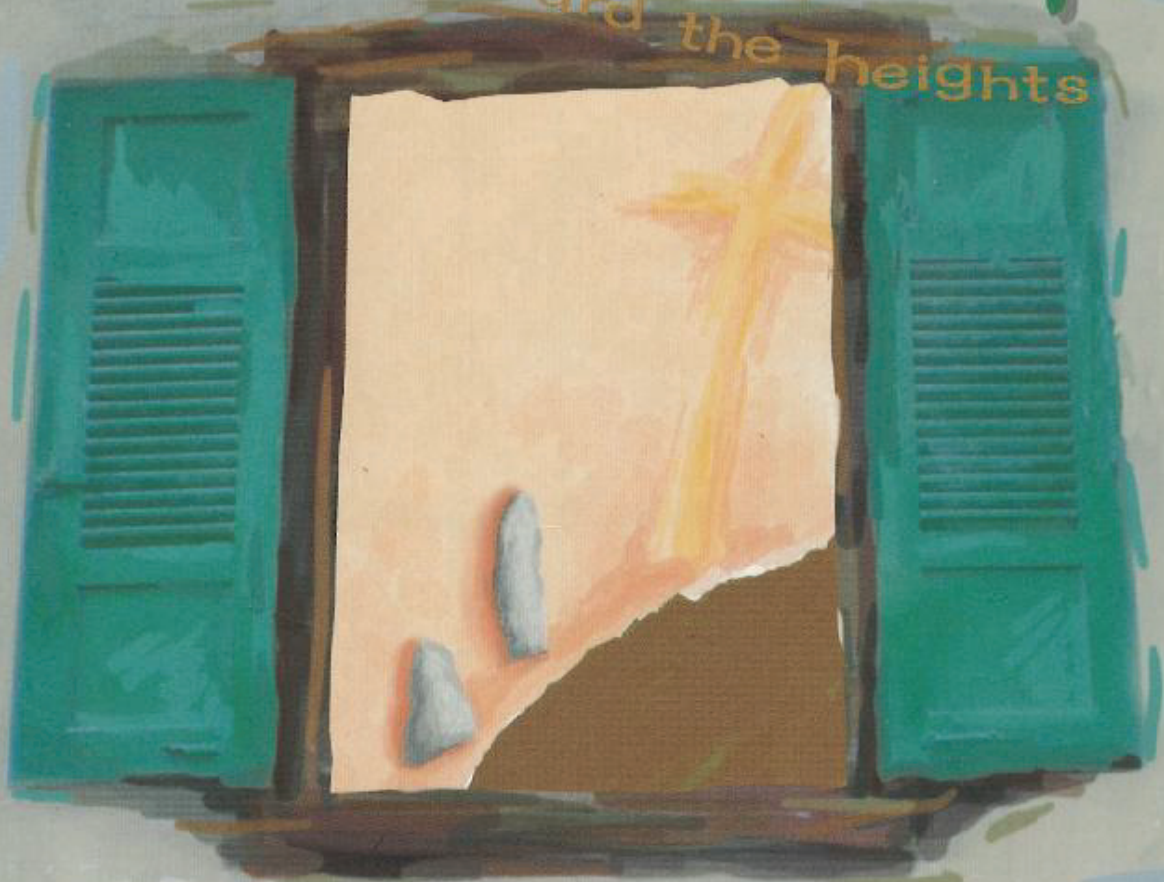


R. 범브란트 목사의 묵상일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Reaching Toward the heights



R. 범브란트 지음
김 에 진 옮김

즐과추
도서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R. 뱀브란트 목사의 묵상일기 (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상)

초판 인쇄 / 1997.2.10.

초판 발행 / 1997.2.20.

지은이 / R. 범브란트

옮긴이 / 김예진

펴낸이 / 박종태

펴낸곳 / 도서출판 줄과추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 4동 875-7 허버드빌 403호

전 화 / 877-0521~2 팩스 / 877-0523

공급처 / 기독교출판유통

전 화 / (0344)906-9191 팩스 / 080-456-2580

등록번호 / 제7-79호

© 1997 김예진 PRINTED IN KOREA

값 6,000원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도서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없이

전재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REACHING
TOWARD
THE HEIGHTS*

**Book of Daily Devotions
by
RICHARD WURMBRAND**

REACHING TOWARD THE HEIGHTS
© 1987 LIVING SACRIFICE BOOKS
P.O.BOX 938 MIDDLEBURY, IN 46540 U. S. A

Wurmbrand, Richard.
Reaching toward the heights.

Korean edition
Jul Chu Publishing house
Printed in Korea

To my dear Korean
readers,

You belong to a people
which has suffered more than
many others. Therefore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better than
other the accounts about sufferings
of innocents in other countries.

Your thriving churches and
your smiling faces show that
you know also the secret of
victory in life over all troubles.

God gave grace to Christian
persons to remain joyful and
to sing even in the darkest
moments.

The purpose of all my
writings is to make readers forget
transitory difficulties of life and
to have full joy whatever the out-
ward circumstances.

God bless the Korean people
R. Wasmann

사랑하는 나의 한국독자들에게

여러분은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죄없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미소짓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나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쓴 모든 글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을 잊고, 어떠한 외적 역경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R. 범브란트



차 례

사랑하는 나의 한국독자들에게	4
이 글을 옮기며	7
지붕 위에서 찾는 낙타	9
남들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해방	51
성공적인 크리스천 생활의 열쇠	89
주님 전 말재주가 없어요	133
디오게네스의 광통 굴리기	181
한 사람이라도 더	229
성구색인	272

이 글을 옮기며

이 책의 번역을 처음 시작할 당시, 나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결국 첫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그 길고 지루한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뱀브란트 목사의 글을 그가 의도한 바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술술 풀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났을 때, 내 마음은 날아갈 듯 흥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이 책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지금, 나는 두 딸의 엄마가 되어 있다. 몇 년전에 마무리 했다고 생각한 작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작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당혹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어느 한 문장도 제대로 내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손보면 될 줄 알고 시작한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으리라는 불안한 예감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예감은 사실로 다가왔고, 이 몇 주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채 큰 아이를 재우며, 작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병을 찾아 물리며 틈틈이 원고를 고쳤다. 힘들었던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자를 옮기는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몇 군데의 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될 뿐 아니라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조금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뱀브란트 목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낼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과 구원 얻은 크리스천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시급하고도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초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그가 잃지 않는 여유와 유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달란트인 것 같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더 살아낼 용기가 없는 사람들, 나처럼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큰 소망인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1996년 8월에

역자

지붕 위에서 찾는 낙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 90:12)

1월 1일

한 미국인이 태국으로부터 미국에 막 도착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서둘게나. 우리 뛰어서 저 버스를 잡아타세.” 일단 버스에 오르자 기분이 좋아진 미국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삼 분을 벌었네.” 그랬더니 태국 친구가 물었다. “그 삼 분을 어디에다 쓸건가?”

서구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 세대는 걷는 법을 잊어버린지 오래이다. 뛰거나 운전하는 법을 알 뿐이지 걸어 다니는 법을 모른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도 뛰신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걸어 다니셨다. 그 당시에도 마차와 말과 낙타들이 있었지만, 그 분께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셨다는 기록은 한 번 나오는데, 당나귀라는 동물은 오히려 사람의 걸음걸이보다도 더 느린 동물이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매 순간은 보석과 같은 것이나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다. 캄캄한 밤 중에 강가를 따라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돌이 들어있는 조그만 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 했다. 그 가방을 주운 그는 심심하던 차에 길을 걸으며 돌을 하나씩 꺼내 강에다 던졌다. 돌맹이가 강물 속으로 빠지면서 내는 소리가 무척 듣기 좋았던 것이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가방 속에 돌맹이가 두 개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 돌들은 다이아몬드였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아등바등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가치없는 활동이나 잡담이나 오락에 써버리고 만다. 회계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거쳐 나간 일전 일푼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70년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 온 3,700만분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1월 2일

감옥에서 풀려난 한 소련인 크리스천이 이런 편지를 썼다.

제 외모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노예 수용소의 땅 밑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여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등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그에게 대답해 주었지요. “나는 곱사등이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곱사등이 아니라 아저씨 어깨 아래에는 상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천사의 날개가 감추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상자가 열려 아저씨는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로 올라 갈 수 있 거예요.” 그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불구는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영혼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각기 지닌 그런 불구들이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결점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전 13:12).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모두 부질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은 곱사등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이나, 그 밖의 다른 시련을 안겨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비극으로만 단정짓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

들에 성령으로 가득찬 이 소련 아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담겨진 상자들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 2:20)

1월 3일

2000년 전에 아테네에 살던 포시온이라는 이름의 한 정치가가 단골 이발소에 들렀다. 그 곳의 이발사가 다른 손님을 면도하면서 아테네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시온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 손님의 면도를 마친 이발사가 포시온을 의자에 앉히며 물었다. “수염을 어떻게 다듬어 드릴까요?” 그러자 포시온은 이렇게 대답했다. “조용하게요.” 이 간단한 명대답은 종종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작품들에 인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고요에 대항하는 음모의 희생자들이다. 고요함 없이는 어떠한 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진공 청소기와 세탁기와 선풍기들이 매일같이 내는 소음들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어른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들은 말 할 것도 없다.

나는 적막한 독방에서 여러 해를 보낸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다시 풀려나 사람들의 얘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내용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있는가를 깨닫고 놀랐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주위를 조용하게 하여라. 고요를 방해하는 것들을 꺼버리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가족들에게는 일정한 시간동안 침묵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고요가 완전한 침묵인 것은 아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시련을 당하는 자들의 눈물과, 진정한 기쁨의 눈물과, 가장 진지한 사고와, 그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설교들과, 과학적인 진리들이 당신을 둘러싼 그 고요속에 녹아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 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고요한 산중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도 빛나게 될 것이다.

(천사가)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눅 1:28)

1월 4일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젊은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감옥에 되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른 동료 죄수들이 재판 결과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수태함을 알게 되었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었겠습니까? 순결한 처녀가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겠지요. 그 때에 빛나는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요. 피조물인 그녀가 창조주인 그 분을 아이로 낳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조물인 그녀가 창조주의 몸을 씻기고, 그 분은 후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그녀가 창조주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분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은 그녀 집안의 태양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닥쳐 오겠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녀의 아들인 그가 죽을 때에 그녀는 울며 십자가 아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언젠가는 자신의 어머니도 그곳으로 모시고 갈테니까 말입니다. 그 때에는 끝없는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죄수들은 그에게 훌륭한 설교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한 뒤에 계속하여 물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소. 재판이 어떻게 됐소?”

그가 대답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던 날과 같았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보석으로 빛나는 문들과 금빛으로 빛나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프를 연주하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될테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해는 죽음을 향해 내딛는 하나의 발자국이다. 기쁘고 희망차게 그 발걸음을 내딛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1월 5일


성경을 믿으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 뿐이다.

무신론자들은 위와 같은 구절을 읽고 우리를 조롱한다.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쓰여 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과거의 불확실한 어떤 때에 한낱 짐승에 불과하던 원숭이가 자신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지능이 높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떤 어린 아이도 어른의 도움 없이 말을 배우지는 못한다. 사람의 자녀도 하기 어려운 일을 원숭이가 어떻게 혼자서 해냈을까?

그러니, 다윈이 말한대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동물인 원숭이가 말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신 동물인 나귀가 말을 했든지간에, 우리는 동물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후자가 더 논리적이라는 사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이 입을 열어 한 말의 의미심장함을 한 번 새겨 보아라.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악을 끼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라고 대답할까? 동물들이 매를 맞을만한 짓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세번씩이나 때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벌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그것보다 더 약한 처벌로도 그들을 훈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흠을 잡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
이지 말고 그것에 담겨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 10:26)


1월 6일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기로 했다는 말씀을 천사들에게 하셨을 때,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던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을거야.” 그 말을 들은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타락할 수 있는 힘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 그리하여 악마는 일부터 타락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언젠가 자신이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떠오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않았다. 그의 타락은 고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대목에서, 루시퍼는 타락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는 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눅 7: 47)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악마는 만약 자신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초기의 크리스천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부과하려고 애썼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갈 3: 1). 악마는 오늘날에도 크리스천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붙잡지도 말아라. 맞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골 2: 21, 22)와 같은 교리들로 그들을 얽어 매려고 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 5: 1)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롬 6: 1). 최악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 하였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눅 22 : 3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 6:2)

1월 7일

오래된 유대의 세퍼 이에라밀이라는 책에 보면 구약성서의 요셉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집트의 내로라 하는 귀부인들이 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하여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 보디발 부인은 손님들에게 각각 사과 한 개와 사과를 깎을 칼을 한 자루씩 주었다.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에 반한 귀부인들은 모두 정신이 팔려 손가락을 칼에 베이고 말았다. 그러자 보디발 부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를 한 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게되는 내가 어찌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 부인도 매력적인 여인일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와 비슷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를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는 말자.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진 욕망 가운데에서 성욕이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에 굴복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자. 우리가 강한 유혹을 받을 때에나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에라도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이것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있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일 2:1). 유혹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승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씨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마 13 : 4)

1월 8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새들이 - 즉 악령들이 - 그것을 쪼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구약 성서의 요셉은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바로의 빵 굽는 시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어”(창 40 : 16, 17).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시종장이 나무에 달려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어떤 사람이 돕나의 한 고명한 랍비에게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런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했다.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는 빵이 담긴 바구니를 이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소. 새들이 그 빵이 진짜 빵인 줄 알고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날아들었소. 그것을 본 어떤 이가 ‘참 훌륭한 화가로구나! 빵을 얼마나 실제와 똑같이 그렸길래 저렇게 새들이 날아드는 것일까? 그러나 실상 그 화가는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이 못 되었소. 그가 만약 그림 속의 사람을 완벽하게 그렸다면, 새들이 무서워서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오. 마찬가지로 요셉도 새들이 그 시종장의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빵을 쪼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안 것이오.”

악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허수아비로부터는 빼앗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크리스천들로부터는 빼앗을 수 없다. 허수아비들은 악령들을 겁주지 못한다. 당신의 신앙이 진정 살아있도록 주의하라.

...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렘 6:16)

1월 9일

사냥꾼이 자신의 개에게 소리쳤다. “네로, 가서 찾아 와!” 네로는 눈을 들어 자기의 주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요.”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인 밀교에 빠져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옛 길이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의로운 아벨과 다윗 왕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구원했던 그 종교가 우리에게도 족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시키는대로 해 봤는데도 부족하더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그 사람은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나은 구원의 방법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분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다가 싫증이 난 어느 관광객이 그 곳을 지키는 경비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생각에는 이 그림들이 그리 탁월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경비원이 대답했다. “우리가 이 그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들이 우리를 판단하죠.”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진리임이 판명되었고 사람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한다. 언젠가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철학자들과 진리를 설파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뻗어 있는 십자가의 잣대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의 가르침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 -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일컫고 있다(요 30 : 8, 신 13 : 13) - 의 악한 사상을 좇든지간에,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자. 영생을 위해.

마리아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았더라

(요 20:11,12)

1월 10일

무덤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그들은 그 무덤이 예수의 몸을 감고 있던 천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 속을 들여다 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예수의 몸이 누여졌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두 천사를 발견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고 점차 파괴되어 가는 기독교 문화만을 발견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넘어 그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해낸다.

인간이 어떻게 하여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는 것일까? 제자들은 예수를 섬기기에 매우 바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 가만히 앉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눅 10:39).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분명히 모세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그 분의 입으로부터 신앙을 지킨 많은 성자들과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친숙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본보기에 관하여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전 10:11)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당신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1)

1월 11일

두 친구가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속으로 빠졌다.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살려줘! 살려줘! 나는 수영을 못해!”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소리칠 필요까진 없지 않나. 나 역시도 수영을 할 줄 모르지만, 그렇다고 자네같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진 않겠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성격이 나쁘다고 혹은 무례하다고 그들을 형편없이 평가하곤 한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둘러싼 그 깊은 물과 그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께서는 특정한 몇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다(눅 11:40).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이 도발적인 말을 한 마디라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다만 예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혼자서 조용히 의아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것이 우리였다고 해도 궁금히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비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부른 집주인과 그의 친구들 모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일컬으시며 모욕을 주셨다. 그 만찬에 참석했던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눅 11:37~52). 오늘날 이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참아 넘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한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도 비판했을지 모른다.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 자신의 민족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깊은 슬픔의 강물을 우리는 지나가 보았는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최소한 1마일이라도 걸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월 12일

이브라힘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헤맸으나 그 분을 끝내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느날 밤에 그는 누군가 무거운 신발을 신고 궁전의 지붕 위를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올라갔던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과 영적인 관심을 같이 하는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보고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지붕 위에서 뭘하고 있나?” “낙타를 찾고 있습니다.”

“궁전의 지붕 위에서 낙타를 찾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왕의 놀라움 섞인 말에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이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무를 맡겨 주신다. 왕이든 돈많은 사업가든, 중류층의 가정주부든, 임금이 낮은 노동자이건 간에, 우리는 겸손히, 기쁨과 사랑을 갖고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구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명성과 영예와 부가 따르는 직위들이 우리를 속박시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도 한다. 크리스천이 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자신이 백성들의 종으로 여길 때 뿐이다.

사회적인 명성과 물질적 소유물은 쉽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다. 주님께 서는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 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19~21).

가장 높은 지위에 계셨던 예수님도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빌 2 : 7, 8).” 우리도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1월 13일

무신론자인 구두장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천지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그럼 천지 전체를 차지하는 게 신발 한 켤레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쉽겠네요. 이 신발들은 열심히 일해야 얻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천지가 물질 진화의 우연한 결과라고 한다면 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책의 제작을 자연에 그냥 맡겨 두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것일까? 무신론자들이 떠내는 책들은 결국 모든 조직적인 일 뒤에는 지능을 가진 존재의 의도적인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분을 사모하라. 그리고 쓸모 없는 공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는 질문을 받은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분은 숲에 앉아서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고 계셨지. 그것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을 때리시려고 말이야.”

이런 재치있는 대답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천지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요 17:24).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을 다 채울 수도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 밖에 다른 일도 하셨다.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그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자들, 나그네들을 재워주는 사람들,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왕국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일들에 힘쓰라. 마치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던”(행 10:38) 것처럼.

…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욘 1:21)

1월 14일

어린 아기가 잠든 요람 곁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울부짖기를, “죽음아! 네게 내 아들을 줄 수 없다.”

천사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나는 아기를 데려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주겠소.”

그는 그녀에게 아주 어여쁜 소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거절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활력에 넘치는 청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또 다시 거절했다. 그는 아주 근면해 보이는 성인 남자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제안에 계속해서 “안돼요, 안돼”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이 아기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오로지 내 어린 것을 갖고 싶어요.”

천사는 떠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그 아기를 잃어야 했다. 그는 자라 소년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또 그 소년을 잃어야 했다. 그는 다시 자라 청년이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갔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죽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잃어버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매일 매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봉오리가 없어지고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애벌레가 죽고 그것이 나비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당신이 있는 곳에는 해가 졌을지라도 그 해는 또 다시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천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1월 15일

어느 크리스천 스승이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데리고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다. 좁은 오솔길에 이르러 그 제자는 스승보다 몇 발자국 앞서 걷게 되었다. 산토끼 하나가 그로부터 도망쳤다. 스승이 그에게

“왜 저 산토끼가 도망을 쳤는가?”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살생하는 본능을 네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눈 앞에서 적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 그러나 가장 악랄한 적들조차 자신들이 사랑으로 환영받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자신있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소련 군대는 루마니아를 점령했다. 루마니아에 주둔해 있던 독일 군인들의 대부분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누구나 독일 군인을 보는 즉시 사살해도 된다는 때였다. 어느날 밤, 한 무리의 독일 군인들이 한 수용소에서 다른 곳으로 수송되던 도중에 그들 중 두 명이 어둠을 틈타 도망쳤다. 그러나 독일 군복을 입은 채로는 그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복음주의 루터 교회”라고 새겨진 건물을 본 순간, 그들은 루마니아의 루터파 교인들이 대부분 독일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들을 맞이한 목사는 그들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유대인이며 동시에 크리스천입니다. 제 가족들은 모두 독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죄값을 당신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제 교회에 피난을 오신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자 독일 군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니 이제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들은 피난처를 제대로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롬 5:10). 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여 도망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1월 16일

나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소련 군대가 동유럽을 침공했을 때, 어느 소련 장교 하나가 화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화가는 그 소련인 장교의 풍부한 얼굴 표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며 그를 자신의 모델로 썼다. 그 화가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앉아있는 동안 그 소련 장교는 그 방에 걸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을 보고 그것이 무엇 이냐고 물었다. 화가는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었으나 그 소련 장교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만약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고, 모든 인류를 영원토록 구원하길 원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 내려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었을 것이요.”

“제발 그림 그리는데 자꾸 움직이지 마시오”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그렇지 않소. 그는 풀려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소. 그것이 바로 그분의 할 일이었던 것이요. 그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쯤하고 일을 계속합시다.”

그러나 소련 장교는 입을 다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 저토록 희생을 하신 분이라면 당신은 그 분을 열렬하게 사랑하겠군요.” 화가는 붓을 내려 놓았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여러 번 그린 경험이 있었으나 예수에 대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은 없이 한 일들이었다. 그의 모델이었던 그 소련 장교가 그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1월 17일

위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성경의 해석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랍비 라시는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숙고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 왜 안된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추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구절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가 되어 오셨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라시는 또한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찢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슥 12 : 10)라는 구절에 주석을 붙이면서 “이 구절이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기는 하나, 우리는 이 구절을 오히려 에제키아 왕에게 적용하여 기독교도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우리는 수백만이나 되는 무죄한 사람들을 죽인 이름만의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진실되며 고대 유대의 예언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께 인도하자.

1월 18일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는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왜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났을까? 그리스도께서는 파도가 잠잠할 때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한 번은 제자들이 큰 폭풍우를 만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큰 파도가 그들의 배 안으로 휩쓸려 들어와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찼다”(막 4 : 37). 그들의 곤경에 처한 울부짖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안심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만약 물로 가득찬 배가 있다고 하면, 그 배는 바다가 고요하거나 사나운 바람에 의해 요동치든지 가라앉게 마련이다.

기적은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예수라는 배가 2000년 동안이나 항해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때로는 좋은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시절도 겪으면서, 이교와 여러 분파들과 또 많은 죄들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항해를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배는 유체역학(流體力學)의 법칙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에 가라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로 가득찬 채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많은 결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다.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는 말라.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예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위는 천사가 들어 옮겼는데 그 이유는 “그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막 16 : 4). 당신의 짐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무거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라는 훈계는 성경에 366번 나타난다. 일년 중의 매일 매일을 위해 한 번씩, 그리고 윤년인 경우를 대비해서 덤으로 하나까지.

달린 행자 중 하나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39,42,43)

1월 19일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레닌은 한 사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우리의 방법은 또다른 억압을 낳았으며 끔찍한 대학살을 초래하였소. 나는 무수한 희생자들이 흘린 피의 바다에 잠겨야만할 고통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오.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으나 소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 프란시스가 열 명쯤 필요했었을 것이오.”

레닌은 기독교의 영향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정교회의 가풍이라는 사제를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던 사람이다.

노카 아이 릴리자(Nauka I Religia)라는 소련 연방의 무신론 잡지는 1973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레닌은 동료 공산주의자가 수집을 해 놓은 기독교 신도들의 글, 특히 오래된 사본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는 특히 그들의 오래된 철학적인 글들에 관심이 많았다. 한 번은 그들의 사본들을 주의깊게 읽고 난 후에 ‘정말 흥미로운 일인걸! 이것들이 전부 다 학식도 별로 없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니! 이렇게 완벽한 책들이!’ 라고 외쳤다.”

그 공산주의 잡지는 이 대목에서 그 기사를 끝내고 있다. 그 이야기 뒤에 더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누가 알랴. 혹시 임종시에 그가 회개라도 한 것이 아닐까. 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곳이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개종한 기독교도 대량 학살자 - 블라드미르 레닌 - 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주 사악한 자인가?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인가?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

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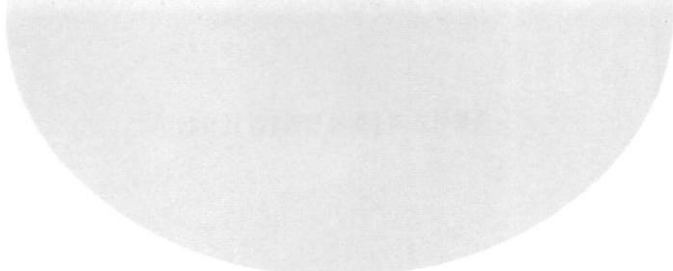
우리는 종종, 실제로 혹은 사진으로 말들이 경주나 서커스 같은 데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말의 발에 있는 뼈들은 약하다는 사실에 한 번 생각을 돌려보자. 이 짐승은 뛰어오르라고 만들어진 동물이 아닌 것이다. 아주 심하게 매를 맞은 후에야 이 짐승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더 최근에는, 말들에게 전기 쇼크와 같은 자극을 준다는 말이 있다. 서커스 조련사들의 채찍에는 아주 작은 전기 배터리들이 박혀 있다. 답을 뛰어 넘는 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의 다리를 쇠로 만든 채찍으로 친다. 그 순간적인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높이 뛰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훈련방법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동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라는 구조물에 대해 경탄을 하지 않는다. 모세는 그것들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생각은 다만 그 피라미드들을 세운 노예들의 비참함에 쏠려 있었을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무척 배를 굶는다. 일 주일에 빵 한 조각 정도면 누구나 애타게 누려보고 싶은 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크리스천 죄수들은 가끔 그들의 철창이 씌워진 창문턱을 믿고 찾아오는 참새들이나 제비들을 위해 빵을 조금씩 모은다. 새들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감방과 없는 감방의 철창을 구분할 줄 안다.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힘없는 짐승들에 대한 잔혹행위나 무자비한 행동들을 금하고 있다(신 22 : 4). 예수께서도 새들에 관하여 또 다른 동물들에 관하여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다(눅 14 : 5). 그 분은 자신이 양이나, 사자나, 혹은 어린 병아리들을 거느린 암탉에 비유되는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분을 열심히 흉내내도록 하자. 동료 인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또한 우리는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1월 21일

결다 포스터 부인은 어느 날 자기 이웃의 아기를 돌보다가 불행하게도 그 아기가 부인의 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 갓난아기는 큰 화병의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게 되었고 그 결과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결국 그 아기는 평생동안 마비가 된 몸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그 아기의 엄마는 포스터 부인의 손가락이 찢었으면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포스터 부인은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금의 보상금을 내겠다고 제의했으나 아기의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하고는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었다 당신의 손가락이나 찢어라 하고.

포스터 부인은 갑자기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처음에는 하얗게 변하더니 얼마 후에는 퍼렇게 변했다. 그것은 괴사(壞死)라는 병으로, 일명 레이노병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정신적인 쇼크가 가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 이미 불안정한 신경질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것이다. 결국 그녀의 손가락들은 절단되어야만 했다.

내가 독방에 홀로 갇혀있을 때 내 옆 방에 있던 사람 하나가 벽을 통해 모르스 부호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내가 여섯 살이었을 때, 나는 그가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 아이 하나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는 나에게 저주를 퍼붓기를 내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후로 50년이 지난 후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란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다가 체포가 되었지요.” 저주가 실현된 것이다. 나는 이밖에도 비슷한 경우들을 여러개 알고 있다.

나는 경우에 따라 저주들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축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줄 일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 9:27)

1월 22일

일반적인 사업들이 경기를 따라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황을 겪기도 하지만 장의업만큼 확실한 장사는 없는 것 같다. 당신이 평생 보석상이나 극장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죽는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줄리어스 시저는 환멸을 맛보며 죽어갔다. 그의 양아들이 그를 죽인 살인자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 위대했던 시저가 남긴 최후의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하는 것이었다. 피테는 "빛을, 빛을 더..."라고 말했다. 죽기 전에는 그가 구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마지막 요구는 "삼페인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이었으며 거기에 덧붙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아왔던 대로 죽나니, 분에 넘치는 일ियो." 나폴레옹은 정신착란 상태에서 죽었는데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한다. "자! 프랑스 군대여, 진격 앞으로!" 고명한 수학자인 래그니는 임종시에 그의 침대에 누워 서른여섯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더니 그 곳에 와있던 친구 하나가 그에게 "자네 아직도 67의 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하고 묻자 이 수학자는 웃으며 "4489이지."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카알라 일은 "이것이 죽음이나? 이것 참 괜찮군"이라고 말했다. 독일 시인인 하이네의 마지막 말은 "꽃들, 꽃들, 아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하는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그 꽃들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작가인 라벨라이는 죽기전에 이렇게 말했다. "막을 내리도록 하시오. 희극은 끝났소."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눅 23 : 46)라는 것이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만약 죽는 그 순간에 내게 의식이 있다면 "예수님 그리고 빈지아"라고 부르며 죽기로 결심했다. (빈지아는 내가 아내를 부르는 이름이다.) 크리스천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또 죽음의 반대편에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

1월 23일

박제사가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잡았다. 그가 그 새를 죽이려고 칼을 들자 그 새는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겐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당신에게 세 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충고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매우 유용한 것들이지요” 하면서 비는 것이었다. 박제사는 새가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데에 매우 놀라면서 만약에 들어봐서 그 충고들이 괜찮은 것들이라고 판단이 서면 풀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먼저, 누가 당신에게 말을 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로는, 당신이 이미 한 선한 일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박제사는 그 충고에 담겨있는 지혜를 알아보고는 새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새는 그리 멀지 않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더니 그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멍청아, 왜 나를 놓아주었니? 내 뱃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만약 네가 내 배를 갈랐더라면 평생동안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을텐데.”

이 말을 들은 박제사는 새를 놓아 준 일을 후회하면서 새를 다시 잡으려고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새가 앉았던 가지에 이르자 새는 어느새 더 높은 가지로 날아가 앉았고, 그가 또 다시 나무를 올라 그 가지에 이르자 새는 그보다 먼저 더 높은 가지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마침내 그 새를 쫓던 중에 그는 발을 헛디더 나무에서 떨어져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졌다.

그가 신음하면서 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새가 가까이 날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한 세 가지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이 지혜롭다고 칭송까지 했소. 그런데 왜 당신은 단 5분 동안이라도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소?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어리석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이오. 어째서 당신은 새의 뱃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으리라는 말을 믿었소? 또 나는 당신에게 선행을 후회하지 말라

는 말도 했소.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놓아줘놓고 그 일을 후회한거요? 그리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고도 말했소. 당신은 사람이 맨손으로 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소? 당신네 인간들은 라디오라는 것을 발명해서 한 나라에서 하는 연설을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당신네 자신들의 입으로 한 말을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장치, 또 머릿속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게 하는 그러한 장치는 아직도 고안해내지 못했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저 듣거나 읽는 일에 그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자.

1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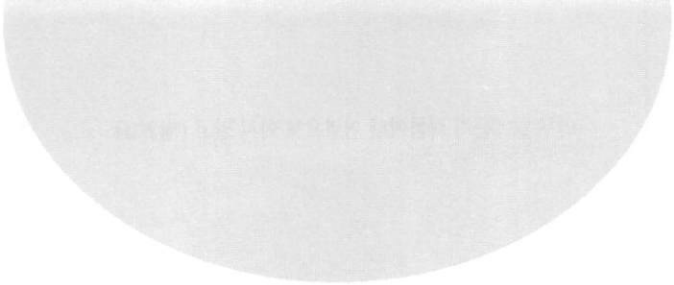
다윈이 주장하는 대로 동물원이 아니라, 낙원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꽤 유쾌한 일이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 2:7). 우리의 몸이 흙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세퍼 이에라밀이라는 아주 오래된 유대 책에는 조금 과장을 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 사람을 지을 진흙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땅은 나중에 인간으로 인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될 줄을 미리 알고 흙을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땅이 그렇게 거절을 했던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폭탄이나 고엽제나 공해 등에 의해 신음하는 땅의 고통을 생각만해보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땅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창 1:27).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을 인공적이고 표준화되어있고 물질적이며 미리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어 늘 바뀔 수 밖에 없는 기계의 형상으로 재창조한다. 현대의 매스 미디어는 또한 인간을 그들의 이미지대로 재창조하여 그를 더 낮은 수준의 존재로 하락시키고 그의 머리 속에는 폭력과 욕심만을 채워 넣는다. 현대의 대학들은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유혹하며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 보다는 지식의 나무를 선호하도록 이끈다. 추상적인 이론들과 온갖 이념들이 생명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불타는 칼을 지나 다시 낙원에 들어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모험으로 부르신다. 그 분은, 당신이 하나님
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

아무 일에도 지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2:3)

1월 25일

소시는 친구와 함께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소시가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하고 말하자 친구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는가?” 그러자 소시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네는 내가 아니네. 그런데 어찌 자네는 내가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안단 말인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보면 흔히 서로 다투게 되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농부 둘이 어느 날 저녁에 통나무 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친구가 “나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만큼이나 넓은 초원을 갖고 싶네”라고 하자 그 옆의 친구가 “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별들만큼이나 많은 양떼를 갖고 싶다네”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먼저 이야기를 꺼낸 친구가 물었다. “어디에다 그 많은 양떼를 놓아 기를 걱정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하고 친구가 대답했다. “자네의 그 넓은 목장에 풀어 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반대했다. “나는 자네의 양떼가 내 목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네.”

한 친구에게는 목장이 없었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역시 양떼가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도 싸웠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가?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가진 의견이 당신의 의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오늘의 그의 경험을 내일쯤 당신이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되길 원하셨다. 마치 그 분과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삼하 14:19)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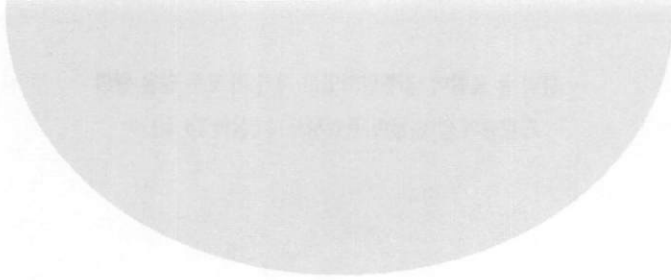
어느날 밤에 나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이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솔제니친의 파티에 참석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굴라그 알키펠라고 (Gulag Archipelago)라는 책을 큰 목소리로 읽고 있었다. 나는 그가 온갖 고통들을 묘사한 것을 듣고 아주 슬프게 울었다. 솔제니친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이러한 잔혹한 참상들을 치료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나는 많은 범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약점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떤 범죄자들은 그들의 아내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이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딸인 스펜트라나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한 죄수를 풀어주게 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옛날 왕들은 적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 두었는데 그것은 상대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두고 있는 한 적이 자신의 왕국을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개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계획해 놓았던 범죄를 그만두는 범죄자들도 있다. 끔찍한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에는 찾아 오는 제비들을 먹이려고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빵조각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의 남편을 가로채 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남다를 수 있으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남편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윗 왕의 참모였던 요압 장군은 왕이 백성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신념에 호소하고자 한 여인을 이용하여 왕에게 살인자인 그녀의 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게 하는 연극을 꾸민 것이다. 기대했던 대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다시 왕에게 형평의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역시 대죄를 범한 왕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당신에 대해, 혹은 당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 당신의 사랑의 연구대상으로 삼아보라.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연스런 감정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신자였던 자신의 어머니 성 헬렌의 영향을 입어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 교회를 돕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크리스천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4)

1월 27일

나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다음의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저는 페루에 있는 한 게릴라 캠프로부터 이 편지를 띄웁니다. 깨어 있는 채 그냥 누워있습니다. 잠은 완전히 달아나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너무나 슬프고 의로워서 기분이 좀 나아질까 하고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복되는 소리들이었고 내 마음속에 증오만 가득 채워넣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마르크스의 언어로 된 복음’이라는 당신의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예수라는 한 위대한 스승이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 가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껏 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아주 무자비한 대지주의 희생물이셨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군요. 제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때가 당신의 방송을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방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책 중의 책인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그 후 게릴라들을 떠나 교회로 돌아왔다. 이 년 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옛날의 동지들을 찾아갔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처형당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수께서는 독약과 같은 감정인 증오를 없애므로 이 영혼을 단번에 치유하셨다. 당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비로소 그때서야 당신도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 6: 34)

1월 28일

클래스고우발 런던행 완행 열차로 여행 중인 스코틀랜드 사람이 처음 역까지만 가는 표를 사서 탔다. 처음 역에 이르자 그 곳에서 그는 다시 두 번째 역까지의 표를 끊었고, 또 두 번째 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역까지 가는 차표를 구입하는 식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여행 도중에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런던까지 도착하지 못할 지도 모르잖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기차표값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걱정이나 불안을 아끼는 것은 어떨까? 어찌하여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일까지 미리 걱정을 하는가? 그러한 걱정들이 영원히 당신을 찾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도 걱정을 하던 순간에 미처 이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기차표를 살 때는 목적지까지의 표를 한꺼번에 사라.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두통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당신이 걱정으로 두통을 앓는 일은 죄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예수 한 분에게만 주어진 머리의 역할을 횡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저녁 창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것입니까? 또, 이 교회가 제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것입니까? 모두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이니, 제발 말아서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해가 지고 나면 낮은 깨끗해진다.” 저녁이 오면 지나간 모든 문제와 실패한 일들을 예수께 맡겨라. 그리고 내일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폭 잠을 자라. 내일의 걱정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그것들은 밤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걱정 없는 즐거운 낮과 즐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 2:2)

1월 29일

유명한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작가인 무스리 알딘 사이디가 쓴 쿨리스탄(장미의 화원)이라는 책에는 맏슈눈과 그의 연인 라일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라일라의 아버지가 그녀를 딴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슬픈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사랑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던 맏슈눈은 - 그의 이름이 원래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 황야로 도망쳐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얼마 후 그 나라의 왕이 그를 궁전으로 데려 오게 하여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러자 맏슈눈은 “만약 왕께서 라일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신다면 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은 라일라를 그의 앞으로 데려 오라는 명을 내렸다.

그녀는 다른 여제들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으로 햇빛에 타고 가난으로 몸은 비쩍 말라 오히려 못생긴 축에 드는 여자였다. 왕의 궁전에 있는 천한 노예도 그녀보다는 더 아름다울 듯했다. 왕은 왜 그녀가 그토록 사랑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맏슈눈이 왕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라일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나 맏슈눈의 눈을 통해 그녀를 보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펠레야 뿔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처음의 것을 꿰뚫어 본 사람만이 두 번째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요일 4:19) 우리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안목을 한 번 믿어 보기로 하자. 그 분은 자신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따름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도

친척 아버 집을 떠나... (창 12:1)

1월 30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레 레 하”라는 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라” 혹은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눔 체르노블러 자탈이라는 랍비는 다음과 같이 윗 구절을 설명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샘물처럼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18장 1절에 기록된 바, 할례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절대로 그의 대접을 받지 않고 지나치는 나그네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그리 거창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나그네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그의 마음이 완벽해지기까지 그는 나그네의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해 보아야만 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경험을 겪어야만 했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었다. “네가 돌아올 때에는 (주를 부인하는 죄에 빠진 후에), 네 형제를 굳 세게 하여라” (눅 22:32). 당신도 스스로 비겁함의 쓴 맛을 경험해 본 뒤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더러 “너 자신을 위해 가라 - 미래의 인류 재판장으로서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서 인간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너 자신이 사람의 일생을 한 번 경험해 보아라. 인간의 경험에 의해 신성(神性)은 더욱 풍요로와질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신 대제



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히 4:15).

당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쓰고 단 경험들을 다 받아들여라. 그 모든 경험들은 당신이 이웃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들이다.

1월 31일

다른 사람들의 일생에 햇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그 빛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행 10 : 38).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께서 배반을 당한 날 밤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으셨던 것이다(마 26 : 30 참조).

사람들에게서 미소를 바라지 말아라. 만약 당신이 미소가 없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 당신의 미소를 주어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품고 계셨던 큰 슬픔에 대해 그들로부터 동정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을 위로해 주셨다.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 그는 당신과는 다른 복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 걷게 마련이다. 그에게 더 아름다운 당신의 멜로디를 들려주어라. 그 멜로디가 그의 발걸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몇 명의 크리스천들이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을 가리켜 아주 신앙이 좋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아직 좀 약하다거나, 그밖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신자들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온 나이 많은 선교사 하나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람들을 분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그들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김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기쁘게 하고, 아직 약한 자에겐 힘이 되며, 아직 믿지 않은 자를 회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햇빛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신의 햇빛을 나누어 주어라.

남들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해방



2월 1일

유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어느날 밤 깊은 묵상에 잠겨 있던 아브라함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묵상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만취한 술주정뱅이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어서 이 사람을 쫓아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을 즐겨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묵상을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인내하며 보살피 주시고, 태양으로 하여금 이런 술주정뱅이의 머리 위도 비추게 하시며, 그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거절한단 말인가? 나는 그를 참고 보살피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내 죄를 참아주시지 않는가.'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술주정뱅이를 씻겨주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의 우리보다 영적인 가르침을 덜 받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

한 무리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형제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암모나 주교에게 찾아가 범죄 중에 있는 그 형제를 단죄하여 그를 교회로부터 추방하여 교회가 더 이상 그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그 형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간음죄를 범한 그 사람은 얼른 그 여자를 방 안에 있던 커다란 빈 상자에 숨기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을 눈치 챈 사람은 주교 한 사람 뿐이었다.

그는 그 높은 상자 위에 걸터앉아 같이 간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암모나 주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의심과 이 형편 없는 태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는 죄의 멍에 걸린 그 집주인에게 다시 말하였다. “사탄을 조심하십시오!” 아마나 주교는 자신도 전에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죄에 빠진 그 형제를 동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함과 이해로써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사 53:7).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다. 그 분은 그냥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남들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우리는 모든 시련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적인 실패와 약점들을 견디어내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 23)

2월 2일

맥데버그의 성 메크틸드는 언젠가 “사랑에는 덕목(德目)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랑에는 어떤 고정된 규칙도 없고, 어떤 불변의 행동 원칙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권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었다.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행동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임신한 여인들은 처형을 당한다. 자기 자신도 포로였던 어느 크리스천 여의사가 다른 수백명의 포로들에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낙태수술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녀가 태아들을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녀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엄마도 같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한 독일 여인이 소련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에 있는 노예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그곳에 잡혀간 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심한 병을 앓거나 임신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그녀는 세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잡혀왔었는데 그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영국군에 의해 잡혀간 상황이었다. 그녀는 간수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임신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려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데 동의 했다.

공산주의 국가나 회교국에 가는 선교단들은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독교 서적들을 밀반입해 들어간다. 사랑을 금할 법은 없는 것이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사랑이 법 안에서 행해지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

2월 3일

마호메트의 사위로 당연히 그의 후계자가 되었을 알리는 자신의 아들 후세인과 마찬가지로 처형당했다. 신학 이론에 있어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에 가까운 시아파 회교도들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후세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당연한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후세인을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시아파 교도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후세인의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케르벨라라는 책에는 “후세인의 죽음은 곧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알리를 향한 사랑은 마치 불이 마른 장작을 다 태워버리듯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다”라고 쓰여 있다. 그들은 또한 알리의 부인인 파티마도 경배한다. 그들은 그녀가 “여성의 본성을 입은 모든 거룩한 것의 화신이며,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상이며, 천국의 여왕”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어느 세대에나 신성(神性)이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태어난 “보이지 않는 이만(Iman)”이 있어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는다.

알리의 열 두번째 자손인 모하메트 이반 알-하산은 네 살이라는 나이에 사라져버렸는데, 회교도들은 그가 하늘로 들리워져 올라갔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구원자인 마디(Mahdi)로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회교에서, 다른 많은 잘못된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막연하게나마 비슷한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아 더듬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막연한 예언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는 빛이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회교국들이 기독교의 전도 사업을 금하고 있다. 회교국들의 회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2월 4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암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업상의 실패를 경험하는 등 인생의 어떤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지 6개월 내지 18개월 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유진 펜더 그라스라는 미국의 암 전문가였다. 그러나 영혼의 슬픔이 이러한 질병을 낳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의 평안함과 희망은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세포들은 증가할 수 있지만 백혈구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결단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앓아눕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난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주체가 되어라.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다.

나는 한때 양쪽 폐 결핵과 척추와 뼈의 결핵과 장의 결핵과, 황달과, 당뇨병, 심장병을 한꺼번에 앓은 적이 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은 굶주림과 신선한 공기와 햇빛의 부족과 매맞는일이 소위 '약'으로 통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꼭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기도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지나간 과거의 많은 죄들을 다 고백하고나자 내 영혼이 짐을 벗은 것 같이 홀가분해짐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신 것이었다.

언젠가 당신은 죽어야 한다. 당신이 현재 앓고 있는 병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들은 예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기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적을 한 번 믿어 보아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평화로운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골 13:1)

2월 5일

러시아의 혁명을 주도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의 회원 스물 이홉명 중에서, 세명은 개인적인 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두명은 자살을 했으며, 열 다섯명은 같은 당원들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이 일로 스탈린은 죽은 후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 만약 독재 군주제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이 혁명가들은 혁명의 결과로 곧 자신들의 동료들에 의한 죽음이고 또한 그 혁명으로 인하여 또다시 건설될 독재주의가 혁명 당시 그들의 적들 뿐만 아니라 그 혁명을 성공케 했던 자신들 까지도 박해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기존의 권력에 대항하는 혁명가로서의 길을 여전히 걸어 갔을까?

트루스키는 만약 혁명의 결과로 스탈린이 권력의 중심부에 떠오를 것을 알았더라면 혁명가가 되었을까? 스탈린은 트루스키의 두 자녀 외에도 많은 친척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였고 마침내는 트루스키를 죽이려고 도끼를 든 부하를 보냈다.

러시아 전제주의의 체제에는 많은 불공정한 점들이 있었지만 혁명가들이나 대중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혁명은 싸움의 대가만큼 가치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혁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마 5:39)는 예수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유대 국가는 서기 71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을 우리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평화적인 개혁을 위하여 힘을 쓰게 되기를 함께 구하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의 실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 3:5)

2월 6일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이 같은 것처럼 보인다. 주 예수는 다소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방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도 똑같은 약속을 사람에게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만약에 뱀이 당신의 눈을 열면 당신의 눈은 완전히 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들의 눈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감을 수도 있다. 마치 섶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드린 것처럼,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뱀이 열어 준 사람들의 눈은 모든 미래의 위협과 근심 걱정으로 환하게 열려 있다. 그들의 눈은 성경이 갖는 복잡함과 신앙인이라면 미해결 상태로 놔두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혼란하고 산만해진다.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맡긴 사람들은 고난중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눈을 감을 수 있다. 내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앓으시고, 주무시지도 앓으신다”(시 121 : 4).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붙”(고전 13 : 12)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탄이 당신의 안과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를 거부하라. 당신의 시력을 책임질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참새)…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29)

2월 7일

왕 민 - 타오라는 중국인 목사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일본의 통치하에서 목숨을 내건 모험을 했었다. 다른 여러 가지 일 외에도 그는 일본 왕의 사진을 교회 안에 걸기를 거부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사진도 걸기를 거부했는데, 그의 변명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도 없다는 것이었다.

1955년에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을 거부한 죄로 체포되었다. 2년 동안 그는 술한 세뇌 작업을 당했다. 고문으로 정신이상을 일으킨 그는, '제국주의자'로서 그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한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석방되었다.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평화가 없었다. 그는 "나는 베드로요, 나는 유다요" 하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진술을 취소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로 인해 그와 그의 부인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썼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소중해요." 그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때 기독교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했었다. 참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 타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단 11:35).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끄는 타락들은 겸손과 지혜와 힘의 근원이며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롬 8:28).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 "그들의 죄 조차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눅 18:25)

2월 8일

중공의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초우 엔 - 라이는 이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예수가 이 부자를 편히 돌아가게 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한다. 예수가 그를 체포해 그의 전 재산을 압수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일이 그 즉시 낙원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동구권과 일부 서방 국가들의 좌익 사상을 가진 성직자 중에도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왜 예수께서 그 청년 지도자의 재산을 압수했어야 된다는 말인가? 때때로 부자는 곧 비열한 사람인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은 그 부자로 하여금 배고픈 세상에서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한 그의 비열함마저도 가져 가는 수가 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재산을 압수하셨더라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 랍비로부터 저 랍비에게로 영생을 얻는 길을 구하며 다니게 했던 그의 영혼의 불안함마저 거두어 가셨을 것이다.

어떤 부자건 아무리 늦어도 그가 죽을 때에는 자신의 부와 헤어져야 해야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 : 36)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좁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하는”(마 6 : 20) 하늘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9)

2월 9일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위의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구절을 마치 남의 집에 막 침입하려는 도둑을 잡은 경찰이 그렇게 하듯 읽었다. 그러나 좋은 설교자는 마치 마음이 아파 우는 아버지처럼 읽는다. 우리는 만약 아담이 슬픈 하나님-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 슬퍼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 불가사의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망. 아담 역시 타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큰 희망을 걸고 계셨던 아담과의 교제를 잃으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질문을 가인에게 던지시게 된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창 4:9)

하나님의 크신 슬픔을 제대로 음성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별거벗고 죄에 빠진 자신의 몸을 덤불 속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워혀져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미 구세주, 즉 여자의 자손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상처입을 줄 알고도 보내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었다. 이 질문들은 가인과 같은 범죄자조차도 특별한 보호 아래 두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란 말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롬 5:20)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자신있게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친절함을 믿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2월 10일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당신은 괴로워 할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꾸짖지 말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중독자라고 해도 자신을 힐책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술 때문에 많은 돈을 낭비했고, 또 주류산업의 범죄적인 음모 때문에 당신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이나 어머니나 자녀들의 얼마나 많은 웃음이,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이 당신 집에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감옥과 정신 병원에 한번 들러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지를 보고 당신은 아마 놀랄 것이다. 술을 절제하기 때문에 혹은 아주 금주를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구토를 즐기는가? 또한 아이들이 술 취한 당신을 경멸할 때의 심정이 어떠한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싶은가? 도대체 어떤 사업 감각이 당신 자신은 빈털털이로 만들면서 술집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게 하는가? 알코올이 당신으로 하여금 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그것도 아니면 당신은 정신이 말짱할 때보다 술 취했을 때 생각을 더 잘 하게 되는가?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잠 20 : 1).

만약 당신이 쓰러져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눈에서는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렘 14 : 17)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분은 당신을 아끼신다. 그 분에게는 치료약이 있다.

당신에겐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까이에 있다. 알코올과는 달리, 그것이 주는 행복감과 통쾌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들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행 2 : 13).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든 참 환희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2월 11일

모스크바에 있는 한 극장에서 “털옷을 입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연극이 초연되던 날, 극장 안은 많은 관객으로 붐볐다.

주연을 맡은 알렉산더 로스토체프라는 배우는 소련 상류사회의 일원이었으며 플루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무대 위에는 제단을 모방한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포도주와 맥주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었다. 가득찬 술잔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가짜 교회 안에서 살진 ‘성직자’들이 술취한 목소리로 불경스러운 주문들을 외며 예배를 인도했고 ‘수녀’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카드 놀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온갖 추잡한 농담들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긴 걸옷을 걸친 로스토체프가 그리스도처럼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는 신약성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산상수훈 중에서 두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 역겨운 듯 그 성경을 내던지며 이렇게 소리치기로 되어 있었다. “내 털옷과 모자를 달라. 나는 단순한 프롤레타리아의 삶이 더 좋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배우가 두 구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 5:5), 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그에게 멈추라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사인을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로스토체프는 예수가 하신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정교회 방식대로 성호를 긋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눅 23:42). 그리고 그는 훌쩍 무대를 떠났다.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숙청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 배우와 같이 악한 세상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된 추한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구세주의 아름다운 말씀에 황홀해하며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하자.

2월 12일

공산주의와 이슬람교 같은 거대한 힘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토속 종교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그들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

박해라는 이 사탄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까? 순교하는 것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12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토마스 아 베크은 영국의 독재군주였던 헨리 2세에게 교회의 권한이 이 세상의 권한보다 더 우위라는 사실과, 신성하고 영원한 것들이 인간적이고 변하는 것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는 교회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며 투쟁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형을 당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기꺼이 죽는다.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독립을 위해”라는 것이었다. 그가 사형 당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아 넣어 교회의 자유화를 반대하는 여러 규제들이 다 풀리게되어 모두가 그를 순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174년에 헨리2세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로 스스로 자처해서 고통을 받고자 그가 죽인 대주교의 무덤 앞에서 불침번을 서기 위하여 맨발로 캔터베리까지 찾아왔을 때에 대성당의 돌 위에는 그의 피가 아직도 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순교자의 피가 살인자를 회개시킨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까?

초기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그 로마 황제들도 크리스천이 되었다.

십자가 옆에 또 하나의 십자가, 무덤 옆에 또 하나의 무덤을 놓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인내를 갖고 당하는 고통은 당신 자신을 역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이 1 : 10)

2월 13일

기독교 교회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속좁은’ 위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한 가지 밖에 몰랐던 것이다. 달을 탐험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비행사들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이다. 우주선은 아주 작은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 특정하게 제한된 궤도를 따라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1도 정도의 오차로 진입통로를 놓치게 된다면 그들은 우주의 미아가 되거나 완전히 연소될 것이다.

우리들 역시 길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지켜야 한다. 루터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와는 성찬식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 달랐다. 그러므로 루터가 가르치기를, “자기 교회의 목사가 츠빙글리의 식대로 가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를 피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찬을 받느니 차라리 평생토록 성찬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죽어 모든 고통을 겪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몸이 된 같은 교회, 같은 제단에서, 그리고 같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빵과 포도주라고 믿으며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는 것이라 믿는다는 사실은 나를 경악케 한다.”

우리가 만약 이교도들을 ‘흠어진 형제들’이라 부르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멀리 않아 악마들을 ‘흠어진 천사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주의하라. 교회들을 연합하기 위한 계획들을 경계하라. 두 마리의 새를 같이 묶어 놓으면 그들은 모두 네 개의 날개를 갖게 되지만, 결코 더 잘 날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혀 날지를 못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에 충실하라.

2월 14일

소련에서 몰래 나돌고 있는 문서 중에는 국민들을 노동 수용소로 체포해 간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거부한 여러 명의 수녀들에 관한 것이 있다. 그들은 죽쇄가 채워져 배고픈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헛되었다. 그들의 영향을 입어 일반 죄수들도 회개를 하였고, 그 수용소 안에는 진짜 수녀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수용소 소장의 딸인 아이린이 심한 병에 시달리게 되자 소장은 그 수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 아이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

체레드니첸코라는 공산주의 장교의 부인이 무척 힘들게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을 치르고 있었다. 아기는 물론이고 산모의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만약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된다면, 이 아기에게 세례를 받게 하겠노라고 맹세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요.”라고 장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것’이라 부르는 것을 한 손에 올려 놓고, 또 다른 손에는 당신의 부인과 아기를 올려 놓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오.” 산모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는 세례를 받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녀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버리고 죄수복을 입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추위속에 벌거벗은 채로 눈 속을 걷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걸어나갔다. 그들 중 병이 나서 쓰러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공산당원 하나가 그 수용소의 의사이며 무신론자인 브레이버만 부인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노래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글썄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마 6:26, 28)

2월 15일

어느 여성 인류학자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소녀에게 물었다. “튜플린, (코바늘 뜨기 하는 실 한 묶음을 들어보이면서) 지구는 공처럼 둥글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상자처럼 네모날까?”

“공처럼 둥글지요”, 하고 그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지?” 인류학자가 다시 물었다.

“박사님, 그냥 박사님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온 주변에 하늘이 땅을 만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박사님 주위엔 동그랗게 하늘이 있어요. 또 아기를 들고 있다가 걸으라고 내려놓으면 조금 걷다가는 빙글빙글 동그랗게 뛰어요. 울타리처럼 똑바르게 뛰어가는데 아니지요. 양들도 길을 잃으면 제자리에서 빙빙 돌지요. 어린 캥거루들도 뿔 때 보면 앞으로 조금 가다가는 곧 둥글게 뛰어 놀아요. 나무들도 전부 둥글고, 덤불들도 동그랗게 자라고. 오, 박사님, 왜 그런걸 제게 물어보시나요?” 그 원주민 소녀의 머리 속에는 지구가 왜 둥근가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나 있는 것을 볼수가 있다.

어떠한 천재적인 정신력이나 교육이나 망원경이나 복잡한 계산도 없이, 원주민들은 지구의 모양을 스스로 터득해 낸 것이다.

우리는 과학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권위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영원한 힘과 신성(神性)’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에게도 보이듯이, 그가 창조하신 우주 곳곳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책을 들여다보곤 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롬 1:20).

당신 자신의 관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람들과, 사물들과, 또 사건들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라고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눅 18:13)

2월 16일

러시아의 한 크리스천이 담임 목사에게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 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대답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도 또 매우 중요한 기도인데 그다지 하기 쉬운 기도는 아니지요. 그 말을 하실 때에는 당신 머리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못들이 박혀 있는 그의 몸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간단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인간들을 섬기며 충분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오.”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혹은 같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하라.

종교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 성도들과 위선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단지 그를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들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것은 또 절대 복종을 하는 자들과 어느 정도까지만 복종을 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거기엔 정교한 예배 의식도 있고 참회하는 죄인들의 순박한 기도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없는 종교는 상상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주어진 이 간단한 기도를 열심히 되풀이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시오.” 그 분은 분명히 당신에게 자비로우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롬 14:8)


2월 17일

기독교 선교사인 폴리누스가 그의 신앙을 전파하러 앵글로 색슨 족에게 갔을 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한 나이 많은 전사가 왕께 여쭙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사나운 바람이 집을 흔들고, 밖에는 눈이 쏟아지는 그런 밤에, 불을 밝힌 방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 방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다시 그 창문 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가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 참새를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디선가 날아와서 잠시동안 불빛과 온기를 즐긴 다음에, 그런 후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 줄 수만 있다면 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 모든 별들, 행성들, 지구,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하나의 영혼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그 자신과 만물을 다 이는데 비해 만물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이 세상의 것들에 이끌려 방황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복종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 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 그 분은 당신 안에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을 따로 이루어내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그 분이 땅에서 이루신 이러한 공적들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그 덕분에 그들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낙원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생명’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유일한 종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요일 5:12).

‘회의론자(agnostics)’라는 단어가 ‘무지한(ignorant)’이라는 그리이스어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회의론자’라고 하는지, 참 놀라운 일이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무지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공한다.


2월 18일

바르노이 침례 교회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외국으로 유출된 어떤 편지를 보면, 비밀 경찰이 Z. 폴루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6년 전에 침례 교회속에 침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녀는 선생으로 위장을 했다. 그녀는 울며 기도하며 자신이 회개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곧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신앙을 단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로 취직한 공장들에서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해고를 당하곤 했다. 공산당원이었던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학대하며 아들을 빼앗아 갔으며 그녀가 해외에서 방송되는 설교들을 듣는다고 라디오까지 부숴 버렸다.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녀의 용기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교회 안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교회에 새로 출석한 사람을 비밀경찰 요원이라고 잡아낸 사람도 다름 아닌 그녀였다. 이토록 주요 인물이 된 그녀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며, 점점 교회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 6년이 지난 후에, 그녀가 공산당을 위한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녀에겐 남편도, 아이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잃을만한 선생이라는 직업도 갖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 꾸며졌던 것이다.

만약 당신의 우정이나 사랑을 누가 배반했거나, 당신이 신뢰한 사람이 당신을 어이없이 속였을 때에도, 슬퍼하지 말며 더군다나 놀라지도 말아라. 잘못된 "사람들을 조심하여라"(마 10 : 17)라는 예수의 계명을 주의해 지키지 못한 당신한테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이나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혀 적군에게 협조한 미군들의 수가 많았던 것처럼, 독일군의 점령하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배반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의 수 역시 많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배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하고 자신에게 물어보
라. 우리 모두는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
님의 은혜이다.

2월 19일

인류에게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세 번 죽이고도 남은 만큼의 무기가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반 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의 반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거나 굶주릴 수 밖에 없다. 파업이나 폭동이나 혁명같은 것들은 식량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들을 사용해보라.

- 1)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 2)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경에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레 26:3~5)이라고 쓰여있다.
- 3)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의하여라.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딤후 4:3).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전 9:7)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 있으며, 초기 크리스천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행 2:46)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 4)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에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말 3:10).
- 5) 필요하다면 당신의 태도를 고쳐서 다음과 같이 하신 약속을 받도록 하여라.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

다”(사 33 : 15, 16).

오히려 우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한다(사 55 : 2).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는 돈을 낭비한다.

굶주림이 이 땅 위에 만연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을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고쳐나가자.

2월 20일

눈물로 범벅이 된 여자가 경찰서를 찾았다.

“제 남편을 찾아 주세요. 그 사람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실종됐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저희에게 몇 가지 알려 주십시오. 언제 당신 남편이 사라졌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왜 오늘에서야 저희에게 알리시는 겁니까?”

“오늘이 그가 봉급을 받아오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위기를 겪게 될 때에만 그를 찾곤 한다.

당신이라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받았다고 말을 한 그런 구세주를 사랑했겠는가? 이미 시체가 되어 버려서 아무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구세주에게 당신의 사랑과 값진 향료를 쏟아 부었겠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예수의 무덤 근처에 앉아 그를 사랑하며 슬피 울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토록 일찍 부활하신 까닭이다. 금요일 저녁에 묻혀지셨지만 그 분은 주일 아침에 벌써 부활하셨던 것이다. 그 분의 영이 무덤가에 앉아 우는 마리아를 보았으며, 그녀의 눈물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에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사심 없는 사랑을 보여주라.

...히브리 말로 메테스다라 하는 뜻이 있는데... (요 5:2)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행 21:37)


2월 21일

원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그대로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번역서이다. 성경의 원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15분씩을 투자함으로써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배울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언어들 배우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홈정역(欽定譯: Authorized Version)에 보면 이탤릭체로 쓰여진 단어들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역자가 보기에 미완성인 것 같은 문장을 완성하느라 해석상 삽입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5장 8절은 히브리 원전에는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나 역자들은 “그가 대장이요 장군이 되리라”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원전에는 그와 같은 약속이 전혀 없다. 다윗의 부하들은 분명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윗의 소원대로 싸운 것이지 그들 자신의 직위가 향상되기를 바라고 싸운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람은 롯에게 이렇게 말한다. “따로 떨어져 살자. 왼쪽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역자들이 이탤릭체로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만약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하는 부분을 삽입한 것이다. 원전이 문법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둘이라도 하나와 같고 또 그들간의 결별은 마치 한 사람의 손을 끊어내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창세기 30장 27절도 단순히 히브리 원전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 뒤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하는 것은 역자들이 덧붙인 것이다. 사실 머무르든지 떠나든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야곱에게 달린 일이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수한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라반은 단지 야곱이 자신에 대해 호



감을 가지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말씀이 쓰여진 원래의 배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공부하라. 원래의 깊은 맛과 올바른 해석을 위해 당신의 목사님들에게 원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ی 없다 하도다... (시 14:1)


2월 22일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고, 오직 자연과 고립된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대의 무신론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에 살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딛고 다니며, 자연과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도회적인 현상이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온다. 하늘이 푸르고 공기가 깨끗하며 물이 맑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일찍 피어난 크로코스, 봄이 되어 나타난 첫 울새, 각 계절의 리듬, 짙은 숲과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 열심히 일하는 벌레들, 철따라 날아가는 새들, 눈송이 하나하나의 그 정교한 무늬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 준다” (시 19:2).

워싱턴주 스콰미시 인디언들의 추장인 시애틀이라는 사람은 1854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백인들의 조상은 죽어 저 별나라로 가게 되면 그들이 태어났던 이 나라를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은 결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꽃들이 바로 우리들의 누이들이며,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바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들, 목초지의 그 향기로운 풀, 땅아지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인디언 추장의 백인에 관한 비판은 공정한 것이 못된다. 우리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다. 예수께서도 이 땅을 밟고 다니셨으며 결국 그 안에 묻히셨다. 그분의 육체 또한 지구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로 그 육신을 그 분이



하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함께 갖고 가셨다. 그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러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이 발붙일 틈이 없다.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를 바란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창 21:15,19)

2월 23일

아브라함은 하갈을 광야로 쫓아 보냈다. 아들 이스마엘과 먼 길을 걸은 후에,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바닥나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막 한 가운데에 있었다.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진 덩굴 밑에다 아들을 누어 놓고서 주저앉아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들이 이제 꼭 죽게 될 것만 같았다. 목이 말라 우는 아들, 빈 가죽부대, 그리고 이글거리는 태양.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우리들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 분은 빈 가죽부대를 들고 다니는 여인에게 우물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작은 가능성들을 빼앗가 가신 뜻은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함일 수 있다.

우리들은 빈 가죽부대를 갖고 다닌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갖고 계시다. 구원의 샘으로부터 물을 길어올리는 사람들이 되자.


2월 24일

사형 인도를 받은 일본 전쟁범 14명이 회개를 했다. 그들 중 한 명인 니시자와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입어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오히려 잃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자신의 임종을 맞게 된 어느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쾌락을 약화시키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일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내가 만약 ‘죽음은 영원한 수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나는 영원토록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념이 내 영혼을 아프게 파고든다.”

프랑스 국왕 루이4세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이러했다.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너는 네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겨라. 이것만이 모든 선한 것들의 기초이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네가 알아야 한다.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라. 그 일이 네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라고 해도.”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필립 멜렌츠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천국 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소.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여러 해 동안 열렬한 복음주의 목사로서 활동을 했던 프란시스 스피라 목사는 처형 당할 위기를 맞아 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인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한 것이었다. “나는 자원해서 내가 믿는 바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했소. 그 분께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며 나에게 어떠한 희망도 허락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느끼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오.”

어느 죽어가는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말을 하건데, 만약 내가 회복이 된다면, 오직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오. 부와 쾌락과 인간들이 주는 명예 같은 것들은 쓰레기



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서 말ियो. 그러나 내 생전 처음으로 하는 이런 위대한 결심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소.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यो.”

당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를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 : 24)

2월 25일

회교의 가난한 고행승이 신께 먹을 것을 구하였다.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신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며 그곳으로 가서 동쪽을 향하여 활시위에 화살을 메기고, 그 화살이 떨어진 곳을 파보라고 하였다.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고행승은 여러 방향으로 활을 쏘아보고, 그 모든 곳을 다 파보았지만 보물이라고는 없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활시위에 화살을 메기라고 명령을 받았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화살을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다. 네가 찾는 보물이 네 가까이 있으니 그 화살이 너의 곁에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부드럽게 활시위를 당기도록 하여라.”

어떤 종교를 가짐에 있어서 당신에게 벅찬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라. 내 아들이 어렸을 때에 나에게 와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명하신대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기차역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기차 바퀴들을 두드려 그것들이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기술자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리고서는 내 가슴을 힘껏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이와 같이 네 가슴을 두드려보면서 되풀이해서 가슴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야 한단다.’ “아버지,” 하고 내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전에 기차역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저씨더러 망치를 한 번 쳐 볼 수 있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들어봤더니 그 망치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니 우리도 가슴을 아주 살살 쳐야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가슴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속삭임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리 사악한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신다는 단순한 사실을 믿는 대신에 극심한 종교적 고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단지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느니라 (딤후 6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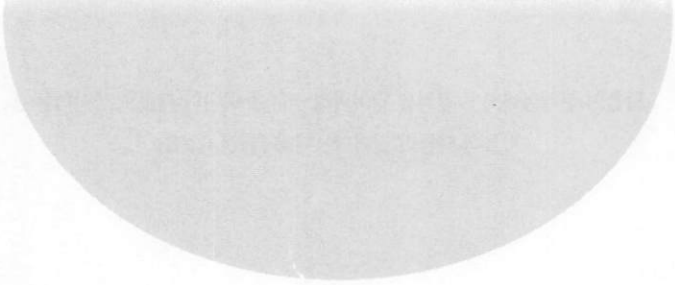
2월 26일

두 사람이 '유리' 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논쟁을 하였다. 한 사람이 '그것은 원통 모양의 용기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유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마시기 위한 그릇을 말한다.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유리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단어이다. 그것은 다른 사물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쓰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발사체라고도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리라고 하면 그냥 유리를 말한다. 그것의 실체는 그것의 영어 이름인 '글래스'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불어로는 '베르'라 불리어지며 러시아어로는 '스타칸' 이라고 한다.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불완전하고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다.

모든 관점은 그것이 똑같이 타당성 있는 다른 모든 관점들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맹점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내가 위를 올려다 볼 때에는 방바닥을 볼 수가 없다. 또 만약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더 이상 천정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복잡함을 고려한 실체를 총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 만이다. 그러나 실체라는 것은 물질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실체는 그 자신을 안다. 이러한 총체적인 실체의 자각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 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진리요"(요 14 : 6).

그 분이 한 번도 "그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라. 그 분은 "내가 진리다(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신다. 이 대명사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당신에게 예수가 "그"라면,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분은 당신의 "나"가 되어야 한다. 그 분은 동정녀 마리아



의 자궁에서 실제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
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분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할 때, 당신의 의심은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신 자신도 진리의 화신(化身)이 될 것이다. 불완전하게? 그렇
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영광의 소망”(골
1:27)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마 13 : 30)

2월 27일

미국의 정원사가 하루는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민들레를 없애는 데 좋다는 방법은 다 시험해 봤고, 또 당신네들의 모든 간행물에 나오는대로 다 해봤소. 그런데 그것들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소.” 답장이 왔다. “귀하께 :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군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거짓 친구나 적이나 라이벌이나 당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다른 친척들로 인한 골칫거리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짐을 훌기분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조금씩 조금씩 증오를 키워감으로써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수 밖에 없다.

당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고서 당신의 적들을 판단하라. 그들은 전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어떤 원한에 사무친 사람 대신에 당신이 희생양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사무실에서 아주 고약한 상사 밑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거친 말을 하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를 야단칠 때는 대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의 부인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항상 인생의 물결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신의 인생이 가져오는 모든 것과 함께 그 인생을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이니(I am the life)” - 우리가 생활, 삶, 인생, 또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신 말씀이시다. 그러니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2월 28일

사흘 만에 사마르칸드까지 전갈을 갖고 갈 사람에게 커다란 상금을 내리겠다는 터미드 왕자의 선언문을 들은 어느 농부가 있는 힘을 다해 터미드 왕자에게로 서둘러 갔다. 급히 서둘러 가는 이 농부를 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재난이 닥쳐온 것이라 생각하고 모두들 놀라서 수군거렸다. 그 농부는 왕자를 알현한 후, 자신은 사마르칸드까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없노라고 얘기 했다.

바빠 서둘러 온 교회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루미의 “마스나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을 찾아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가?

당신은 믿음이 약한 신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들과 함께 똑같은 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실 뿐이다.

어느 생쥐가 개구리 한 마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언젠지 그 개구리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생쥐는 끈을 가져다가 한 쪽 끝은 자신의 다리에도 묶고 다른 쪽 끝은 개구리의 다리에도 묶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가 나타나 쥐를 낚아챘다. 개구리가 함께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생쥐와 함께 묶여 있지만 앉았던들 그 개구리는 무사했을 것이다. 까마귀가 물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노라는 변명만 반복하여 늘어놓는 대신에, 당신의 신앙이 보잘것 없이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따로 있어보라. 그리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가 훨씬 더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성공적인 크리스천 생활의 열쇠



3월 1일

레닌과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8만 명의 정교회 사제들이 처형을 당했다.

미하일 신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몇 명 안되는 사제들 중 한 명이었으나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어느날 예배 도중에 그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하고 말을 하자마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벽에 걸려 있는 성자들의 그림들을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믿는 자들을 들침승들에게 먹히게 하고, 화형을 당하게 하며, 온갖 고문을 당하게 하시겠는가? 그는 그러한 의심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그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반복해 외우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 속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의 노력은 헛되었다.

그 순간 이후로도 그는 의무감에서 계속 사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긴 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그를 둘러싼 슬픔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를 가득 메운 농부들에게 “불쌍한 이들이여,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은 없소. 하나님이 있다면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혼란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을 겨우 참았다.

부활절 전날 밤에 술취한 공산당원들이 그를 체포했다. 그들 중에는 비도덕적인 생활 때문에 그의 교회로부터 추방당한 적이 있는 성가대 지휘자도 끼어 있었다. 이제는 그도 불세비키 당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를 체포하려 온 사람들 중의 우두머리가 사제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소. 남길 말이라도 있소?”

미하일 신부에게 더 이상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좋을대로하시오”하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미하일 신부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면, 당신을

놓아주겠소.” 신부는 그 제안을 머릿속으로 잠깐 곱씹어보았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 생명이나 구해야겠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소.”

그 날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금요일이었다. 가시 면류관을 예수께서 썼다는 것을 기억해 낸 그 무리는 그의 털모자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께서 걸치셨던 가운을 훑내내어 그의 어깨에다 부대 자루를 올려 놓았다. 한때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당원은 그에게 무릎을 꿇으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비웃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 사제는 그가 더 이상은 믿지 않는 그 분에게 기도를 올렸다.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소.”

그의 태도가 어찌나 당당했는지 그를 체포했던 술취한 살인자들은 놀라워하며 할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구석진 골방에 앉드려 눈물로 기도했다. “믿습시다.”

의심에 둘러싸이게 될 때, 지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지셨던 것 처럼 무거운 짐을 져라. 이성(理性)이 실패하는 곳에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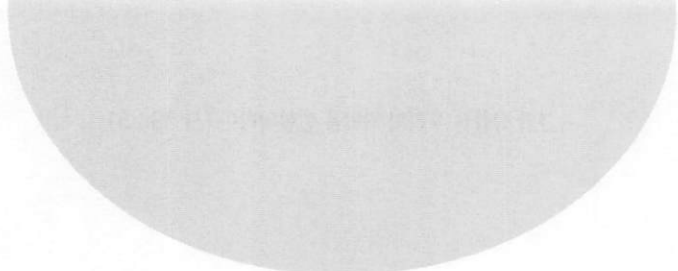
3월 2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지시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도 죄를 지은 내 이웃을 위해 이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결혼도 안한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그 사실을 눈치채고 대단히 화가 난 아버지로부터 애인을 구하려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목사님이예요.” 그 처녀의 아버지는 목사에게 대한 원한을 조금씩 키워갔다. 아버지는 주일 아침예배 때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그 아이를 목사의 팔에다 내던지며 이렇게 외쳤다. “가져가시오. 당신이 내 딸과 간통한 결과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와 저주를 함께 퍼부으며 그 아버지는 교회를 떠났다. 놀란 회중은 목사로부터 어떤 설명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네가 내 것이란 말이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겠다.” 그날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들에게 경멸받으며 그 목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처녀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를 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이 아버지는 즉시 그 목사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는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회중은 목사가 취했던 이상한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숨죽여 기다렸다. 그러나 목사는 여전히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이미 나의 전부입니다.” 그 교회는 급속도로 교인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 목사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고 그의 결백이 증명됐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눅



9:23).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곧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자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 비난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3월 3일

믿음의 영웅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의 이름은 플로라였다. 그는 게를라 감옥(루마니아)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주일 날 강제 노역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두 팔과 다리를 매질하여 결국 마비시켰다. 그는 목 밖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몸을 하고서는 가족이 돌봐주거나 하다못해 양로원에 있는 것도 괴로울텐데, 그는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도와 줄 물이나 담요 한장도 없는 감방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그에게 음식을 떠먹여 줘야 했으나, 우리에게 손가락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선 광채가 났다. 동료 죄수들이 가끔 그의 침대 곁에 둘러앉아 각자의 슬픔에 깊이 잠겨 아무리 앞을 내다 봐도 비관적이라고 한탄할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만일 앞을 봐도 별로 신통치가 않으면 위를 한 번 보는게 어떻습니까? 재판을 당하던 순간에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대는 성난 무리에 둘러싸였던 스테반 형제는 그때에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이 스테반 형제의 마음을 위로 하였듯이 당신들 마음도 평안케 할 것입니다. 위를 한 번 쳐다보십시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나는 아홉 살 난 그의 아들을 찾아가 만난 일이 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충성을 다한 믿음에 관하여 얘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너도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하고 덧붙였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형제님, 저도 제 아버지처럼 예수를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시들하고, 미지근하고, 열성이 없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기독교도 영웅적인 것일 수 있다. '사랑'의 올바른 철자법은 '희생'이다.

3월 4일

목사가 성찬식 도중에 봉헌을 드리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한 몸 안에 신과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다 갖고 계셨다. 그분은 또한 몸도 두 개 갖고 계셨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승천과 함께 그를 따라 올라간 육신을 말합시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몸된 교회이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분의 육신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몸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번째의 몸에서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피를 흘렸던 것이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의 육신을 우리는 흠모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분의 상처입은 가슴을 우리는 경배한다. 총체적인 교회로써의 예수의 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순교자들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예수의 두 가지 몸을 다 기억하라.

...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꺾방하는 꺾방은 사하심을 얻되...

(막 3:28)

3월 5일

어느 여행자가 상심해 있는 듯한 젊은이 옆에 앉아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금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죄수라고 털어 놓았다. 또한 그의 투옥이 그의 가족에게 굉장한 수치를 가져왔으며, 그가 간혀 있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고, 편지도 별로 보내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가족의 이런 무관심이 아마도 여행을 할만한 사정이 못되는 그들의 경제력 탓일 거라고 그는 애써 자신을 설득해왔노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그를 용서해주길 그 청년은 바라고 있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는 만일 자기를 용서했으면 기차길 옆에 있는 커다란 사과나무에 하얀 리본을 매달아 놓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그가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서부를 향하여 갈 계획이었다.

기차가 그의 고향에 가까워졌을 때, 그 청년은 너무도 긴장하여 창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여행자가 그와 자리를 바꾸어 앉아 사과나무를 봐 주기로 했다. 몇 분 후에 그는 그 청년의 팔을 잡으며 “저기 보 이는군”하고 속삭였다. 기차가 조금 더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괜찮네, 이 사람아. 나무엔 온통 하얀 리본이 매달려 있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이 단수로는 없다.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동정심들”이라는 말이다. ‘m’자로 끝나는 모든 히브리 단어는 복수형이다. 당신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의 피에는 충분한 용서가 깃들어 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 때를리 먹고... (막 8:1, 8)

3월 6일

일 년에 약 오 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 중 삼분의 일 이상은 영양결핍이나 기아로 인한 죽음을 맞는다.

아침에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이 깨어나는 이 세상은 배고픈 세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무모할 정도로 식량을 낭비하는 것은 아주 큰 죄이다. 곡식이 가축에게 먹여져 그것이 고기가 되면 원래 있던 곡식의 삼분의 일은 가치가 없어진다. 평균적으로 미국인 한 명이 일 년에 약 일 천 킬로그램 정도의 육류를 소비한다. 이에 반해 아시아인은 미국인의 오분의 일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일 주일에 세 번만 고기 먹는 일을 줄인다면, 가축에게 먹일 농산물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식량 사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다시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는 배고픔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라고 한다. 인구의 증가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수단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쉬운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모로코, 케냐, 이라크, 그리고 인도의 인구는 25년 안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철저히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세계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성실한 기관을 통해 최소한 배고픈 어린이가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같은 작은 일들을 해야하는 책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도 어려서 가난하게 자라셨다. 배고픈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 분은 그들을 홀어지게 하시거나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던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라.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때 그를 역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 27 : 32)

3월 7일

아프리카 대륙은 미합중국, 전 유럽, 인도, 일본을 전부 그려 넣고도 약간의 영토가 남을 만큼 방대한 대륙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심도 이 대륙의 크기에 합당하게 커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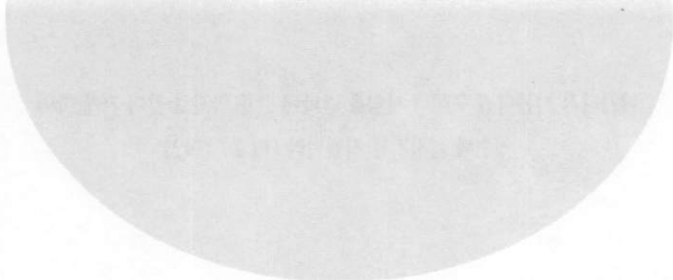
이 대륙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 피페추아와 그녀의 남편은 서기 201년 3월 7일에 기꺼이 난도질 당하는 죽음을 택했다. 그들은 시저의 동상 앞에 분향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아프리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은 오늘날 탄자니아라 불리는 치탐보라는 곳에서 자신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죽음을 맞았다.

프랑스 선교사인 프란시스 코일라드는 블라웨이요(로디지아)라는 곳에서 죽었다. 그의 마지막 편지들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텐트는 낡아 헤어져가고 있지만, 내 심장은 아직 젊소.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속하오.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 내 무덤 또한 그곳에 자리잡게 될 것이오. 내 간절한 소망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날보다 하루라도 더 살지 않게 되는 것이오.”

로버트 로스가 다섯 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아프리카에 갔을 당시에 그곳은 지상의 지옥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원주민들은 부족간의 전쟁에서 서로를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었다. 리빙스톤은 예전에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피, 피, 피투성이로구나!”

로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육년동안 선교활동을 한 끝에 겨우 한 사람을 회개시켰으나, 그 때는 이미 같이 왔던 선교사들 중에 네 명이 열병으로 죽은 다음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 댄 크로포드는 흑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흑인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첫번째 선교사였다. 그는 원주민들과 똑같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잔인하고 횡포가 심한 카탕가 왕 무시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왕은 오백명의 부인들을 거느렸으며 노예, 고무, 그리고 상아를 팔아 막대한 부를 이룩하고 있었다. 또한 매일매일 그는 마음 내키는대



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죽이고 있는 형편이었다.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독재 정권하에 있다. 현대 세속주의와 더불어 이슬람과 다른 이교들이 그곳에서는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정복한 나라들도 여럿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고 가시던 도중에, 아프리카 사람에 의해 도움을 받으셨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 예수께로 인도할 차례다.

(다윗은)… 미친 체 하고… (삼상 21 : 13)

3월 8일

체코슬로바키아의 트로츠타 추기경이 일반 사제였을 때, 그는 나치의 죄수로 잡힌 적이 있었다. 대량 학살 당시 그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체 하여 다른 시체들과 함께 운반되어졌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트로츠타 추기경은 나치를 속였던 것이다.

아주 강한 도덕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는 결백한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권력에 복종했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렇게 외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안죽었소. 총을 다시 쏘아 주시오.”

아무리 올바른 규칙이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억지로 적용을 시키면 우스운 것이 되고 만다. 물론 우리는 진실을 말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자들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할 의무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한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규칙은 사랑도 아니고, 엄격함도 아니고, 진실도, 지혜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금욕주의도, 남에게 인정을 후하게 베푸는 것도, 근점절약하는 것도, 자기희생도, 자기방어도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 안토니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 밝아진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줄 것이다.

…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눅 1:48)

3월 9일

솔렌 아시라는 유명한 유대인 소설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마리아, 당신의 발자욱 소리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만큼이나 소중하고 당신 앞에서 내가 숨쉬는 그 공기는 내 존재를 순결케 해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당신은 거룩하시며 가까이 오는 모든 자들에게 경건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들의 몸을 지켜보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가 어렸을 때에 그녀가 손수 보살피던 그 몸을. 그에게 입맞추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을까. 이제 그녀는 군인들의 채찍에 의해 생긴 붉은 상처 자국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다.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녀가 감히 손대지 못했던 예수의 몸을 내리치는 가축채찍의 소리를 그녀는 아마도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녀의 어떤 점을 우리는 존경해야 할까?

나는 그녀의 순결함을 찬양한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던 그녀에게 가장 높으신 존재 - 신·인간 - 의 탄생 작업이 맡겨졌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3월 10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범들을 체포하는데에 있어 이름을 떨치던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다. 그는 르보브(우크라이나)에 있는 집단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중에 간호사에 의해 한 나치 장교의 임종자리에 불러갔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장교의 어머니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가 히틀러의 청년대에 입대하자 몹시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가 속한 부대는 소비에트의 드네프르 페트로브스크라는 지방을 점령하였다. 그곳에서 카알의 부대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 또 갓난아기들이 포함된 약 200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작은 집 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서 수류탄을 던졌다. 불타는 그 집에서 유대인 몇 명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하였지만 카알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며칠 후에 한 전투에서 카알의 부대는 공격명령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고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화염에 휩싸인 채 아이를 팔에 안고 그를 향해 다가오는 유대인이었다. 그러한 나치 장교가 이제는 희생된 유대인 여인들과 아이들의 환상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카알은 유대인에게 용서를 빌려고 그를 부른 것이었다. 그러나 비젠탈은 그 장교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용서의 말을 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나치들의 잔인한 횡포에 의해 그의 전가족을 잃은 이 남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마땅히 패배당해야 하고 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젠탈의 앞에 놓인 남자는 더 이상 위험한 인물이 못되었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중이었다. 비젠탈은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야 옳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빛으로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3월 11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 16:19).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선포함으로써 이 천국을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라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 1:18). 이 열쇠를 그 분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다. 당신 혼자만 갖고 계셨던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분명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었든지 혹은 우리들과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든지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주지, 다칠 수 있는 칼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지 지옥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루터는 그와 철학적으로 입장을 달리했던 에라스무스에 관하여 말했다. “그는 빛도 십자가도 하나님도 없이 죽어갔다.” 즉,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라는 얘기다. 에라스무스의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에게는 하나의 열쇠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라. 아무에게도 죄가 있다고 선고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 자신도 비판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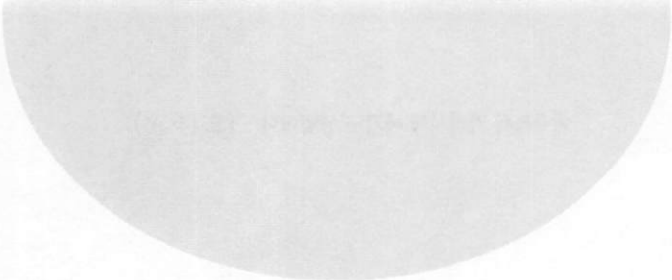
3월 12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을까? 사진이 아니고? 원자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다. 일련의 맛과 향기도 우리를 그 분의 말씀처럼 인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전달의 수단인가? 어떤 단어들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 이란 말도 되지만 '저주' 라는 말도 된다. 케데샤는 '창녀' 혹은 '성자' 를 나타낸다. 헤세드는 '은혜' 혹은 '혐오' 라는 말이다. 그리스어로 아페스라는 단어는 '용서하다' 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떠나다, 저버리다' 라는 말도 된다. 성경구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가 열 두살난 유대인 소년에게 말했다.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고 내가 그 분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소년이 대답했다.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전통 법정이 말하는대로 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이며 당신은 그를 믿는 목사라면 당신은 지옥의 불에서 영원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종교에는 농담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포기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전 15:19). 부활이 정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쾌락에 빠져 일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하면, 우리는 몹시 어리석은 자들일 것이다.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당신을 묶어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 분은 당신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해받았던 히브리인들은 '말' 이라는 뜻의 적절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대신 '다발' (davar)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물건, 실제로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다.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실제,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들, 죄와 후회로 점철된 당신의 인생, 당신의 인생에 담긴 타락과 회개, 또 기쁨과 슬픔들, 삶, 생명, 그 분의 생명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그 분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3월 13일

시프린이라는 한 시온주의자가 러시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침례교인인 솔로디안킨이라는 일흔 두살 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선함과 투명한 듯한 순결함이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지키던 죄수들조차도 그가 있을 때엔 더 너그러운 것 같았어요.” 이 노인은 거의 앞을 못 보았다. 그를 심문하던 사람이 그의 안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강제 노역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것을 그는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반은 딸에게 보내고 또 반의 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사분의 일인 7~8 루블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약간의 빵과 설탕을 사고는 그것의 나머지도 수용소 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쥐버리는 것이었어요.”

시프린은 그에게 자신이 성경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읽어주겠다고 제의했다. 저녁이 되자 솔로디안킨이 왔다. 그는 셔츠를 갈아입고 머리도 아주 세심하게 손질을 한 모습이었다. “영원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잔치와 같은 일이지.” 그래서 유태인이 크리스천에게 이사야서를 읽어주게 되었다. 읽어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그가 끼어들었다. “자네는 금방 그 구절을 잘못 읽었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외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이것을 읽어드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읽는 소리를 듣는 것도 내겐 크나큰 기쁨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 곁에 없을 때에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수가 있다. 성경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로부터 그 참된 가치를 배워 우리도 부지런히 그것을 읽어야겠다.

3월 14일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막연히 그럴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의 진실성에 의해 이미 형성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의 합당성을 자로 재듯 주의깊게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종교를 고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천주교 신자인 남자가 역시 천주교 신자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를 천주교쪽으로 이끌 말들을 들으며 자라게 될 것이다.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천주교의 모든 교리들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침례교인 부모를 둔 자식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개종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한 사람이 위기를 겪게 되거나 그가 일찌기 가져온 신앙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느끼게 될 때, 다른 어떤 종교에 헌신적인 사람이 나타나 그 나름대로 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그 순간에 그가 필요로하는 위안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받아들이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은 아무런 비평도 가하지 않고 쉽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교리, 믿음, 혹은 종교적 의식들을 받아들일게 된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일컬어 크리스천,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과정,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들을 검토하고 또 의심을 품어보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 보라.

참된 종교는 당신이 가진 모든 믿음들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틀릴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종교가 당신이 다른 종교들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편견들이 합쳐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아주 특별한 몇몇 영혼들만이 이렇게 모호한 단체 의식의 안개를 걷고 떠오를 수 있었다.



당신의 가슴 속을 빗자루로 한 번 쓸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아낌없이 쓸어버려라. 바로 이것이 내가 했던 일이다. 이러한 빈 가슴 - 자신의 신앙 뿐 아니라,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 에 모든 종교의 근원이자 목적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당신은 탄생과 교육, 이 두가지에 의해 이미 많은 편견들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살전 5: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 2)

3월 15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소련에서 있었던 어느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재판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어머니요, 하나님을 부인하시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줬단 말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의 우상,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이렇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분은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아이들이 그녀에게 “엄마,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외쳤을 때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광경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원형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갔던 초기 순교자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라는 가까운 사람들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두시는 대신에 당신 아들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성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자녀들을 잃는 쪽을 택했던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우리는 그 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뿐이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주저하지 말아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 분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마 17 : 20)

3월 16일

나는 산을 옮겨보려고 애써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어제서 현실과 다른지 그 분께 여쭙어 보았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에 혼자서 독백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응답을 받기를 기대해야 한다.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산을 옮길 수 없는 것은 네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게는 믿음이 몇 바구니나 가득 있다. 호도 한 알을 깨기 위해서 중공업에서나 쓰이는 천 톤짜리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망치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장난삼아 산을 이리 저리 옮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유대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시자 모세가 기도를 올려 하나님께서 결심을 바꾸셨던 일을 너는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이후로 나는 산을 옮기려는 노력을 중단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지상의 삶에서 산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산더러 움직이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그의 신부가 아가서에서 노래하였듯이, “아, 사랑하는 남…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아 2 : 8).

당신 삶에서 부딪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산들을 옮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뛰어 넘어라.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성실히 행하라.

3월 17일

다음 일화는 어느 공산주의 국가의 감옥에서 일어난 것이다.

어느 날 간수들이 크리스천들만 구금되어 있는 감방에 새로운 죄수 한 명을 던져 넣었다. 그는 머리가 짧게 깎인 채 몹시 더러웠으며 비쩍 말라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이사람 ○○○ 장군이잖아!" 그는 크리스천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자행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에 의해 체포당해 매맞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두 뺨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 달 전 그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열 두살 난 소년이 자기의 아내를 위한 것이라면서 꽃을 한 송이 들고 찾아왔다. 그 소년은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당신은 저의 부모님을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이 제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해마다 오늘이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꽃을 사드리곤 했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오늘 제겐 기쁘게 해드릴 어머니가 안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크리스천이고 제게 늘 원수들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군의 부인에게 이 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발 이 꽃을 댁으로 갖고 가셔서 사모님께 전해주시고 또한 제 사랑도 전해주시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요."

그것은 공산당 장군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요 1 : 9)이신 예수님에 의해 비추어지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그 소년을 꼭 껴안았다. 그는 더 이상 고문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직위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감옥에 가둔 사람들과 함께 한 감방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성공적인 크리스천 생활의 열쇠이다.

3월 18일

넬슨은 심한 핸디캡을 극복함으로써 많은 것을 성취해냈다.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그는 인도에서 열대 전염병인 황열에 걸렸다. 그는 또 서인도제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다른 질병에도 시달렸다. 해군 제독이었던 그는 평생을 배멀미로 고생했다. 코르시카에서 그는 한쪽 눈을 잃었다. 후에 그의 오른 손이 절단되는 일도 겪었다. 또 다른 전투에서 그는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트라팔가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해군에 대항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웅 넬슨도 약점이 있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해밀턴 부인과의 염문으로 런던과 나폴리를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상의 약점들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잠 16:32).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의 출생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또한 그는 억압받는 민족의, 그것도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는 제대로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분은 믿음으로 사람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분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가진 육체적인 혹은 다른 형태의 핸디캡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당신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게 하는 최고의 자극들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특정한 약점을 찾아내어 그리스도를 통해 적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요새의 벽을 가장 튼튼하게 쌓아라.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 17 : 2)

3월 19일

지아코모 푸치니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다. 오페라 마농레 스키프와 나비 부인은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돈과 명성을 얻었고 여자들이 그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의 그는 행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가장 많이 주목을 받던 시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성공?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구나 나이들어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나는 더 많은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고 더 많은 음악을 창조해 내고 싶은데, 아뵐사, 내겐 더 이상 그럴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구나!”

마오 쟈 똥은 여든 둘이라는 나이로 서독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중공을 위한 자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서독 대통령은 만약 그가 꾸준히만 노력한다면 그러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늑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마오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내겐 더 이상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사상의 지도자들 중 한사람인 키로프는 스탈린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고, 또 살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오.”

만약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위해 베풀어지는 연회와 같을 것이다. 산해진미로 식사를 한 뒤에 교수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치있는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취와 끊임없는 에너지를 당신은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에게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 11 : 26).

... 저희는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 1:10)


3월 20일

사람이 원승이로부터 진화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낭설이다. 원승이는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다. 그들은 낙태도 하지 않는다. 원승이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종(種)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도 갖고 있지 않다. 범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매춘 따위의 행위는 그들에게는 낯선 것들이다. 그들은 비도덕적인 영화를 만들지도 관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원승이는 인류가 자신들의 후손이라고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다아윈의 이론은 원승이들에게 커다란 모욕이다. 어떠한 원승이도 “종의 기원”과 같은 근거없는 책을 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인간은 원승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태초에 인간의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의 타락도 더 비극적인 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서 우리는 그가 지녔던 태초의 지위를 조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선 너무나도 자주 늑대나, 여우나, 뱀이나, 혹은 돼지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인간이 짐승처럼 될 때, 그는 가장 짐승다운 짐승이 된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은 그의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탓이었고, 그 죄는 자손대대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사 1:3) 라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짐승의 친척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것들도 역시 인간들의 타락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타락을 겪었지만, 인간보다는 원래의 지위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급한 임무는 그가 태초에 지녔던 특권을 되찾고 아담이 잃어버린 순결성을 다시 얻는 일이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
해 주시며 “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고전 15:54), 즉, 다음 세상에서는 박탈당했던 원래의 지위로 우
리들을 복권시켜주실 것이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3월 21일

난파된 배에서 홀로 살아남아 무인도까지 흘러가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그는 그럭저럭 오두막 한 채를 지어 그 안에다가 가라앉는 배로부터 간신히 구해낸 '얼마 안되는 모든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으며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와 보니 그의 오두막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겨우 건져올렸던 물건들이 연기가 되어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적어도 그 때의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토록 끔찍한 일로만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더없는 행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그 화재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커다란 손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발생한 이 일은, 사실 그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 날 배 한 척이 무인도에 도착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낸 신호를 보았소" 하고 그 배의 선장이 말하였다.

우리들에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을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나사로의 불운한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지 않았던가? 그리고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인 요한이 미래의 세계와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밧모 섬에서 외롭게 피난생활을 할 때였다.

...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달릴 때에... 하나님의 전
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막 2 : 25, 26)

3월 22일

사람들은 가끔 강한 욕구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
해 혹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의해 제정된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나리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합리화하지는 말아라. 언제나 법을
먼저 생각하고, 실제로 당신이 당한 특별한 상황과 당신의 심리적인 고정관념
들을 고려하라. 정당한 배고픔마저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위상을 애석하게 생각하라. “그와 같은 일 - 율법에 위
배되는 - 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롬
7 : 17)라고 한 바울의 말을 본받아라. 확고한 결심으로, 배고픔이 당신으로 하
여금 먹도록 유혹하는 그 빵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아라.

심한 박해를 받던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 두드코는 고해성사를 하러 온 어느
소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
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제게, 무신론자인 공산주의 청년 조직
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붉은 색 스카프를 매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제겐 아무 힘
이 없답니다.” 만약에 그녀가 거부를 한다면 그녀는 매맞고 학교로부터 퇴학당
하고 그녀의 부모는 감옥으로 가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교회 사제
들이 종교 의식 때 특별한 기도를 올린 후 사용하는 성수(聖水)를 가져다가 그
붉은 스카프 위에 뿌렸었던 것이다. “저는 그 스카프를 땀어요”, 하고 그녀는
고백을 했다. “그 위에 성수를 뿌리고 나서이지만요.”

자유세계에서도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강요당할 때
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라.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당신은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모
든 것은 기도로 인하여 기록해진다(딤후 4:5).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롬 14 : 22).

…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굴혈을 만들었다… (눅 19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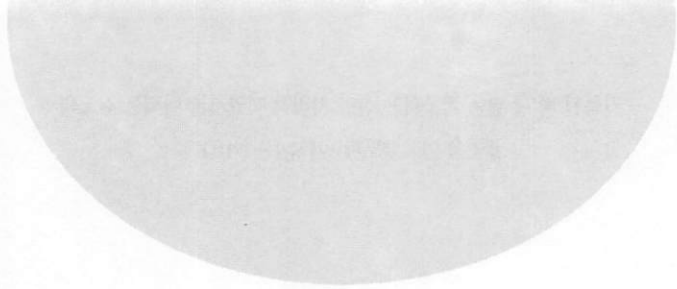
3월 23일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많다. 그것은 성실하지 못한 주교들과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 온 자기 파괴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예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신다면 그것들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부르실까? 이같은 선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화 되어 있던 현상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었다.

기도하는 집에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있었는가? 성전의 최고위층 지도자들 중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일반 사제라든가 경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눅 1 : 5, 6)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도들의 소굴 안에서 의로움을 지켰던 것이다.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강도들의 소굴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 사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눅 2 : 27, 25).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 안에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성전, 즉 강도들의 소굴에 들어선 세리(稅吏)는 그 곳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내고, 기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 세리다.”(눅 18 : 13, 14)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강도들의 소굴이 될 정도로 부패해버린 성전에서도 구원은 있는 것이다.

유대의 성전은 죽거나 변절한 교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야가 끝내 저버리지 않으셨던 강도들의 소굴로, 그 안에서 예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의식들이 행해지고, 율법이 되풀이하여 낭독되고, 많은 성자들이 나왔던 그런 곳이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도 성자들을 찾아보라. 경솔하게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저버리지 말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당신이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 25 : 34, 41)

3월 24일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른쪽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기 위하여 왼쪽으로 분리된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개념이 그저 언어 습관상의 비유로만 이해되던 적이 한 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우측과 좌측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특정한 미립자들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그것들은 마치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만약 거울에 다 내 왼손을 비추어보면 거울 속에 비치는 이미지는 마치 오른손의 모양과 같다. 이성질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미립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단백질은 모두 L-아미노산(left-handed : 왼손 구조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생명의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때의 생명이란 물론 타락 이후의 자연에서 우리가 갖게 된 생명이다.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죄의 상태인 이러한 왼손 구조에서 벗어나 은혜의 땅인 오른손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D-아미노산(오른손 구조의)은 단백질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지만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는 항생물질들에서는 발견된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이러한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57년엔 미립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의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로부터 기본적인 비대칭구조를 발견하였다. 코발트 60과 같은 방사능 원자핵들의 베타급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들은 대부분 왼손구조이다. 그것들의 미립자들은 마치 왼쪽으로 감기는 나사못과도 같은 타성을 가지고 회전을 한다. 그러나 양성자들은 오른손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자연은 오른쪽과 왼쪽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마치 빛의 지식들과 어둠의 지식들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회개와 뉘우침을 통해서 왼쪽은 오른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왼쪽에 남아있는 자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라.

3월 25일

나사로는 결코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 없이 그저 구걸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에게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마리아는 그녀의 찬송에서 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부한 사람들이 빈 손으로 돌아갈 날을 예고하였다(눅 1 : 53).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파리의 군중들이 빵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 앙투와네트는 “그들더러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중과는 전혀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했던 프랑스의 절대군주제는 멸망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마찬가지로 황제 니콜라스 2세도 레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지구상의 인구중에서 가장 부유한 10억명의 일년 평균 소득은 미화 3,200불이라고 한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10억의 평균 소득은 120불에 그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름한 동네의 판자집에 살면서 굶주리고 있다. 그들의 가난과 문맹은 하루하루 지속될 뿐이다. 인류의 60 퍼센트는 글자를 읽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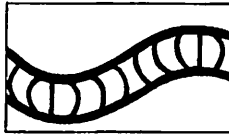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눅 12 : 33). 어차피 버려야 할 물건들만 던져주지 말고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나 초콜렛이나 오페라보다 이 땅의 배고픈 사람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30년 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두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들도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요구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될 부자들의 무리 속에 어느새 섞여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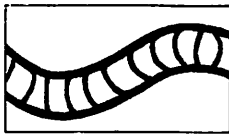
3월 26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단 한가지의 사건에 얽힌 소문만 듣고 경솔한 결론들을 내렸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관하여 경계하셨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막 4 : 16, 17). 어떤 사람의 전도가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의깊게 듣기 전에는 그 분을 선불리 거부하지도 말아라.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지질학자들에게 7초 동안 다음 그림을 살펴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 그림에는 오목한 분할선들과 볼록한 분할선들이 잘못 그려져 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지질학자들이 포함된 이 실험대상들 중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시 그려낸 사람은 20퍼센트에 불과했다. 모든 분할선들을 볼록하게 그려낸 다음과 같은 그림이 지배적인 응답이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한 번 힐끗 보는 것만으로 진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하루 저녁을 온전히 앉아서 주의깊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깊이 되새겼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아주 충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도미는 예수께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것들을 받고 난 후 인도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활동을 펼쳤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권하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성경을 연구'(요 5:39)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예수를 거부하지는 말아라. 크리스천들은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탐구와 조심스런 결정을 통해서만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 : 28)

3월 27일

중국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사분의 일은 중국인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기독교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두운 곳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느 자치구의 작은 오두막 안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는 오래된 중국 민담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선(善)의 상징이 되어온 조 - 포 - 타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어느날 양 - 치야오 - 아이라는 친구와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추 유안 왕이라는 곳이었는데, 며칠동안 여행을 한 뒤에야 그들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며 그들에게는 옷과 양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둘 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조 - 포 - 타오가 주장했다. “나는 머슴이네. 그러니 내 옷과 식량까지 자네가 다 갖고 목적지는 곳으로 가길 바라네. 우리가 둘 다 죽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나?” 양은 친구의 제안을 선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나 이미 조는 자신의 옷을 벗어주면서 마치 그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끌어안겠다는 듯이 두 팔을 벌리고 눈 위에 눕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눈 위에서 얼어죽었다. 양은 친구의 옷을 꺼입고 그의 식량주머니를 들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가 그를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며 살았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조같은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보아온 사람들은 전부다 잔인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네가 조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전에 한 백인으로부터 이와 꼭 같은 일이 아주 먼 나라에서, 아주 먼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단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글썽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마치 제사에 쓰여지는 양처럼 내놓았단다. 그 백인은 그러면서 ‘의로움(義)’을 뜻하는 우리의

글자가 '양(羊)'자로 덮여진 '아(我)'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그 선한 사람의 덕분에 구원을 입었다는 이야기였는데 나는 외국어를 잘 몰라 그가 얘기하는 걸 많이 알아듣지는 못했단다. 그러나 어쨌거나 애야, 네가 조와 같은 사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히 1:1).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 : 10)

3월 28일

1908년에 C.T. 스테드는 리버풀에서 이상한 공고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유머감각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의 눈길을 끌었다. “식인종들은 선교사들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카알 쿨이 자신의 아프리카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부족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회합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는 그날 모임에서, 탐험가들은 그곳이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곳들을 탐험했으며, 큰 사냥감을 쫓는 직업 사냥군들과, 이슬람교 선교사들과, 무기류나 술을 파는 상인들, 유럽의 정부 관리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곳에 갔었지만, 예수를 전파하려 그 곳을 찾은 크리스천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스테드는 왜 크리스천들이 그 곳에 하나도 가지 않았을까 스스로 반문해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내려주셨다. “네가 가지 않겠느냐?” 스테드에게는 이미 중국과 인도선교사역 계획이 있었다. 그는 건강도 나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고, 식인종들을 예수께 인도했다.

크리스천들을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개인들과 부족들이 여전히 많다. 오늘날에도 당신은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군도, 혹은 파푸아 뉴기니의 석기시대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슬람교 광신자들은 언제든지 크리스천들을 죽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은 금세기에만도 터어키와 레바논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공산주의국가는 성경책을 반입하는 사람은 가치없이 감옥에 가두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뒤떨어지고 전도가 되지 못한 부족들이 있다. 당신이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더라도 그곳으로 가라. 만약 갈 수 없다면 기도로, 혹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혹은 실제로 그곳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방법으로 돕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큰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3월 29일

1964년에 있었던 일이다. 스탠리빌의 광란적인 통치자였던 킹이즈와 다른 삼비 지도자들은 그들의 나라 안에서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을 폐지하고 콩고로 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함께 맹세하였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허리를 감는 천 대신에 바지를 입은 남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다. 킨두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루뎀바의 기념비 앞에서 불살랐던지 그 계속되는 열기로 인해 도로 포장에 금이 갔을 정도였다. 폴리스에서는, 지켜보던 군중들에 의하면, 희생자의 숫자가 4천을 육박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가 잘려서 죽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휘발유를 마시도록 강요된 후에 불붙여짐으로써 타 죽었다.

비복음화 지역 선교회의 회원 스무 명과 다른 단체 소속의 아홉명이 순교했다. 이 지역에서 천주교 선교사들 중 일흔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던 것이다. 그들의 죽음에는 또 다른 원인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직 유아기와도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거나 이 선교사들은 그러한 끔찍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많은 콩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곳곳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는 결실을 맞게 되었다. 우리들 모두가 순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나, 우리 모두는 적어도 보조 순교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온 맘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듯이 그들의 슬픔과 역경과 승리에 기도로서 동참해야 한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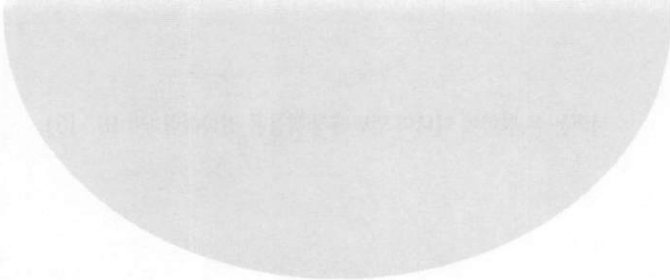
3월 30일

1956년에 에콰도르의 밀림에서 순교당한 다섯명의 선교사들 중 하나였던 네이트 세인트는 키토를 떠나기에 앞서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지난 전쟁 중에 우리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생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정치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많은 생명들이 그 값을 대신 치뤄주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우리들에게 그 자유의 대가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사업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종종 너무도 간단하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일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이 희생의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보내어졌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미개인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 선물'을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인디언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많은 선물들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비행에서 원주민들은 비행기로부터 늘어뜨린 긴 줄 끝에 달린 가방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앵무새 한 마리를 넣어주었던 것이다.

그런 후에 선교사 다섯 명이 아우카 인디언들을 직접 찾아갔다. 세인트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들과의 첫 만남은 순조로운 듯이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선교사들은 죽음을 맞았다. 그때 순교한 어느 선교사의 부인인 베티 엘리엇은 그날 저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남편의 기슴속에서는 오로지 아우카족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소망만이 불타고 있었다."

당신이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어떤 국가, 혹은 부족, 혹은 특정한 사회계층을 선택하라.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가리는 부르심을 당신이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당신은 기도로, 또 그 선교에 관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혹은 당신의 수입 중 일부로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통하여 보조 선교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3월 31일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달린 소말리아의 불멸의 영혼들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소말리아의 사막지대에는 “메를린 R. 그로브, 1929년 2월 9일 - 1962년 7월 16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 : 6)” 라는 음각이 새겨진 단순한 묘비가 하나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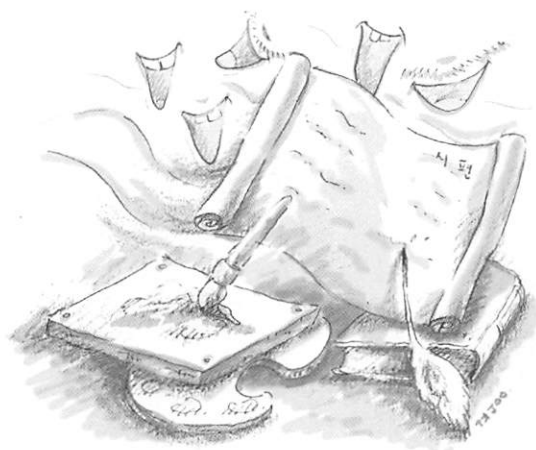
그로브는 멘논족 선교사였다. 그에 대하여 화가 몹시 난 어느 이슬람교 선교사가 칼로 그를 열두 군데나 찔렀다. 그로브의 부인인 도로시가 밖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그녀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살인자는 그녀에게로 몸을 향하더니 그녀의 복부를 찔렀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도로시는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말리아인들을 자신이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이 선교사로서 옳은 곳에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소말리아인들을 위한 갈보리의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회복을 했고 더 이상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구원을 얻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스스로 택하여 겪는 것이다.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소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면 당신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남자 친구를 제대로 고른 것이다.

오늘날 소말리아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슬람교와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광신이 어울려 섞여 있는 곳이다. 소말리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최선을 다할 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 전 말재주가 없어요



4월 1일


종교개혁과 그것이 가져온, 회복할 수 없는 기독교의 분리는 만약 그것이 일부 성직자의 돈에 대한 탐욕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슬한 죄악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가끔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연장이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가 죽는 일이 없이 제대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감독하신다. 지옥의 문들조차도 교회를 압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기관들이 또 있다. 이 교회에는 아직 새로 태어나지 못한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차 있다. 그들은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탄생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놓을 수가 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교회내에는 떳떳하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왔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구입한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이 험값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국왕의 사생아들은 갓난아기일 때 왕국내의 가장 중요한 대수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부인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교황에게 화가 난 헨리 8세는 자신의 나라를 이끌고 로마와의 모든 관계를 쉽게 청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별한 후에 양측은, 바티칸과 의견을 달리하는 행위나 국왕의 의견에 반대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오늘날 성직자들과 교파의 지도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는가? 그들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거룩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진 헌신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본보기대로 당신의 교회를 변형시키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은 자신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 중에서 인간



들이 모인 집단으로서의 교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다.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교회”(엡 5:27)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4월 2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말로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은 '세계의 통치자' 라는 뜻이다. 러시아 역사에는 이 이름을 가진 아주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다. 서기 998년에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왕자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둘 중 어느 형태의 기독교를 받아들일까 고심하던 그는 유럽으로 사절들을 보내어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이 사절들은 정교회 의식의 아름다운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돌아와서는 왕자에게 이 형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길 권하였다. 그 결과로 왕자는 모든 신하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

약 900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블라디미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열 여섯이라는 나이에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의 죄 중에는 하나님을 믿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흔히 그렇듯이, 블라디미르 레닌도 한동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가 상의를 드렸는데 그 목사의 대답을 레닌도 엿듣게 되었다. 그를 계속해서 매질하라는 것이었다. 그 목사의 대답으로 화가 난 레닌은 그때까지 자기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떼어버리면서 다시는 이따위 종교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다. 그 일로 그는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었다. 후에 그가 선동한 혁명의 결과로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죽었다. 만약 그 목사가 좀더 현명하고 사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충고를 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영혼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지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말 한 마디가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왕자 블라디미르는 온 백성들을 모두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레닌은 국민 전체를 무신론자들로 만들지 못했다. 양쪽 다 진정한 블라디미르 - 세계의 통치자 - 는 아니었다. 그러한 통치자는 한 분, 예수뿐이시다. 그 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고 그 분 앞에서 인간은 다 머리숙여 절하게 될 것이다.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롬 12:1)

4월 3일

베트남 전쟁 중에, 카톨릭 정권에 의해 자신들의 종교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낀 불교 승려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몸을 불사른 사건이 있었다. 두 명의 승려가 한 승려위로 휘발유를 부으면 그 승려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불을 당겨 자살을 하는 것이었다. 얀 폴락이라는 체코 크리스천과 동독의 복음주의 전도자였던 브뤼스비치는 공산주의의 불평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들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이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사건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보통의 상황에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이나, 정말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요 10:17, 18). 예수는 당신 적들의 화를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 그는 인간들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모든 충동적인 욕구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탐욕의 눈길로 여자를 바라보지 말아라. 또 너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지라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여라. 설사 그 거짓말이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라도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그 분은 그런 행동이 분명 당신의 적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당신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다.

크리스천들도 역시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과는 어긋나는 기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갈 2:20).

(예수께서 가라사대)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눅 16:10)

4월 4일

만약 십일조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금전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박해를 당하다 투옥된 크리스천들도 그들이 매주 받는 한 조각의 빵과 더러운 감자 껍질이 섞인 멀건 스프중에서 십일조를 하곤 했다. 매 10주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빵을 병들거나 자신들보다 더 약한 죄수들에게 주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들의 책임이란 자신들이 가진 100%를 다 바쳐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 3주, 혹은 5주마다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빵은 먹는 법이 없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들은 더러운 스프로 만족하기도 했다.

단순히 10%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돈이 주님께 속하는 것이다. 10%를 바친 다음에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경비를 충당할 구좌를 하나씩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한푼 한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차 출장중인 세일즈맨은 자신이 받은 출장경비중에서 돈을 떼어 자기 부인을 위해 가죽 코트를 사 줄 수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치도 허락되지 않는다.

당신의 양심은 결백한가? 이처럼 배고프고 헐벗은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음식이나 옷에 사용하고 있는 한푼 한푼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밝힐 수 있는가? 선교단체들은 1달러가 없어서 이교도들의 국가에 성경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 많은 화려로운 교회 건물들과, 성가대원들의 가운과, 교회 안의 걸천을 새로 간 긴의자들이 과연 정당화 될수 있을까? 화장품의 구입이나 오락에 쓰는 당신의 돈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심판날에 당신은 예수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제 돈을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께서 당신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인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출 4:10)

4월 5일

리처드 헉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불구였다. 한 차례의 수술 끝에 그의 손은 제대로 달려있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움직일 힘이 그에겐 조금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미술학교를 7년간 다녔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화가로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입에다 붓을 물고 그것을 흔들면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현재 버킹엄궁에 걸려있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 라합은 원래 이방인으로서 매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혈육상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다. 베드로는 천성이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는 하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는 장터거리에 서서 용감하게 정치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대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요구대로, 즉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크리스천은 아마도 자신이 다시는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희망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였고 후에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아름다운 시편들을 짓게 되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지만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 세 권의 저자가 되었다.

어떠한 신체적인, 지적인, 혹은 도덕적인 핸디캡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만약 당신에게 손이 없다면, 이빨을 이용해서라도 그림을 그리되, 반드시 예수를 위하여 그럴 일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 2:2)

4월 6일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기만 했더라면 더없이 아름다웠을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들의 죄로 많이 훼손되었다. 누구나 로마 카톨릭의 이교도 심문은 알고 있지만 개신교도들도 그에 못지않은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구교를 따른다고 하여 플린켓 주교를 단죄하고, 그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교수형을 당하게 한 다음, 다시 끌어내려 가족을 벗기고 그의 창자를 꺼내어 불태우게 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몸을 칼로 사등분하였다. 피드몽의 카톨릭 신자들은 개신교도였던 지오반니 미키알린을 그의 네 자녀와 함께 체포하였다. 그들은 미키알린의 눈 앞에서 그 자녀들을 차례대로 토막내 죽이면서 한 아이가 숨을 거둘 때마다 신앙을 부인하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는데, 그가 마지막 아이의 차례가 돌아와도 끝내 거절하자, 화가 난 군인이 그 아이의 다리를 낚아채서 땅에다 대고 그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한다.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카톨릭 신자들은 전쟁중에 수천명의 정교회 신자들을 죽였다. 루마니아에서는 또 정교회 사제들이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사제들이 유대인들의 대량학살에 앞장섰던 예들도 많이 있다. 오늘날 북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도들과 카톨릭교도들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일러주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적의나 원한을 뱉어버리기로 굳게 결심하자.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 말을 만약 책임감 없는 사람이 듣게 된다면 그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과도 같은 성급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 종교적인 차이점들은 언제나 사랑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도무지 화합이 불가능해보이는 그런 차이점들이 서로에게 발견될 때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딤후 2:1, 2)

4월 7일

위에서 본 구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쓰여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제2차 세계대전중에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성직자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만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아주 쉽게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만의 왕, 혹은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지도자들과 왕들은 배고픈 자들이나 병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히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하나의 특수한 집단을 이룬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자신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이웃나라나 혹은 먼 나라의 원주민 부락의 추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한다.

비록 그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반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속에서 선을 창조하는 효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 18)

4월 8일

유럽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덜 타락했다고 평가되는 어느 국가의 예를 들어 보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스위스에서는 알코올의 소비량이 두 배나 증가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수는 10만에서 13만으로 늘어났다. 법정 재판 건수의 20%와 모든 이혼 사례의 23%는 그 원인이 알코올에 있다고 한다. 자살 건수의 삼분의 일은 알코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라고 한다. 해마다 1300명이 알코올 남용의 결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이러한 수치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령은 사랑으로 취하고 마치 술취한 사람 같은 인상을 풍길 정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에 관하여 얘기한다. 이러한 거룩한 만취가 부작용이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나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셔라. 당신은 술취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많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술취한 사람들은 누구나 술을 찬양한다. 당신도 당신이 마신 포도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정뱅이들은 소리높여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 당신도 구세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정뱅이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만약 당신은 몹시 약하고 적은 당신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기적의 포도주에 취한 당신은 얼마든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술에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시는 포도주에 다같이 취하자.

4월 9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관용의 정도를 경계하라. 여기 두 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아주 현명한 사람에 의해,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첫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은 2 더하기 2가 4라고 배운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2 더하기 2는 3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런 중에 교사 한명이 나타나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다. 그러니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간에도 어쩌서 이렇게 다른 견해차가 있어야 하는가 하고 그는 반문한다. 그러니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여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2 더하기 2가 3.5라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이토록 사랑에 넘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편승자이며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더 이상 수학 선생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운다.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어느 편을 들겠는가?

크리스천들은 화합을 사랑하지만 진실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살 정도는 아니다.

기독교는 수학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 까닭은 그 진리가 하나님 당신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지갑을 열고, 나는 내가 원하는만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크리스천들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난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처음 보는 색깔의 장미라도 그것을 보고 장미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단번에 장미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경귀를 장미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이교도는 사랑할 수 있지만 이교 그 자체는 사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인간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육체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다르게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나는 그 사람과 화합도, 심지어는 한마디의 말도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들의 학생들과 토론을 통하여 강의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실을 선포하고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유가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크리스천들도 진리를 선포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4월 10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오래된 찬송가나 예배 의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젊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정신과 감성이 급격한 변화를 거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새로운 노래들과 새로운 예배의식이 등장했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마치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행해 온 예배 의식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새로운 의식들을 좀처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는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도 한때는 새로운 것들이었다는 점을 깜빡 잊고 있는 것이다.

바하의 성 마태수난곡은 그의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 번 연주된 후에 그것은 백년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지내야만 했다. 하이든의 위대한 오르간 미사곡도 독일 세실리안 수도회의 창시자에 의해 신성을 더럽히는 음악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것은 창녀가 여왕과는 도무지 비교도 될 수 없듯이, 또 왈츠라는 음악이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듯이, 교회의 신성한 음악에 도무지 포함될 수 없는 곡이다.” 비트리는 이 사제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그는 아마도 하이든의 음악을 술집이나 어울릴만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군대식의 소란스러운 리듬은 교회 예배의식의 진지함과 십자가의 희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은 그곳의 회개한 원주민들이 오르간 대신 그들의 드럼으로 연주를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진한 감동을 받는다고 전하여 준다.

당신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음악과 교회내의 행사들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것들이 당신과는 다른 정신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욱 더 찬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4월 11일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탄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그치지 말라.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이름을 종이위에 적어라. 어려움에 처한 이는 누구인가? 외로운 이는 누구인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에게 버림받고 사는 이는 누구인가? 낙오자는 누구인가?

악명높은 이교도 만손교의 스키키 프롬은 그녀에게 전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께 쫓겨났다. 그녀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빈민가에 버림받아 앉아있을 때 더 무서운 살인마 만손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녀에게 물었다. “사랑이 필요한가요?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세요.” 그녀는 그를 따라갔고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들을 위장할 줄 아는 사탄 종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녀는 약물중독자가 되었고 포드대통령을 죽이려고 습격했었다. 지금 그녀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중신형)을 살고 있다.

만일 크리스천이 길가에 울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라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당신의 이웃은 외국의 망명자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굶주리고 있는 많은 이들 중의 하나일 수도 있으며 태평양의 한 섬이나 공산국가, 또는 이슬람국, 아니면 소위 기독교 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마치 전람회 에서 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감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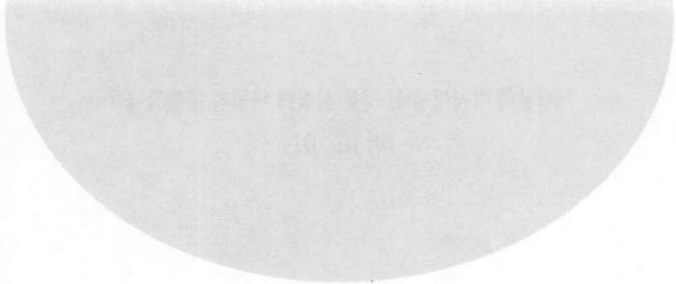
4월 12일

하나님께서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말 2 : 16).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밖에 없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 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들이 지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평생을 희생할 각오로 결혼에 임하지 않았 거나, 중도에서 그러한 의도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라는 점까지 부인하 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간음 의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번 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형태를 말함이다. 이러한 경 우일 때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못박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는 다른 수입원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하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마 23 : 23)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 인용된 상품들 은 수입원의 여러 형태 중 일부를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간음을 예로 드신 것은 이혼을 하는 동기에는 이처 럼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 배 우자가 노름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마약 중독자이거나 알코 올 중독자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큰 위협이 되거나, 가족들을 버리거나, 혹 잔인한 행동을 일삼고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가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의 배우자에게 부부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내게 어떤 범죄의 공모자가 되기를 강요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눈을 열어 성숙한 태도로 심사숙고를 해보고, 결혼과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경험이 많



은사람들의 충고를 들어보는 것이다. 20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자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에 20세 이후에 결혼하는 여자들에 비해 이혼할 확률이 세배나 높다고 한다. 어떤 여론조사는 14세와 18세 사이에 결혼하는 여자들의 31%는 결혼 당시에 이미 임신중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들이여, 서로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당신 자신들의 행복과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결혼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 다음에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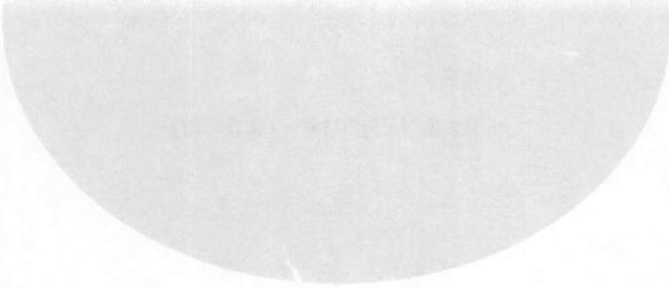
4월 13일

1836년과 1861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던 크리스천들은 비밀리에 성경을 읽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규모도 이 기간에 10배나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기독교가 거의 전파되지 않았던 홀모산의 언덕에 사는 부족들도 일본의 억압에 대항하며 오로지 성경의 연구에 기초한 크리스천 사회를 굳게 건설했다. 케냐에서도 마우마우단의 비호아래 키쿠유 서약을 강요하는 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대항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크리스천들이었다. 그 지역 고유의 교회가 얼마나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읽을 때에, 목사들과 사제들을 포함한 교회의 조직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세상 어디에나 실제적인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진실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통달해 있어야 한다.

중공에서는, 지금까지 지옥으로부터 도해진 책들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인 마오의 소위 '사상서'가 가정과 길거리에서 강제로 읽혀지고 암송되어진다고 한다.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학자들중 하나인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소망은 농부들이 들에서 일할 때에 성경의 구절들을 노래했으면 하는 것이다." 시편의 노래들과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서로서로 대화를 하라. 여기에 교회의 구원이 놓여있는 것이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아는 특권계층인 엘리트(인류의 40%에 지나지 않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허락된 성경을 지닐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 세계의 반은 성경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또한 당신은 성경을 구입할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 그것도 특별히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일과로 삼도록 하라.

...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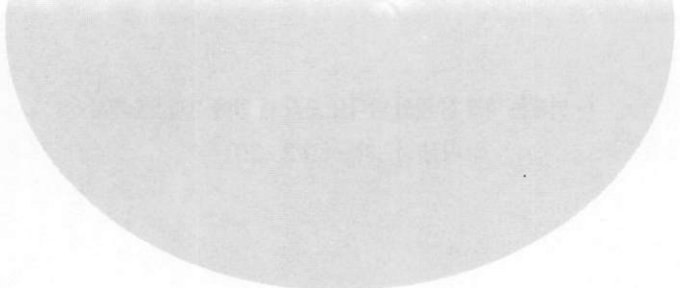
4월 14일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서 나는 특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모세는 '여호와와의 전쟁기' (민 21 : 14)를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여호수아는 '야살의 책' (수 10 : 13)이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살은 '의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과연 누가 그것을 지었을까?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행 17 : 28)라고 말한 그리이스 시인의 말을 인용한다. 그 시인의 이러한 발언은 너무나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었기에 그 말의 중요성에 밀려 막상 그 말을 한 시인의 존재는 무시되고 만다.

사람들이 어느 시인의 시를 노래할 때, 그것은 마침내 진정한 시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권위를 갖고 어떤 시인의 시구를 인용할 때, 더 이상 그 시인의 이름 따위는 기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노래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영광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노래들은 단순한 인간들에 의해 지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을만큼 훌륭하다. 불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부처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어찌나 아름답고 훌륭한 걸작이었던지,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 화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림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진정한 크리스천 작가나, 시인이나, 설교자나, 아무런 직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신도로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는 더이상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 즉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의 영혼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위하여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으시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이름은 가리워지고 말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함을 얻



을 것이다. 그 때에는 이미 아주 신비한 결혼관계가 성립이 된 후이므로 하나님은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신을 인용하실 것이다. 당신은 그제서야 그 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4월 15일

어느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두 마리의 제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한 마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무엇인가를 만드세요. 등지를 틀 나무들도 있어야겠고, 날아다닐 수 있는 대기도 필요하고, 이리 저리 옮겨다닐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많은 나라들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 속에서는 인생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비가 이렇게 끼어들었다. “하나님, 제발 아무것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일단 당신께서 물질과 에너지와 운동을 창조해내시면, 그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결합할지 누가 압니까. 육식을 하는 새들이 나타나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고, 아주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와 저희들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나는 창조를 하고 싶다. 나는 나의 사랑을 쏟아부을 존재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고도 싶다.”

두번째 제비가 다시 경고했다. “일단 당신께서 변하는 감정과 생각과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시면, 그들은 언젠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토록 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미리 다 계산하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희들을 있는 이대로 내버려두십시오. 당신과 저희 두 제비들, 이대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 말을 꺼낸 제비도 지지 않았다.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만약 그 세상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노래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는 새들이 몰려와 저를 뒤쫓아도, 성미가 고약한 아이들이 저를 잡으려고 덫을 놓아두어도 저는 계속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그 분은 사랑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행하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새로운 우정이나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누구나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희망을 가지며 서로서로 도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사랑의 반대는 비존재일 뿐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세상이라는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 2 : 14)

4월 16일

눈 먼 사람 여섯이 모여서 코끼리가 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는 그것이 벽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그것이 부채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세번째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그것이 기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란 뱀과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는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전 13 : 12).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얻은 장님들에 관하여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어떤 모임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눈먼자들을 고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그 분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반박하고 나섰다. “아닐세. 그건 선행을 전혀 무시한 프로테스탄트인 자네의 생각이지.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네. 예수께서는 눈먼자의 눈을 손수 어루만져 주신다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도 두번 만져야 하는 거라네. 만약에 주님께서 한번밖에 어루만져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마치 나무들처럼 뻗뻗이 서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랬더니 먼저 말한 사람이 자신은 한번밖에 주님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벽하게 볼 수 있었노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의 장님이 끼어들어 이야기하였다. “당신들은 모두가 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먼. 예수께서는 흙에다 침을 뱉으심으로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눈 먼 사람의 눈 위에다 바르신다네. 그러면 그 눈 먼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호수에 가서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한다네. 다른 호수에 가서 씻는 일은 헛수고일 뿐이지. 이때껏 자네들이 한 말은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일세.”

그리하여 전에는 눈이 멀었던 네 명의 사람들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각각은 자신의 교파를 이루게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네 교파의 우두머리



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나는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 넷을 모두 고쳐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합심하여 병고침을 받은 일에 대하여 내게 감사를 올리는 일이 마땅치 않았겠느냐? 내게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너희 병자들을 고칠 자유가 없단 말이나?”

당신이 형제의 잘못이라고 단죄하는 바로 그 일이 사실은 그 형제가 주 예수와 개인적으로 겪은 아주 확실한 경험일 수도 있다.

...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속 4 : 6)

4월 17일

현대미술을 옹호하는 한 사람이 영국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 예술은 민주적이다. 누구나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 물감을 칠한 붓으로 두 개의 선을 긋고, 또 파란색으로 비슷한 선 세 개를 더 그은 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라. 그 동그라미는 굳이 둥글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그림 중에서 소녀의 코와 눈을 찾아내어 그 그림 위에도 붙이면 된다. 그리고는 거기다 이런 제목을 다는 것이다. “인류의 화려한 미래”라고. 그러면 비평가들이 당신의 그림을 아주 흥미롭다고 앞다투어 말할 것이다. 정말 흥미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흥미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천부적인 소질도 재능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이러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예도 더러 있다.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그의 당시에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오던 성만찬보다도 오히려 설교를 예배의식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에는 훌륭한 설교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간파했던 것이다.

피에타를 한번 보라. 실물 크기의 동상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돌을 조각하여 한 여인의 품에 다 자란 남자의 몸을 안겨 주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젊어보인다. 그녀에게는 순결의 아름다움이 여전이 남아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는 슬픔을 지닐 수밖에 없는 남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다. 그녀는 부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을 교리 시험을 통해 양산해 낼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설교나 간증의 주제가 되기 전에, 그 분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계셔야 한다. “마음에 가득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 12 : 34).

은사를 받지 못한 설교자들은 직업을 바꾸어 다른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는 은사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라면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법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에 관하여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한 우리들의 간증이 현대미술과 같아질 것이다. 누구나 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작품들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들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간증이나 설교를 할 때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학식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운가 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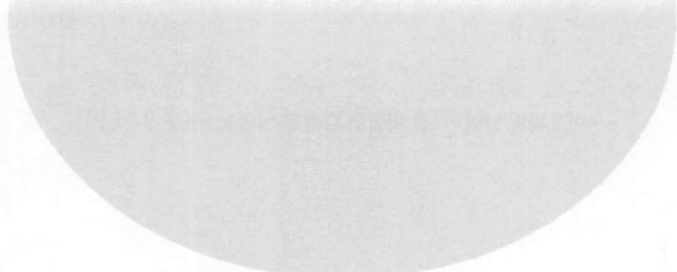
4월 18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분은 우리가 그 말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오늘 당장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막 16 : 16).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영원을 지내게 될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른쪽으로, 또 다른 이들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 중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일종의 긴박감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성경적인 예언들에 관하여 쏟아져나오는 책들을 주의하라. 그런 종류의 책들은 20년만 지나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깨달았다. 루터는 터키가 강국이 되자 곧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때는 무솔리니가 다니엘에 의해 예언된대로 로마제국을 다시 건설할 사람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았었다. 또한 히틀러를 666이라는 숫자를 지닌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계 13 : 18)이라고 보는 견해가 만연했던 적도 있었다.

종종 우리는 가슴속에 별로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막 13 : 2),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재하는 대신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고 싶어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요엘 2장 28, 29절 말씀 바로 다음에 따라나오는 말씀, 즉 인류에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언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그러한 다음에는 인류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재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4월 19일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 토마스 뮌쩌는 루터를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중독되어있는 율법학자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루터를 “성경에 걸신들린 사람”이며 “성경을 십만번 씹어 삼켰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뮌쩌의 신앙은 살아계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루터는 뮌쩌가 성령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성경을 그의 말의 증거로서 뒷받침할 수 없는 한, 그의 얘기에는 귀기울이지 않겠노라고 반박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가 옳았다. 성 제롬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렇게 쓰고 있다.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성경에 통달해 있는 사람은 교회의 보루(堡壘)와도 같다.”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나 혹은 성경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나 하는 문제는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감화를 입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며 성경이 ‘스스로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충분하다’ (칼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위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이 진정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도,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애쓸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인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은 인간의 어떤 판단보다도 우월한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논쟁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못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은 정복할 수 없는 진리이며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그것에 승복해야 한다. 어떠한 영이라도 당신을 그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하라.

4월 20일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만큼 피에 굶주려 있고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은 없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학살하고 억압하는 일에 미쳐 있다. 해 아래 어떤 민족도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또 앞으로도 그럴것보다 더 욕심많은 민족은 없다. 이것은 그들이 벌이는 저주받을 고리대금업에서 잘 나타난 사실이다.”

위에서 인용한 말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다. 다른 위대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나 교황들, 또 교계의 인사들의 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감정은 단순한 말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비열한 민족으로 묘사된 유대민족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학살당했다. 히틀러도 천주교 계통의 학교에서 초기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는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 부당하게 미움을 받게 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성경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롬 9:5). 폭풍우속을 걸어가는 방랑자는 외투를 꼭꼭 여미게 마련이다. 따스하고 밝은 해가 뜨면 그는 외투를 벗게 될 것이다. 오로지 따뜻한 기독교적인 사랑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나 길을 잃고 방랑하게 된 그 민족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의의 빛과 온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4월 21일

많은 사업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력하며 산다. (그들에게 돈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은 돈의 대부분을 은행에 저축해두고 시는 것을 보면 확실해진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그들로 하여금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일 경우가 많다.

돈을 모으기 위한 이런 미칠 정도의 활동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휴식과 관련된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돈을 좇아다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도 중단하라. 약속들과 회의들은 잠시 잊어 버려라. 생활이 갖는 팽팽한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아라. 일상생활로부터 떨어져 나와 휴식을 취하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교도들조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것은 아담에게서 그들이 물려받은 것일까? 가능하면 일로부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휴식을 취하라. 소크라테스는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노는 것으로 원기를 회복했다고 한다. 예수 회 수도원에서는 두 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15분간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해야하는 휴식시간이 있었다. 리셀로우 추기경은 자신의 남자하인과 높이뛰기 경기를 하는 등 주로 격렬한 운동을 함으로써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망으로 불타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입의 증가는, 특히 그것이 더 많은 걱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라. 마음과 몸을 느긋하게 하라. “모두 내게로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마 11 : 28, 29). 당신이 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시 121 : 4).


4월 22일

생명에 대하여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이 죽을 때에 곧 그 개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 속에 압축되어 있는 에너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썩어가지만, 이 원소들은 다른 결합들을 이루게 된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 칼로리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 칼로리는 우주의 총체적인 에너지 속에 여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난로가 식었다는 것은, 그 난로가 가지고 있던 온기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는 의미다. 내 몸이 차가운 시체로 변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내게는 이 외에도 영혼의 에너지, 의지력, 감정, 양심과 같은 힘이 있다. 이 우주 속에서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다. 영혼의 에너지라고해서 예외일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죽음은 그 에너지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런 글을 남겼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며 결국은 죽게 되는 인간의 한 물질적인 측면과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측면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하게 하며, 인격이라는 것이, 그것의 본성과 소명에 의해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해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정신과 뇌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죽음이 의식을 뇌로부터 단절시킨 후에도 어떻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식이 없어진다는 논리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활동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만약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활동을 계속한다면, 내 육신이 더 이상은 영혼의 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자연이 내게 다른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게 될 것이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계속하라. 만약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때에 또 다른 육신을 주시게 될 것이다.

4월 23일

민수기 31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게 하셨는지에 관해 읽게 된다. 유대민족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오백분의 일만을 제물로 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다. 그 분께서는 아주 보잘것 없는 작은 일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 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셨다. 그 분은 또한 슬픔의 인생길을 걷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세상에서 멸시받는 열 두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다(고전 1 : 28). 때때로 그 분은 괴물과 같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두시고 당신 자신은 작은 양떼만으로 만족하신다. 악인들은 승리를 거두고 크리스천들은 억압과 핍박을 당하게도 하신다.

만약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겸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창조주를 의심하는 것은 아주 불순한 것이다. 왜냐고 묻지 말고 겸손하신 하나님 곁에 너도 너의 겸손한 자리를 찾아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참된 크리스천들은 커다란 업적을 내세우는 법이 없다. 주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독재자들과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들은 늘 작은 것들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승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 성취한 보잘것 없어보이는 업적들을 기뻐하라.

4월 24일

위대한 화가였던 반 고흐는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내 병을 없애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속했다. 예술은 질투하기 때문이지. 예술은 우리가 자기를 택하지 않고 병을 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원하는대로하기로 결심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내 두 손은 너무나 창백해졌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플 권리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규칙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예술과 마찬가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이나, 실망이나, 실패나, 그 밖에 다른 곤란한 일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신경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크리스천들은 아프다는 거짓 핑계로 결론할 수 없다. 또한 그들에게는 영혼의 질병도 없어야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만약 조각칼이 이 동상의 코를 너무 많이 깎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소.” 그러나 지켜보던 남자는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고칠 수 있소?” 조각가는 대답했다.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소.” 그러나 한 번 질문을 시작한 남자는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겠소?” 미켈란젤로는 화를 내며 그에게 소리쳤다. “입 다물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요일 3:6). 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소명인 예술을 포기하는 따위의 사치스런 일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죄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은 질투심이 강하신 분이시다. 그 분은 우리가 죄나 슬픔이나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허락도 용납도 아니하신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 12:1)

4월 25일

쿠바의 감옥에 갇힌 어느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을 기소하는 진술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가 서명만 하면 그 진술서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 죄수는 말하였다. “나는 사슬에 묶여서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공산당 간부가 대꾸했다. “당신에겐 사슬이 채워져 있지도 않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증인들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나도 그 사슬중의 한 고리입니다. 나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순교를 완벽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말한 다음에 이와 같이 덧붙이고 있다. “권력자들을 향하여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확신을 표현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순교자들에게서 교훈을 얻어라. 당신도 이같은 사슬의 일부분이다. 끝까지 충성하라!

니올 사두나이트라라고 하는 젊은 크리스천 부인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법정에서 세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저는 진리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제겐 누구라도 부러워할만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스러운 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유죄판결은 오히려 저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회스러운 것은, 제가 형제들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 보잘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참된 행복을 모릅니다... 악은 멀리하되,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 당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해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 : 22, 23)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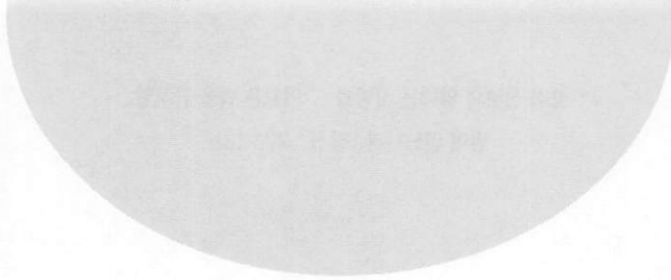
이 세계의 삼분의 일 이상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모든 종교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는 성경을 밀수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크리스천들이 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 혹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유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세워진 두 그룹(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어쫓으신 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려고 세워두신 천사들 : 역자 주)사이에서 유대민족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사장들은 안심하였다. 그들에게 미리 귀뿔을 하지 않고 메시야가 오실 리는 없다고 그들은 믿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다른 나라를 예방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총독도 안심을 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나타날 수는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느날 밤에 '세상의 빛'은 모든 도덕적인 기준들과 생물학적인 법칙들을 위반해가며, 거룩한 처녀의 태내에서부터 아기의 모습을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밀입국'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땅에 묻히시게 되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의 무덤 문에 돌로 봉인하였다. 정부에 의해 봉인된 것을 뜯거나 열어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 천사가 무덤에 다가와 봉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에 있던 돌을 굴러 내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께 법을 지켜 봉인된 무덤 문을 열지 말고 무덤 속에 그냥 머물러 계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무덤으로부터 생명으로 '밀입국'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중력의 법칙도 ‘깨드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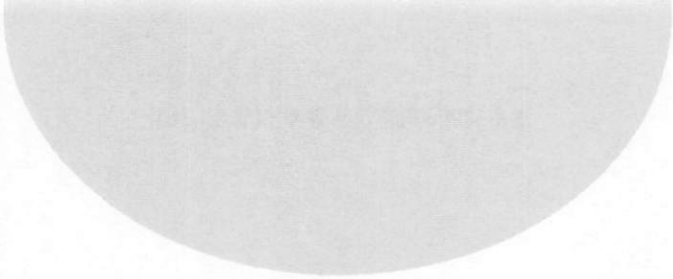
성 어거스틴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가르쳤다.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대로 행동하라.”

4월 27일

소련의 작가인 아나톨리 크라스노프 레비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랑과 분노는 자매이다. 분노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있을 수 없다. 고대 예언자들이 전한 말들은 강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슴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랑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분노를 가져오기도 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분노는 가득 차 있었다...” 죄를 보고서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크리스천다운, 혹은 인간다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늘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 압살롬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형인 암논을 죽이도록 지시했던 것이다(삼하 13 : 28). 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압살롬은 다윗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다. 자기 자신이 법의 집행자가 되어 사람을 죽인 자에겐 이와 같은 유배가 마땅한 벌이라고 할 수 있다. - 더구나 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유일한 재판관이었던 왕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 그러니 왕은 압살롬이 스스로 선택한 그와 같은 형벌을 달게 받도록 놔둬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 왕은 형편없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 아무런 회개의 빛이나 삶의 변화를 보이지도 않는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었다. 그 살인자는 용서를 빈 적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얻게 되어 다시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을 몰아낼 음모를 꾸밀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결백한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다. 만약에 다윗 왕이 거룩하지 못한 너그러움 대신에 거룩한 분노를 보였더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사 53:5)라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선의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4월 28일

어느 작은 마을에 영구차 운전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마을의 교회 목사가 그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전도하려고 애써봤지만, 헛수고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려 갈 일이 생겼는데 그의 차는 마침 고장이 나서 수리중이었다. 그리하여 목사는 영구차의 운전사 옆 자리에 올라타고 함께 가기로 했다. 목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전사를 회개시킬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목사가 운전사에게 던지시 물었다. “성경에는 당신의 직업과 관계된 아주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런데, 죽은 영구차 운전사가 묘지까지 관을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일꾼이 무덤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더군다나 죽은 목사라면 어떻게 장례식을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운전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목사님, 제가 늘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들로만 가득차 있다가구요. 금방 예로 드신 그 예수의 말만 해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대답했다.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내버리기 전에 우리 서로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탄 차 뒤에 실려 있는 죽은 사람의 몸이 들어있는 관이 아까 집 밖으로 운반되어 나올 때, 당신도 그의 부인이 ‘조지, 저 혼자 내버려두고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 들으셨겠죠? 아이들도 아버지를 부르며 가지 말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게 소용 없었죠.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죽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또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묘지까지 태워다 땅에 묻게 되는군요. 이제보니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 육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무덤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나사로의 몸을 무덤 속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의 영혼도 부활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몸이 다시 산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죄와 잘못에 빠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들, 즉 믿는 자들을 이 사업에 동참시키고자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 분밖에 없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딸미암아 외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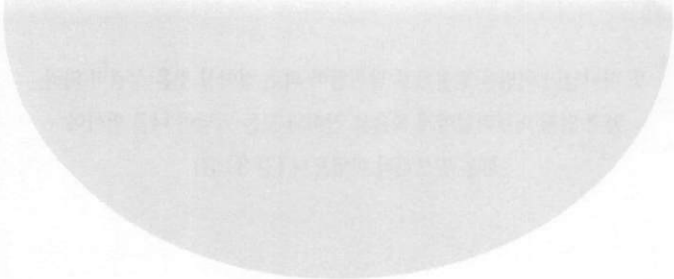
4월 29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은 성경중의 어떤 책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몇 세기나 지나서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하였단 말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은 자신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성경이 한 약속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지 아브라함은 예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수천년 전에 이미 즐거워하였다고 한다 (요 8 : 56).

자, 성경중의 어떤 책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을까? 그에겐 지금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대로, 지금의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며, 우리가 말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들을 단순한 인간의 언어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때까지는 인간이 가진 어떤 성경책에도 쓰여져 있지 않았던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와의 전쟁기’가, 여호수아 10장 13절에는 ‘야살의 책’ (야살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라는 뜻임)이 언급되고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책들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린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풀이하여 놓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책들도 말하자면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적어놓은 것들인데, 다만 억지로 인간적인 언어라는 틀에 끼워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성경과 다를 뿐이다.



영혼의 산을 오르라. 그리하면 성경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희열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 : 16)

4월 30일

어느 목사가 막강한 힘을 가진 철도노동조합장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에 파업사태가 일어났다. 그 사태는 오랜 기간을 끌었고 파업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배고픔과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빚덩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태세였다.


그 때에 목사가 조합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당신이 파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묘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말하는대로만 한다면 충분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조합장은 목사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며 그 묘안이라는 걸 알고 싶어했다. 목사가 설명을 했다.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환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위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이들을 철로에다 묶어 놓고서 그 위로 달리는 기관차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승리는 반드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화가 난 조합장은 소리쳤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눈 앞에서 굶어죽는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순 없소!”

하나님께서서는 오래전에 죽은 성자나 혹은 천사를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이들 중의 으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감동하여 회개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를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 비하면 아주 수준이 낮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최고이신 예수를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분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경축하는 일이 바로 이것, 즉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가지신 것 중에서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분께 우리의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의무가 있다. 유대 성전의 엄격한 규칙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가장 좋은 곡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디오게네스의 꺾통 굴리기



5월 1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막 6:9).

로마의 디오클레이투스 황제 당시, 크리스천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유스트라트라는 한 크리스천은 크고 날카로운 못들이 안으로 박혀 있는 부츠를 신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이러한 부츠를 신고, 더 빨리 달리라고 때리는 매를 계속 맞으면서 그는 순교했다. 교회는 그의 죽음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 순교는 일상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이다. 누구나 다 못이 살을 파고드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검소한 옷차림을 할 것을 요구하셨다. 요즘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데에 열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올바른 의식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적당한 숫자 만큼의 옷과 신발을 소유하는 것이 어떠한가?

크리스천들은 스스로를 소유주로 생각하지 말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기면서,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골고다의 언덕을 헐벗은 채 맨발로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신발이 얼마나 되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수천만의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영광으로 그들의 몸을 치장하게 될 것이다.

5월 2일

“예수께서...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막 8:6~8).

만약 제자들에게 떡이 일곱 덩어리가 아니라 세 덩어리, 혹은 한 덩어리 밖에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경우에도 그 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사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는 떡 일곱 덩어리 대신 다섯 덩어리밖에 갖고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더 큰 군중을 먹였으며, 그때 남은 떡 조각은 오히려 더 많았다(막 6:41~43). 당신은 당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예수의 축복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의 크거나 많음에 상관없이, 당신이 그것을 예수께로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내게 만약 가지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예수께 가지고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라는 단어나 개념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다. 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자신과 그가 지닌 극심한 가난이다. 또 그는 자신의 죄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광란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억압하던 죄를 지었던 다소의 사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열성적인 사도가 되었다. 죄 많고 정숙치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지닌 성자로 바꾸어 놓으셨다. 당신이 가진 약점들을 예수께로 갖고 나오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약함 중에 그분의 힘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보라.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것을 그냥 쓰지 말고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라. 그리하면 그 분께서 그것을 크게 불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5월 3일

크리스천들은 마오 쩌 - 똥의 저서들을 한 번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동료들과 의견차이로 부딪치기 전에, 그는 “지구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오해를 조장하고 그런 다음에는 급습을 하는 것... 그리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 그렇다면 오해란 무엇인가? 동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서쪽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적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전쟁을 할 때 이러한 속임수는 아무리 써먹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오의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계급 투쟁과 혁명 전쟁은 바람직한 것들이며, 그들은 앞으로도 여러 세기 동안 이러한 전쟁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을 기만하는 부정직함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 라는 말만 하여라”(마 5:37). 우리는 거짓말에 뿌리를 둔 삶과 진리에 뿌리를 둔 삶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 21:9)

5월 4일

제자들이 몹시 배고플 때에 예수께서 식사를 마련해주신 이야기이다.

이 경우는 예수께서 손수 그 식사를 준비하셨다. 다른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 시어 제자들을 돌보게 하신 적들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하며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 낸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왕상 19:6).


배블리 먹고 난 후에 이런 기적들을 믿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감옥에 갇혀서, 씻지도 않은 내장으로 꿇인 수프가 식사 전 부인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있다. 수프 위에는 내장에서 흘러나온 똥이 떠 다닐 정도이다. 그런 음식이나마 강제 노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우리 형제들이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신앙 역시 많이 위축된다. 의심이 일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전지 전능하시다. 그 분께서는 초기의 사도들을 위해서, 또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마련해주셨다. 왜 나를 위해서는 튀긴 생선이나 떡을 준비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왜 이런 더러운 내장들을 먹고 있어야 하나?”

하나님께서서는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동료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신 것이다. 엘리야를 먹이라고 천사를 보내셨던 것같이, 자유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 식량을 마련할 임무를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용해 순교자들의 뒤통을 차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비극적이다.

당신도 이러한 도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서는 적그리스도 성향을 띤 통치자들 아래에서 핍박을 당하는 크리



스천들을 위해 먹을 것 뿐만 아니라 자유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을 믿고 맡기신 오늘날의 모세와 여호수아들은 파업중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뇌물을 먹였고 그들은 모두 그의 편이 되어버렸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이 나서서 일할 마음은 없는가?

5월 5일

중국의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밤에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나비 꿈을 꾸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사람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모르겠다.”

성경은 꿈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성경에는 모두 36편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꿈의 해석도 함께 나온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은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 양치기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로서의 성격과 재능을 타고났던 사람으로서 단지 깨어있는 동안에 양치기였던 꿈을 잠시 꾸었던 것일까? 느부갓네살은 왕이었는데 밤 사이에 자신이 괴물이 되는 꿈을 꾸었던 것일까, 아니면 원래는 괴물이었는데 왕처럼 숭배를 받는 백일몽을 꾸었던 것일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약성서에 나오는 요셉이 꿈을 경시하여 꿈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처녀였던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했다면 그녀는 순결치 못한 약혼녀로 의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의해 돌로 쳐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 종이와 펜을 옆에다 준비해 두어라. 날짜를 적고 당신이 꾸는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평소에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사실 꿈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연습을 통해서 당신은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풀이되지 않은 꿈은 뜯어보지 않은 편지와 같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욘 39 : 26)

5월 6일

알래스카의 야생 지역에 사는 해리(海狸 : beaver)들은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나무를 토막내어 그 나뭇가지들을 자신들이 만든 운하로 자신들의 습기찬 성이 솟아있는 바닷가까지 운반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그들이 이루 어놓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무작위적인 진화의 결과에 불과한 해리들이 그들이 만든 호수의 수위를, 그것도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무신론자는 없을 것이다.

해리들에겐 인간이 만든 댐과 똑같이 물의 양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댐이 있다. 그래서 일년 내내 그들의 호수엔 일정한 양의 물이 차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해리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여 그런 행동들을 취할까? 해리들과 같은 운하와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명의 일급 기술자들을 필요로 한다. 인간들이 최근에 발견한 기술인 물의 진행방향에 따라 약간 옆으로 굽게 댐을 건설함으로써 물 표면의 압력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해리들에게는 수 천년 동안이나 알려졌던 비밀이다. 급류가 흐르는 곳에는 운하의 벽을 오목하게 만들어 수압을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지능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능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인간들의 세상이 당신으로 하여금 도무지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는다면, 해리들과 개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분을 믿으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나... (고후 3:3)

5월 7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의 좋은 증거 중의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어느 사상가는 이 우주가 뜻밖의 요행수들이 무한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우연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질적인 세계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선행, 고결한 인품, 자기 희생, 용서, 혹은 관대함 등 물질의 기본 원소들이 우연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표들을 아무리 공중에 던져 보아라. 그것들이 우연히 베테벤의 제9교향곡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내일이면 재분해될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이고, 그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는 누구의 기억속에서도 남아있지 않을 존재라면 어찌하여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한 사람들은 선하도록 고안이 되었고, 그러한 자신들의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분을 받아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당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5월 8일

이 구절은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 분께서는 선한 모든 것 중의 으뜸이시다.

“세상을”- 사랑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최고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독생자를”- 만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주셨으니”- 준다라는 행위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다.

“누구든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숫자이다.

“저를”-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분 안의 믿음은 어떠한 문제도 다 사라져 버림을 의미한다.

“믿으면”-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조건이다.

“멸망치 않고”- 가장 끔찍한 운명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함과 동시에 멸망과는 가장 거리가 먼 대안을 의미한다.

“영생을”-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길거나 더 나은 삶은 없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큰 확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유를 의미한다.

내 아들이 여섯살이었을 때 나는 그에게 이 구절이 아름답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말 같은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은 남겨두고 우리에게 그보다 못한 다른 것을 주신다거나,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생명을 주신다거나 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5월 9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얀 담요 위에 떨어진 눈발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 1: 31). 참 좋은 것과 매우 좋은 것을 어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창조물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 분은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나오는 악한 왕비처럼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나?” 하고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실 수가 없다. 어떠한 최상급도 그 분께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는 모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새들과, 시냇물과, 웅장한 산꼭대기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누셨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소녀가 용모가 수려한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데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까? 아무런 노력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모든 노력은 거짓인 셈이다. 그 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야 한다. 천사들이 어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사 6: 3). 그 분의 보좌에 썩어진 영광과 비교하여 조금도 못할 바가 없는 영광이 온 땅에도 가득차 있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 8). 하나님은 모든 사물에서, 또한 모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당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너울을 벗어 버리고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고후 3: 18).

5월 10일

아무리 근거 없는 소망일지라도 가장 확실한 절망보다는 훨씬 더 기초가 든든하다. 나는 이것을 스스로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였다.

나는 25년 동안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형을 받았다. 감옥에서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병자였으며, 의사들도 내가 회복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였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나는 언젠가는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억압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선교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내가 처해 있었던 처지를 감안한다면, 절망을 하거나 혹은 심하게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을 한다고 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 나의 무릎 위에는 귀여운 손자가 앉아 있다.

언제든지 소망을 버리지는 말라. 탈무드는 만약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처형대 위에 누워서 사형집행인이 도끼를 치켜드는 것을 보고, “아,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 도끼는 사형집행인의 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루마니아의 왕이었던 미가엘 대제에게 일어났었다고 한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찬 행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에게서 죽으리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사업을 위하여, 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소망을 품으라. 이때까지 수천가지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어도 고쳐지지 않는 당신의 성격을 위해서도 소망을 가져라. 우리의 소망은 지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욥 26 : 7) 하나님이다. 그 분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무런 기초 없이도 확실한 것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20 : 2)

5월 11일

어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빙스톤은 복음을 알고 있었는가? 그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었다. 리빙스톤이 노예들은 그대로 노예로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었어야 옳은 일이었을까? 죄없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에서 죄수들을 이동시킬 때 흔히 그러는 것처럼, 팔목이 쇠사슬에 묶여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끔찍한 행위들은 리빙스톤 박사로서 하여금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노예제도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를 드러내기도 한다.

리빙스톤은 영국 사람들에게 인간의 피와 살을 사고 파는 이와 같은 상행위를 근절시켜 줄 것을 끊임없이 당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다. 대영제국 내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리빙스톤은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 잠들어 있다.

유태인들의 언약케는 종교의식에 쓰이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의 상징이었다. 해방되기 전에는 종살이를 하던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찾기 위하여 요단 강을 지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 언약케를 마치 오늘날의 국기처럼 어깨에다 메고 걸었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전쟁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인 정의를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는 전사들이다.

5월 12일

인간은 고문을 하거나 살인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은 스스로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시니아비스키 - 다니엘 재판에 관한 백서”를 읽어보면 레닌이 새벽 두시에 자기의 방에서 뜰로 나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눈발에 서서, 그는 달을 쳐다보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내다가 가끔씩 멈추어 주위가 모두 조용한지를 확인하고, 또 다시 울부짖는 행동을 몸이 얼어 붙을 때까지 반복하곤 했다. 그런 후에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들을 계획했다.

위 이야기는 레닌의 개인 경호원이었던 사람의 입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레닌이나 히틀러처럼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볼셰비키주의자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 부모들, 친구들, 또는 고용인들을 괴롭힌다. 우리는 잔인하고 가학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는 예수님의 친절한 초대를 받으시지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사악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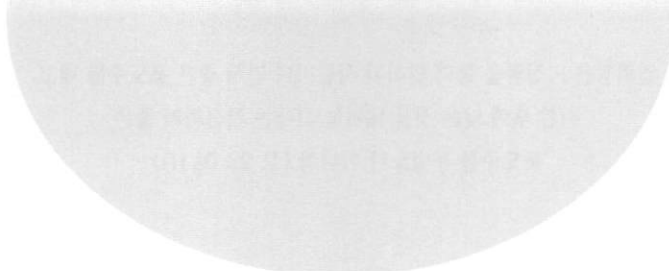
감옥에서 도둑들이 살인자들을 아주 나쁘게 혈투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도둑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리가 끼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로부터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은 또 다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뺏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한 번 뺏은 목숨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살인자들은 정말 벌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들의 말도 논리가 있다.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소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무책임한 죄는 없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거나, 그 사람의 명성을 더럽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다. 그 희생자에게는 다시 한번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다. 살인을 당한 희생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만약 재판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이 폭력을 묵과하거나 혁명을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피할수도 있는 전쟁속으로 온 국민을 끌고 들어가는 정부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유혈시위를 하는 시위대도 마찬가지이다.

폭력혁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V. 타르시스라는 소련 작가가 쓴 “피난처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책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혹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 공산당원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성경이 배포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지혜의 말들을 일단 한번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혁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게 될 것이니 말이다.”

만약 당신이 억압당하고 가난한 중에도 완벽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낙원에서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덧없는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질서를 바꾸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살인하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 2 : 9, 10)

5월 14일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준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약속들과 이기적인 쾌락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생의 절반을 다 마셨을 때쯤이면, 처음 보다는 못한 포도주만 남게 된다. 인생은 망가지고,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고, 영혼은 눈멀게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된다.

사랑은 우리 앞에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오늘날 이 기쁨은 십자가의 고통과 뒤섞여 있다. 지금 당장에는 이 기쁨이 시련과 비탄, 핍박과 벌거벗음 가운데의 영광이지만, 눈물과 피흘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 그의 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두고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급하거나 서들지 않는다. 사랑의 결과를 얻으려고 성급하게 덤비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시적인 실패나 고난이나 패배를 견딜 줄 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에 의해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영감을 얻어 크리스천들은 앞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의 편을 든 우리들을 위하여 그가 준비해두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이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지는 못한다. 지옥의 문들조차도 교회의 힘을 억누를 수는 없다. 교회가 있음으로써 위협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악에 물든 이 세상이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엡 4 : 24)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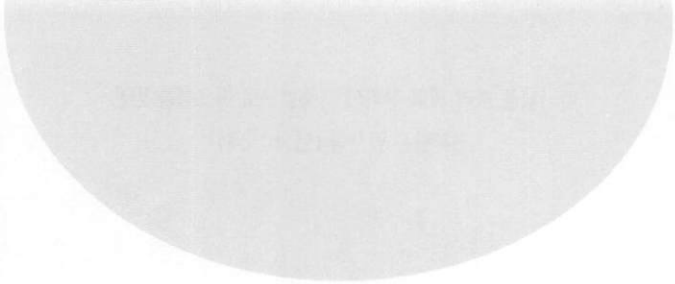
거룩한 것과 좋은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 1:31)라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 좋다”라는 말은 무엇이든 완전히 다른 어떤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창 2:3). 거룩함은 좋은 것과는 또 다른 범주에 속하는 낱말이다.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선택 수는 있다. 선하지는 않아도 거룩하게 된 극단적인 경우의 사람들도 간혹 있다. 기드온이나 야엘이나 여호수아의 선행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승리를 위한 전사들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나 루터, 혹은 칼빈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생애에서 별다르게 선했던 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위하여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공격하면서 무자비하게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영적인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어떤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는 지렁이들도 훈련을 통해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 빛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 때마다 그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대신, 밝은 데로 나올 때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실험을 거듭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렁이들은 성경적인 표현을 따르자면 ‘새 지렁이를 입게’ 되었다. 자신들이 속한 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험에 사용된 지렁이들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빛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험의 다음 단계는 그 지렁이들을 작은 조각으로 토막을 내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 토막들은 일반 먹이에 섞여져 또 다른 지렁이들에게 먹여졌다. 그랬더니 그 지렁이들도 역시 생활습관



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지렁이들을 먹이로 섭취한 두 번째 실험의 지렁이들은 그들 머리속의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을 이루는 리보핵산을 새롭게 합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먹이로 섭취한 지렁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버리고 빛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다른 동물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만약 당신이 참된 의로움과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먹이로 섭취해야 한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기 위한 그 한가지 목표로 스스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욘 4 : 6)

5월 16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일시적인 것을 형상화하고자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빌닷은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욘 8 : 9). 욘 자신도 혼잣말로 이렇게 읊는다. “(사람은)…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욘 14 : 2).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전 6 : 12)”라고 솔로몬은 탄식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대상 29 : 15).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도 때로는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 기분이 무척 좋아지기도 한다.

요나는 처음에 인간이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초막을 지어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날 아주 격렬한 바람이 불어 초막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자신들을 위하여 건설하는 모든 것 중에서 파괴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또한 이 곳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박 넝쿨이 자라 그들이 지게 되자 요나는 다시 기뻐다. 그러나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가 그 넝쿨을 쏴아 버렸다. 어떤 나무든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그 나무를 खा아먹은 벌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선지자도 역시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그가 가서 전도한 니느웨라는 도시도 요나의 당대에는 회개를 했지만, 언젠가는 결국 파괴되어 없어질 운명이었다. 주를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한날 그림자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내일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당신은 그 기쁨을 잃은 탓에 죽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망 역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절망이라는 것도 모든 감성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다. 박 넝쿨이 나서 자라던 땅, 사람들이 때론

희망을, 때론 절망을 하며 살아가던 그 땅조차도 언젠가는 불 타 없어질 것이다.

오직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은 4:11)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 분께서는 니느웨를 영원히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려두시지는 않으신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 분의 말씀도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어찌 그 분께서 영원히 아끼시지 않겠는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살후 3 : 8)

5월 17일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은 주님 한 분, 즉 천 개의 태양을 합친 것과 같은 광채를 뿜어내는 얼굴과 순결한 두 눈을 갖고 계시는, 흰 비취처럼 깨끗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였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된 주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제는 아니었다. 때로 바울은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 관해서 글을 쓰기도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구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우리가 가장 열중해야 할 분도 역시 끝없는 대양과 같이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시며, 그 분 안에 무한하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감추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분을 알게 되면, 희열을 느끼는 중에 자연히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들에 관하여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당신의 목사님께 일깨워드리도록 하라.

첫째, 목자들은 양떼의 음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는다. 의사는 연말에 가서 일년동안 자신이 몇 명의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그 중에서 몇 명을 완치시켰는지 보고할 수 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도 일년동안 자기가 몇 켤레의 구두를 만들었는지 통계를 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했는지를 보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자들은 밤낮없이 일한다. 낮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시 1 : 1, 2). 밤낮으로 일을 할 때에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목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5월 18일

크리스천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 한 경찰관이 목사를 체포하려 그의 집을 찾았다. 경찰관은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오?”

목사가 대답했다. “괴물이라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악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소년들처럼 모두 말 잘듣고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은 그만큼 더 갖추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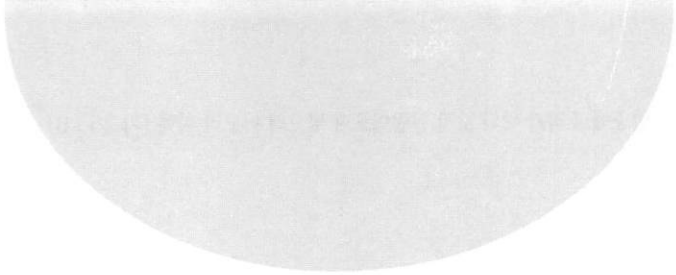
경찰관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 아니요.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소.”

“아니요, 당신은 분명한 도둑입니다” 하고 목사가 대답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뉘리구요?”

“당신은 그 분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죄를 훔쳤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그 분의 것입니다. 그 분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 분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의 더러움은 그 분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분, 그 모든 죄가 다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실 권리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신 그 분께 당신의 죄를 내어주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당신은 정말 나쁜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에 그 목사는 체포되지 않았다. 그를 잡으러 왔던 경찰관은 무릎을



끊고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했다.

당신은 도둑이 아닌가? 당신은 혹시 당신이 저지른 죄를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라 억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 25 : 6)

5월 19일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하여 자전운동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를 우리는 자정이라 부른다. 영적인 자정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벌써부터 그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을 맞는 느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이 세상의 자녀들이 같을 수가 없다. 자정이 되자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서는 장손들이 다 죽었지만 태함을 받은 민족은 자유를 얻게 되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요 9 : 4).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믿는 자들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막 9 : 23). 거룩한 백성들은 자정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을 뽑은 것도 한밤중의 일이었고(삿 16 : 3), 룻이 보아스로부터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룻 3 : 11)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깊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간수를 회개시킨 것도 자정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었다(행 16 : 25).

한밤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공훈을 세우는 법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한밤중에라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시 119 : 62).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 신랑이 곧 온다. 그를 빈손으로 맞아서서는 안되겠다.

5월 20일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예전 선지자의 예언에다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망하라!”라는 저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저주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신 일이 있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결과 그 나무가 시들어 버린 일도 있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경고는 사실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흠어졌던 양떼를 불러모아 다시 유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 명의 사도가 적들을 향하여 “망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랑’이라는 단 한 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인간도 단 한 마디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동시에 남자이고, 키가 크고, 목사이고, 죄인이며, 아버지이고, 하면서 계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단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정의, 분노, 공포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송가를 지은 바울은 같은 책에서(16 : 22) 이렇게 쓰고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크리스천들에게는 묵거나 풀 자유, 축복하고 저주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향해서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망하라!”하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징기스칸과 그의 힘센 민족 타타르족을 기억하라. 13세기에, 제트 비행기도 원자폭탄도 없이,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중부 유럽에 이르는 일대를 장악했었다. 그들은 소련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데 들었던 시간의 반밖에 들이지 않고도 그 일을 해냈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죽었다. 우리는 복음의 적들이 만들어 놓은 산더미같은 폭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솔레이만 대제와 가공할만한 위력을 지녔던 터어키족을 기억하라.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올렸고 저주의 말, “망하라!”를 외쳤다. 그리하여 적들은 모두 소멸됐다. 영적인 무기들은 아주 강력하고 상대방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만한 힘을 지닌 것들이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충성을 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였다.

5월 21일

소련의 감옥에 10년동안 갇혀 있었던 유대인이자 크리스천인 A. 크라스노프 레비틴이라는 작가는 자신이 어떤 크리스천 평화주의자와 가졌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 레비틴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당신 집에 강도가 든다면, 그의 손에 든 도끼를 빼앗아 그를 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평화주의자는 대답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일이 금지되어 있소.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거든 나머지 뺨도 돌려 대라고 가르치셨소.” 이 말에 레비틴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강도들에 의해 아이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소.”

그는 덧붙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직접 공격을 당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쉽소.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사람이 매맞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것은 무저항의 가르침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거짓이 판을 칠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 또한 비겁하며 이기적인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욕을 은유함으로 잊고 참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에 만연한 불공정과 거짓과 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는 목적에서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레비틴은 의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축복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유다는 “공통적인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불공정과 무자비에 대항하는 투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개인적인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야 한다.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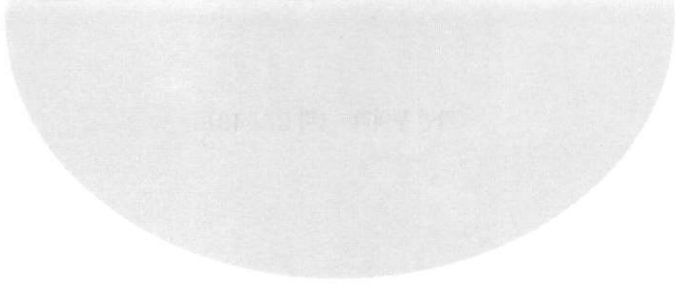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은 불공손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때로는 심할 정도로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을 저질렀다. 그 점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또 그들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그러했다. 교회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예의를 차리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무례하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aschemon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랑은 계획없이 행하지 않으며’라는 뜻이 된다.

그리스도는 동물학자처럼 사람들을 분류하신다. 그 분은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 즉 계획 안에서 종류별로 나누신다. 어떤 사람들은 “양”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늑대”이고, 그 밖에도 “개”라든가 “여우”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위선자들이라, 혹은 흠혈귀들이라고 부르신다. 다른 이들은 그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다. 그 분은 짐승에 대해, 붉은 용에 대해, 그리고 선택받은 비둘기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 마땅하지만, 위에서 분류한 “양”과 같은 타입의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선자들을 대하는 사랑과 예수의 제자들을 대하는 사랑이 다를 수밖에 없고, 독재자를 향한 사랑과 그 독재자의 희생자들을 향한 사랑 또한 구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의 양떼와 개들과 늑대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사랑은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을, 또 순종하는 어린이와 불순종하는 아이를 무조건 똑같이 대하지 아니한다. 사랑의 태도는 각각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깡패들이 죄없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치자.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지만 죄없는 사람의 편을 들어 필요하다면 깡패들을 향하여 총도 쏘며 그를 보호하려



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들이 이 세상의 계획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무례히, 즉 계획없이 행동하는 셈이 된다. 교회를 이익되게 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도 그러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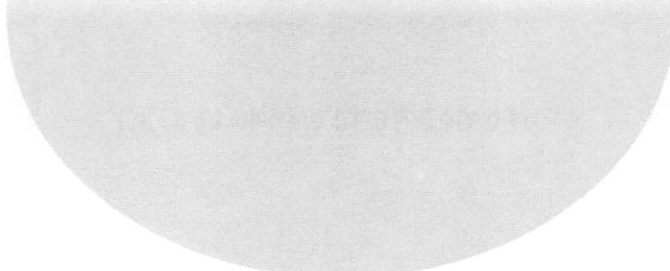
사람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지나친 무관심이나 무신경 혹은 냉대 같은 감정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끌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마다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있었다. 그들은 최소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그 금요일에 처형을 당하던 세 사람중의 하나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정도는 깨달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도 참지 못할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자기 옆에 매달린 강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예수께서 절망에 휩싸인 듯이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지켜본 군중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디... 두고 보자.” 물 한 모금을 갖다준다던가,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진다던가 하여 그 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엘리아는 옛날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짧은 문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마음에 두고 하신 것이었다. 우리들은 각각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 만약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죄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두고 보자”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끌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을 지켜 봤으며,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듣는다고 해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의 형제가 굶주리거나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둘 뿐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간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무기력과 냉담이 많이 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

5월 24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다음의 두 가지 구절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는 구절이 없다. “너는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누구와 함께? 너의 죄가 사소한, 아주 가벼운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심각한 범죄였는지 한번 말하여 보아라.”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일일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캐어 물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기뻐하여라 내 딸아,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 분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신다.

둘째로, 그 누구도 예수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는 구절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다.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다. 베드로는 그 분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을 주님께 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서 너무나 풍부한 이해와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분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은총을 내리지 못해 안달하며 쫓아오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성경에 있지 않은 이 두 구절을 의지하라. 그 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며 그 분의 가장 큰 소망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5월 25일

리어 왕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대에 올려지게 됨을 슬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급하게 자식들한테 다 맡긴 그는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음을(시 51:5) 알았어야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다. 세상은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헐뜯었다. 그를 악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햄릿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 “그대가 아무리 얼음처럼 정숙하고 눈처럼 순결하다고 해도 비방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요.” 오델로는 순결한 데스테모나를 창녀라 불렀다. 술취한 거렁뱅이도 그런 말을 입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줄리엣은 어리석었다. 열 네살이라는 나이의 그녀가 남자에게 반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현명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로미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인자하신 당신은 제 우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행동이다. 만약 그녀가 일 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 우상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햄릿은 오펔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어리석은 자와 결혼하시오. 왜냐하면 현명한 자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떤 괴물로 바꾸어놓을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현명하고 조심스러운 남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야고는 카시우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에게 술을 더도 말고 딱 한 잔만 먹을 수 있다면 그는 내 젊은 정부의 개만큼이나 미쳐 날뛰며 주정을 할 것이다.” 주류제조업자들은 우리들에게 한 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파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이 세상이 온통 취해있을 정도이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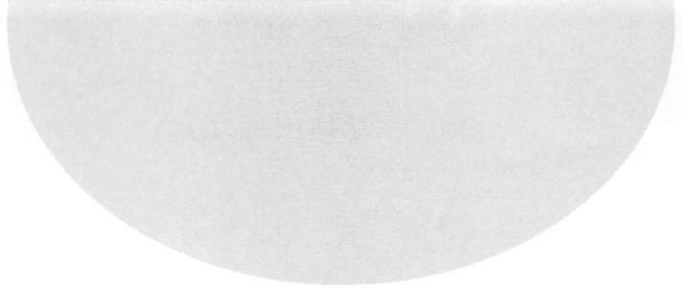
(형제들아)… 무슨 먹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5월 26일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 분의 모습이 변해 있어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글로바는 예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눅 24:18, 19).

예수께서는 관심을 보이셨다. 그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 명의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도 슬픔에 가득찬 그 강도들의 어머니들을 위로하려 갔었을까? 한 명의 제자라도 빌라도에게 가서 그 강도들의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까마귀밥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장사지내게 내어 달라고 부탁을 해보았을까? 게다가 그 강도들 중의 하나는 죽기전에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를 제대로 장사지내는 성의 정도는 보였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처형한 사람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보였다. 그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들을 사랑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사흘이 지난 때였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분열을 일으킨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다친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래들을 지었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들이 굶지 않도록 돌보아 주었을 것이다. 사흘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예수께서는 물으셨다. 그 분은 선행과 죄, 혹은 기쁨과 슬픔 등 인간 생활이 가지는 모든 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다. 즉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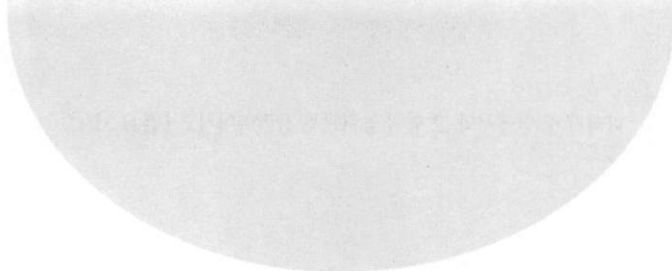
이 땅에서의 평화와 저 세상에서의 낙원을 약속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열중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 우리를 둘러싼 삶 그 자체이다. 그 분의 형제들인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종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그만 어린 아이 한명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분을 만나는 것이다.

5월 27일

의심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혹은 아인슈타인이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뉴턴의 천문역학의 절대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해 있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다신교를 의심치 않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내린 예수가 불경죄를 범했다는 선고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면 우리들의 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의심은 정당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겉으로만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의심을 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자신들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성직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마 7 : 22, 23).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상하고 있을 뿐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무조건 주장하기 전에, 당신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안전하다. 기독교의 큰 스승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만약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께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의심하는 것은 곧 진리를 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영혼의 방향이기도 하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 : 1). 사슴이 찾는 것은 물에 관한 설교나 책이 아니다. 사슴은 갈증해소에 관한 여러가지 토론에도 관심이 없다. 물의 시원함과 아름다움에 관한 어떤 고결한 생각이나 아무리 시적인 어



휘도 목마른 자의 갈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물의 화학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도 그에게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목마른 사람은 물 그 자체를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강물같은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우는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본 사람이 있는가? 진정으로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시 42:2, 3).


5월 28일

미국의 초등학교들 중 최소한 10%는 독서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독서장애라 함은 제대로 읽거나 철자를 익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글을 쓰지 못하는 지각장애를 말한다.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도 이 수치는 비교적 비슷할 것이다. 미국의 죄수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적이며 글자나 숫자를 혼동하게 되는 이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80%나 된다고 한다. 천정을 가리켜 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대적'이라는 단어를 '우호적'이라는 단어로 착각하기도 한다. 'A'라는 글자를 'D'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1 - 2 - 3과 같은 숫자의 조합은 머릿속에서 2 - 1 - 3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렇게 계속적인 학습의 부진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노와 좌절감은 비행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벨슨 록펠러는 자신도 이와 같은 장애를 평생동안 앓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무엇이든 거꾸로 읽는 습관이 있었지요. 숫자를 봐도 뒤에서부터 읽게 되구요. 그 숫자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지요." 그는 평생동안 철자법을 완전히 익히지는 못했으나 그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장애를 극복했다고 한다. 에디슨도 난독증상자였으나 그 장애가 그를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지는 못했다. 패튼 장군은 열 두살이 되도록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 윌슨 대통령 역시 독서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공급해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이 있다. 그것은 바로 M과 R이라는 비타민제인데, 오늘날 이 영양소가 결핍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M은 도덕성(morality)을 말하고 R은 신앙(religion)을 일컫는다. 아이들은 낙오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쓸모있는 일을 이루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와 그 밖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당신도 역시 당신만의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

5월 29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평소에 자신이 “인간의 왕관을 벗기는 일”을 완성했노라고 자랑하곤 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왕관이라고 간주되어져 왔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와 인간의 거주지인 이 지구가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생각과는 달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의 태양은 수천만개의 별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들 중에서는 그다지 큰 편에 속하는 별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페르니쿠스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이런 발견을 한 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 속에서 갖는 중요성이 반감됨으로써 당연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윈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친구, 즉 그 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한다. 다윈의 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한 진화의 결과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고릴라나 침팬지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우월성에 큰 타격을 입힌 두 번째 사건이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우연의 산물이라면, 그리하여 영적인 가치는 없이 오로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동물들,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 자기만 잘 난 줄로 착각하며 사는 남녀차별주의자들이라면,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반론이 어디로부터 제기되는 것일까? 원숭이들이나 황소들 중에 자신을 원숭이 혹은 황소라고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동물들이 있는가? 자신들을 꼬기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조그만 개미들이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창조물이며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다르고도 특별한 존재라는 이러한 자기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양심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영혼의 회열을 갈구하는 본능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창 1 : 27). 인간을 제외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어보지는 못하였다. “(주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다”(시 8:5).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분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며, 인간이 한 아들을 얻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였다(사 9:6).

당신에게만 주신 특별하고도 위대한 소명을 믿고 그것에 응답하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의 빛이 주위를 환히 밝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5월 30일

어째서 애굽은 이와 같은 이례적인 은총을 받았을까? 어찌하여 뜻밖의 흉년을 맞게 되고, 또 그것을 뒤따라 오게 될 흉년에 대하여 미리 경고까지 받았을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기독교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비밀들이다.

첫째,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느 면으로보나 훌륭한 왕이었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잠재의식조차 백성들의 복지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왕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천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자유인이다.” 그러나 또한 크리스천은 사랑을 하는 왕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크리스천은 누구에게나 복종할 의무가 있는 만민의 충실한 하인이다.”

크리스천은 영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이 그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점령하여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영혼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런 훌륭한 꿈을 꾸는 바로 왕은 꿈의 해석에는 남다른 능력이 있는 요셉을 만나 그와 뜻을 함께 하게 된다. 당신도 이를 본받으라.

셋째, 바로 왕은 편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충고한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으로서, 분명히 바로 왕 자신에게는 이상하게만 느껴졌을 종교를 가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죄수였다. 요셉이 옥에 갇힌 죄목은 강간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여인을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왕에게 모든 사람은 그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나라를 위해

서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제는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오늘 아침부터는 판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요셉의 죄목이 사실로 판명된 것도 아니었다. 보디발과 같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린 사람들은 가끔 공정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노예들을 가두어두고는 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집트는 굉장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웃나라들까지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다면 당신도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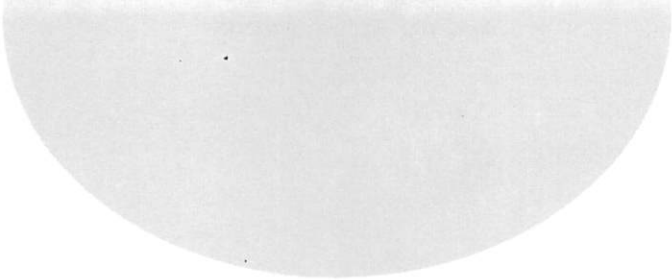
고린도가 마케도니아의 필립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적을 물리치기에 힘썼다. 어떤 이들은 무너진 벽을 다시 쌓았고, 다른 이들은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역시 가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큰 깡통을 굴리며 큰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누군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바쁜데 나만 게으른 사람이 되기는 싫어서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경우는 다르잖소.”

그러나 진지한 태도로 디오게네스는 계속해서 깡통을 굴리며 다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자신의 깡통 굴리기 만큼이나 부질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전쟁을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결국은 고린도도 마케도니아 제국도 멸망할 것이었다. 승리했거나 정복당했거나 간에 양 편의 군인들이 다 죽을 것이었다. 수백년이 지난 후에 누가 대체 이 전쟁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관심이라도 갖겠는가? 오늘날 그때 싸운 병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시민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깡통 굴리거나 다름없이 헛된 일들을 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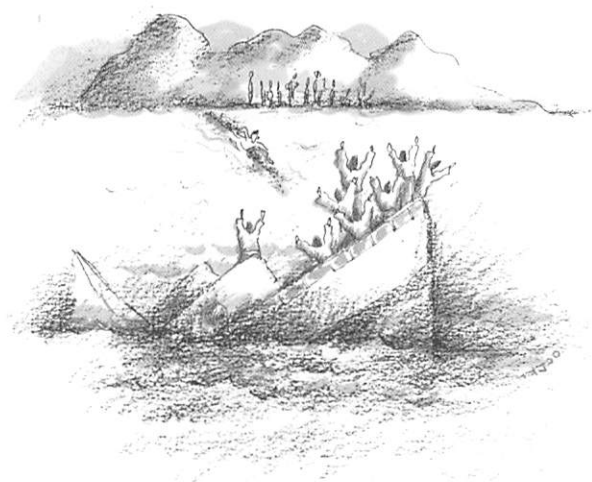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일이다. 그밖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쓸모없는 일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는 영원을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존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성부의 뜻이며 성자의 명예이며 성령의 기쁨이며 천사들의 보석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확신이며 바울의 영광이다.”



오락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영원을 위해서는 더 나은 것도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여러 박사과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단 5:15)

6월 1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여인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아람어로 된 글이 벽에 나타났다. 술이 갑자기 깨면서 공포에 질린 왕은 그 이변을 알아보려고 자신의 신하들을 불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벽에 쓰여진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왕은 다니엘을 불렀고 신하들조차 그 글을 해독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아람어는 유대인이 쓰던 말이었다.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왔던 포로들은 점점 바벨론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고, 정부내의 요직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신하들은 유대인들의 언어나 종교나 정신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주연을 즐기고 있을 때 바벨론의 적이었던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몰래 성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습격을 당하여 죽었고, 그의 왕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의 신하들에겐 지혜가 없었던 것이다. 위협이 얼마나 임박해 있었는지를 몰랐으니, 그들이 왕에게 경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대의 신하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이와 같은 비극적인 무지가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의 지혜자들은 - 그 중에는 교계의 지도자도 많이 있는데 - 자신들을 위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나 이익과 명성을 확보하는데는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진실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파괴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다. 오늘날의 '지혜자'들, 즉 영혼의 지도자들은 공격적인 이슬람교와 공산주의와 만연한 세속주의가 기독교에 끼치고 있는 크나큰 위협을 경계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벨사살 왕에게 주어진 경고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에 의해 벽에 쓰여졌었다. 오늘날 우리 자유세계에게 주어지는 경고는 피로 쓰여지고 있으나 우리의 지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 1:2)

6월 2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훈계하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가 쓴 갈라디아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크리스천들을 교육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일치된 의견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앙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을 뿐이며, 그 신앙은 우리 이전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그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공유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될 때에만 불변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의지한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 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우리의 형제이자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신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다.

무엇보다도,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 그 사람 코가 하나 있더구만” 하고 말할 리는 없다. 코가 하나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소란을 떠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이미 죽어간 성도들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심령주의는 반대한다. 우리는 그들이 가까이 있음을 그런 식으로 느끼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우리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믿는다.

성경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 12:1) 라는 구절이 나온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크리소스툼의 전기에 소개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가 설교 원고를 쓰고 있을 때에 한 크리스천이 그를 보니 그 옆에 바울과 요한이 서서 귀엣말로 그에게 생각들을 붙여넣어 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천의 생활속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과, 성도들간의 교제가 매일매일 겪을 수 있는 경험임을 믿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까 염려해서이다.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편지를 쓰도록 하자.

...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눅 16:1)

...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눅 15:11)


6월 3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에 어원을 둔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비밀을 밝힌다는 의미와 어떤 것들은 베일 뒤에다 둔다는 의미가 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쓰시던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역이라는 베일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번역된 문장은 결코 원어가 가진 뜻을 완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구약성서에 쓰여진 히브리어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형편없는 언어로 포장함으로써 그것을 베일로 가리는 역할을 하였다. 성경의 목적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됨이었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서 인간은 그 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고귀한 생각들을 표현하기엔 부적합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없었던, 그런 축복받은 상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 안에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아람어에도 히브리어에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없다.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리켜 그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채찍으로 예수를 치기 위하여 옷을 벗기셨을 때에도 예수는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셨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옷을 빼앗아 갔지만, 그 옷은 한 번도 예수가 '가지셨던' 것들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나는 육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들이 고문한 육신은 그분의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자신의 육신조차도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행 4:32).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이 성경



에 나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 분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물질적인 부나, 건강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명성이나, 친구나, 명예를 빼앗아 가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당분간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그것들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잃는 것이 없는 셈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크리스천 생활의 커다란 기쁨 중 하나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며 결코 '가진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늘 걱정한다.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은 평온에 가득 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4:7)

6월 4일

우리는 유전인자와 DNA가 발견된 이후로 유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유전을 이어받아 왔었다.

영혼에도 이와 같은 유전이 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고 저 천국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왕국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까지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요일 3:9).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영어로 말하게 된다. 루마니아 사람의 자녀들은 루마니아어를 배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베드로는 그의 첫번째 서신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벧전 4:11)라며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편이 옳을 것이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갈 4:14)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녀가 한 권의 기독교 서적의 번역을 완성했을 때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냥 웃고 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천사들이 출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신약 성서의 첫 페이지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라는 것에 이토록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당신은 크리스천들과 천사들의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6월 5일

만약 길거리에 서서 중국의 전체 인구가 일 초에 한 사람씩 행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면, 그 행진이 끝날 때까지 서 있게 되는 시간은 약 38년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엄격한 레닌주의이다. 레닌은 “과거의 착취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모두 도덕적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레닌에 의하면, 종교도 폐지되어야 할 제도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천국에 계신 신랑의 품에 안겨 그 분으로부터 거룩한 입맞춤을 받기 위해 그들은 걸어가 고 있는 것이다. 후난성에서 전해온 어느 놀라운 소식에 의하면, 한 목사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는데, 처형 집행자들이 너무 일찍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형제들이 밧줄을 끊고 그를 끌어내렸다고 한다. 다시 살아난 목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목이 밧줄에 감긴 채 나뭇가지위로 온 몸이 끌려 올라갈 때, 머릿속에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의 생각 뿐이었다고 했다.

중국의 용감한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중국인들을 만드셨나 보다.

6월 6일

성 패트릭은 자신의 '고해성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죄인이며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 없는 나, 패트릭은..".

4세기 때, 영국인이었던 그는 영국을 침입한 아일랜드인들에게 노예로 잡혀 갔다. 그는 험악하고 굶주린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양을 쳐야만 했다. 그들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 젊은 크리스천 청년의 가슴속에는 자신을 노예로 잡아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

마침내 그는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다. 영국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어느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한 남자가 편지를 갖고 패트릭에게 다가왔다. 그 편지에는 '아일랜드인들의 목소리'라고 쓰여 있었다. 그 때에 그는 많은 아일랜드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이여, 부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도망을 친 노예가 예전의 주인에게 잡힌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패트릭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한 성직자에게 자신이 지었던 어떤 불명예스러운 죄를 고백했는데, 그의 죄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교회는 패트릭을 아일랜드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혼자서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자신의 전 주인을 찾아 결국은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에 성공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을 우리의 구세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자신에게 가장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하나 정하여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달리자.

6월 7일

철학자들은 이때껏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런 충고를 해 왔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은 시골로, 해변으로, 혹은 산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기기를 즐긴다… 그러나 이것은 저속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자신 안으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곳은 없다.” 물론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적인 고요함을 얻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막이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오늘날의 과학기술시대가 만들어내는 각종 소음은 영성(靈性)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음모이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당신을 잠시도 고요함 속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연인들과 친구지간들도 이미 말없이 함께 앉아 있거나 걷는 예술을 잊어버렸다. 내가 보기엔 입으로 혹은 글로 쓰여진 말의 80% 이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말’을 뜻하는 말이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 사실을 히브리어로 말할 수는 없다. ‘말’이라는 단어대신 그들은 ‘다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도 쓸모없는 얘깃거리가 아닌 실체의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이자.

히브리어로 요한복음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실체(다발)가 계셨다. 그 실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실체는 하나님이셨다.”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고받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를 나누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쏟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6월 8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도중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 곳은 지형이 평평한 곳이다. 산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뚝 솟은 어느 특정한 산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다.

어려움과 장애의 산들은 전부 우리들의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은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눅 10:19)라는 말씀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롬 8:28)는 말씀이다. 사건과 사물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범접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서성거릴 뿐이다.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향한 우리의 의견이나 태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뭉쳐서 바다로 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은 그것이 물체로서의 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만약에 수백만이 넘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 마음이 내키는대로 산들을 이리로 혹은 저리로 옮긴다면 그 풀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산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예수께서 산을 제거하는 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분은 영적인 실체들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사건들이 아무리 많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피하지 말라. 사람들이 저들 마음대로 당신을 취급하더라도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의 길을 막아서는 산이 되게 내버려두지는 말아라. 돌에 돌을 더하면 냇이 된다. 과일에는 쭈미 들어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가끔 남에게 못할 짓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들 중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서로 협력해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모두 상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하고 (눅 5:5)

6월 9일


윌리엄 사머즈 번즈는 1847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 7년 후에 그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가 아직 하나도 없다” 라고 썼다.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도록 하셨던 것이다.

중동 지방에서는 여전히 2000년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어부들이 그물을 드리우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면 밤새 힘든 헛수고를 한 후에 또 다시 물속으로 그물을 던졌을까? 합리적인 이성과 쉬고 싶은 욕망이 아마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라는 놀라운 말이 이어서 나온다. 시몬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졌고, 그 기적적인, 그러나 몹시 힘든 고기잡이가 끝난 후에도 쉬지 않았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배를 물가로 끌어올린 후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다”(눅 5: 11).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즐겁지 못한 경험들을 겪게 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도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펠레는 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자신이 하는 노동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전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이다. 나는 한 목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윌프케라는 그 목수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 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무런 성과없이 수년동안이나 드렸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명의 유대인 - 나와 내 아내 - 을 허락하셨다. 우리 부부는 다른 몇 명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는 이제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에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신자들이 월프케의 고향인 루마니아 출신이다. 언젠가 루마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교회에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던 이유를 얘기하던 중에 청중을 둘러보니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의 모임이 끝난 뒤에 그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용하셨네. 나는 내 인생이 쓸모없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줄 알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자네 얘기를 들으니 내가 바로 그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라.

...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20)

6월 10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영혼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해서 말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같은 현상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갑이라는 사람의 피를 을에게 수혈을 한 직후에, 을이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는 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을의 피일 뿐이다. 을의 몸속으로 갑의 피가 흘러 들어간 순간에 이미 그 피는 을의 것이 된 까닭이다.

심장이식 수술을 예로 들자면, 이식된 심장은 이미 죽은 시체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자의 것이다. 예수와 믿는 자 간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수혈이나 이식수술과 같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신다. 너는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고, 핍박하는 사울이 되고, 배신하는 유다가 되고 범죄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거라.’ 그런데 법이, 예수는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직접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자기것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나의 죄짓는 인격이 되신 것이다. 그 대신에 나에게 당신의 인격을 주신다. 갈라디아서에 관한 주석서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이다” 라고 감히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의 루터는 확실한 성경적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큰 스승들도 똑같이 가르쳐왔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와 크리스천들은 “즉, 신비하게 결합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했다. (크레이그의) 스코틀랜드 교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시다” 라고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날 그 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도 예수이시다. 당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그 분의 것이다.

6월 11일

성 프란시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뿌리게 하시옵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거룩하신 주여,

저로 하여금 위로함을 구하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나누어 줌으로써 받게 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나' 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모든 명사와 대명사들은 소문자로 표기되는데에 반해 유독 이 '나(I)' 라는 단어만이 대문자로 쓰여진다. '나' 를 지니고 있으면, 그 '나' 에게 여러 종류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다시 불행해지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나' 라는 존재가 없다면,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를 따르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 하여라”, 즉 ‘나’라는 의식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다. 구원받아야 할 ‘나’가 더 이상 없을 때에, 비로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6월 12일


사람들이 하는 불평 가운데 가장 많은 불평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들로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리아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일이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법은 없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각 순간에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씩 밖에 없다. 이 한 가지 임무를 충실히 하는 동안에는 나에게 다른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언제나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힘있는 설교로 그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에 관한 소식은 금방 퍼져서 그 다음 주일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다. 그 날, 그는 저번주와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는 그날도 역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저 설교 한 가지만을 달달 외운 사기꾼임에 틀림없어.”

마침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다른 설교는 할 줄 모르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또 다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주변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일은 꺼리면서 그렇게도 많은 종류의 신문들을 읽고 뉴스를 듣는 것일까? 이미 읽은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는 새로 나온 책들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나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동정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으면서, 전화벨이 다시 울리는 순간 또 수화기를 들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한다면, 그 분의 삶은 마가복음의 열 여섯 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모든 언어와 행실이 순수하고 잘 연단된 금과 같았다. 그러나 당신의 언행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다스리면 당신에게는 시간과 평온이 찾아 올 것이다. 밤마다 당신의 양심을 돌아보라. 당신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동안 한 일을 돌이켜 보면서, 그것들이 진정 필요한 일이었는가를 반성해보라. 쓸모없는 생각과 행동들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6월 13일

어느 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행진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날뛰었다.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보이자, 옆에서 함께 행진을 하고 있던 보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느슨해진 말의 고삐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 사나워진 말을 간신히 세웠다.

나폴레옹이 말했다. “고맙소, 대위.”

그 병사는 말귀를 금방 알아들었다. 새로운 계급을 얻게 된 그는 곧장 장교 식당으로 향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위에 있는 장교들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장교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길 들어왔나?”

“안될 이유가 뭐 있소? 나는 대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장교들이 그를 비웃었다. “대위라고? 네가? 그러나 너는 계급장도 없고, 장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명령을 내릴 군사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아직 없소. 그러나 내가 대위임에는 틀림이 없소.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나를 대위라고 불렀기 때문이오” 하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자와 같은 성품을 지니지 못했다고, 또는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 없다고, 또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왕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졌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당신에게 그 이름을 내려주신 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주실 것이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일도 닥치겠지만, 그 분은 당신과 함께 하셔서 죽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기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으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6월 14일

존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에게 육체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주실 때에, 아무런 물질적인 형체가 없는 그 자체만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신 속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신다.”

그는 또 교회의 의식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의식이 없는 크리스천의 생활이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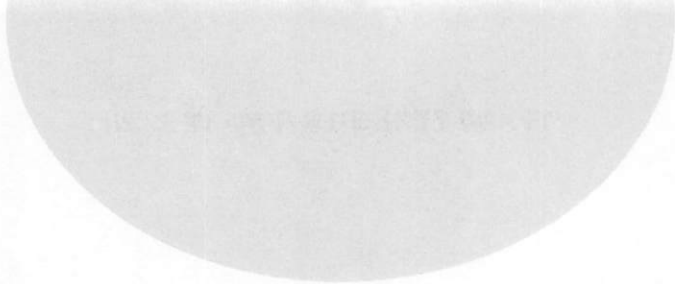
어거스틴은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이름 아래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가시적인 상징물이나 성례의식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썼다.

세례, 성찬식, 혹은 안수기도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인 상징물이다.

짜구려 반지 하나라도 그것이 신랑에 의해서 신부에게 전해질 때에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 혼한 금속이라도 그것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을 박은 동전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물은 죄를 씻어주는 상징물이 된다.

같은 이치로, 성찬식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도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얻게 된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누구나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성찬식에 임하는 것이다. 그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의 사생활이 나쁘다는 핑계로 그로부터 성찬을 받아야 할지 망설이지 말라. 각 예식의 가치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의 인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가 그것을 배달하는 우편부의 됃됨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의식 그 자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그 의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들은 천국을 향한 여정중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만약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알고 교회의 의식들에 참여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것이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 3:13)

6월 15일

성 이그나스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두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셨을까? 그래서 깨끗함을 얻기 원하셨을까?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유전인자들로 인해 모두가 죄인인 조상들의 많은 신체적인 특성들을 물려받으셨다. 인간 성격의 70%는 유전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께서 말 그대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사라면, 유전의 법칙도 따르셨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다른 사람들도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 분은 “자라나셨다” (눅 4:16). 그의 스승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같이 죄인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다. 그 분은 우리와 같은 본능과 충동을 지니고 계셨다. 인간으로서의 그 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보잘것 없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분은 상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셔야만 했다.

예수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지워진 인간적인 유전인자를 비롯하여, 베들레헴에서 갓난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자신에게 행해진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신 분이였다.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 분처럼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매심으로써, 그 분은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셨다. 가장 결백한 사람만이 가장 날카롭게 죄책감을 느끼는 법이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다. 우리라면 가야바나 빌라도, 또 가롯 유대와 같은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했을 것이다. 완전하게 결백하신 그 분께서 터질듯한 죄책감을 느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예수로부터 받은 그 결백함에 빠져 그대로 머무르면 안된다. 당신이 눈보다 더 회개 되었으니,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차례이다.

6월 16일


간통죄를 저지른 주교가 있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흰 양털로 짠 자신의 어깨띠를 끌어서 제단 위에도 놓으며, 그는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주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주교님의 죄는 우리들의 죄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제발 그만두지 마십시오.”

주교는 이어 교회 현관문 바로 안쪽에 길게 누우며 이렇게 말했다. “나를 밟지 않고 이 문을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들은 그를 밟고 교회를 떠났다. 마지막 사람의 발이 그의 몸을 밟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이토록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나는 그의 죄를 용서했다.”

이것은 4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성자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교회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저 주교와 같이 행동하지 말 것을 나는 주장한다.

나는 소련의 영웅적인 믿음의 여성 한 분의 경우를 알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그녀는 심문을 당할 때나 법정에서 있을 때 아주 용감하게 처신을 했다. 그녀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소에 존경을 해오던 동료 크리스천과 같은 감방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료가 그녀에게 그동안 감추어왔던 죄를 고백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녀는 믿음을 잃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동료 크리스천이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교회를 저버리고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신의 죄는 주님께 고백하라. 당신이 진 모든 무거운 짐은 그 분에게 바쳐라.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서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자신이 성자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겸손함을 보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이다.

...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8)

6월 17일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어느 겨울 밤, 미시간 호수에 떠 있던 배 한 척이 육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라앉았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배와 육지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열 명을 구조해내는 데에 성공했다. 먼저 구조된 사람들은 해변에 불을 피웠다. 계속된 수영으로 지친 그 '구원자'는 불가에서 몸을 녹였다. 그는 아직도 파도와 싸우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말리고 나섰다. "자네는 지금 너무나 지쳐있어" 하고 그들이 말했다.

"지금 다시 들어간다면 자네도 빠져죽고 말거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고 볼수는 없잖아" 하며 다시 호수로 뛰어 들었다.

그는 남아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섯 명을 더 구조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내야만할 형편이었다.


겨우 숨을 쉬면서 모닥불가에 누워 있던 그는, 널판지 하나에 매달려 발버둥치는 두 명을 호수속에서 발견했다. "저 사람들도 구해야겠어."

"그건 어리석은 짓일세."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았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라구."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두 명을 더 구했다.

이제 정말로 그에게 남은 기운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명도 되지 못하였다. 그는 심한 고통속에 빠져들었다. 열이 너무 올라 의식이 혼탁한 중에도 그는 자꾸만 되풀이해서 이런 말을 했다.

"열 일곱 명 밖에 구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설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구할 수도 있었으나 외면한 탓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혼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우린 모두 살인자들이 아닌가?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수를 보면서 필립 네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였을 겁니다.”


6월 18일

그래이엄 그윈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권력과 영광”에서 등장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의 줄거리를 이끌어나가는 가난한 사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믿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소. 인디언들이라면 또 모르죠. 그들은 처음으로 전깃불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제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면, 당신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यो. 우습지요, 그렇지 않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요. 의사들이 죽은 사람 하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두었고, 맥박도 멈추었으며, 심장도 더이상 고동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미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존재에 의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의견을 보류하게 되지요. 결코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되풀이해서 일어난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면 그 의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기적이 아니며, 다만 자신들이 생명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넓은 것 뿐이라고요.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맥박이 없어도, 숨을 쉬지 않아도,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과학이 기적의 가면을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편하게 해주고 발전시켜주는 의사들,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심리학자들, 발명가들, 농부들, 혹은 공장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지켜보라. 그들은 도구들에 불과하다. 기적을 주시는 분, 곧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6월 19일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졌고, 그의 소문을 들은 황제가 그에게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를 궁전으로 불렀다. 그를 만나본 황제는 몹시 흠족하여서 그에게 금을 선물로 주었으며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 크리스천은 금으로 얼마간의 땅과 집 몇 채를 사들였다.

과거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들린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 크리스천은 귀신에게 외쳤다. “그 사람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소”, 하고 대드는 것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당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놀라서 물었다.

“어째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는 거냐?”

귀신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우리와 같이 되었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힘을 잃은 것이요.”

부유한 교회는 사탄과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다. 돈 많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이다. 크리스천도 거액의 돈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쓰고 늘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당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주의 발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약대가 비늘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 19:24).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돈을 쓰기 위하여 돌아다니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6월 20일

우리는 예수께서 열 두살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 그 후의 18년이라는 세월이 관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 예수께서 서른이라는 나이에 이르신 후에야 비로소 지켜오던 침묵을 깬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 라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 어째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마 19:14). 거둘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와 밀이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그리스어로는 *afiemi*라는 말과 같은 뜻임) (마 13:30).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우리라면 이런 말 끝에 ‘그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라’라는 말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셨다(마 15:14).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여 자기가 심은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이 예화에서 예수께 비유되는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말하였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눅 13:8).

사람이나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두어라.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걱정하는 대신에 꿀벌을 본받아라. 그것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인간을 위한 꿀을 만들어내기에 열중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할 것이다.

6월 21일

어거스틴은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가 만약 성령을 위하여 나무와 돌로 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지라는 명확한 증거를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전을 세우는 명령을 받지 않고,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지라는, 보다 명확한 증거이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틀림없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의 생활속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몹시 증오했으므로, 유대인이 그 지방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위와 다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오직 성령을 나누어 주겠다는 목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갔다.

성령 없이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눈먼 자에게 빛이 또 귀머는 자에게 아름다운 음악이 소용없듯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므로 세례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모든 종교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바꿔 말하면,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롬 8:1)

6월 22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기 원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그에게 임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에, 당신의 그 요구가 흡사 형체가 있는 것처럼 내려오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체험 하기 전에는 기도를 끝내지 말아라. 이것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참 뜻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계시므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당신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이라는 말은 당신의 요구에 대한 그 분의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의사가 “당신 부인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그의 딸이 듣게 되었다. 그 소녀는 옆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 메리야, 너의 어머니를 낫게 해주마.”

다시 목소리를 바꾸어 그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하고 기도를 마쳤다.

방으로 돌아 온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낫게 해주신다고 금방 저와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는 병에서 회복되었다. 우리들의 “아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당신의 간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봉인이다.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야 한다.

6월 23일

구약성서에는 유대인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계명이 들어있지 않다. 예수께서는 명령을 받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은 행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법도,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법도(하나님께서 왜 에머랄드나 루비를 만드셨겠는가?), 미장원에 가서 몸단장을 하지 말라는 법도,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법도 만드시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의는 계명을 지키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나의 간단한 질문 -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그 분이라면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 - 을 던지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흠을 집어 던졌다고 하자. 그 사람은 크게 다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물을 퍼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던지는 일도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흠과 지푸라기와 물이 합쳐지면 벽돌이 된다. 벽돌을 그 사람에게 던진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쉽게 깨질 것이다.

우리 주위에 하나 하나만 보면 위험할 것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속에서 점점 쌓이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끼여우 떼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다(아 2 : 15).

하나님의 계명중에는 새끼여우 떼와 싸우라는 말씀이 없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다. 하나씩 따로 떼어서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뭉쳤을 때는 당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힘을 지닌 무기들이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 : 16)

6월 24일

비둘기는 성령과 같이 온순하며 사람들과 잘 사귀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유사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비둘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주의력을 전부 집중시키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 작은 동물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습성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을 관찰하는 법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비둘기들에 심혈을 기울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앞에서는 온전한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있어야 한다(합 2 : 20). 성령은 자신이 관찰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각각 다르게 행동한다.

첫번째의 경우에, 그는 의심을 품으며 자신의 행동이 원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가에 관해 걱정한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신 32 : 26, 27).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수들에 의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 그들이 오해할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성령은 원래 마음 먹었던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11 : 42). 무리가 둘러서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진정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초연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원수들이, 불평분자들이, 혹은 호기심을 잔뜩 지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마치 비둘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침묵을 지키고 끼어들지 말며,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대로 두어라.

6월 25일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라. 만약 그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끌어낼 수가 없다면 그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신까지 물 속으로 끌어들이 위협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대신에 둘이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길도 위협으로 가득차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젊은 여인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했던 청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찾았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대신, 그들 중에는 불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외국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상한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있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조직되었었다. 그러나 그 단체에 소속된 크리스천들은 재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너무 바빠져서 자신들의 생활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된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슬럼가와 빈곤에 찌들은 곳들을 찾는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대신에 슬럼가를 다스리는 악령의 영향을 받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에 대항하여 싸우는 단체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과 영혼에 관하여 얘기를 할 때에는 그가 당신마저도 자기처럼 저속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위협이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조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겠는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주님과과의 교제가 넘치는 당신의 집을 나서도록 하라.

원수들의 술책에 주의하라. 당신에게 너무 위협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모한 것은 용기가 아니다. 자비도 조심스럽게 베풀어야 한다.

6월 26일

아이에게 1달러를 주면서 식료품 가게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가게 주인이 2달러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이가 물건을 제대로 사오지 못했다면, 심부름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 아이를 꾸짖을 수 없는 노릇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오로지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예수께 나아오지 않은 데에 있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나 하나쯤이 별 문제가 되겠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죄인이라고는 딱 한 사람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희생을 그 한 죄인을 위해 아주 기꺼이 치러내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을 그 분께 맡기기만 하면된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예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요한의 눈을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눈처럼 그려 놓았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에 따라서는 그가 술의 신인 박카스를 그린 것이라고 우길 정도이다.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 기쁨으로 만취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예수께 호소하라.

6월 27일

나사렛은 도덕적으로 그리 평판이 좋지 못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말을 한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가장 파괴적인 죄 중의 하나를 범했다. 그 죄는 바로 사람들의 단체를 하나로 묶어 경멸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집단이란 늘 서로 다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루터교의 한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침례교회와 오순절 교회에 대하여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소.” 그는 오히려 “나는 수년 동안 간음을 저질렀소”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죄를 자신이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즉시 편견을 버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멀리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편견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백인이었다는 점을 마음에 거슬려한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같은 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리 없다고 믿었다(요 7:52).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꺼려했다. 그들은 조롱조로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이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마 13:55).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타락한 교회에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다. 어떤 집단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자면, 모압족은 유대인들을 못살게 괴롭힌 잔인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룯이 나왔고, 그녀는 성경의 많지 않은 거룩한



여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종교를 떠나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모든 인종적인, 국가적인, 혹은 교파적인 편견을 다 벗어던져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닌 장점과 단점으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6월 28일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 안토니오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안토니오”, 하고 그 목소리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너는 아직도 저 무두장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안토니오는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그 즉시 가족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장이를 찾아갔다.

그를 본 무두장이는 절을 하면서 성 안토니오 같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놀라워했다.

안토니오는 그에게 물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무두장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나보다 다 낫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판결을 내리겠는가? 오직 자만심만이 남을 판단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비난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털어놓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만심에 의해 유혹당합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시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었으니 당신은 자랑할 것이 많은 셈 아니요.”

젊은 남자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쫓아버렸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어가며 이 땅에 오셨는데,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은 당신이 무엇을 자랑할 게 있단 말ियो? 당신이 한 일은 대체 무엇이요? 이 불행한 사람이여.”

...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 5 : 16)

6월 29일

어거스틴은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 예수께서 지니셨던 얼굴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지곤 한다.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조각이나 고대의 동전들을 통하여 줄리어스 시저나 예수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의 얼굴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왕이신 그 분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저는 단지 역사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잠시 시간속으로 발을 들여놓으신 영원하신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나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기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얼굴과 그 분을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들 중에는 거지도 있지만 황제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지만 그 사람들 말고도 흑인종, 홍인종, 황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있으며, 큰 죄에 빠져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들 모두의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성상(聖像)을 건립하는 일로 인해 교회내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어떤 특정한 형상의 예수님에게 익숙해지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모습속에서 더 이상 그분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월 30일

에좌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건너간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같은 날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부인들은 침착했다.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죽음을 맞기에 앞서 먼저 죽어야만 한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지니는 세속적인 법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누군가가 마카리우스에게 물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어 보아라. 그리고는 다시 내게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얘기해보아라.”

질문을 했던 사람은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는 돌아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제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대답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앞서 말했던 그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권총을 찬 채 죽음을 맞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인디언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죽었던 것이다. 그들은 죽어 있었으므로 시체가 총을 발사할 수 없듯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부족은 당시에 쉰 다섯명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집단이었다.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은 그 민족이 아무리 작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순교자들의 피가 마침내 씨를 뿌리게 되었다. 아우카 인디언들 몇 명이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그 중의 한 명이 순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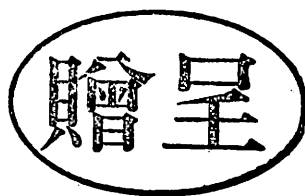
아직도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자.

성 구 색 인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창	1 : 1	26	마	3 : 15	259	눅	16 : 1	234	갈	3 : 8	187		
	1 : 2	260		3 : 15	262		16 : 10	150		4 : 7	236		
	2 : 15	40		3 : 16	263		16 : 20	132		5 : 22,23	55		
	3 : 5	59		5 : 3	64		18 : 13	69		5 : 22,23	181		
	3 : 9	62		5 : 44	122		18 : 25	61		6 : 5	252		
	6 : 2	20		6 : 6	239		19 : 46	129		엠펜	4 : 14	195	
	12 : 1	48		6 : 9	67		22 : 19	96			4 : 24	209	
	21 : 15,19	81		6 : 12	113		23 : 39,42	33			4 : 26	183	
	22 : 2	120		6 : 14	45		요	1 : 12		248	5 : 18	63	
	41 : 29	224		6 : 24	263			1 : 29		265	5 : 18	154	
	출	4 : 10		151	6 : 26,28		68	1 : 46		266	빌	2 : 2	152
		20 : 2		204	6 : 34		46	2 : 9,10		208		2 : 3	42
		20 : 5		179	7 : 1		24	3 : 16		189		2 : 3	268
20 : 8		175	7 : 1	114	3 : 16	201	2 : 7	25					
20 : 13		206	10 : 29	60	5 : 2	77	2 : 9	147					
민	19 : 14	270	13 : 4	21	5 : 39	161	2 : 14	167					
	22 : 28	16	13 : 30	87	9 : 24	133	4 : 8	216					
	31 : 28	178	14 : 30	32	10 : 35	117	살후 담전	3 : 8	213				
신	28 : 7	28	17 : 20	121	11 : 39	185		1 : 17	202				
	21 : 13	111	19 : 6	159	14 : 6	115	2 : 1,2	153					
삼상	14 : 19	43	20 : 28	135	17 : 2	124	6 : 5	85					
삼하	1 : 21	27	22 : 39	50	20 : 11	76	6 : 10	145					
	39 : 26	199	22 : 39	158	20 : 11,12	23	담후	3 : 16	173				
읍	시	8 : 5	222	25 : 34,41	131	21 : 9		196	히	4 : 3	205		
		14 : 1	79	25 : 6	216	행	13 : 41	217		9 : 27	37		
		90 : 12	11	26 : 22	72	21 : 37	77	9 : 27		82			
		96 : 1	157	26 : 41	91	롬	1 : 16	174		10 : 26	18		
		잠	12 : 10	34	27 : 32		99	3 : 24		84	11 : 34	95	
12 : 11	74		27 : 49	212	5 : 2	203	11 : 37	138					
전	23 : 7	57	28 : 17	218	8 : 28	127	12 : 1	180					
	1 : 2	226	28 : 19	56	12 : 1	149	약	1 : 5	256				
아	2 : 2	47	28 : 19	237	12 : 14	36		1 : 22	38				
	53 : 5	93	막	2 : 25,26	128	13 : 1	58	벤전	1 : 18	118			
사	53 : 5	214		3 : 28	97	14 : 8	70		2 : 9	215			
	56 : 1	219		8 : 1,8	98	고전	1 : 27	123	3 : 21	249			
렘	6 : 16	22		11 : 23	240		1 : 28	194	요일	4 : 8	12		
	1 : 26	31		16 : 15	139	13 : 5	210	4 : 19		30			
결	33 : 8	254	눅	1 : 28	15	13 : 7	53	요일	1 : 10	56			
	단	5 : 15		231	1 : 48	112	13 : 13		165	유	1 : 3	155	
을		2 : 1,2		171	3 : 11	193	15 : 55	176	1 : 10		125		
	온	4 : 6		211	5 : 5	241	고후	3 : 3	200	1 : 23	264		
합		2 : 20		14	6 : 27	238		5 : 16	269	계	2 : 10	65	
	숙	4 : 6		169	6 : 35	214	6 : 17	88	2 : 10		137		
♥ ♥ ♥					10 : 42	246	갈	1 : 2	232	2 : 10	141		
마	1 : 20	198		11 : 1	244	2 : 20		163	22 : 21	261			
	3 : 13	251		15 : 11	234	2 : 20		24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리차드 뱀브란트 목사의 묵상일기 (하)



조과추
달 도서출판

R.범브란트 목사의 목상일기(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초판 인쇄 / 1997.5.20.

초판 발행 / 1997.5.30.

지은이 / R.범브란트

옮긴이 / 김예진

펴낸이 / 박종태

펴낸곳 / 도서출판 줄과추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 4동 875-7 허바드텔 403호

전 화 / 877-0521~2 팩스 / 877-0523

공급처 / (주)기독교출판유통

전 화 / (0344)906-9191 팩스 / 080-456-2580

등록번호 / 제7-79호

© 1997 김예진 Printed in Korea

값 6,000원

ISBN 89-85059-07-6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도서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없이

전재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REACHING
TOWARD
THE HEIGHTS*

**Book of Daily Devotions
by
RICHARD WURMBRAND**

REACHING TOWARD THE HEIGHTS
© 1987 LIVING SACRIFICE BOOKS
P.O.BOX 938 MIDDLEBURY, IN 46540 U. S. A

Wurmbrand, Richard.
Reaching toward the heights.

Korean edition
Jul Chu Publishing house
Printed in Korea

To my dear Korean
readers,

You belong to a people
which has suffered more than
many others. Therefore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better than
other the accounts about sufferings
of innocents in other countries.

Your thriving churches and
your smiling faces show that
you know also the secret of
victory in life over all troubles.

God gave grace to Christian
persons to remain joyous and
to sing even in the darkest
moments.

The purpose of all my
writings is to make readers forget
transitory difficulties of life and
to have full joy whatever the out-
most circumstances.

God bless the Korean people
R. W. Woodrow

사랑하는 나의 한국독자들에게

여러분은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죄없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미소짓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나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쓴 모든 글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을 잊고, 어떠한 외적 역경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R. 범브란트



차 례

사랑하는 나의 한국독자들에게	4
이 글을 옮기며	9
하늘에서 받게 될 상	11
진리와 거짓	59
수지맞은 유대인	105
그리스도의 발자국	147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193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	233
성구색인	271

이 글을 옮기며

이 책의 번역을 처음 시작할 당시, 나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결국 첫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그 길고 지루한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범브란트 목사의 글을 그가 의도한 바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술술 풀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났을 때, 내 마음은 날아갈 듯 흥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이 책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지금, 나는 두 딸의 엄마가 되어 있다. 몇 년 전에 마무리 했다고 생각한 작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작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당혹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어느 한 문장도 제대로 내 맘에 드는 것이 없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손보면 될 줄 알고 시작한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으리라는 불안한 예감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예감은 사실로 다가왔고, 이 몇 주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큰 아이를 재우며, 작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병을 찾아 물리며 틈틈이 원고를 고쳤다. 힘들었던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자를 옮기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몇 군데의 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될 뿐 아니라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조금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범브란트 목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낼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과 구원 얻은 크리스천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시급하고도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초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그가 잃지 않는 여유와 유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달란트인 것 같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 좌사함 받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더 살아낼 용기가 없는 사람들, 나처럼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큰 소망인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1996년 8월에

역자

하늘에서 받게 될 상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 12:1)

7월 1일

위대한 성도들을 본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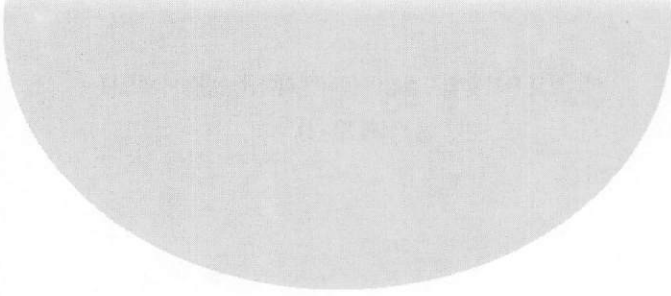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요한 드 라 살레는 처음으로 무료 고등학교와 교사들을 위한 신학교를 프랑스에 세웠다.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우지 못해 타락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별것 아닌 일들에도 속상해하고 분노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러한 사명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던 그는 엄청난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가난한 선생이 된다. 나는 그의 마음과 오늘날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을 외치며 파업을 일삼는 교사들의 마음을 비교하곤 한다. 그런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기주의의 본보기가 된다. 그들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남기게 되는 추한 모습들은 그 후에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드 라 살레는 동료 크리스천들과 실직 상태의 교사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야만 했다.

산 세베리노의 파시피쿠스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은 신학 박사보다는 사도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도직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통을 당함으로써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파시피쿠스의 발이 툭툭 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권고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에 점차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



다. 그의 영혼은 내적인 혼란으로 인해 많이 파괴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모욕하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시피쿠스는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갖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행을 견뎌나갔다. 파시피쿠스가 죽은지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토록 아름답게 고통을 이겨낸 그의 얘기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을 찾아가 전도를 했을 때 구원했을 법한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한다.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자.

7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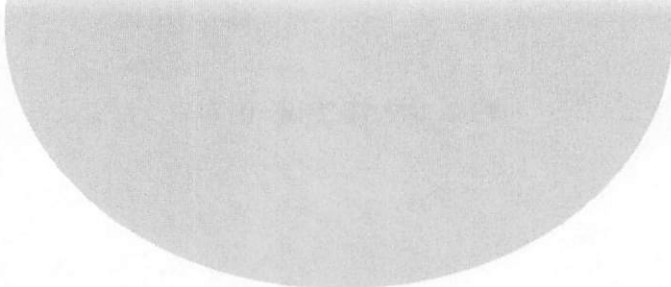
일상 생활 속에서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벨라의 테레사는 이런 글을 썼다. “악마는 끊임없이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영혼을 보고는, 그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 그녀는 마음 속으로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 자주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를 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혹은 식사시간에 잠깐씩 드리는 기도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무릎을 꿇을 때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양로나 질로나 아주 형편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며 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목상을 해야 한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는 그 분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상담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분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한 해악을 자신에게 입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혹은 악한 세력에 의해 발발된 전쟁이나 혁명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벌이는 일마다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어느날 밤 그는 긴의자에 누워 일생동안 실패했던 일들에 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손 하나가 커튼 뒤로부터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서야 나를 괴롭힌 원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됐군. 내겐 아직도 힘이 남아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당장 때려눕혀야겠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커튼을 젖혀 원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예수님을 찾지 않은 그 자신이었다.

7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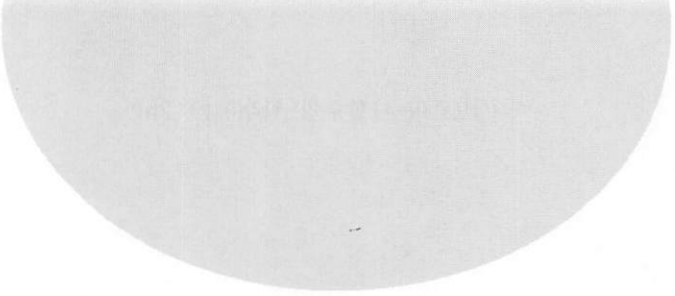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전부였다. 아마 여덟 살 때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날 어떤 아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다면,”하고 그 아이는 조롱섞인 투로 말했다. “자신이 들 수 없을만큼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겠니?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또 만약 만들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지.”

그의 이런 궤변은 웬지 내 마음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었다.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신 자신을 몇 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아기로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아이는 자신을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을 말구유로부터 안아 올려 젖을 먹여야만 했다. 하나님은 그녀에 의해 귀도 씻기워졌다. 그런 일을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아기였으므로, 나무를 타다가 찢어진 옷을 기워준 사람도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어린아이였던 그 분은 바느질하는 법을 알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진정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창조하셨던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자라나 마침내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 진정한 의미로 실존하는 유일한 주체자이신 그 분이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그를 둘러싼 무리들이 힘없는 그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런 모욕을 겪으신 후에 그 분께서는 하나의 대상을 지나 완전한 물건으로 변해버리셨다. 죽어서 시체가 되신



것이다. 만약 아리마대의 요셉이 장사지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시체는 독수리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스스로 들어올리지도 못할 무거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들 수 없는 그것을 또한 들어보이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다시 권세를 입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어린아이였을 적에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분께서는 당신도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아기를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전능함은 손상되지 않는다.

7월 4일

10억이라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람이다. 영양결핍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 1만명이고, 그 중의 9,900명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식량의 다섯 배를 소비한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25%가 첫 돌을 맞기도 전에 죽는다고 한다. 그들의 사망률은 미국이나 호주의 아이들에 비해 40배나 더 높다고 한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 중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천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서기 12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크리스천 중에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줍니다. 그것도 아무런 불평이나 자랑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줄 여유분의 식량이 없다면, 이틀이나 사흘간 금식을 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음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금식하라. 절제하라.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마 25 : 35).

7월 5일

한 크리스천이 자기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들을 놀라게 했던 이야기다. 주인은 도둑들에게 말했다. “서둘러서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나세요. 자, 차에 짐 싣는 것을 도와드리죠. 이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제 잘못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원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재산을 쌓아두면 안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도둑들이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당신들한테 이렇게 형편없는 본보기가 되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미안합니다.”

흥미를 느낀 도둑들은 주인에게 이것 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날 밤 물건을 훔쳐 달아나지 않고 그 집에서 회개를 했다. 집 주인도 귀중한 교훈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10). 돈은 모든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철저히 천대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어느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돈을 경계하여라.” 제자들이 물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종종 그것을 부정직한 수단으로 버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만약 그것을 정직한 방법으로 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먼 그것은 주로 죄를 짓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끈질기게 물었다. “만약 돈을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서 좋은 데다 쓴다면 괜찮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런 경우에도 돈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물건이다.”

7월 6일

이슬람교와 개혁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해줄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대신 *Ish dvarim*, 곧 '말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신성한'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는 형용사의 사용이 히브리어 경우보다 더 드물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밝은'의 뜻으로 사용되는 '빛의 아이들', 혹은 '타락한'의 뜻을 가진 '지옥의 아들'이라는 생소한 표현들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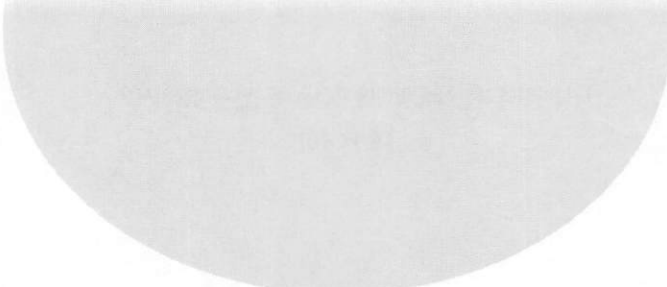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아들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그것이 평소에 쓰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슬람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부인도 없고 아이들을 낳지도 않으신다.

1세기의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으로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갖는 유사성과 성령으로서 갖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일치를 깊이있게 나타내기 위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누구나 방사성 원소죽과 방사능 물질의 파생에 관하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전자가 발산된 U_{238} 은 U_{235} 로 변하고, 그 다음엔 이오늄으로 변하고..., 이런 변화는 계속된다는 얘기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다른 이미지들을 예로써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이었거나 아니면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20세기의 위대한 문인들은 예수님이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우



리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가 한 날 인간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토록 위대한 분은 오직 한 분,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곧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 : 41)

7월 7일

고린도의 마카리우스는 동방세계에서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순교자들이 죽어간 원형경기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그에게 그는 용기를 북돋워줬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꽃과 그 분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려는 강렬한 소망을 심어 주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죽어간 순교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동료들과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협력자들을 위해서도 같은 상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공산 세계에,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지역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반면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권력과 타협을 하고 있으며, 죽기보다는 시이저의 동상 앞에서 분향하는 쪽을 택했던 많은 초대 교회 사람들을 동정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당시에 시이저에게 항을 올렸던 사람들은 랍시, 곧 변절자라고 불리워졌다. 오늘날 그들은 소위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옥과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술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혀 사형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겠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돕는 일에도 참여하자.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7월 8일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붙여드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름 덕분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말 것 같다. 2000년 전에 줄루 족의 왕이었던 사람에 대해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무슨 흥미를 느끼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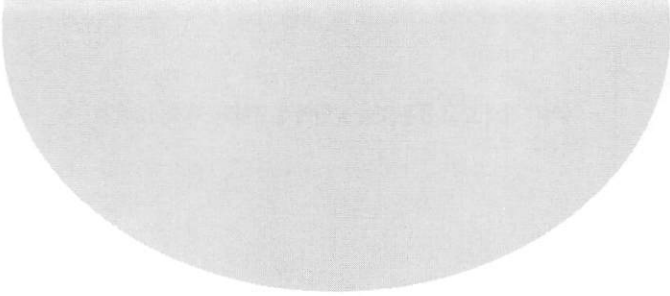
유대인의 왕이 나셨을 때, 지혜있다는 자들이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를 경배하러 먼 나라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인종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래 머리를 숙인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의 왕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가 보다. 이 점에 관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롬 9 : 4, 5).

나치들이 기독교를 유대인들과 관련시켜서 박해한 것은 어쨌든 일관성있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유대인의 관계를 어떤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없이는 교회도 결코 참다운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길이다(롬 11 : 15).

이 세상을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말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진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는 세상과 또 다른 유대인인 막스를 믿는 세상간에 큰 전쟁이 진행중이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의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7월 9일

성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제 각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요한은 정신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어서 망치나 가위 같은 연장들에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손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코페르티노의 요셉은 하나님께 폭 빠져 살았던 사람으로, 현실세계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꼬집어야만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의 말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갖다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엉뚱한 물건을 내밀곤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성자들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헝가리의 엘리자베스는 왕 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쓴 성자였다. 가장 인간다운 성자였던 그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이상적인 엘리자베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한 여인이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자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 말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다는 말이다. 그들은 죽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었다.

잔 다크와 같이 실제로 전사였던 성자들도 있다. 어떤 성자들은 극도의 고행을 스스로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르소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 맛이 좋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음식 맛이 나쁘면, 그것을 하나의 고행으로 받아들이지요. 거룩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고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선택하신 목적, 그 '이상적인' 당신의 모습, 당신의 소명을 알아내야 한다. 그런 후에는 부름받은 대로 예수님을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이상하게 보더라도,

간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7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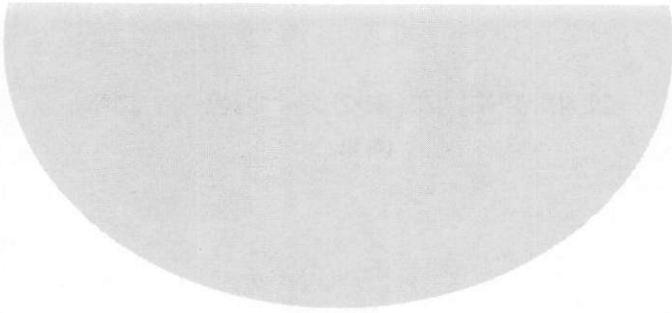
러시아의 한 크리스천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10년형을 받게 되었다. 그에겐 아내와 아홉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공산세계에 예수를”이라는 선교단체가 적은 돈으로 그를 도왔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로부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장을 받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작은 부스러기를 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들도 지기 힘든 십자가라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감옥에 갇힌 남편과 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상황에 먹여야 할 아이들이 아홉 명이나 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다만 십자가의 부스러기 정도로 여겨질 따름이었다.).

우리는 눈물 없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 주님께 저는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아주 긴 팔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팔을 저희에게까지 뻗었나 봅니다(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진 모든 성격들을 나열할 때에 사랑은 팔이 길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언급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 곳도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시여... 그 분은 엘리야와 다니엘과 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홉 명의 아이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모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자들에게 주셨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아이들도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들 중에, 그 원문의 마지막 문장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



태로 갑자기 끝나버리는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행전은 영원히 미완성인 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초대 크리스천들의 영웅적인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관해서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고후 3:18)

7월 11일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우리는 두 개의 공리(公理)를 물려 받았다. 그 둘은 표면상으로는 모순관계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충해주는 관계에 놓여 있다. 첫번째는 “무엇을 받아들일든지 간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게 된 것도,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우리는 같은 실체를 보지만, 우리의 배경, 유전인자, 교육, 성격, 권력, 그리고 지능을 포함한 여러 구체적인 능력에 따라 그것을 제각각 다르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비친 그분의 모습대로 그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는 하나님께도 적용된다. 그 분은 성령의 관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한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로운 심판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예수가 되셨다. 그리고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 직접 가난과 억압과 슬픔과 반대와 고문과 유혹을 겪어보셨다. 그 후 하늘에 오르신 그 분은 인간적인 경험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신성(神性)에 보태게 되었다.

두번째의 공리는 이런 것이다. “영혼에게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영혼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 혹은 열렬하게 원하는 것과 자기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인격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그 분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우리의 영혼은 그럴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7월 12일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성도들을 죽이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던 죄인 중의 죄인인 다소의 사울을 택하셨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꾸어 생각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오래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홍수를 일으킴으로써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재해의 본산지였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폭포가 이처럼 막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그 파괴력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댐이 건설되었고 그 안에 터빈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오늘날 나이아가라 폭포는 양국에 전기를 공급해 준다.

윌리엄 부스는 영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일할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대부분의 목사들은 거둬나지 못한 직업인들이거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한데 너무나 온순하고 겸손한 탓에 주위를 개혁하는 일 같은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단 회개한 그들은 구세군의 병사와 장교가 되기에 적합했다.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히브리어로 케테사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도 되고 성자라는 뜻도 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케테사였다. 처음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케테사였지만, 나중에는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게 되었다. 그녀가 죄로 낭비해버리던 사랑이 변한 후에는 구세주와 인류를 향하여 뿌려졌다.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들이 거둬나서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이 사람들은 ...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 : 13)

7월 13일

미국의 복음전도자 존 모리슨은 여러 국가를 다니며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우연히 아프리카의 사냥 원정 여행 중, 멧돼지 사냥을 마치고 귀국하는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뉴욕항에 배가 들어서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환호했겠는가? 물론 그들은 멧돼지 사냥꾼이며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한 루스벨트를 향하여 손을 흔들었던 것이다. 영혼을 구하고 돌아오는 모리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배에서 내려서도 다시 같은 기차를 타게 되었다.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또 다시 모리슨이 아니라 루스벨트에게 환호를 보냈다.

복음전도자도 사람이었다. 모리슨은 자기 가슴 속에서 질투와 불만이 서서히 싹트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가 받는 환영이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하고 그는 화가 나서 안달복달했다.

그때에 성령이 그의 말을 고쳐주었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느냐.”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만약 아이젠하워 장군이나 윈스턴 처칠이 나치 독일의 군대에 의해 환영을 받았다면 그들이 무슨 영웅들이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눅 6 : 26).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이 세상에 당신이 속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을 기다리자.

7월 14일

미켈란젤로는 그의 작품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모델로 석공을 데려다가 썼다. 그러자 스승인 길란다이오가 그를 꾸짖었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다. “그리스도 역시 목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플로렌스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네. 그들은 그 분을 귀족으로 생각을 하던 습관에 젖어 있거든.”하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예수에만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는 실재하는 예수일 수가 없다.

유명한 프랑스 소설에 영국 지주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은 오페라에 출연하는 프리마돈나에게 반해 어리석은 짓을 곧잘 했다. 매일 밤마다 극장에 찾아가서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꽃과 보석같은 선물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도 점차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때마침 열리는 파티에서 그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주선을 원하였다. 그러나 파티에서 그녀는 가명으로 소개되어졌고 이 지주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오페라 무대 위에서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그녀만을 사랑했을 뿐이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조차 못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 속의 예수님이나 성찬식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모습의 예수님, 혹은 동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 곁을 지나갈 때에나 감옥이나 병원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분을 경배하기는 커녕 외면을 해 버린다.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들어와 거하시도록 초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4)

7월 15일

조롱하는 자들이 위와 같은 말로 초대 크리스천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이제
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자의 핵을 인공으로 조절하여 결국 이 지
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인당 15톤의 폭발물을 적재하기에 이르렀다. 인류
의 파멸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간은 달을 정복했다. 독재자들과 돈
만 이는 파렴치한들은 마약이나 대중 매체를 통하여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정한
다. 인구 폭발이 염려되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한 흉년이 들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공기만은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권력
은 이제 더이상 기독교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백인들의 손에 있지 않다. 제3
세계의 대표들이 UN에서 다수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공
산주의자들이 지시하는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가로 제 위치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으셨으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이것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교회내에도 침투했다. 1974년 8월 1일에 발간된 캐피
탈 보이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싣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
다. "미국 내의 감리교 목사들의 51%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60%는 동
정녀의 잉태를 믿지 않는다. 62%는 사탄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성공
회의 사제들 중 89%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라
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역시 말세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
이다. 황폐하게 하는 자가 성전안에 있는 것이다(단 9:27).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이다. 만물은 창조 이래로 똑같
이 계속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왕하 1:7)

7월 16일

엘리아가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에게 전갈을 보냈을 때, 왕은 신하에게 전갈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대신에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메시지의 가치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직위에 좌우되는 것이다. 가령 돈을 몹시 탐하는 사람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눅 6:24)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하자. 그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느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초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마음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들이었다.

발가벗겨진 채 팔목과 발목을 채운 네 개의 사슬에 의해 벽에 매달려 몽둥이와 날카로운 집게와 췌블로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견뎠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형제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일체 발설하지도 않았다.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견뎌낸 것을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떠한 기계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굶주린 그들은 영양 상태가 좋은 투사들을 맞아 훌륭하게 싸웠다. 그것은 그들이 제대로 생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하는 은혜의 천사들을 보기도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구식 크리스천들이다.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우리들의 생김생김이나 행동거지를 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어떨까? 엘리아의 경우에는, 소박한 옷차림을 한 외모까지도 그가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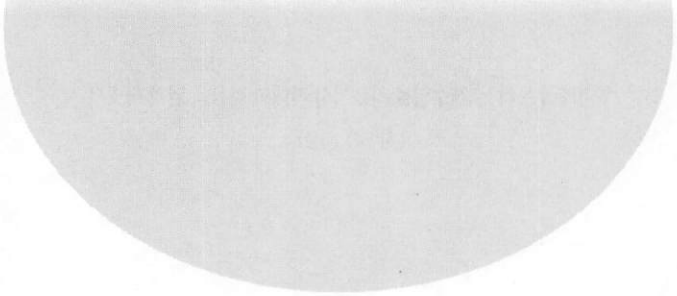
7월 17일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나고 묻지 않을 때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시간이 무엇이나고 물어오면, 나는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어져버린다.” 러시아의 천문학자인 코찌예레프는 시간을 가리켜 “자연의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한 가치”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시간에 관한 철학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도록 하는 그 무엇, 즉 부모와 자식간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세대에 속하는 것은 그들이 시간 상으로 더 늦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볼 때, 낯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유행에 뒤떨어지고, 더 이상 가치도 없는 도덕관에 위선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가운데 하나는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쓰인 정도의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살인자였던 만손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열여섯 살 난 창녀의 아들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친척들의 손에 맡겨졌는데, 그들은 만손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고 심하게 매질을 하곤 했다. 열네 살 이후로 만손은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신앙심이 깊은 부모들마저 자식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돼지’이니 하는 호칭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 하나 극단적인 것은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이다. 청소년의 자살률은 지난 20년간 25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로까지는 발전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많다.



아이들의 문제는 바로 시간이란 빨리 지나가버리고 곧 다른 세대가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부모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이들을 풍족하게 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현명한 교육과 함께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필요로 한다.

7월 18일

목사 안수식을 앞둔 신학생이 평가 위원회와 감독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훌륭한 추천장도 갖고 있고 모든 신학 과목들을 최고의 성적으로 수료한 학생이었다. 그는 의례적인 질문들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교회 담임목사도 그가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무척 적극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다가 신앙이 깊은 감독이 그에게 초기 교회의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의 무적으로 대답을 해야 했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이익이나 손해를 똑같이 환영합니까? 당신은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방인들도 사랑합니까? 당신은 질병이나 건강, 자유나 구속됨, 매나 위로, 혹은 반대나 칭찬을 똑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후보는 대답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공부를 계속하십시오”하고 감독이 대답했다.

많은 목사들은 자신들의 부름의 목적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차적인 기능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마 5:17)고 말씀하셨다.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이 단지 설교의 주제로 삼는 그것들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목사를 구하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살전 5:2)

7월 19일

러시아의 독재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과,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멋진 빌라와, 캐딜락과, 흑해 가까이에 위치한 별장을 어머니에게 두루 구경시켜 드리고는 물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어머니는 “네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걸 보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러나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면 어떡하니? 그들은 아주 몹쓸 놈들이라고 하더구나. 그들은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한다고 그런다더라.”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구호로 외치는 선전과 실제생활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듣고 흘려 넘겨버리는 쉽다.

위에서 인용한 농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경건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고 치자. 그때에 어머니는 이렇게 묻는다. “다 좋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땐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셨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분은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군인들은 전부 다 총을 차고 있었다. 혹시 크리스천들이나 는 예수님의 물음에 모두가 고개를 끄떡였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탄식하셨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고 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또 거리를 지나다가 가게 창문에 붙어있는 선전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선전문구들이 붙어있는 것이었다. “여기 최고의 구두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최고의 승용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의 한 가게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늘 가르쳐왔다.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 경쟁사들의 제품을 더 권장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창녀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세례도 받고 입교도 거친 여

인들이었다.

예수님이 보니 크리스천들이 서로 다른 정당으로 갈라져 싸우는 중이었다. 교회 중에는 천주 교회가 있었고, 침례 교회, 루터파 교회도 있는데 과연 저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내 교회일까 하고 생각에 잠기셨다. 무슨 무슨 교회니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교황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지만 예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위스인 보초의 눈을 피해 몰래 교황청으로 들어가셨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괴짜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면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난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하고 예수님은 대답했다.

당신이 가진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 인생의 도덕적인 혹은 정신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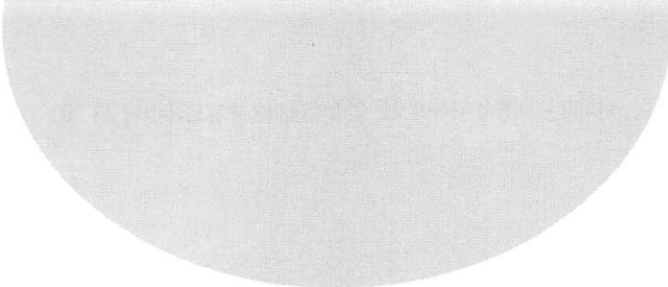
7월 20일

성경은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하여 성경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힘써야겠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모스 9장 11과 12절을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이방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심한 편견을 갖고 있던 터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전도에 그다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행 15: 16, 17). 이 두 구절들을 비교해보라. 베드로는 문장 전체의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예언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방인들이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고 산을 내려온 후 자신의 얼굴이 빛나자 수건으로 가렸다는 기록을 접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울을 모세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한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고후 3:13).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즉, 영혼이 구원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한 예배의식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돕는다면, 간단한 예배의식으로 인해 도움을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사나 교파가 다른 목사나 교파보다 어떤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만약 어떤 특정한 성경의 번역이 다른 번역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돕는 방법이나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다(고전 9:22).

7월 21일

미움을 받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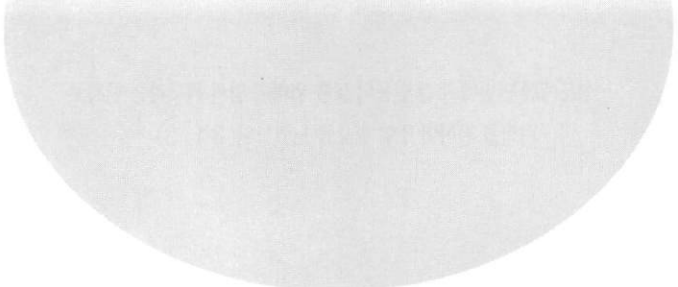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유명한 극작가 헨릭 입센은 19세기에 가장 인기가 없던 작가였다. 이것은 그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곧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사회에서 배척을 받던 삶의 태도들을 찬양했던 것이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된 메시지인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나 확고히 세워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입센과 그의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인민의 적'이라는 극에서 한 등장 인물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한다. 아마도 이 대사는 작가 자신이 자칭 그를 생각해준다는 친구들에게 술하게 들어온 이야기였을 것이다. "자네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닐세. 자넨 지금 독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또 다시 그 박애주의 정신 운운하지는 말아주게.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평생동안 모욕 속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슴속에 악마가 들어 앉은 사람이니까. 제 처자식보다도 사회를 더 위한답시고 설치는 그런 악마 말일세."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비난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된다.

입센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이렇게 극을 이어나간다. "폭풍이 닥쳐올 때, 기억해 둘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지. 그것이 언젠가는 지나가버릴 것이라는 사실 말일세...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깨닫기 전에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다수는 늘 틀린 법이네... 다수의 주장이 늘 옳다는 그 오래된 거짓말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네."

성난 군중이 영웅인 스톡크만 박사의 집으로 몰려가 돌로 창문을 깨부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돌들을 신성한 기념품으로 간직하겠다."



대중의 의견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배우자.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도 앞 못보는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빛이시다. 그 분은 다른 것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영향을 끼치신다. 그 분은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심으로써 죽기까지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을 얻으셨다.

7월 22일

넬슨이 청소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새 사냥을 다니다가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넬슨의 아주머니가 그를 꾸짖었다. “세상에 겁도 없었어. 무서워서 어떻게 여태껏 밖에 있었니?”

“겁이라구요? 저는 그런 건 모르는데요”하고 넬슨은 대답했다.

우리는 갈등을 겁내지 않는다. 영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 스펀전은 침례교 내에 거짓된 가르침이 놀랍도록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침례교 총회를 탈퇴하여 성경에 토대를 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당장 성공하리라 기대하지 않으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50년 동안 어떤 굴욕이라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세월이 더 지나면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냉혹하고 수치스런 이름으로 불렀다.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혐오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펀전은 애써 반응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흑인 목사는 닭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런 설교는 성도간의 사랑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초청받아 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후 그 교회 담임목사로부터 언짢은 소리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날 나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죄에 대하여 설교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목사는 그의 후원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타협 정신을 포함하여 교회나 선교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것이 커다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원칙을 배반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7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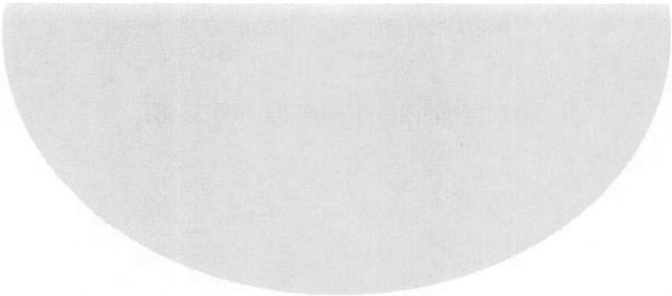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그대에게 내리겠소.”

이런 제안을 받은 신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만약 장군이 되고 싶다고 하면 왕은 나를 장군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왜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만약 왕국의 반을 달라고 해도 그것을 나에게 줄텐데, 그러면 나머지 반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불만이 또 있을 것이다.” 심사숙고 끝에 그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따님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영혼’을 뜻하는 단어는 둘 다 여성 명사이다. 여성으로서,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게 된다.

우리의 신랑은 영광중에 계시면서도 또한 매우 겸손하신 분이시다. 나다니엘은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요 1 : 49)이라고 불렀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요 1 : 51)라고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당신의 신성을 깨닫게 되자 그 분은 겸손하고 온유하게도 당신의 인간성을 강조하시어, 인간적인,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신부인 우리가 자신있게 그 분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 분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 분은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관심을 가진, 결혼 잔치에 쓸 포도주가 넉넉한지를 걱정해 주시기도 하는 인간적인 신랑이시기도 하다.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생각으로 이웃의 자질구레한 요구에는 냉담한 일부 성직자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신가.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을 꾸짖기만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신랑이 신부와 함께 그러하듯이, 조용히 저녁을 드시기도 한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다. “고요한 신은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든다. 고요하신 그 분을 뵈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한다.” 우리를 가장 고요하게 하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7월 24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들 중의 하나가 바로 죄수들의 세계이다. 사회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한 용서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죄수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자신들이 해친 희생자들에 의해 시달린다. 다른 어떤 말들보다도 그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들을 계속하여 듣게 된다. 당신이 친절하게 말을 건네더라도 죄수들은 당신이 자신들(살인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경찰이나 성직자에게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들은 꿈을 꿀 때, 혹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중에 흘러나온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희생자들은 언제나 그들 머리맡에 있다.

에밀 졸라는 「테레사 라퀸」이라는 작품에서 살인을 저지른 화가 이야기를 썼다. 그의 범죄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가 그리는 사람의 얼굴이 서로서로 비슷해져 갔다. 모두들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도, 여자들의 얼굴도 모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했던 것이다.

살인자들은 그들이 죽인 사람 하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 인간들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연민의 정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오직 한 사람,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만은 예외이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이다. 그 분은 빌라도가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겠다고 제안했을 때, 군중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미리 정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으셨다.

예수님은 도둑들을 경멸하지 않으신다. 그 분은 자신을 그들에게 비유하셨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베후 3 : 10).

범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분의 참된 제자들로부터는 이해와 사랑을 받는다.

7월 25일

유다서는 많은 위전(僞典)들 가운데 하나인 에녹을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여긴다.

에녹은 이렇게 썼다. “나는 일곱 개의 별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일곱 개의 거대한 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묻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이다. 이곳은 별들과 천군천사들의 감옥이다. 저 불속에서 타고 있는 별들은 태초에 그들이 뜰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제 시간에 뜨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하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두셨다..”

오늘날까지 치자면 수천년 동안 시슬에 묶여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짙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감옥 생활이란 그것이 어떤 감옥이든 다 괴로운 법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별에서 저 별로 날아다니곤 하던 날개달린 천사들의 감옥에 갇힌 고통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천사들은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기”(유 1:6) 때문에 그 곳에 갇히게 되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처소, 곧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런 분께서 당신을 용서하실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당신은 빛나는 별인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는가?

두려움과 공포는 크리스천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7월 26일

스트린드버그의 연극 '미스 줄리'는 아주 부유한 소녀와 하인 사이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줄거리로 삼고 있다. 극중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잣집 딸인 소녀가 먼저 말을 한다. “나는 내 발로 기어 올라간 받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어째선지 도로 내려갈 수가 없는거야. 꼭 내려가야만 하겠는데, 뭘 자신은 없고… 떨어지기도 해야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돼. 나는 다시 땅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 그러다 내가 땅에 닿게 되면 점점 더 깊이, 아주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을 것 같아.”

하인이 말한다. “저는 깊은 숲 속의 큰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꿈을 꾸곤 하죠. 나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올라가서 햇빛을 받아 빛나는 저 밝은 경치도 내려다보고 황금 알이 들어있는 새 둥지도 훑쳐오고 싶어요. 그래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나무가 어찌나 크고 미끄러운지 제일 낮은 가지까지 기어오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지까지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다리라도 탄 것처럼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의식은 때로 그들로 하여금 혁명가가 되거나 그런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지지하게 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동경하고 '올라가고' 싶어한다.

이러한 자연스런 감정들이 잘 조화되면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선행을 배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미덕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을 위하여 타고난 재주를

발휘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그들의 감정은 평소에는 억눌려 있지만, 간혹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테러나 시위나 혁명 등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로 기독교자들은 그들이 제대로 즐기며 누리지 못했던 지위를 잃게 되고, 그들의 자리는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 계층은 얼마 가지 않아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7월 27일

많은 사람들은 크게 출세하지 못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 예수님께서도 크게 출세하신 분이 아니셨다. 그 분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그만 시골교회의 목사였던 셈이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가이바가 주최하는 연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곤 했다. 그러나 그도 그다지 크게 출세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목숨은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는 시저에 의해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시저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줄리어스 시저는 친아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네로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외형상의 문제일 뿐이다. 소위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한계이다.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무자비한 독재자 로베스피에르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서마저 버림을 받고 컸다. 그는 온갖 고생을 하며 독학을 했다. 청년 시절에 그는 당시의 젊은 국왕 루이스 16세와 왕비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왕과 왕비가 그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가 환영사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왕 부처는 칭찬의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가 버렸다. 이 사건을 겪은 청년 로베스피에르는 인간에 대한 미움을 점차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수천 명의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중했다. 그리고 단두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살인자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살인자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

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날뛰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단두대 위에서 평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룩해 놓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다. 공화국은 또 다른 황제 나폴레옹을 위한 길을 포장해 놓고 끝나버렸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성공은 당신의 허무함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사명감을 갖고 당신 자신의 짐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짐을 함께 져라. 목수 일을 하면서도 만족을 했고, 환영받지 못하는 랍비가 되어서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한 '은유하고 마음이 겸손했던' 예수님을 본받아라. 부활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7월 28일

시몬 바일이라는 유대 여인은 나치하의 독일로부터 영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녀는 도망을 친 후에도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들에게 배급되는 할당량만큼만 먹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결국 영양실조에 걸핵까지 겹쳐서 죽게 되었다. 그녀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심오한 크리스천 사상으로 가득찬 많은 저서를 남기고 죽었다. 그녀는 자신과 다수의 불행한 비신자들간에 거리감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었다.

바일은 교회 내에서 흔히 전통적이라고 잘못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전통은 오래된 재를 소중히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작을 계속 집어 넣음으로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바일은 만약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전투중인 전선에 나타나셔서 양 편의 군사들 중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았다. 아마도 예수님은 양 편에서 날아오는 총알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양 군대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자신들이 죽인 그 분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신의 조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곧 다른 편이 지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올릴 것이었다.

우리의 일관성 없는 사랑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 사상가들이 고통을 당해왔다. 전쟁, 계급 투쟁, 혁명, 그리고 크리스천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들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우리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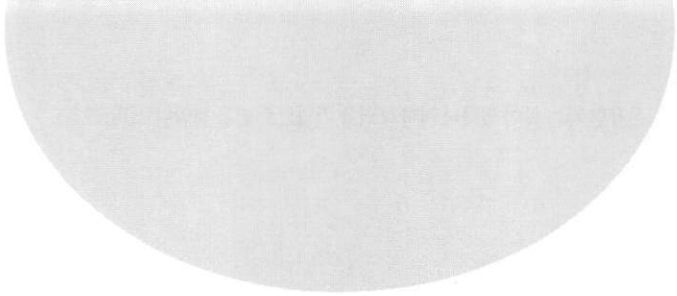
7월 29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을 상징한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유 1:14). 유대인들은 매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한다. 그 7년이 일곱 번 지나면, 유대인들은 희년을 맞았는데, 그 해에는 49년 동안 거래를 통하여 주인이 바뀌었던 모든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천지창조도 7일만에 이루어졌다. 대홍수가 났을 때, 깨끗한 동물들은 종류마다 일곱 마리씩 살아남았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곱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하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분은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신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예는 얼마든지 많다.

어떻게 해서 7이라는 숫자가 신성시 되었던 걸까? 갈대아인들은 우리처럼 십진법을 쓰지 않고 0과 6까지의 자연수를 이용하는 칠진법을 사용했다.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대적인 것이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0과 1이라는 숫자만 쓰는 이진법에 익숙해 있다. 칠진법으로 우리의 7이라는 숫자는 10으로 기록되었다. 7이라는 숫자가 왜 거룩함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10’이라는 표기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0이라는 숫자 앞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1을 쓴 것이었기에,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이 다른 모든 숫자들보다 중요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 갈대아인들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그들도 7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여겼다. 7과는 반대로, 단순한 숫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6이라는 숫자는 열등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도 666이라고 했는데(계 13:18), 그것은 열등한 것,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를 세 번 반복한 것으로 양 한마리가 나타나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숫자 7과 같은 사람이라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0이 되었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당신의 앞에 서 계시다면, 이 짐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승리를 거둔 사람은 당신이다.

7월 30일

워싱턴과 나폴레옹을 한 번 비교해보자.

워싱턴은 겸손하고 조국의 자유를 갈망했으며 결국 그것을 성취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했기 때문에 공화국의 장군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후에 집정관이 되었으나 그것도 부족하여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여 집정관들 중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결국은 황제가 되었다. 그는 다른 왕들을 모두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척들을 앉혔다. 그는 이집트와 모스크바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 나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었다. 마침내 그는 추방당해 포로로 죽어갔다. 오늘날 그의 제국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다.

당신이 열중하고 있는 일은 몇 가지나 되는가? 많은 일을 동시에 벌여놓고 신경 쓰다 보면 그것들을 모두 망치게 되는 수가 허다하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다가는 '자기만 알고 건방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위로부터 듣게 마련이다.

7월 31일

예수님은 랍비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수치였던 시대에 살았지만 끝내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마 그를 사모하는 여인들은 많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고 기록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분은 인간이셨다. 그런 까닭에 그 중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도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부하셨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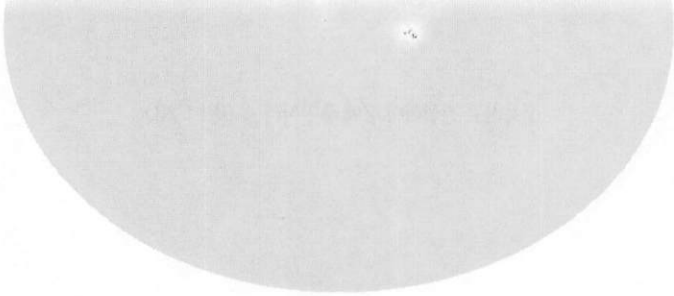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신으로 살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몸소 참석함으로써 그 자리를 빛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도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히 13:4)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부부간의 대화나 세 끼 식사 같은 일상적인 일은 물론이고 성생활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높은 직위를 가진 크리스천들은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을 보면 감독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딤후 3:2). 크리스토폴은 이렇게 말했다. “정숙함의 첫째는 순결한 처녀성이고 두번째는 결혼에 충실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여 정절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처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성생활을 마음껏 즐겨라. 성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중세식 편견을 극복하라. 성을 위한 신체 기관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남자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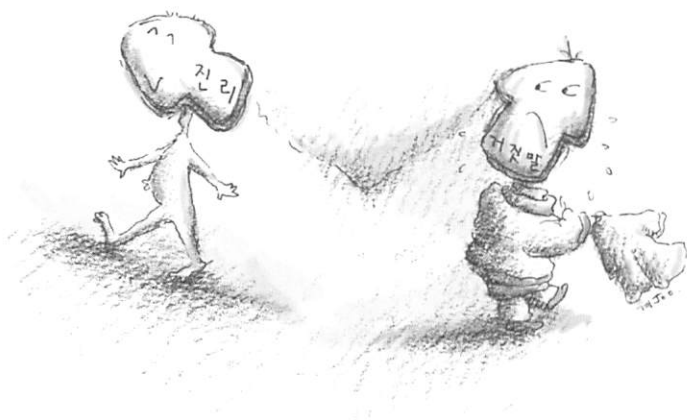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은 절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훌륭한 선물을 감사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처지에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결혼을 했을 경우와는 또 다른 축복을 가진 부르심이며, 가끔 결혼한 사



람들에게는 주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회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핏박이 있던 시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저항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진리와 거짓



8월 1일

모든 결혼은 하나의 모험이다. 승고한 사랑으로 맺어질 때 비로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결혼은 법적 인 문서를 갖춘 간통으로 전락한다.

결혼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안된다. 그 여자가 부유해서, 혹은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혼 한 사람들은 이미 그 결혼을 신성하게 만들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교파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당 등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두 결혼 상대자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사람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분쟁이 있었던 집안에 태어난 죄로 죽어야만 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웠고,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또 흑인들과 백인들이 서로 싸웠었다는 이유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모든 일에 사사건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자들을 단순한 노리개로 취급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다. 인형처럼 생각한 나머지 당신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달거나, 지나치게 우상처럼 숭배하여 당신의 도덕적인 의무를 망각하거나, 노예처럼 부릴 때, 당신은 여자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제는 여자들도 의사, 엔지니어, 혹은 경찰관이라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2000년 전의 관습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 그 당시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상황 때문이었지 그가 진정으로 맹목적인 복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을 사는 여성은 남편과 평등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존경과 사랑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8월 2일

탈무드에 랍비 십라의 글이 나온다.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받았다… 다윗이 와서 그것들을 열한 가지로 줄였다… 그것은 곧 1) 정직하게 행하며 2) 공의를 일삼으며 3)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4) 헐로 참소치 아니하고 5)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6)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7)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8)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9)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10)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11)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이다”(시 15).

“이샤야는 다시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그것은 곧 1) 의롭게 행하는 자 2) 정직히 말하는 자 3) 토색한 재물을 가공히 여기는 자 4)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6)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이다”(사 33 : 15, 16)

“미가가 이 계명들을 다시 세 가지로 압축시켰는데 그것들은 1) 공의를 행하며, 2)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3)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 : 8).

이삭의 아들 랍비 나크만은 여기에다 한 줄을 보태었다. “하박국은 그 모든 계명을 단 한 가지로 줄였다. 그것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다.”

믿음이 대원칙이라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것을 좀더 다듬고 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다른 계명들이 가치있는 것이다. 믿음 없이 계명만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바울은 하박국에 나오는 이 구절을 반복하여 인용한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재발견한 것 같이 보인다. 만약 많은 계명들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 혼란스럽거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월 3일

세라피온 신부님에 관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신부님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불쌍한 남자가, 곧 그리스도가 추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운을 걸치고 있겠는가? 만약 그를 얼어 죽도록 내버려둔다면 심판날에 나는 살인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부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불쌍한 남자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자리를 잡고 앉아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 거리를 지나 가던 경관이 혈벗은 그를 보고 물었다. "세라피온 신부님, 대체 누가 신부님의 옷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바로 이것이 그 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일세."

얼마 후에 그는 빛을 갠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세라피온 신부는 성경책을 팔아 그 남자의 빛을 갠해주었다.

신부가 혈벗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가 물었다. "주교님, 옷을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곳에 내가 보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성경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내게 매일같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신 그 분께서 달라고 하셨네. 그래서 나는 심판날에 좀더 자신있게 나서기 위해 그것을 팔았다네."

우리들의 눈 앞에 한결같은 신앙인의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왜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에 만족하고 마는가? 도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단 한 장의 카드에 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분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키자.

8월 4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의 겸손함을 찾아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운 그는 자신을 가리켜 '티끌과 같은 나'라고 하였다(창 18:27).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다루었지만 반역자들을 향해서 이아기할 때에도 마치 하인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민 16:8, 1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으나, 그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 (시 22:6)고 고백했다. 주님께서 또 바울을 불러 그를 사도 가운데 으뜸으로 만드셨지만 그의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온다. "나는 사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동료들에 비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여라"(레 19:18)는 계명을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는 너와 마찬가지로이다." 곧 내 이웃은 나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가치있고 나와 같이 죄도 있고 미덕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과는 무관한, 전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우월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택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는 종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

(롬 12 : 1)

8월 5일

스코틀랜드의 몰튼 백작이 섭정(攝政) 하던 때의 일이다. 총회위원회가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백작은 그것이 국왕의 허락없이 결정된 일이라서 반역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앤드류 멜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도 반역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들도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많은 군중을 불러 모았으니까요.”

백작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네놈들이 교수형이나 추방을 당하기 전에는 이 나라에 평화로운 날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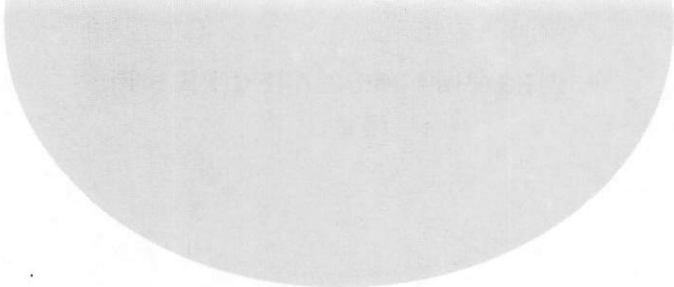
멜빌은 대답했다. “당신을 따르는 아침꾼들에게나 그런 말로 헐박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중에서 썩든지 땅 속에서 썩든지,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위그노 교도인 해군 장군 콜리니는 복음주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하고 팔에 박힌 총알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다. 콜리니는 말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 사실이 기쁩니다. 그 분께서 제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저에게 총상을 입힌 사람과 그를 부추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장군은 결국 심장 깊숙이 칼을 맞고 죽게 되었다. 그를 죽인 사람들은 시체를 높은 발코니에서 아래로 던졌다.

이 악명 높은 사건으로 비돌로매의 밤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에 콜리니와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죽어갔다. 수도사들은 “이교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부활한다”는 논리로 살인자들을 지지했다.

복음주의 교회에는 “하나님이시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녹스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우리



가 그들로부터 배울 것은 기도에 충실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준비마져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 : 31)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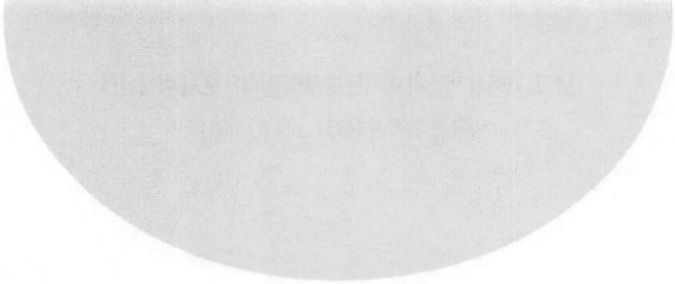
설교나 책이나 개인적인 간증, 곧 언어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당신이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연히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이가 한 성도에게 진리의 길에 관해 물었다. 그 성도는 이런 대답을 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실마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다른 모든 현상을 예로 들었거나 어떤 성자의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더라도 이야기는 달라질 게 없다.

존 루스브릭의 말을 인용하여 신비한 원리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뿌리를 향하여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다. 언어 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를 기어오르는 순간 순간의 황홀함이 그 나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였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으로 나는 그 분의 창조물이 되었고, 그 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그 나무를 끝까지 다 기어오르면, 즉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창조물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도 그뻘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도 성령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됨이, 그 특별한 관계가 종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배가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요 3 : 3).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라.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이고 성령께서는 그 안에다 알을 낳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얻은 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다른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거룩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 21)

8월 7일

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죽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슬픔을 그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친구들이 말했다. “자네는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지 않았나.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서 자네는 이토록 침착한가?”

남자가 대답했다. “한때 내게 아들이 없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슬퍼하지는 않았네.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내가 평안을 잃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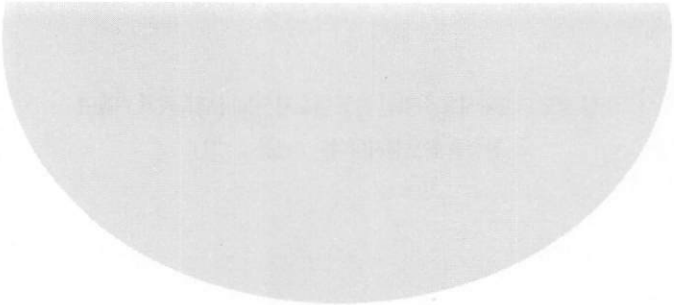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에 컨퓨시우스는 사슴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낫줄을 두르고, 류트(기타와 비슷한 현악기 :역자 주)를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 컨퓨시우스가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행복하게 합니까?”

남자의 대답은 이랬다. “행복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동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드셨으니, 그것이 우선 행복할 만한 이유가 아닙니까? 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떤 이들은 어려서 죽게 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옥에 갇히거나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자유의 몸이고 건강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도 굶지 않았고, 저녁때 먹을 식량도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영적인 생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괜한 걱정들을 한다.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돌아오는 메아리도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똑바른 자세로 걷는데 그림자가 비스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동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쁨의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이제 그 분은 제자들의 머리 위에 같은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는 결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 그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는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채워 주신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단 11 : 35)

8월 8일

예수님은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야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적합했을 듯 싶은데도 말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명사는 복수형이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 하나만 볼 때에는,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밀어 올려주신다면 그 타락은 내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의 일부분이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겪고 난 후에는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도 말씀해주셨다. 과연 그런 시험을 겪고 난 직후에, 그 경험 덕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오순절 날에 강경한 어조로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회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죽기를 원했다고 한다. 감히 스승처럼 머리를 위로 한 채 십자가에 매달릴 엄두도 못냈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뒤 죽박죽인 세상에서 나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나는 누구나가 그래야 하듯이 이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아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홍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눅 2 : 34). 당신의 운명이 어느 쪽이든지 그것을 달게 받으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일 1 : 6)

8월 9일

이 글을 기록한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만연한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고집하는 이들은 사람이 죄악 속에 살거나 타협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반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듯 명백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이다.

사도는 자신과 동시대에 사는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온유하게 말한다. 그는 '당신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로써 사도 자신도 생각을 잘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과 같은 의미로 쓰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이라는 구절의 동사는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크리스천들도 죄를 짓고, 그중에는 자주 혹은 심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도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 (요일 1 : 8),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 (요일 2 : 1)라고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행동에서 옆으로 비껴나간 일회적인 행동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악이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죄짓는 데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종교도 소용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도덕성, 법률, 그리고 모든 가치 기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광적인 신앙심과 결부된 반율법주의니 도덕률 불요론이니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은 오늘날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것들을 알고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7)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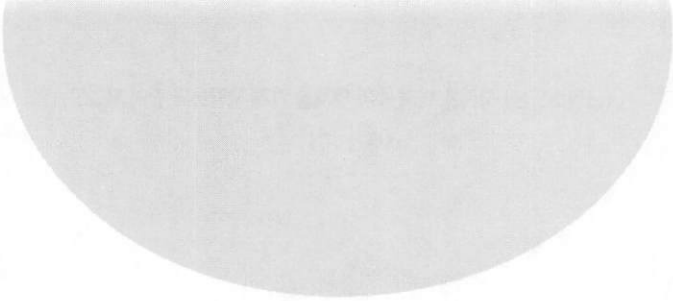
니콜로 파가니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독일의 시인 헨리 하이네와 같은 지적 수준이 대단했던 사람도 파가니니가 악마와 계약을 맺어 영혼을 저당잡히고는 천재성과 부와 명성을 얻었다고 믿을 정도였다.

파가니니가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들에게 몰려 베니스에서 비엔나로 도망쳐서 결혼식이나 허름한 술집에서 연주하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제대로 된 옷이 한 벌도 없어서 고급 레스토랑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다. 한때 삼류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에, 한 학생이 제발 그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소음'을 그쳐달라는 조건으로 팁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모욕을 당한 파가니니는 미친듯한 야망으로 불타게 되었다. 그는 황태자의 궁에서 열린 연주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화려한 연주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명성과 말할 수 없는 부를 얻었다.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랐다. 파가니니는 인생에 성공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함으로써 되어진 일이었다. 아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으며, 무엇보다도 자신 이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가들을 시기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예술만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가 아주 어려운 음의 배합으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것처럼 손이 아주 큰 사람 말고는 그의 음악을 연주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백만장자이긴 하지만, 파가니니는 길을 걸을 때면 못이나 종이 조각이나 끈 같은 것들을 늘 줍곤 했다. 그리고 가장 값싼 음식만을 먹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마다했는데, 그 이유는 연애를 하자면 돈이 들기 때문이었다.

성공을 즐기며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행복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성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파가니니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다. 당신의 타고난 재주를 갈고 닦으며 성공하도록 힘쓰라. 그러나 당신 가슴 속에 죄악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 성공을 구할 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라.

8월 11일

우리는 누구나 성장 (곧 부의 성장, 더 큰 집, 더 큰 사업, 더 큰 교회나 선교사업, 혹은 더 높은 직위)을 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로지 성장을 위한 성장이란 바로 암세포의 철학이나 다를 바 없는데도 말이다.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도 거들떠보지 않으셨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당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하셨다. 그 임무는 십자가를 지는 일도 면류관을 쓰는 일도 다 포함한 것이었다.

성경의 원칙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돈을 위하여 결혼하지 말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도 말아야 한다. 남을 악선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부상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반드시 교인이란 크리스천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지 말고 오로지 진리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라.

세계 교회주의를 위해 진리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오직 성경에 쓰인 진리를 지키는 자만을 믿음 안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돈이 없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거나,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하는 일 따위로 마음 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다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번도 말기유에서 태어나신 일이나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사업, 교회나 선교 사업을 갈라놓음으로써 성장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즐기게 내버려 두어라. 언제나 제2 바이올린을 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당신은 불행하게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낮은 당신의 직책으로도 진정 즐길 수 있을 것이다.

8월 12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고요함이다. 라디오와 TV를 꺼야 함은 물론 에어컨 컨디셔너나 식기 세척기의 소음이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많은 영혼들이 집 안의 여러 가지 소음들 때문에 고요의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말 중에는 헛된 말들이 많다. 그러나 헛된 침묵이란 결코 없다. 말이 부스러기라면 침묵은 그것들로 꽉 찬 어떤 완벽함이다.

당신이 성경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심오하다고 깨닫게 될 때, 그것들이 깊은 고요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당신이 그 강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는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라는 말씀을 읽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여러 번 세계 각지를 여행했지만 가장 흥미있는 여행들은 모두 고요함 중에서 내 가슴 깊은 곳,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한 여행들이었다.

외부의 소음들을 다 차단하고 내면의 소음들, 곧 갈등이나 집착이나 걱정들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신령이 계시는 고요의 땅으로 인도하는 저 황금문을 지나가라.

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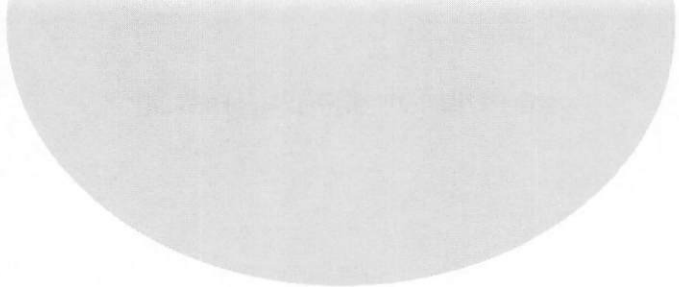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덕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중의 하나는 그녀의 독립심이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마도 젊은 시골 처녀였을 것이다. 천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남편이 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녀가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약혼 상대자에게 충실치 않은 행위에 대한 벌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었다. 20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그녀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마리아는 또한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동시에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들어갈 때, 자신의 가슴 속에도 창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신랑감이나, 만약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면 그녀의 부모들이나, 나이든 집안 어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을 찾아가 상의를 하겠다고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사람의 충고를 구했더라면 인류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것처럼(갈 1:16), 젊은 처녀 마리아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천사에게 말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정숙한 여인, 순결의 상징인 그 여인은 스스로 혼전 임신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순종하는 여인, 침묵하는 여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여인이 순종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그녀가 위대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겸손의 본보기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녀에게는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침묵이 오히려 말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면으로는 커다란 독립심을 이미 얻은 다음이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바치는 사랑의 선물이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눅 9 : 31)

8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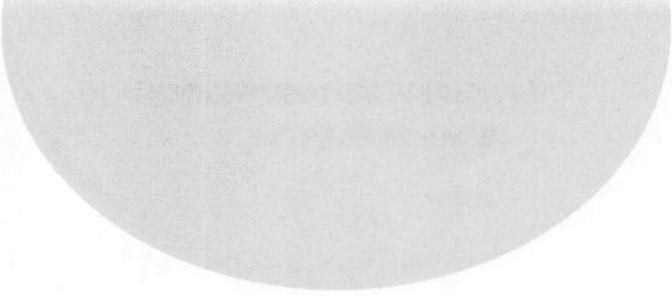
적그리스도들은 교회가 나치들과 결탁했었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다닌다. 그들은 히틀러가 4천 명의 카톨릭 신부들을 죽이고, 그 밖에도 많은 신부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실은 숨긴다. 같은 운명을 당한 개신교 목사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성직자들 뿐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도 그 시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늘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많은 성도들이다.

8월 14일은 야곱 가프 신부가 처형되었던 날이다. 죽기 전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으로써 나는 죽음을 준비해 온 셈이다… 저 천국 말고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 조국을 위해서도.”

요한 스타인마이어는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의 사면 요구는 거절당하였다. 오늘 오후 1시에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다… 나는 기쁘게 죽음을 맞는다.”

번하드 리히텐버그 신부는 동료 죄수와 함께 매를 맞고 오물로 가득찬 통에 머리를 쳐박히는 고문을 당한 후에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내 구주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고요함이지요. 그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기도를 올리면서 죽어갔다고 한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돌아가신 일이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 죽음은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당신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시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강도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서 죽어가셨던 것이다.



누구나가 순교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은 경건하고, 희망적이고, 사랑으로 가득찬 죽음을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를 할 수 있다. 당신의 죽음도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 13 : 2)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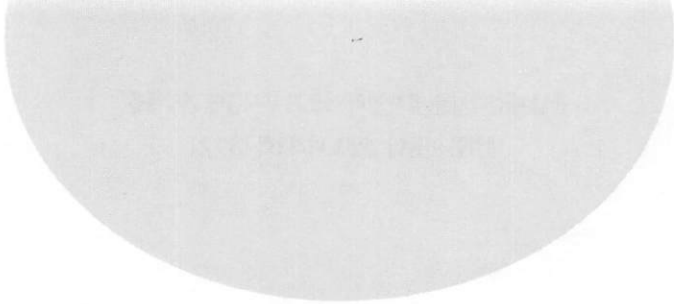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산국가의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정원을 돌보는 어느 정교회 사제가 있었다. 어느 날 사제는 사과를 훔치러 몰래 정원에 들어온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소년을 잡았다. 소년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오히려 소년의 주머니에 사과를 가득 채워주었다. 그리고 손에도 몇 개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곳에 언제든지 와도 좋아. 그런데 올 때에는 꼭 정문으로 오고,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오너라. 너희들에게 돌아갈 사과는 충분히 있으니깐." 곧 삼십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정원에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가르쳤는데, 청소년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소련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다. 그는 찬송가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회개한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하 교회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어느 교사에 의해 발각되어졌고, 그 교사는 사제를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그 사제는 소련 감옥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마치 천사처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남겨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취한 영혼들을 키워놓았던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와 협력하기를 거부했던 티콘 대주교를 따르는 진정한 정교회의 사제였다. 베니아민 주교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사제들도 총살 당했지만, 이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사랑을 무기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감옥에 잡아두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밖에 없다.

오딘스토프라는 침례교 목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체포당해서 굶주린 개들 앞에 먹이로 내던져졌다. 감옥에 갇힌 천사가 또 한 명 있었다는 이야기다.

형제를 맞이할 때에 크리스천의 등뼈에는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이 사람이 천사라면 어떡할까?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한다(갈 4:14).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 2 : 4)

8월 16일

독일의 신비론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여자는 영혼의 가장 고결한 이름이다”라고 썼다. 루터의 고해신부였던 스타우피츠는 이런 글을 남겼다. “영생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여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에게 여자라는 것은 영예로운 이름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여자라고 지칭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대로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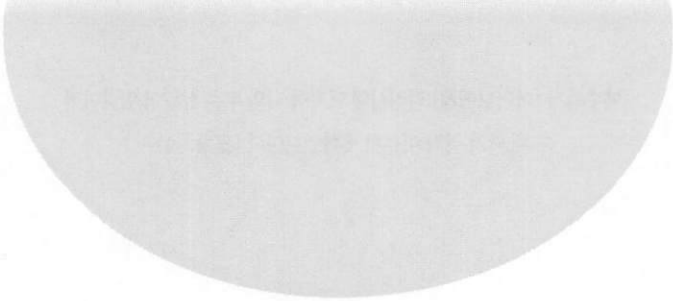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하신 위의 말씀은 비난의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일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기자인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었던 것이다(요 19 : 27).

번역을 통해서 읽게 되는 위 글은 자칫 불손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리이스어 원문에는 *Ti emoi kai soi* 라고 되어있는데, 이 표현은 고대의 신비주의 종교에서도 흔히 쓰이던 어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둘 사이를 흐르고 있는 이 신비한 액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 의도를 눈치 채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적을 행할 시간은 포도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떨어져버린 다음으로, 그래야만 혹시 포도주에 물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가 어서 손을 쓰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셨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도 마음을 돌리신 그분께서(마 15 : 28) 어떻게 거룩한 어머니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아들이 어떻게 할 것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여라.” 비록 그가 시키는 일이



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목욕물이라도 줄 것처럼 빈 통을 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임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다.

우리 인생의 원칙도 이래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번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 (유 1:9)

8월 17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같은 고대 사학자들은 빌라도가 부정부패한 정치인이며, 백성들을 모욕하고 강탈하며 음모를 꾸미고 죄없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끊임없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탈무드에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에 관한 비난이 쓰여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적의를 품은 욕설이라고는 없다.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행동을 결단하는 데 필요한 말들만 했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경멸하는 언어는 삼가했던 것이다.

사랑은 크리스천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이다. 나무는 나무꾼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늘을 거두지 않고 달은 버림받은 자의 오두막을 언제든지 비추어준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처녀들과 소년들이…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그 젊은이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대신 차라리 인간의 언어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편을 택한다.

범죄자들이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커다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존경해야 한다. 그들을 경멸하는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은 크리스천다운 태도가 아니다. 상대방을 창피하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고안해내느라 마음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몇몇 살인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그 만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신다. 때론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이용하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자.

8월 18일

성경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과거에나 있었던 일로 생각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종교들 가운데 동물이나 물신(物神)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다.

그중의 한 예로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콘콰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물신을 숭배하는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 물신을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콰족에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 물신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 주물(呪物)을 지닌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아내도 여러 명 거느리게 되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된다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물신에게 닭이나 염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루메이드의 물신은 때때로 사람의 피를 요구한다고 한다.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물신을 섬기는 마법사가 한 남자에게 일부러 독을 먹여서 고통 가운데 남자의 몸이 통통 부어오른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추장이 마법사를 불러 그 남자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간이 지나자 붓기는 당연히 가라앉았다.

원주민들은 이러한 물신들을 가족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

콘콰의 어떤 이들은 물신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하여 믿기를 원하나 그들의 입장은 당연히 선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도 물신에게 절을 하는 원주민들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나 다른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자.

8월 19일

흠정(欽定)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형인 ‘낳고’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쓰인 동사의 그리이스어 형태는 ‘아오리스트(부정과거)’라는 시제로써 어원학적으로 따져보면 ‘한계가 없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 시제는 신약 성서에 널리 쓰이며 영원한 현재, 곧 시간의 범주 밖에 있는 사건들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이스어로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과거가 쓰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조금씩 달라도 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러 조상들의 숫자를 마흔 둘로 줄인 것이나 족보에서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일부러 생략한 것은 이 목록이 족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입문 절차라고 해도 좋을만한 그런 것이다. 초대 교회의 성숙했던 성도들은 단순한 신앙심을 가진 단계에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선조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명상함으로써 결국 마리아에게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그녀와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계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회고를 하는 또 다른 통과 의례 과정이었다.

전과 같은 그런 의식적이고 방법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크리스천은 누구든지 이러한 과정을 한 번씩은 겪게 된다. 아브라함의 단계가 이삭의 단계를 낳는다. 그러므로 그리이스어 원문은 과거형을 쓰지 않고 한계가 없는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야 할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8월 20일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조롱하는 투로 물었다. “당신들은 성령이 어디에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개에게도 성령이 있소?”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은 ‘멍멍’ 하고 대답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현명한 대답인데, 그 질문을 개한테 했더라도 같은 대답이 나왔을 것이다.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답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이란 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성령에 대하여 차원 높은 질문을 던졌다고 치자.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모두가 아주 작은 미물의 ‘멍멍’ 소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제한된 관점으로 본다. 한 관점은 다른 모든 관점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맹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눈을 들면 천장을 볼 수는 있지만 바닥은 보지 못한다. 문을 쳐다볼 때, 내 시야에서 창문은 사라져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면적인 구원, 즉 여러 개의 관점을 지닌 구원을 주신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한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위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머리 둘 곳이 없게 되면 당신도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어느 한 편의 시각으로만 사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에 관한 당신의 대답은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흔한 ‘멍멍’ 소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이다.

8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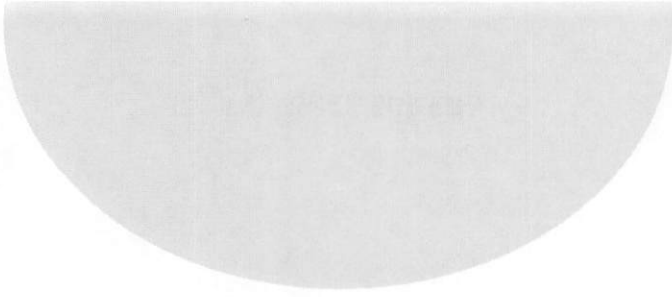
‘악마의 군도’라는 것은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무리의 작은 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섬들은 상어가 출몰하는 사나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은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기후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보통 사람들은 살 만한 곳이 못된다.

죄수들 대부분은 술로 인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다. (주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류 산업이 빚어낸 희생자들과 함께 그런 곳에서 일년 동안 살아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죄수들 중의 80%는 알코올 중독자나 매독 환자를 부모로 둔 사람들이라고 한다. 부모들이 행한 악이 그들까지 힘든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1933년에 프랑스 구세군 몇몇 장교들은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각종 해충과 질병이 만연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다.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몸이 떨려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은 악마의 군도로 향했다. 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 “머리를 뺨뺨 민 죄수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소매도 걷어부친 채 온갖 문신을 다 드러내 놓으며 앉아 있다. 어떤 이는 아주 정교한 솜씨로 아내와 아이를 그린 두 개의 원형 문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슬픔의 자식’이니 ‘어머니, 당신 자식을 보소서’와 같은 문구를 새긴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냉담한 얼굴로 앉아서 조용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죄수들이 영원히 무감동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죄수들 가운데 구세군의 신입회원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살인을 한 사람이었는데, 경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구세군 모임에 참석하고 회개하게 되어 죄를 자백하고 악마의 군도로 보내진 인물이었다. 그곳에서 구세군을 도와 일했다. 그는 “내가 만약 나를 파괴한 악마의 아들을 알기 이전에 나를 구



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더라면!” 하고 뉘우쳤다고 한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찰스 피안과 그의 많은 동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생활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졌다. 이제 악마의 군도는 더 이상 죄수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가두어두는 곳이 아니다. 구세군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8월 22일

테레사는 가난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언니들이 쓰던 장난감이 담긴 상자를 선물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야 했다. 그녀는 “그대로 하겠어요”하고 말했다. 열다섯 살에 카르멜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여러 계명 가운데에서 최우선으로 힘써 지킬 계명을 선택하는 의식이 있었다. 테레사는 또 대답했다. “그대로 다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우리에게 가리지 말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라고 가르치신다. 주님의 계명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는 행위는 사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죽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출전 명령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의 생각에는 부끄러운 퇴각 같아도 말머리를 돌려야 하는 군사들처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신 5:32). 계명에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있는 것일까?

계명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도적질 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적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짓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다. 이기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른쪽과 왼쪽에 속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머릿속으로 그것을 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일반적인 행동 규칙들이 있다. 이런 규칙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달리 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한다. 사랑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는 기준이다. 당신 눈에는 그 명령이 이상하고 심지어는 부적합해 보일지라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

8월 23일

진리와 거짓이라는 두 남자가 어느 날 함께 수영하러 갔다. 거짓은 진리의 옷을 훔쳐 입었는데, 진리는 거짓의 옷을 입느니 차라리 벗은 채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적나라한 진리'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진리의 옷을 훔쳐 입은 거짓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며 다닌다.

진리는 결코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 그들은 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에 빠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진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를 설득하여 훔친 옷을 벗고 벗은 채로 다니도록 하려고 애쓴다.

영국의 헨리 4세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헨리 대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으며, 거짓된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아량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을 비방하고 마침내 반기를 든 어떤 장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왕은 그 장군을 용서하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는 끝내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헨리 4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겠다." 별거벗은 진리가 진리의 옷을 훔쳐 입은 거짓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왕의 행동을 보고 감탄하는 자들에게 헨리 4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20 톤의 식초보다는 한 숟가락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 것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랑하라. 또한 고의적으로 거짓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그 둘은 혼동되어서도 혼합되어서도 안된다.

8월 24일

A.D. 165년 경에 카르푸스 주교는 이방신에게 분향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화형당했다. 일꾼들이 화형대를 쌓고 있는 동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어머니인 하와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하는 몹쓸 짓들이란...” 화형대에 몸이 묶여졌을 때 주교의 얼굴은 빛이 났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나는 벌써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네”라고 그는 대답했다.

막데부르크의 성녀 메크틸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는 재주를 타고난 여인이었다. “삼위일체의 달콤한 이슬이 선택받은 소녀의 꽃을 영원한 신성의 샘에서 길어온 물로 적신다. 그 꽃의 열매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생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메크틸드는 다른 식의 글도 곧잘 썼다. 어느 주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주교님은 악의 늪에 빠져 씹어버리셨습니다. 천국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보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거지처럼 가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당신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다.

색소니아의 군주였던 프레드릭 대제에게 참모들이 제안했다. “반기를 든 에르푸르트 마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껏 다섯 사람 정도가 목숨을 잃을 뿐입니다.” 참모진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목숨도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요.” 그는 평화를 선택했다. 그는 루터를 보호해 주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왕위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경고하자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느니 차라리 매를 맞고 거지가 되어 이 성에서 쫓겨나는 편이 나을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각기 다른 부르심을 받은, 개성이 각각 다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순종의 본보기가 된다.

8월 25일

러시아의 혁명가 짜스리찌히는 전제주의자가 통치하던 시절에 트레포프 장군을 저격했다. 그가 파비악 감옥에서 한 학생에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07년에 역시 혁명가 라고찌니코바라는 여인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중앙 교도소를 찾아가 소장과 면담하기를 요청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항의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옷 속에 13 파운드의 다이나마이트와 기폭 장치를 숨겼다. 소장이 들어서자 그녀는 갖고 있던 권총으로 그를 쏘았다. 다이나마이트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체포당해 결국 비밀경찰 본부로 이송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곳에 침투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그 곳에 들어가 자폭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몸수색을 당했고 다이나마이트는 발견되었다.

그녀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죽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스물이었다.

오늘날에도 공산치하의 감옥에서, 혹은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에서 매맞는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많다. 심한 경우엔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혁명가들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짜스리찌히나 라고찌니코바처럼 담대하게 나서서 믿음의 형제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의하고 돕고 싸울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 오늘, 예수님은 혁명가들보다 더한 용기와 열성으로 간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8월 26일

티토가 권좌에 올라 공포 정치를 시작했을 때다. 정교회의 일을 맡아보던 서기관이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일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이러한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세상을 상기시켜 드리러 먼저 가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많은 성도들은 큰 고통을 겪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읊과 다윗도 하나님을 의심하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하셨다.

당신도 견디기 어려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울 수도 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다소의 사울이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행 9 : 16)였다. 부모와 교수들과 성직자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고통학’을 가르쳐야 한다. 고통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욘 5 : 7).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면서 참아내는 법을 배우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슬퍼하고 절망하게 된다.

생명과 실체는 베일 뒤에 가리워져 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개의 두꺼운 휘장을 지나가야만 했다. 우리는 베일을 쓴 이슬람 여인의 표정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는 베일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의도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일들이 당신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다. 결코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8월 27일

성경을 직접 손으로 베껴쓰던 시절에, 프랑스 왕이 수도사에게 자신을 위하여 매춘행위를 단죄하는 구절이 없는 성경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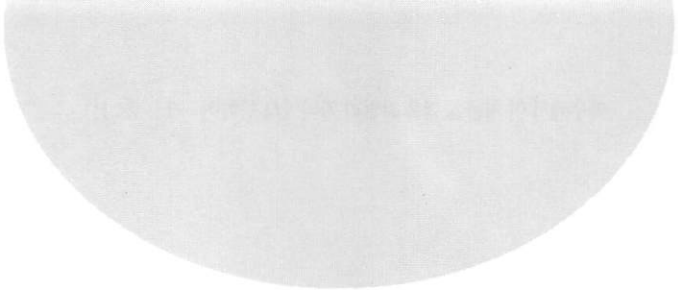
만약 우리에게도 성경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복종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생략하고 싶을 것이다. 그것만 없다면 다른 것들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일단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막강한 적을 향해 대포가 터지는 전장으로 출전명령을 받은 병사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순종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까? 우리 머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어떤 일을 두고 장점과 단점들을 다 고려하셨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을 한다며 느장을 부리지도 않는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시 119:60).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원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한 손길을 찾아볼 수 없다.

예전에 포르투갈의 점령 아래 있었던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지나 수 마일이나 더 먼 곳에 위치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훨씬 낙후된 병원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의약품이라고 해봤자 비슷할 것 같은데도 그들이 스스



로 그 고생을 감수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네, 약은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어쩐지 치료하는 손길이 다른 것 같아요.”

순종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행에 당신의 손길을 더하라.

8월 28일

오랫동안 미개인들 사이에서 생활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하나같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로 자기들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선교사들은 물, 심지어는 악취나는 물(휘발유)을 태울 수도 있으며,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두 개의 나무조각을 문질러야 비로소 불씨를 만들 수 있는데 선교사들은 성냥을 그음으로써 몇 초만에 불을 피울 수 있다. 게다가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도 하고,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종이에 이상하게 생긴 그림을 그림으로써 입을 벌리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펄 벅 여사는 소설에서 중국의 내륙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집 위 에다가 집을 겹쳐 지으며(그녀는 아파트를 의미한 것이었다), 수레들은 말 없이도 달린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최초의 유럽인 마르코 폴로가 찢어진 눈과 변발을 한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고 하자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마르코 폴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그러한 면에서 열등한 존재와는 달리 알거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월한 존재다. 인간들 틈에서 사셨고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능력 있는 분이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며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다. 그 분의 가능성을 평범한 인간경험의 범주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 당신이 가진, 그리고 지금의 인류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갖고 나아오라. 그리고 그 분의 기적의 힘을 믿어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눈물도 기쁨의 근원으로 바꾸실 수 있다.

8월 29일

유대 민족의 경전 중 하나인 탈무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었으나 놓쳐버린 기쁨의 순간에 대해 하나님께 추궁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옳은 생각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다 선한 것이다. 포도주의 발효 작용을 일으키는 세균인 바실루스균 역시 좋은 것이다. 최악이 생겨나 많은 것들을 슬픔의 근원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여전히 인생에는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는 것이다(전 3 : 4).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그 분은 우리에게 체대로 된 신앙은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지배적이지 않는 한, 어떤 인간적인 기쁨이나 쾌락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런 한계 내에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릴리 가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아라.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분이 만드신 포도주는 순전히 물로 만들어진 것으로써 어찌면 보통 포도주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크리스천은 죄악을 행하는 일을 단호하게 중지해야 하지만, 인생을 참다운 인생으로 가꾸어주는 모든 것을 다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 예술, 기쁨, 이러한 것들은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준다. 신앙 속에는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감사히 여기는 늘 신선한 사랑이 가득차 있다.

8월 30일

사람들은 영리하고 맵시있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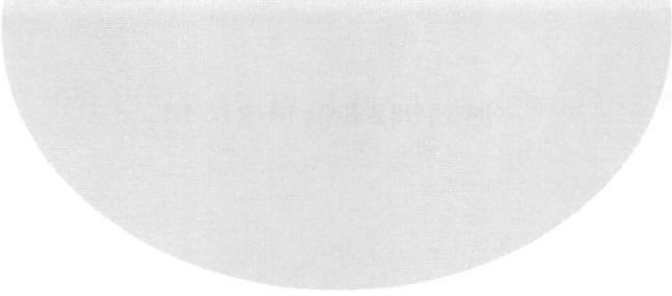
빅토리아 여왕은 대신들이 국사를 논의하면서 여왕에게 보다 현명한 정책을 택할 것을 주장하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말씀들 해보시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를 돕기 위해 공산주의 비밀 경찰에 자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살인을 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만약에 그 명령에 따른다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끔찍한 일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명령에 불복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비밀 경찰이 된 이유를 밝히지도 못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 명령은 그들의 죽음과는 관계 없이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집행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죽을 것이었다.

인생의 뿌리는 때때로 끔찍한 곳에 있는 것 같다. 밀 이삭이 되기 전에 그 씨앗은 거름 속에 파묻혀져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이 모두 비극적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략적으로 유리하거나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니콜라예프에 있는 어느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은 다른 유대인 여섯 명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여섯 명의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가 명령을 따른다면 여섯 명의 죄없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곱 명의 유대인이 죽고 일곱 명의 늙은 어머니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쌍한



노모를 생각하고는 동료들인 그 유대인들을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만약 거절했더라면, 아무런 후회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8월 31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신약 성서가 1세기에 사도들에게 전해졌던 것과 같지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신약 성서가 다른 그리이스의 옛 문헌들보다 더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은 바로 오래된 사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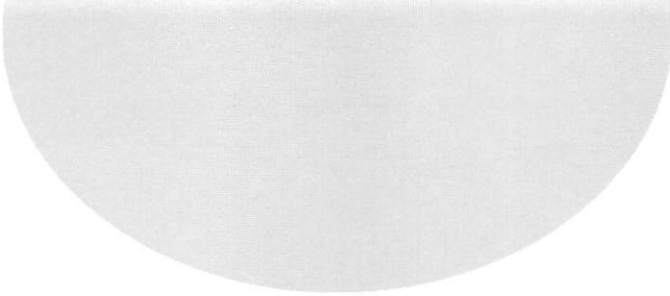
호머의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저자가 죽은 지 2천 년이 지난 후라는 얘기가 된다. 판다의 시가 쓰여진 연대(기원전 450년)와 그것의 가장 오래된 사본(서기 1150년) 사이에는 16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약 성서는 서기 100년 경에는 완성이 되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의 연대는 서기 300년쯤으로 추정되는데, 200년이라는 공백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 공백 기간에 쓰여진 초기 크리스천들의 글에는 신약 성서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초기 사본들의 신빙성을 더욱 보증해준다. 현재 우리에게는 4천부 정도의 신약 성서 사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현재의 완벽에 가까운 원전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일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주의하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 : 5).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양수라고 하는 큰 물주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가르침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웨슬리 역시 이런 주제로 끊임없이 설교를 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 쓰인 것이 그 분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수지맞은 유대인



9월 1일

군인들은 “앞으로 갔!”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행진을 시작한다.

마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은 *evthus*라는 단어의 놀랄만큼 계속되는 반복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곧바로’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부자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 주님을 떠났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 자신의 불순종을 후회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켰으나, 늘 자신이 ‘곧바로’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 그리하여 그는 *evthus*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단어를 복음서에 가능한 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옛적 기사들은 늘 창과 방패를 곁에 두고 잠을 잤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도 어떤 명령이든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밤중의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아가서의 신부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아 5:2).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 2:5)고 말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하라. “그가 전에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행 6:7)라는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행 12:24)는 구절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2천년 전에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 후로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예수님은 어느 세대에나 가르침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사 9:6).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이 내리시는 명령을 ‘곧바로’ 따르라.

9월 2일

이 구절이 나오는 첫 부분에서는 사람이 소나 나귀와 비교되는데 그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다.

만약에 인간과 비교되는 대상이 쥐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쥐들은 음식과 죽음의 인과 관계를 머릿속으로 확립할 줄 안다. 쥐에게 독이 섞인 음식을 주고, 그 중의 한 마리가 그 음식을 먹고 죽으면 그것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 다른 쥐들은 그 음식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독이 섞인 음식물을 주는 실험을 했다. 이 경우에도 쥐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 독을 회피하는 성향을 자식들에게 유전적으로 전이시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독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회피하는 쥐들이 든 상자에다가 그 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쥐들을 넣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미 그 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쥐들은 무지한 쥐들이 독이 섞인 음식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데, 마치 우리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으려고 필사적이듯이,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쓰면서까지 방해한다.

쥐들은 무엇이 죽음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된 죽음을 가져오는지를 판별하고 다른 쥐들에게도 깨우칠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죄악이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못한다. 더구나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함에 있어 쥐들만큼의 열성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고 선동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마 6:26).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와 나귀를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쥐들한테서도 배워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다. 죄악은 독이다. 그것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제지하라.

9월 3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아이크만의 비웃음 가운데 가스실로 들어가야만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암송하던 기도문이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크만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체포되었다. 임시 감옥에 투옥된 그는 똑같은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간수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가 불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살인자들과 다른 추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세계를 소상히 알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신비하게도 자신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들 중에는 어느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다운 관습을 고집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직업적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죽였나요?”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환상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기자들이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의 기분은 어땠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희생자가 되셨다. 우리의 잘못을 위하여 배반과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죄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희생자인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은 지금은 모두 용서가 통치하는 세상에 가 있다. 너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너 자신뿐이다. 너는 네가 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네 자신을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해친 사람들과 너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옳지 못한 마음도 없어질 것이다. 너는 새로운 인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4일

정말 그렇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큰 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죄악에 몰들지 않고는 많은 돈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악이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는 혁명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라고 가르치신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돈이 없어서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그들을 돈이 있어서 위험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돈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간단히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이다. 돈을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했거나, 어느 경우에도 말썽의 소지는 늘 존재한다.

해결책은 마치 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곧 돈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는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지 말고 당신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직업을 택하라. 돈이 더 많은 여자나 남자를 골라 결혼하지 말고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쪽을 택하라. 자랑하기 위하여 가장 값비싼 물건을 사지도 말고, 세상에 초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일 싼 물건을 사는 일도 삼가라. 필요한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입은 당신의 마음이 이 보잘것없는 돈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라. 결코 돈의 있고 없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는 말라.

9월 5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뉴 소사이어티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서 관악기와 현악기 연주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관악기 연주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오보에 연주자들은 다른 연주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신경질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과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시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토록 서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이 모든 감정들은 일단 뒤로 물러나게 된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때론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성장 배경, 성격, 인생 경험, 문화 수준, 국적, 인종, 사회 계층이 서로 다른 크리스천들이 많은 문제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고 아무리 경미할지라도 약간의 적대감을 서로에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성령을 나누어 가진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면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우리 개개인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 반문해 보아라. 대답을 얻게 되면 당신은 사랑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9월 6일

잠자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멘델레프는 오랫동안 기본 원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형태의 주기와 값을 연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새 그것을 알아내려고 연구하다가 실험실에서 엎드린 채 잠이 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꿈 속에서 그는 주기율표를 보게 되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본 것을 종이에 적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스네그로츠크'의 대부분은 작곡가가 꿈 속에서 얻게 된 영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베히테레프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직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체스 선수였던 카르포프도 꿈 속에서 본대로 말을 써서 토너먼트를 이긴 경험이 있다고 한다.

가끔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오히려 꿈을 꾸고 있을 때 더 많은 뉴런(신경 단위)이 활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에 머리가 훨씬 더 맑은 것이다.

어느날 밤에 신약 성서의 요셉은 약혼녀인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곁을 떠날 결심했다. 그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침이 되자 그는 올바른 조치를 취하였다.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꿈 속에서 그는 아이를 헤롯으로부터 지키는 방법과 언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계시도 받았다.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둘 다 꿈 속에서 중요한 경고들을 받았다. 구약 성서의 요셉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였다.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도록 하라.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마쳐라.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갈 6:1)

9월 7일

A. 크라스노프 레비틴은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며 크리스천으로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덕분에 세 차례나 투옥당했던 작가이다. 그는 고문관들에게 이런 간단한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당신들은 나를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고 나에게 겁을 줄 수도 없소.”

풀려난 후에, 그는 자기 대자(代子)인 크리스천 작가 크라신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동지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이름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되어 대단히 슬퍼했다.

크라스노프 레비틴은 크라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레비틴은 동료 크리스천들을 배반한 크라신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정에서 그는 전부터 알던 호도로비치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무슨 연유로 법정에 나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크라스노프 레비틴은 곧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부끄러워졌고 후에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남겼다.

꼭 고문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강한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약한 크리스천들도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들은 그 강한 힘 앞에서 굴복한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강한 사람들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될 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뻗어 온유한 말로써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9월 8일

크리스천들은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험한 것들 중의 하나는 이미 만연해 있는 반미 감정이다. 그것은 지나간 세대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와 같은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시지도 않는 것이다.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사업을 보면, 재정의 80%와 인원의 60%가 미국에 의해서 제공된다. 미국이 무너지면 전세계적인 선교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사탄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고리대금업자나 사기꾼들로 묘사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가난한 국가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널리 퍼져 있다. 서방 세계가 처음으로 제3세계와 접촉을 시도했을 당시에, 서방 세계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더 풍요하게 살고 있었고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백인들도 처음부터 흑인들보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었다. 그러므로 서방 세계로 대표되는 백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 후진국들을 착취한 결과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미국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인들이 물자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일인당 생산량은 인도의 일인당 생산량을 크게 초과하는데, 그 정도는 이 두 국가간의 소비량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외국으로 나가는 원조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는 더욱 커진다.

백인들 때문에 제3세계가 빈곤에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3세계 국가들을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진국의 국민들이다.

선교 사업을 크게 후원하며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반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9월 9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광물은 생물에 의해 흡수되지 않고는 생물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 식물은 동물이 될 수 없다. 동물이 식물을 먹게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동물의 일부가 된다.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동물을 먹을 때에 비로소 그 동물은 인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와 인간의 차이는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원숭이는 둘 다 피조물인데 반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공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무엇이든지 다 끌어안는 사랑에 의하여 흡수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인간은 세상에 대하여, 그것의 법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크리스천은 죽기 전에 이미 한 번 죽는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흡수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기 원한다면 죽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도 없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면을 유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거룩한 장소가 있어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정열이나 재미나 수고에 대하여 죽을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옛날에 하던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집안에 둔 시체처럼 악취만 풍길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종교적인 것에 쓸데없는 중요성을 부과하지 말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롬 9 : 15)

9월 10일

한 사람이 정신분석학자를 찾아왔다. 그의 정신병은 자신이 시체라고 믿는 데에 있었다. 정신분석학자는 그 환자에게 시체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반해 자신은 바늘로 콧 찌르지만 해도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 치료가 아주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시체 공시장으로 가서 시체가 해부되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환자는 시체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살아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머니칼로 환자의 손 끝을 찔렀다. 피가 흘러나오자 환자는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군. 시체도 피를 흘리는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당황하고 때로는 환멸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제 항상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다.

무지에는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논리적이다. 가장 강력한 논리도 그들이 태어난 환경이나 받은 교육이나 특정한 종교나 국적 때문에 갖게 되는 편견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견은 언제나 현실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택함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간증을 받아들임으로써 창세전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극복할 수 있는 무지의 경우라면 대화나 좋은 본보기가 됨으로써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지의 경우라면,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설득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 자신의 능력을 불공평하게 계속 비난하여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9월 11일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구입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총이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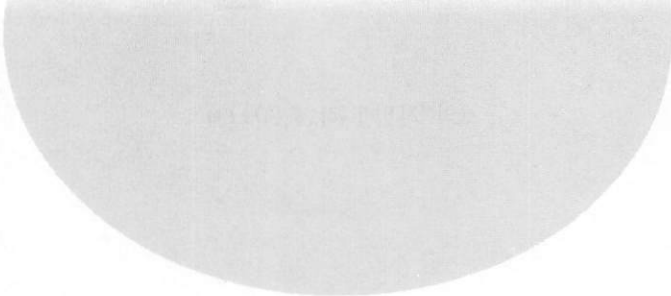
기관총은 R.J 가트링이라는 미국인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군인 한 명에게 백 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무장을 시키면 군대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군대는 점점 대규모화되었다.

히람 맥심은 “자네가 공부한 화학과 전기를 한번 파고들어 보게. 자네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유럽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성능으로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보게”라는 충고를 들은 후에 그전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 기관총을 제작했다. 그는 정말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유럽인들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호주에서도 사람들이 그 총을 이용해 서로의 목숨을 빼앗게 되었다. 미국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세기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기사도 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내전에 이르러서는 기껏해야 무덤을 파 주는 일이 기사도 정신의 전부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일본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후에는 무덤을 파 줄 시체조차 남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될 무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제4차 대전은 원시인들에 의해 다시 돌과 몽둥이를 가지고 치러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결론은 간단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인당하지 않도록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인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다. 영생이 있다는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행을 베풀 여력이 있



다. 이 세상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앞을 다투는 경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또 다른 경주, 예수님을 향한 경주를 해야 한다(히 12:1, 2).

세상이 점점 파괴를 위한 무기들을 쌓아갈수록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더욱 많이 베풀어야겠다.

9월 12일

크리스천은 평화를 갈구한다.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이다. 원수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그를 한번 두들겨 패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수이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라. 약 2천년 동안 그들은 어떤 형태의 군대도 갖지 못했으나 오히려 적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그들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크리스천은 평화를 갈구한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행복하기에 충분한 복들을 세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주저없이 방주 속으로 들어간다.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면 우산을 갖고 있다 해도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 우산을 써도 큰 비는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며 폐렴에 걸릴 확률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크리스천은 안절부절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이시며 모든 두통에 대한 전매권을 갖고 계시다.

어느 기자가 생일을 맞은 연로한 할머니에게 105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답하셨다. “비결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라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성령을 내뿜는 숨결이 있는가 하면 다른 종류의 거친 숨결도 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행 9:1). 그러나 믿음 내뿜는 조용한 숨결은 평화로운 삶을 연장시킨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전 4:3)

9월 13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신을 프랑스의 황제라고 칭했을 때, 영국 정부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장군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들더러 부르고 싶은 대로 나를 부르라 하게. 그렇다고 내가 황제가 아닌건 아니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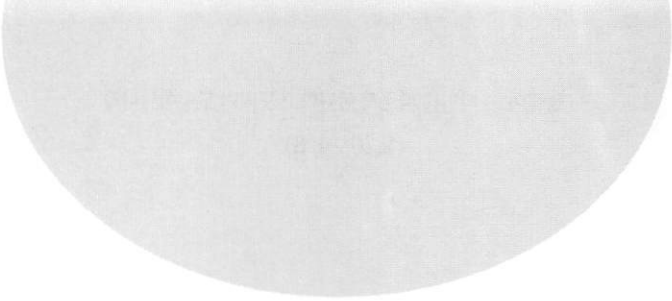
달콤한 정책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들은 사람들의 찬사를 바라며 군중의 외면을 두려워한다. 또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쫓긋 세우고 다닌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모세도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으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없이 말부터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온갖 소문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본연의 자세를 지켜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둘도 없는 훌륭한 아들이었고, 자라면서 일급 목수가 되었다가 나중에 최고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링컨과 가필드는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성격상의 문제점이나 죄악들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하라고 부름 받은 자녀인 당신의 본질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빛을 갓지 않아 체포된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법무장관이 되어서 그는 피참이라는 나이 많은 목사를 고문하여 반역의 내용을 담은 설교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 또한 베이컨은 뇌물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은퇴하여 *Novum Organum*(신논리학)을 포함하여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그의 책들은 여러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당신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피조물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들이 당신을 비뚤어진 길로 가게 해서 안된다.

... 양들이 ...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10 : 4, 5)

9월 14일

17세기 중반에 전세계의 유대인들은 환희에 가득찼다. 스페인에서 러시아까지 퍼진 소문에 의하면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바타이 쯔비였다.

부자들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유대인들은 눈밭을 텅굴기도 했고,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고 자리에 눕거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죄를 씻으려고 스스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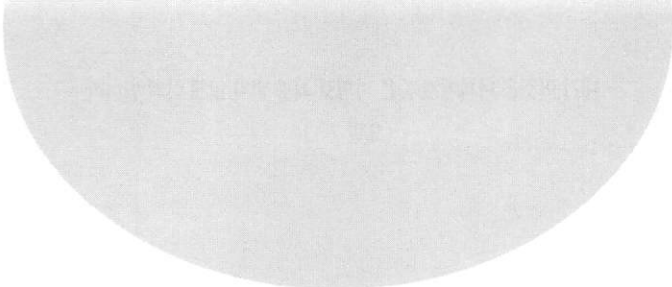
사바타이 쯔비는 시온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눈물 흘릴 시기는 지났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시온을 다시 찾겠노라고 외쳤다. 언젠가는 꼭 메시아의 신부가 될 것을 꿈꾸며 폴란드의 수도원에서 자란 유대인 크리스천 소녀가 사바타이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 역시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다.

터어키의 술탄은 사바타이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만약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그러니 내 사수들에게 활을 쏘게 해서 네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 봐야겠다. 만약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싫다면 네게 돌아갈 것은 죽음뿐이다.”

사바타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흰색 터어키 터번을 쓰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술탄에게 말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전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바타이 쯔비는 믿었다. 사람은 누구냐가 육신을 입은 진리 그 자체보다는 진리인 체 하는 인간들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매세기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신을 구세주로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곤 한다. 결국에 가서는 그들 모두가 사기꾼들로 판명난다는 점도 똑같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동당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창이 몸을 찌르



도록 허락하셨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 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종교계에 새로 나타나곤 하는 새로운 이름들을 경계하라.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

(요일 2:1)

9월 15일

크리스천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요일 3:6). 크리스천도 죄에 빠져들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된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일 2:1).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어떤 핍박도 교회를 산산조각내지는 못했고, 오랜 세월도 교회의 힘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계속적인 죄악들이 교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죄악이 크리스천의 보편적인 생활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월터 스코트 경이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며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마도 이 시대에서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거나 가치관을 타락시킬만한 글은 쓰지 않았고, 죽음을 맞는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볼 때에, 없애버렸으면 싶은 글도 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을 준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 용서받은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상으로 이어지는 선을 행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그 상은 선을 베풀자마자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주어지기도 한다.

용서받은 죄를 후회하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써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죄짓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약 1 : 5)

9월 16일

만약 화성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과학자들에게 지구의 생태계에 관하여 묻는다면 아마도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에 속한 수많은 별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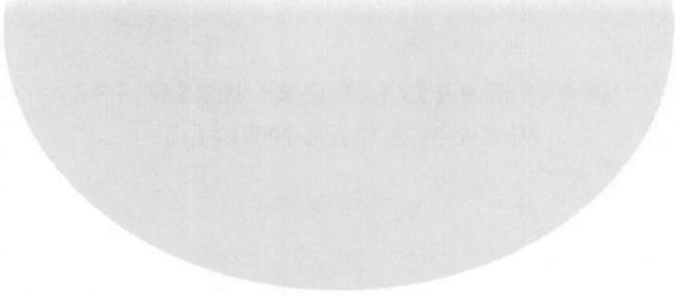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동물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1975년 12월에 「Sovietskaia Rossia」라는 잡지에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빠른 속도로 차가 질주하는 도로를 고양이 한 마리가 건너고 있었다. 고양이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했는데 그때 마침 세퍼드 한 마리가 그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빨로 잡아당겨 인도로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차에 치여 죽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리빙스톤이라는 마을 근처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와 친하게 되어 규칙적으로 그 까마귀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게 되었다. 어느 날 키우던 개가 없어졌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까마귀가 전에 없이 게걸스러워져서 고기 한 조각을 주면 물고 사라졌다가 곧 돌아와서 더 달라고 보채기 일쑤였다. 일주일 지나자 그는 까마귀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까마귀가 날아간 쪽을 향하여 걸던 그는 마침내 냇에 걸려 신음하는 자신의 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까마귀가 그 개에게 먹이를 날라다주었던 것이다.

마흐무드 발리라는 카이로의 한 기술자는 넓은 튜브를 타고 바다위에 떠 있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파도에 밀려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만약 돌고래들이 꼬박 하루 동안 튜브를 해안쪽으로 밀어주지 않았던들 바다 위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것이다.

침팬지는 무언가를 마시고자 할 때 나뭇잎 몇 장을 따다가 동그랗게 말아서 컵과 같은 모양을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동물들에게 본능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피



조물 중의 으뜸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분히 쌓아두시고 계심은 너
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내 아들이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
를 기울여서”(잠 5:1). 그리하면 당신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 : 22)

9월 17일

이 구절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는 거짓말처럼 보인다. 기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았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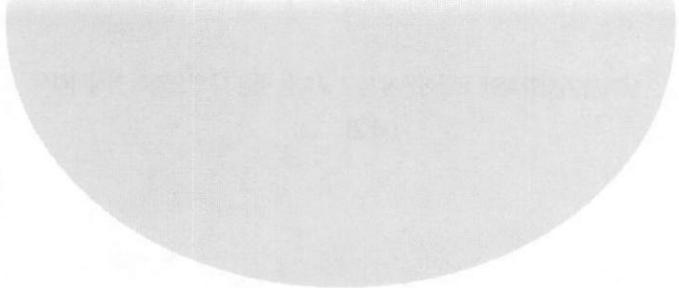
내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의 참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 전까지 마음 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간구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소망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에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분께 머리를 숙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행위라면, 그 분의 취할 듯한 사랑의 손길안에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사로운 욕망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이런 진정한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정결한 예배의 영을 원하는 자에게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성녀 까뜨린느는 죽기 얼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35년 동안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가서의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 : 8). 그녀는 병을 치료할 약이나 다른 기적의 손길을 구하지 않는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외에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남는 그 소망은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원하던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우리들은 가끔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구하기도 한다. 지혜로우신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데… 결국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득을 보는 셈이다.

9월 18일

이 이야기는 소련에서 전해진 것이다.

육류가 귀한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지어 정육점 앞에 서 있었다. 아침이 되자, 정부의 관리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돼지고기밖에 배급되지 않는데, 그것도 물량이 적으니 유대인들은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 시간이 지난 후 관리가 다시 말했다. “금방 상부로부터 오늘의 할당량이 삭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소. 그러니 근로자들만 배급을 받을 수 있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은퇴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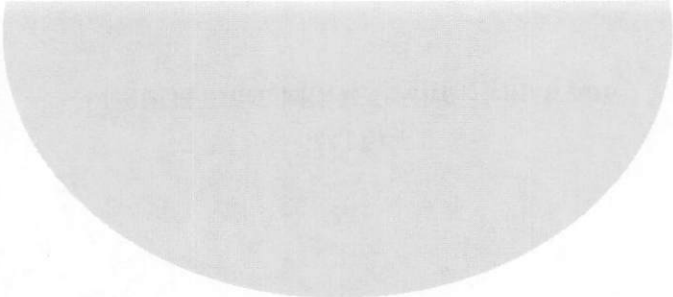
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런 발표가 있었다. “오늘 배급되는 물량은 극히 소량으로. 그러니 당원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오.”

그러하여 백 명 정도의 공산당원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쯤에는 모두가 내리기 시작한 비로 흠뻑 젖어있는 상태였다. 한 시간 후에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전화 연락을 받았소. 오늘은 육류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오.”

그러자 한 당원이 소리쳤다. “이번에도 그 더러운 유대인 놈들만 수지 맞았군!” 다른 사람이 그제 무슨 뜻이냐고 묻자 대답했다. “제일 먼저 집에 갔으니 말이야.”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빈 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을 선 채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바늘 하나도 지니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뒤로 남긴 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수지를 맞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빈 손으로 태어났듯이 돌아갈 때



에도 빈 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크리스천은 죽기 전에 이미 한번 죽는다.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속았다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미리 부정하고 버린다. 그들은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영혼의 땅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9월 19일

일본 가정을 방문해 보면, 신조 아라우(‘네 마음을 씻어라 혹은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임)라고 한자로 쓰여진 족자를 집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걸어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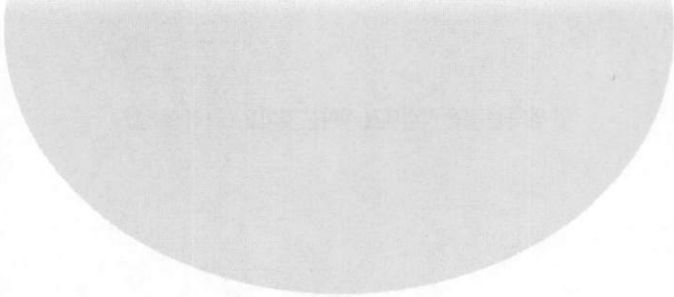
우리가 씻어내야 할 많은 더러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땅이 우리의 살 곳이라는 환상이다.

키샤고타미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도저히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으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좋다.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을 가져오너라.” 그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금을 얻으러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등뒤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셨다. “키샤고타미야, 소금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집에서 얻어와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마을을 향하여 걸음을 빨리 했다.

첫번째 들어간 집에서 소금을 좀 얻으러 왔노라고 했다. 집 주인은 기꺼이 소금을 주었다. 그러나 물어보니 얼마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노라고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집으로 가 보았다. 그 집에서는 부인이 죽었다고 했다. 그 다음 집에선 아이 하나가 죽은 일이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던 그녀는 마침내 눈이 열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마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받아들여라.

9월 20일

캠폴리언은 이미 열한 살에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 갈대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이집트어를 두루 통달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과목들은 도무지 흥미가 없었다. 열 일곱이 되던 해에 「바로 지배하의 이집트」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왕립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었다. 스무 살이 되면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캠폴리언의 야망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것을 해냈을 때, 친구에게 달려가 “나는 밝혀냈어!”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친구가 “그렇지만 너는 이등인데, 알렉산더 르느와르가 이미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번역한 책자를 발표했거든”이라고 말하자 전신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나중에 그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친구가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캠폴리언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오로지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를 해 왔다고 믿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분야의 학문에 종사함으로써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시기했던 것이다. 모든 공은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 캠폴리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캠폴리언은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에 의해 비판당하고 투옥되기까지 했다.

예수님을 단죄하던 사람들의 동기는 복잡했다.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었다.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설교를 했으며 기적도 행했다.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신학 박사학위도 없이 메시아라고 감히 자칭하는 자였다.

우리 누구에게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시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9월 21일

지금은 일흔이 넘었을 어느 노르웨이 여인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다. 그녀는 열네 살 적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일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 목사님 말씀이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흰 보좌에 앉으시고 그 분의 뒤에는 휘장이 쳐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시면 휘장 뒤로부터 황홀한 빛이 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와 심판을 앞둔 사람 하나하나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존재들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너희들이 만약 내 목소리를 따랐더라면 될 수도 있었을 너희들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거부했던 그 많은 기회들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지옥으로 도망가 버릴 것이었다.

이런 우화가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40년 전에 들었는데, 종종 설교에도 인용하여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게 된 이들도 더러 있었다. 원래 이 설교를 한 목사님은 돌아가신지 백년이 지났건만, 그가 한 설교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나’가 있듯이 이상적인 ‘나’가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현실의 ‘나’라면 이상적인 ‘나’란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시고 계획하신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의도하신 ‘나’의 모습이다. 하루하루 급급해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습인 이상적인 ‘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사는 삶도 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 : 18)

9월 22일

요양소에 있는 한 환자에게 뿌리까지 말라 죽은 쥐방울나무를 보여주면서 의사가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나무는 아주 작은 지렁이 한 마리에 의해 그렇게 말라죽게 된 것이었다.

“이년 전에 이 나무는 정원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나무의 껍질을 파고들어가려고 하는 삼 인치 정도되는 작은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의 박물학자가 그 지렁이를 죽이지도 방해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지렁이가 이 나무를 파괴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까만 머리를 한 그 지렁이가 계속해서 나무 속을 파고 들도록 내버려두었지요. 지렁이는 나무 껍질에 아주 쉽게 구멍을 내더군요. 얼마 있지 않아 이 나무의 잎들이 다 졌는데, 다른 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일찍 나뭇잎이 진 것이었습니다. 일년 후에 보니 완전히 죽었군요. 지렁이가 나무의 심장부까지 완전히 꿰뚫은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의 죄밖에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과 자손들에게 약속되었던 낙원에서 쫓겨났다. 모세는 단 한 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한 가지 죄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듯 의로운 행실의 결과도 놀랍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자신을 영원히 파멸시키고 자손대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그 분은 영광을 받으셨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주신다.

당신을 둘러싼 한 가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맡겨라.

9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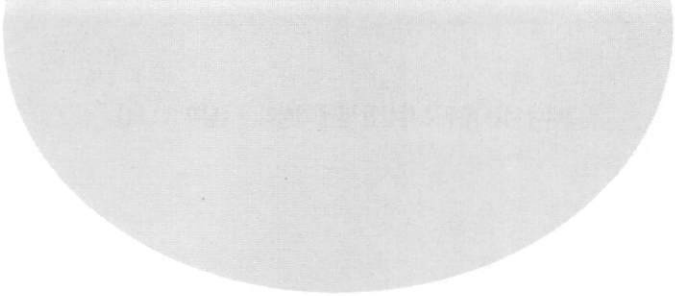
보호구역에서 이제 막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주 잘 사는 크리스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파티 도중에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인디언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사람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자 그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제가 기차역에서 있었을 때 말입니다.”하고 얘기를 꺼냈다. “기차역은 아주 낡고 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 빨지 마시오’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침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고급 양탄자와 커튼과 가구들, 모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침 빨지 말라고 쓰인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빨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서의 일이 율법으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라면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경험한 것은 은혜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율법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갈 3:21). 그러나 이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육신을 입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성하셨다(롬 8:3).

“이것을 하지 말라, 혹은 저것을 하지 말라”는 글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는가? 법은 그의 내면의 의지에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뿐이다.

기차역은 매우 추하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겼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금지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별 생각없이 심심풀이로 침을 빨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신다.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 당신과 함께 자리하게 하신다.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



며 주위에는 오로지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아무도 내게 침을 뱉으면 안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침을 뱉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울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야 한다.

9월 24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의 근거를 다윈의 이론에다가 둔다. 다윈의 이론으로부터 무신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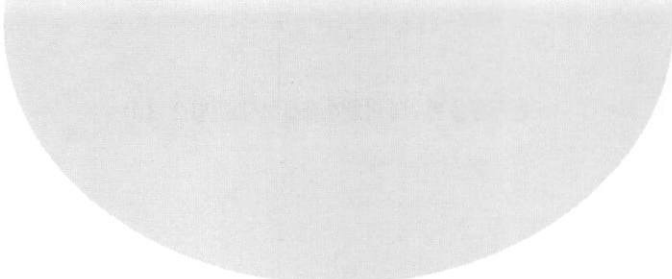
영국의 귀족 호프 부인은 다윈이 죽기 전에 그의 병상을 종종 지켰다. 그는 오랫동안 병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정독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녀가 어디를 읽고 있는냐고 물었다.

“히브리서요”하고 대답했다. “아직도 히브리서를 읽고 있소. 나는 그걸 왕국의 책이라고 부르고 싶소.”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군데군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호프 부인은 천지창조의 장엄함과, 창세기의 첫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이론들을 언급하며 설명해 주었다.

다윈은 크게 상심한 것 같아 보였다. 손이 불안한듯이 가늘게 떨렸으며, 얼굴에는 고뇌의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나는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소. 되는데로 많은 질문을 퍼부었고, 닥치는대로 제안을 해댔으며, 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이런 생각들은 마치 들불처럼 무섭게 번져 나갔소. 사람들이 그걸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다시피 한 것이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경의 위대함’에 대하여 몇 마디의 말을 계속했다. 얘기를 하는 동안 그는 내내 자신의 손에 가볍게 들려 있는 성경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원에 조그만한 별채를 갖고 있소. 아마도 한 서른 명쯤은 들어가 앉을 수 있을 것이요, 저기 저쪽에 있소”하면서 열린 창문 밖을 가리켰다. “당신이 저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오. 당신이 전에 시골에서 사람들과 모여 성경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내일 오후에 우리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별채에 모이게 하고 이웃들도 몇 명 청할테니 그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란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겠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오. 그것이 가장 좋은 주제가 아니겠소?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찬송가를 몇 장 부르시오. 만약 당신이 세 시쯤 모임을 시작한다면 내 방 창문이 열려 있을 시간이니, 당신들이 찬송을 할 때 나도 따라부르고 있는 줄 아시오.”

잘못은 한때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젊은이에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근거없는 이론을 계속 지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은 과학자들에게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종을 맞을 때에 가지는 생각이다. 젊은 시절에 성급하게 이론들에 탐닉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오래된 의의 길을 구하라.

9월 25일

인도의 바라문(또는 브라만, 인도의 승려 계급)이 유명한 선교사인 스텐리 존스를 찾아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여러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소. 다른 길들도 있으니 말이오. 우리는 크리스나를 사랑하지만 칼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소.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면 인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오.”

이러한 유혹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로마 제국은 종교 정책이 무척 너그러운 편이었다. 그들에게는 신전 안에 있는 다이아나, 마르스, 이폴로, 미트라 등과 같은 여러 신들이나 황제들과 함께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초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나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우주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선택도 없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겪어온 것과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싶었으나, 내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과의 논쟁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 분을 거부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구원은 이처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취향을 일일이 물어오시지 않으셨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천국만이 존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 것과 같이 지옥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9월 26일

세 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그날따라 아이 돌보는 일에 몹시 지친 엄마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레베카야, 너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구나.”

그랬더니 딸이 순진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엄마도 잘 시간이 되었네요.”

딸의 말이 옳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 “미소 지을 마음이 안 내키는 날에는 가게 문을 열지 말아라.” 여기다가 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 “더 이상 미소 지을 수 없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라.” 우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해야 한다. 그러나 스물 네 시간 동안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게 된다. 바로 그때가 잠자리에 들거나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입을 다물고 쓰던 편지에서 손을 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 배타적인 욕망들이 공존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은 훌륭한 옷을 입은 미남이었으면, 혹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수도자였으면, 혹은 돈이 많은 백만장자였으면, 혹은 용감한 전사였으면, 혹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혹은 인생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보는 사람이었으면, 혹은 성자였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 5:17).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서로 다른 경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죄를 동시에 지을 수도 없고,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잔 다크같은 영웅이면서 동시에 은둔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자가 될 수 없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17절 계속).

그러므로 윌리엄 제임스는 여러 선택 사항들을 잘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택해서 어머니가 되었다면, 당신의 아이나 믿음의 형제가 아무리 못 참을 일을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어머니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9월 27일

교회라고는 가 본 적이 없는 두 소년이 기도회 중인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참 재미없는 모임 같았다.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자 다른 소년이 대답했다.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 틀림없이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닐 거야.”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힌두교도가 한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얼굴에 무슨 크림을 바르시길래 그렇게 빛이 납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데요.” 힌두교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오, 당신네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무언가 바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난다니까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의 빛깔들이 있다. 기왕이면 그 중에서 밝고 즐거운 것을 골라라. 크리스천들은 하나의 행위, 곧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도르가의 경우처럼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행 9 : 36). 얼굴을 밝게 하는 데에는 깨끗한 양심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응답이 당신의 삶을 온통 선행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아는 사실보다 더 나은 크림이 없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덜 중요하다. 종교적인 의식은 그 의식 안에 들어있는 정신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자신을 다 바치지 않는 한 어떠한 종교나 의식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금홍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골 3 : 12, 13).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얼굴에선 빛이 날 것이다.

9월 28일

어느 마을에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딸이 돈을 벌어들이면 밭이라도 사려고 딸을 읍내의 부잣집에 하녀로 들여보냈다. 그녀의 딸은 미모가 수려한데다 영리했다. 그래서 곧 자신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곧 그 소녀는 차와 비싼 모피 옷과 보석들을 살 수 있었고 그러는 동안 영혼은 타락하여 어머니는 까마득히 잊어 버렸다. 이렇게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하는 동안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어느 날, 딸은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른 채하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당장 옛날에 자신이 살던 마을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딸은 아마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밤늦게 의사라도 온 것일거라고 생각했다. 딸을 질러 집으로 가니 어머니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 네가 온게냐?”

“네”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대문이 열려 있는 거죠?”

“십 년전에 네가 떠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일이 없었던단다.”

딸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방에 불은 왜 이렇게 밤늦도록 끄지 않으셨나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이 방의 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이지. 늘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단다.”

당신이 죄악 속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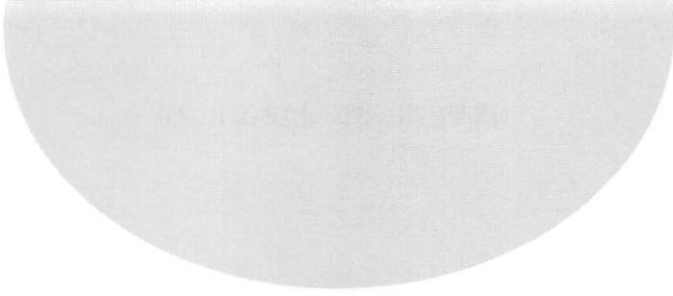
9월 29일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 원주민들은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두려움에서도 완전히 구원된다고 한다.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예로 들면 짐승을 쫓다가도 정글에서 특정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뒤로 돌아 집으로 향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새가 악마인 이블리스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새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사냥을 계속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직 씨를 뿌리지 않은 논에 농사 지을 준비를 하다가도 뱀을 보면 그만두는 것도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 일단 뱀을 보면 그들은 두쿤이라는 마법사가 요구하는 대로 돼지나 쌀이나 돈이나 닭 몇마리를 바쳐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들이 이블리스에게 제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 논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닥쳐올 재난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들불을 놓을 때 어디선가 짐승이 나타나 그 불 속에 갇혀서 타 죽으면 그들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다시 이블리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흉년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들의 자녀가 심한 병을 앓게 되면 그들은 지마트라라는 것을 만든다. 이것은 조그만 나무 상자로 뚜껑에는 비둘기가 조각되어 있고, 앞쪽에는 구멍이 있어 그 안에 돌맹이 하나를 넣어놓고는 나무 꼭지로 그 돌맹이가 보이지 않게끔 막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돌맹이로 상징되는 아이의 영혼을 나무 상자 안에다 가두어 악귀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비둘기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현대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두려움은 있다. 늘 실직의 위협을 느끼며, 만일 실직 당할 경우에 그 실업 상태를 어떻게 견딜까 무서워하고 전쟁이나 다른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속에서 산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꼭 366번 나온다고 한다. 율년까지 대비하여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갈 말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더할나위 없이 안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롬 8:28). 달려야 나오는 날 중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9월 30일

독일의 대기업가 크루프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그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많은 국가에 공급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정작 크루프 자신은 죽음을 목시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크루프의 자서전을 쓴 작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죽음을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친척 한 명이 그의 집에서 죽게 되었을 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으며, 그 일로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아내와도 이혼했다고 한다.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크루프는 의사에게 목숨을 10년간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백만 마르크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다.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는 태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공동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딸을 알고 있다. 그 아이에게 밤에 묘지를 거니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 끝에 우리 집이 있는걸요.” 그렇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의 끝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한다. 만약 그들의 이상이 언젠가 현실화 되었다고 치자. 누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버리고 죽고 싶겠는가? 행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미련이 더욱 많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래의 유토피아의 행복한 주민들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데 말이다.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죽음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부요한 삶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에게 베풀어지는 호화로운 연회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리스도의 발자국



10월 1일

어느 크리스천이 자기 집 대문 앞에 *Linquenda*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라틴어로 “나는 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손을 떼야 하고, 서재에서도 떠나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야 하고,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거지가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하자 부자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재워줄 수 없소. 여긴 호텔이 아니요.”

거지가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만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끌려 제가 그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누가 이 집을 지으셨죠?”

낮선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재우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한숨을 돌린 부자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지으셨소.”

“아, 그렇습니까? 그 분은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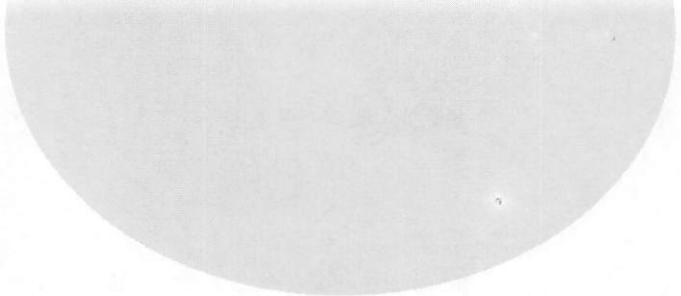
“아니요, 그 분은 돌아가시고 내가 이 집을 물려받았소.”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지요?”

“내 큰 아들이요. 이제 갓 결혼했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한참동안은 이 집에서 살 것이요.”

“그렇다면 이 집은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텔이 맞군요. 방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화내는 호텔 주인은 당신이 처음인데요.”라고 거지가 말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은 모두 호텔들이다. 지금 내가 앉아서 글을 쓰는 이 집은, 내가 이사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 내가 이 집



을 떠난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살 것인지도 알 수 없다. *Linquenda*-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집, 즉 천국으로 초대하러 오셨다. 일시적인 것들
에 마음과 욕망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도 언젠가는 그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 19 : 14)

10월 2일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태어난 후라야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오늘날 태아에게도 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인간은 잉태될 권리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 권리는 피임약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일까. 낙태 수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산아제한 운동을 펴는 사람들은 인구폭발이니 가난이니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이 그 태아의 태어날 권리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차라리 핵무기나 기아나 가난 같은 것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혁명은 일어나야 한다. 내가 반대하는 혁명가들은 사회를 어떻게 변혁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을 죽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들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무자비한 혁명가들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부유한 나라이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을 비율로 따져 봤을 때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다. 그러나 세계 은행에 의하면 외국의 경제 원조에 투입되는 미국 전체의 GNP 비율은 세계 14위에 머무르고 그 비율도 1960년 이래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사랑을 무기로 가진 사람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악행도 서슴지 않는 테러리스트들에 비해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결단력이다.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사랑을 무기로 싸울 때에 비로소 핵무기의 위험도 사라지고 가난과 기아도 조금씩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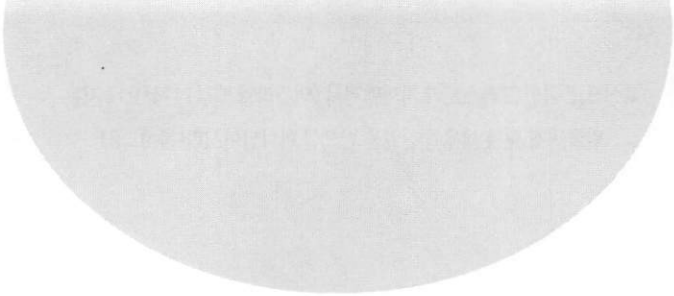
10월 3일

사도 바울은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에게 “너, 궤계와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소경이 되는 저주를 퍼부었다(행 13 : 9~11). 만약에 바울이 마귀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를 취했다라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루터는 성경 말씀에 반대하는 어느 공작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당나귀 중의 당나귀, 피문은 개, 거짓말만 일삼는 입, 돼지같은 놈, 마귀의 자식.” 그 후에 그는 다른 편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토록 온유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 “크리스천은 결코 누구를 향해서도 증오나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오로지 사랑과 선함만을 마음 속에 키워야 한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배짱이 두둑하여,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고통을 준다. 말씀의 손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왕자들의 목을 조르고 거대한 산들에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그것을 파괴한다…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우정도, 사랑도 가질 필요가 없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악은 물론 교회 내의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마 11 : 12).

크리스천은 사소한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이웃과는 다투지 않지만, 교회 내에 침투하는 악을 보았을 때에는 언제라도 채찍을 손에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악에 대항한다. 그리고 그 악을 내리친 다음에는 어떠한 후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몰아낸 그 상인들에게 사과하지 않으셨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경건한 언어로 표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차갑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죄에 대해서는 공손할 필요가 없다. 죄인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악을 가차없이 쳐내림으로써 그를 깨우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나셨으니 저는
만물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지라(롬 9 : 5)

10월 4일

어느 소련 감옥에서 A. 페트로프라고 하는 크리스천 죄수가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이라는 시를 지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그것을 발췌하여 산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나는 절대 나 자신을 유대인 이름 이외는 짓지 않겠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들이다. 우리에게 파리와 로마와 워싱턴 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곳은 훌륭하다.

이스라엘은 가인이면서 동시에 아벨, 종인 동시에 주인이며, 이스라엘로부터 자유와 진리가 오고, 가장 사악한 죄와 가장 통렬한 뉘우침이 온다.

이스라엘은 처음이자 마지막, 이스라엘은 기적,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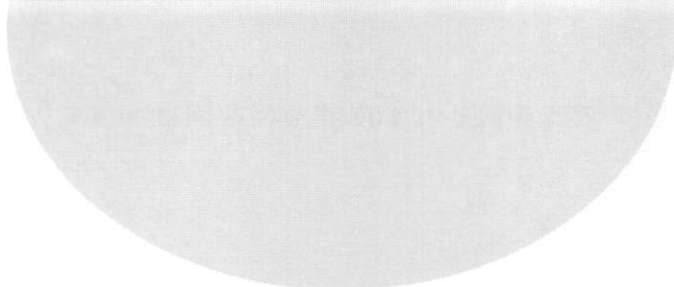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사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결코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우리의 조국과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면서.

유대인은 만물의 소금이요 향기요 본질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다윗과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서 주님이 태어나셨던 것이다. 힘을 아끼지 말라. 싸울 때나 유혹에 빠질 때에, 혹은 환란이 닥쳐올 때, 승리의 나날과 슬픔의 날들에도,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본향과 똑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특별한 것일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 : 28, 29)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그 유대인들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들에게도 '유대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명성을 더욱 높일 의무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자.

10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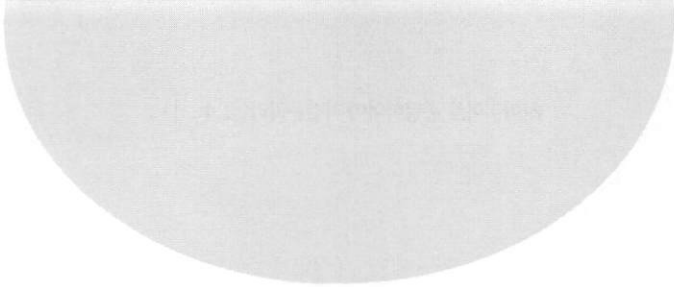
보스톤에는 신앙 때문에 두 차례나 투옥되고, 역시 두 차례나 추방되었다가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졌던 메리 다이어라는 퀘이커 교도의 동상이 서 있다.

그것은 17세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의 매사추세츠 지방은 청교도들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깨끗'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며, 성직자나 특별한 예배 의식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지방에 들어오는 퀘이커 교도는 누구나 '심한 체벌과 중노동을 당하는 수감 생활'에 처해진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주 열성적인 청교도에 의해 폭행을 당한 퀘이커 교도를 변호했다는 죄목으로 퀘이커 교도가 아닌 남자가 매를 맞고 추방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킨 퀘이커 교도는 추방당하였고, 다시 그 지방에서 체포되었을 때에는 교수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메리 다이어는 투옥된 퀘이커 교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로드 아일랜드에서 보스톤까지 온 여인이었다. 법에 따라 그녀는 심한 매질 끝에 다시 돌아올 경우 죽게 될 것이라는 위협과 더불어 추방되었다. 그러나 삼 개월 후에 그녀는 갇힌 형제들을 돌보기 위하여 다시 보스톤을 찾았다. 그녀와 함께 다른 동료 두 사람도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메리는 그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에 자신의 손도 묶여졌으며 머리 위에는 천이 뒤집어 씌워졌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밧줄에 목을 걸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그녀는 사면을 받게 되었다. 사형 대신 보스톤에서 즉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는 돌아왔다.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벌을 당하고 뜨거운 인두로 헛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형을 감수했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당신네들의 불공정한 법률을 정식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내



가 죽은 후에라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은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이 나라마다 수없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월 6일

유대 민족의 대부분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침략자들의 정책에 의해 그들의 땅에 새로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과 통혼을 하고 유대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은 대단한 것이어서, 서로에게 물 한 잔도 거저 건네주지 않을 정도였다. 탈무드는 사마리아인에게서 빵 한 조각을 얻어먹는 일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만큼이나 큰 죄악이며, 그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굳게 닫힌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가르쳤다.

사마리아의 수도는 세겜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곳을 빗대어 '시칼'이라고 불렀다. '시칼'이라는 말은 '술주정뱅이'라는 말로, 마치 자기네들 사이에선 술주정뱅이도 없다는 듯한 우월감이 뻗어 나온 말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했다. 그러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 분은 당신의 종교에 의해 미움받고 경멸당하던 사람들의 편에 서셨던 것이다. 예리고에서 예수님은 세리장이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그의 편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이웃을 향한 경멸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논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10월 7일

만약 하나님이 슬픈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들의 삼분지 일을 데리고 함께 타락한 직후에 창조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걱정하시며 근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숙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사 1:14). 이사야도 역시 “...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사 7:13)라고 추궁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근심걱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위안이 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떨까?

르소의 테레사 수녀는 한 젊은 수녀의 고민 때문에 다른 수녀들이 놀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그 젊은 수녀는 “수녀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제 고민을 예수님께만 털어놓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안되지. 예수님께는 더더욱 안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만하면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지 않으셨어? 그 분이 쉬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테레사 수녀는 아침이면 자신의 베개 위에다 십자가를 내려 놓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이제는 당신이 좀 쉬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분을 더 많은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구해드릴 차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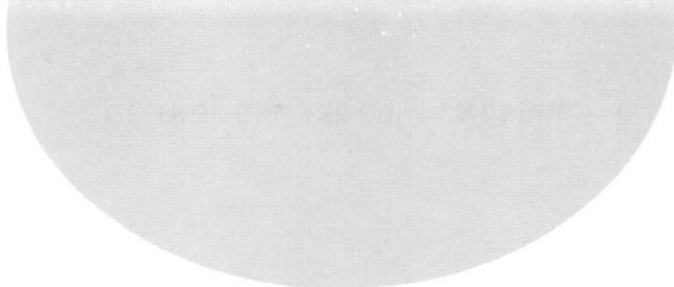
10월 8일

De mortuis nihil nise bene “죽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만 하라.” 이것은 잘 못된 가르침이다. 역사적 정확성과 정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종종 죽은 사람들의 죄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격언은 사람들이 영혼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옛날에나 하던 말이다.

나는 차라리 산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래도 안되면, 그가 다니는 교회와 상담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죄가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때로는 그 죄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비방은 아주 오래된 악덕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였다(계 12:10). 마귀는 인간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인간들을 참소하였으며, 인간들이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고했던 자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미처 등장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악평이 자리잡는 수가 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의 코트를 훔쳤을 것이라는 암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상과 비방에 의해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며, 악마의 권세를 가졌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람들의 욕설이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남들에 대한 비방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겠다.

10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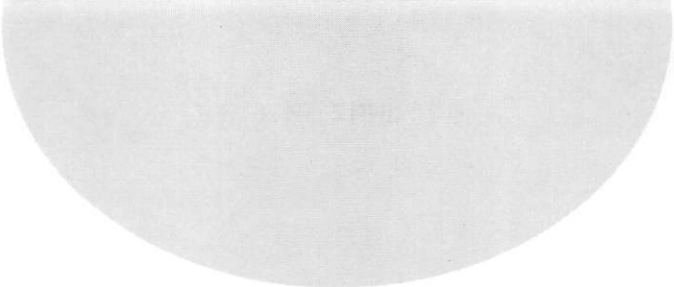
우리 주위에는 절망이나 노이로제나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신이상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일정 기간을 지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후에도, 마치 자신들이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을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병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 감옥에서의 형언하기 어려운 고문과 약물 중독으로 정신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았던 나는, 스스로 습득하게 된 지식에 근거하여 이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정신병력이나 심지어 현재의 정신병 때문에 괴로워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처한 처지이거나,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의 말을 위안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아돌프 뤼플러라는 화가의 작품이 전 유럽에 순회 전시되었던 일이 있다. 그의 예술 세계에 관한 책과 연구 논문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이것은 그가 명성을 얻은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예술가였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역정이라고나 하면 될까? 아돌프가 일곱 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아버지를 따라 곧 세상을 떠났다. 열 살이 되던 무렵부터 아돌프는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해야만 했다. 서른 살에 그는 세 살난 여자 아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아돌프는 정신병원에서 35년 동안을 살다가 1930년에 그곳에서 죽었다. 그는 학교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고 그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칠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다. 단지 정신병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 몇권과 얼마 안되는 악보들을 가지고 독학을 했던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신분열증 환자라도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사회에 쓸모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정신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앓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을 치고 불행하게 만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룻 1:20, 21). 옳은,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신 것을 일곱 배로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다. 정신병은 부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 주위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꼭 예술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법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이나 교회의 필요한 일꾼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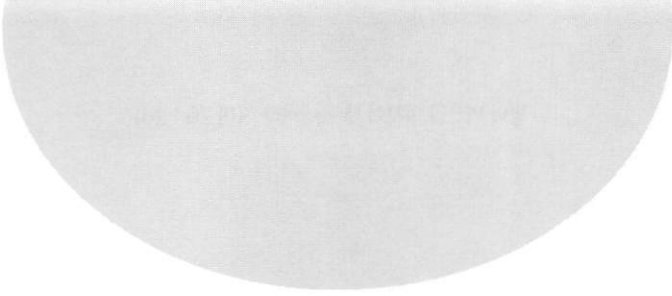
10월 10일

당신이 듣는 음악에 주의하라. 록 음악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음악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읽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멜로디에 맞춰 노래 불러지도록 쓰여진 것이었다. 똑같은 단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뜻을 갖기도 했다. 그러므로 음률이 갖춰졌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 중에는 악하고 외설적이며 도덕적으로 사람을 타락케 하는 음악이 있다. 세르반테스나 괴테, 혹은 톨스토이 같은 거장들도 어떤 특정한 음악을 접하고는 그 음악이 갖는 비도덕성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류의 음악들이 있다. 서로 너무나 상반되는 음악을 듣는 두 세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고전 음악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톨스토이는 베에토벤의 *Kreutzer Sonata*를 듣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도저히 그 음악이 갖는 선정적인 암시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그들의 도덕성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최악의 사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베르디의 오텔로에 나오는 무어인이 테스테모나를 목조르는 장면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일은 몹시 괴롭다. 살로메가 현란한 춤을 추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바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스트라우스의 음악은 전류가 통하는 듯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오페라들이 마피아들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나 의심이 갈 정도이다. 무대 위에서는 범죄가 선동되고, 그 범죄를 자극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다. 사람들은 베에토벤의 성 마태 수난곡을 들으며, 예수가 채찍질 당하는 장면에 가서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한다.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 속에 죄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크리스



천은 음악의 속임수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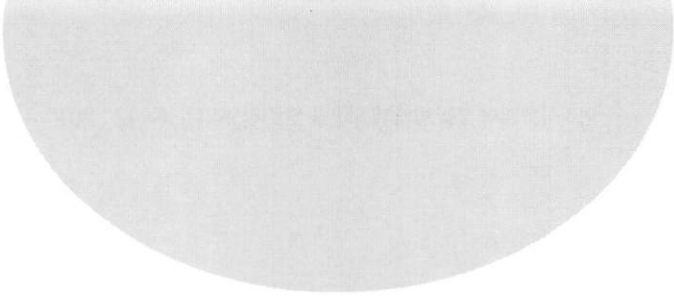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깃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 분의 찬송을 따라 부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만을 들으라.

10월 11일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거의 2백만이나 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국적 때문에 터어키 죽에 의해 처형당했다. 데 레스 조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무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격부대 앞에서 있었다. 그들 중 메이비라는 사람이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들의 코란에도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신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쓰여 있지 않소.” 그리하여 그들은 총살을 당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허락받았다.

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찬식을 가졌다. 준비된 빵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땅에서 반짝이는 모래를 한 줍씩 들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하면서 그것을 삼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총살을 당했다. 죽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에 손가락을 담갔다. 죽어가면서 메이비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인간이시며 동시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분은 육체도 두 개를 지니고 계시다. 하나는 유대인 목수였다가 죽은 후에 영광을 입고 승천하신 몸이고, 두번째는 역시 그 분의 몸이신 교회이다. 성찬식에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이 두 가지의 몸을 다 상징하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한된 몸을 가지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고통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받고 피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피를 흘리신다. 메이비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피를 가지고 성찬식을 나누었지만, 그 피는 예수님의 피이기도 했던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나가야 한다.

10월 12일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왕이 자신의 광대에게 최고 사령관의 지휘봉을 주면서 말하였다.

“너를 어리석은 자들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되거든 이 봉을 그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났다. 왕은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 광대가 왕에게 물었다.

“전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한다”하고 왕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전하께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시게 될 세계에서 필요한 재산이라도 그곳에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다.”

“전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나는 시간 내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광대는 소매 깊숙히 넣어 두었던 지휘봉을 꺼내어 왕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제가 감히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전하를 어리석은 자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살전 2:6)

10월 13일

크리스천은 겸손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한 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돌려대야 한다. 캔버스는 화가와 다투는 법이 없다. 화가는 그 화폭 위에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거지든 왕이든, 캔버스는 간섭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삶의 조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 만약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지라도 자랑하지 않는다. 화가가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 붓이 자랑할 권리가 있는가? 단지 그림을 그린 주인만이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크리스천은 그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겸손하셨다. 그러나 그 분들의 겸손은 좀 특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그렇다.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요 8:50),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마 11:29)고 말씀하셨다. 바울 역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다. 정상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자신감이 있는 듯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는 사실을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사적인 일에는 겸손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고 받은 메시지를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며, 부담스럽거나 방해가 되거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을 때에, 그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시다”(살전 2:6)라고 덧붙인 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10월 14일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다음 실화들은,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에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B라는 사람은 공산당의 검사를 지낸 사람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당의 신임을 잃고 동료들에 의해 투옥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는 배고픔이 가득한 감옥에 있다가, 중노동을 하지만 음식은 비교적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탄광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수용소 정문에서 그는 낯선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B는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몇 년 형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더니 20년 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무슨 죄목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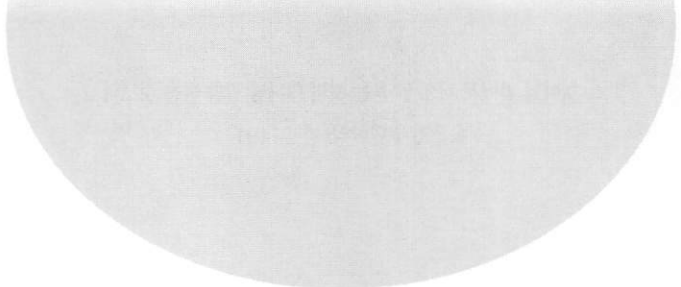
“경찰에 쫓기고 있던 목사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선행을 한 당신에게 누가 20년 형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까?”

“제가 재판관을 당할 때에 원고측 검사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당신에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몽테뉴 박사의 아버지는 루마니아 정교회에 속한 지방 주교 대리였는데, 신 부리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박사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형편이 되었다. 부친을 살해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박사는 그들을 치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배급되는 식사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찌이라는 크리스천은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20년 형에 처해진 사람이었다.



얼마 후에 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도 그와 같은 감방에 투옥되어 심한 병까지 앓게 되었고 그의 병은 몹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는데, 토찌아는 흐르는 물도, 숨도, 깨끗한 천도 하나 없는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나서서 그 판사의 몸을 닦아주었다. 희생자인 토찌아는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판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함을 받고 숨을 거둘 때까지 그를 형제로서 돌보아주었던 것이다.

10월 15일

예일 대학에서 행해진 한 심리학 실험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악감정도 없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권위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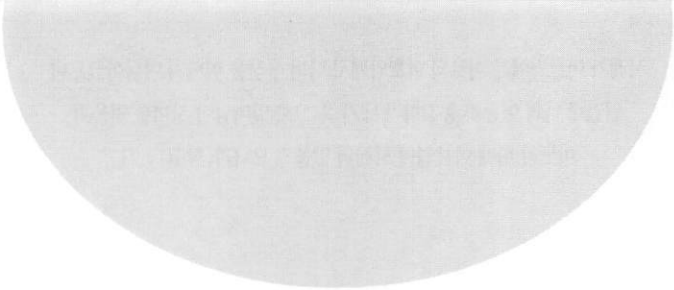
이 실험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충격을 주는 장치와 세 명의 실험집단이었으며, 실험을 행하는 사람이 권위를 지닌 인물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둘 중의 한 명은 이 실험을 행하는 사람과 미리 각본을 짠 배우였다. 그 배우는 학생의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 집단은 실험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전기 쇼크 장치는 그럴듯해 보였다. 그 기계에는 15볼트부터 415볼트까지 표시된 단추들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단추 아래에는 '약한 충격', '강한 충격', 혹은 '위험: 치명적인 충격' 이라고 쓰인 명패들이 붙어 있었다. 제일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단추 아래에는 단지 'XXX' 라고 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는 학생 역할을 하는 그 배우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이었다.

교사 역을 맡은 사람들은 '학습자'에게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그것을 잘 이해했나 시험하게 되어 있었다. 만약에 그 '학습자'가 틀린 대답을 하면, 실험 대상인 '교사'들은 그에게 처음에는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강해지는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배우는 소리치면서 심장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절하는 척 했다. '교사'로서는 그 '학습자'가 실제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믿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때에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은 더 강한 전기 충격을 줄 것을 '교사'에게 요구하며 '학습자'에게 가해지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예일 대학에서 실험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학습자'가 보인 고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듯이 행동했고 전체의 2/3가 권위를 가진 실험자의 말에



복종했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뿐이라는 태도였다. 독일에서 같은 실험을 한 결과, 실험 대상의 85%가 이처럼 권위에 복종했다.

크리스천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만 복종을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각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잔인한 통치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독립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범죄자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창 16 : 2)

10월 16일

이 구절에 대하여 주석을 달면서, 탈무드는 아브람이 자신의 하녀를 첩으로 삼으라는 사래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항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말을 따르다' 라고 번역되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샤모아 베콜, 샤모아 엘콜, 샤모아 레콜의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레콜이라는 단어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유대인의 또 다른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리켜 하와 역시 아담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따 먹었다는 것이다. 이 주석들은 각각의 경우에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 모두 샤모아 레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말하는 태도가 권위적이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마 20 : 25~27). 종은 주인에게 어떤 일을 권할 때에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 결코 명령하는 법이 없다. 주인은 종이 혹시 자신을 해치거나 힘들게 할까 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 때문에, 혹은 그 충고에 담긴 지혜 때문에 종의 말을 잘 고려해 본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힘센 독재자들에게 항복해서도 안되지만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독선적인 행위들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10월 17일

비도덕적인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를 경멸하는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조롱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무신론자들의 비도덕성에 관하여 따지는 걸 본 적이 있소?”

“없소.”

“바로 그것이 전혀 다른 점ियो.”라고 크리스천은 말했다.

기독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르친다. 그리스도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죄악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목표들과 막상 이루어 놓은 보잘것없는 성과들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신론에는 어떠한 행동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종류의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 규범들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관이 없는 사람의 행동에서 일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행동을 문제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악함을 슬퍼하고 후회한다. 지금도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상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목표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리 모두 함께 오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오르기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딤펴 6 : 20)

10월 18일

과학이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물리학에 찰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지속적인 압력을 받는 이상적인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이상적인 기체가 계속 압축될 때에 매 섭씨 1도 마다 그 부피는 1/273씩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273°C 에 이르게 되면 이 이상적인 기체의 부피는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선은 절대 0이라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다른 변화의 단계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기구를 띄워본 경험에 의하면 압력과 온도 간의 비례 곡선은 고도가 4만 피트에 이르는 지점, 즉 온도가 -67°F 에 이르는 시점부터 점차 완만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물리학자는 4만 피트 이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다른 말로는 자연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간단하게는 찰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 있어 찰스의 법칙이 무산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미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의 경우는 과학자도 기적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도 역시 가능하다. 만약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법칙이 그 현상을 지배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들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성경을 믿으라. 어떤 과학도 그에 반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10월 19일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때, 자신이 이 지구의 중심에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물둥이에다가 손을 한번 집어 넣었다가 빼어보라. 그 물둥이 안에 남아 있는 구멍의 크기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수면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전체주의 정부 아래에서 투옥되었다가 다시 석방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 없이도 교회가 전혀 무리없이 잘 꾸러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의미로 그들이 한동안 없어짐으로 해서 더 많은 젊은 일꾼들이 일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들이신 그 분은 무덤 속에 누워 계셨었다. 그 동안에도 별들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꽃들은 피어났으며 아이들은 그들의 놀이를 계속했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잠시 내버려 둔 채 떠나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세상에서 조금 물러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갖고 계셨다.

성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으로 불린다.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교회가 큰 타격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 바실리우스는 자신을 기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추방당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소.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요.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위하여 살고 일해 왔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겐 죽음이 오히려 이득이 되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성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10월 20일

어느 날 저녁에 한 아버지가 술집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린 아들이 찾아왔다.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눈 속에 있는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 왔어요.”

사과는 가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발자국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발자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내가 교도소의 정문 곁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손과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찬 사형수가 함께 서 있었다. 그때 마침 새로운 죄수들을 실은 호송차 한 대가 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나와 함께 서 있던 사형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역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였다. 아들도 손과 발에 쇠사슬이 감긴 채로 교도소의 정문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아들은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손을 들어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다.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할 말이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발자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남긴 발자국을 생각해본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아직도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폭풍과 홍수도 그 발자국만은 지우지 못했다. 바울은 자기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피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리하여 2천년 동안 크리스천들도 그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남기는 발자국을 주의하라. 그 발자국을 밟고 지나갈 사람이 당신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10월 21일

종교 개혁 후 교회의 큰 손실 중 하나는 옛 성도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본보기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교황의 소집으로 열린 제2차 전교회의 공회 때 자신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직을 놓고 논쟁이 치열해지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말했다. “나는 요나보다 나은 것이 없소.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는 대주교직으로부터 영원히 물러났고 성도들에게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진리만큼은 한 치도 양보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이견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다… 명백한 부정이나 폭력이나 칼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시대나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포함한다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의 요구를 단번에 묵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악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 전염의 위험이 있는 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진리를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처참한 일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믿음과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가였지만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매일 매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청중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사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무엇보다도 성직자가 권력을 선호하는 것과 교회 내의 내분에 대해서 공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분쟁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어놓은 것과 같은 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는 추방당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지이다.”

10월 22일

1969년에 케냐에 살던 크리스천들은 몹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였다. 그들 중에는 키쿠유 부족의 이교도적인 맹세를 거부하여 창에 찔리거나 사람들의 매에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의 부인도 역시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병원을 나왔는데, 그 장례식에는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천 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처를 입은 그 부인은 남편의 무덤가에 서 있었다.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녀의 추모사는 그 다음날 신문에 활자화되었다. “이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게 된 저도, 제 남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그를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다운 용서이다. 당신에게 잘못을 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라. 그리고 그 위에 큰 글씨로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써보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이를 태우면서 당신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당신이 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크리스천다운 삶이 아니다.

10월 23일

물리학의 새로운 법칙들을 발견했고, 전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배관공이나 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까닭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연구결과를 숨기고 지키는 데 성공하지 못해서 그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사람들이 처음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딤후)라고 자신있게 한 말과 얼마나 다른가.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전까지는 숨겨져 있던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었다. 그 비밀은 곧 이방 사람들도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그들과 똑같은 지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계시들을 받았었다. 그것들은 인간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한 번도 후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죄에 물든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오늘날 이 지구상의 방사능은 20세기 초에 비해 서른 다섯배나 높아졌다. 과학자들은 종교를 부정했던 것일까.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인류는 전능자가 존재하지 않는 과학의 승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기나 강물이나 바다, 그 어느것도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활동으로 일시적인 삶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평생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돌이켜 후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을 섬기며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에 영광을 입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10월 24일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을 꾸짖으시며, 우리들에게도 위선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위선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 위선이 존재한다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사업을 하다가 만난 많은 위선자들 때문에 돈 버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성(異性)간에도, 세대 간에도, 그리고 여러 국가 사이에도 위선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국가들은 공존한다. 결혼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 남녀들이 얼마나 될까?

또 위선자들로 가득찬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다. 종교적인 채 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찬 지옥에 가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위선자들과 한 시간 정도 함께 앉아 있으면 되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위선을 그토록 싫어한다면, 오로지 진실만이 통치하는 유일한 곳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결단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단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 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저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도 교회 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저버릴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들이 지켜지는 곳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위선에 관해서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들어내는 일이 옳다.

10월 25일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레프라고 한다. 이 글자는 이 세상이 저 위에 있는 세상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처서 죽은 조지 칸터라는 수학자는 트랜스피니트의 개념으로 알레프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수학에 도입하였다.

트랜스피니트란 무엇인가? 10인치 되는 길이의 선을 종이에다 그려보라. 이 선 위에는 무한한 수의 점들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 것이다. 그러나 칸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선을 10등분 해 보아라. 1인치가 되는 각각의 선은 무한대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길이가 10인치였던 처음의 선은 무한대보다도 더 큰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무한대가 모인 것. 그것을 그는 트랜스피니트라고 부른다.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성경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한 선을 이루는 각각의 점들의 숫자와 동등한 것은 알레프밖에 없다. 첫 선 위에 있는 점들의 숫자는 그 선을 열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부분들을 이루는 점들의 숫자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 개의 부분들이 각각 전체와 동등한 것이다. 한 유대인 목수는 제자에게 말했었다. “나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자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전체 속의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전체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속에 총체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다.

초대 크리스천들에게는 “형제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었다. 루터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라고 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배고프고 고통받는 형제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셨다. 예수님이 곧 그 배고프거나 감혀 있는 자였기 때문



이다.

이런 논리는 언뜻보면 부조리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진리이며, 최근에 와서는 수학적으로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다.

10월 26일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또 때로는 천사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평생동안 자연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원했다.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그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표범에게 잡혀먹힐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원형극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창살 사이로 얼마 후면 자신을 잡아먹게 될 표범을 바라보았다. 그는 표범의 가죽에 있는 얼룩 무늬를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 얼룩 무늬들이 어우러져 이루는 모양이 그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맨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에 그는 왜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한 죽음의 형벌이 내려져야만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오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그 순교자는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모두를 삼킬 것이다. 문제는 “당신은 일생동안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면, 죽음은 당신에게 그것의 신비를 드러내보일 것이고, 단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통과하는 베일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박해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 16 : 21)

10월 27일

각 나라의 군대에는 정예 부대가 있다. 페르시아의 불사조 부대, 미국의 그린 베레모 부대, 독일의 SS 부대, 소련의 그바르디아 부대들이 많이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욱 유명한 것은 아마도 일본의 카미카제 조종사들일 것이다. 조종사들이 살아 있을 때 장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전투기에 오른 다음 조종실에 자리를 잡으면 밖에서 그 조종실을 잡고 폭탄을 가득 실은 상태로 적의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가 고의적으로 부딪혔다고 한다. 그들의 죽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많은 수의 적을 그런식으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예수님도 카미카제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으셨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돌아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성 있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다.

우리는 세례식과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한 사람이라야만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교회의 정예 부대에 소속될 수가 있다.

1955년에 열린 제네바 원자핵 회의에서 싱글턴 교수는 부르크헤븐의 대형 원자로가 있는 방사능 지역에서 자신이 직접 기른 카네이션 몇 송이를 들고 나왔다. 원래는 흰색이었던 이 카네이션은 그때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던 종자인 진홍색으로 변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 꽃의 모든 세포들은 이미 수정되어서 그 종류의 카네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는 부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 : 20)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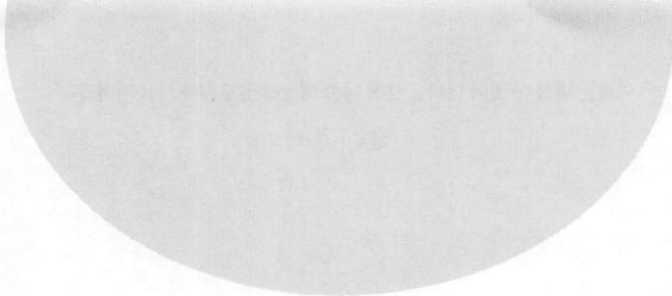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우리를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다. 인격은 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다. 우주라는 것은 인격이 이해하는 모든 것들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와 에너지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사고(思考)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언제나 주체이지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다. ‘나’ 라고 하는 전능자의 주체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은 이천 년 동안 ‘예수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그 분을 ‘그’ 로 끌어내릴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상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가 되기를 원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 이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나’ 로서 모든 신자들 속에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나’ 이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과 내 눈은 같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밤늦게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신가요?” 하고 그녀가 물어왔다. 그는 말했다. “나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여인이 대답했다. “제 방은 좁고 침대도 좁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떠나주세요.”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세상을 방황한 끝에 그는 그 까닭을 깨닫게 되었다. 한밤중에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누구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바로 당신이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국의 문에 이를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대상물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나' 라고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나' 는 그 분의 '나' 로서 예수님의 축소판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에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10월 29일

한 병사가 적과 싸워 이기는 멋진 작전을 생각해 내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총을 꺼내려고 하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작전을 세울 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즉 아이들이 갖고 노는 종이로 만들어진 군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위대한 계획들을 세우곤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같이 쓸데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악 속에서 태어났으며, 사악하게 형성되어, 우리들의 선행도 더러운 천 조각과 같아 아름다운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비천한 욕망의 손에 놀아나는 장난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이 군인들이다. 어떤 일을 실제로 하기 전에,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군인으로 먼저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또한 우리더러 자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적인 신성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새 힘을 주신다.

예수님은 종이 군인을 진짜 군인으로 만드시며, 그제서야 전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10월 30일

한 대장장이에게 말썽만 피우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문에 못을 하나씩 박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 문은 못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아들은 그가 머물고 있던 먼 곳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후회하는 마음이 그를 덮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문에서 못을 하나 뽑았다. 곧 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베푸는 선행에 관한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못을 하나씩 뽑았다.

어느 날 아들은 정말 성인과도 같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던 못을 문에서 뽑고 아들에게 문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네, 못들은 다 뽑혔지요. 그러나 구멍들은 남아있네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 구멍들마저도 깨끗하게 막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아쌔’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속죄제물’이라는 뜻과 함께 ‘복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쌔’으로 여기셨다고 쓰여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벌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씻어 버리신다는 말씀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롭게 된다는 뜻의 *justified*라는 단어와 ‘내가 마치’ 하는 뜻의 *just as if I’d*는 발음이 흡사하다. :역자 주) 우리는 눈보다 더 회개 되는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단 10 : 21)

10월 31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다니엘이 갖고 있던 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절을 그 책에서 인용한다. 우리의 성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간적인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은 누구나 사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번역판인 성경을 들어올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원래의 성경도 사실은 번역된 것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원시적인 인간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을 가치있게 여겨야 하지만,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 : 12)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이런 감추어진 보배들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히브리 민족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만 했던 바울은 기드온, 바락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없음을 불평한다(히 11 : 32). 우리가 아이들처럼 초보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2000년 전의 히브리인들로부터 감추어졌던 이런 설명들을 배울 수 있게 될런지도 모른다. 유다는 자신이 ‘함께 나는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해 왔으나, 마음을 바꾸어 교회 내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기로 한다고 쓰고 있다(유 1 : 3). 우리가 만약 교회 내의 침입자들을 완전히 몰아낸다면, 유다가 가르치려고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늘나라에는 진리의 책이 있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눅 17:18)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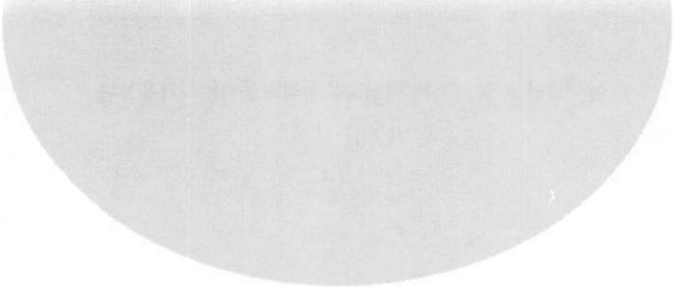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덕목들을 연회에 초대했다. 그들은 서로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계하는 둘만 빼놓고는 모두 절친한 친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서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랬다. “저희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선행’과 ‘감사’였다.

안드로클레스라는 로마 병사에 관한 전설이 있다. 그는 잔혹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리비아 사막에 있는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어느 날 신음을 하며 누워있는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자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었다. 안드로클레스는 가시를 뽑아주었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사자를 돌보아 주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그 둘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숨어 지내던 그는 결국 주인에게 발각되어 로마로 잡혀왔는데, 그 곳의 관습에 따라 원형극장에서 야수에게 잡혀먹히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를 잡아먹어야 할 사자는 바로 사막에서 그가 치료했던 사자였다. 사자는 친구를 알아보고는 그를 향해 달려드는 대신 그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았다. 안드로클레스는 놀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인해 사면을 받았다.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짐승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편이 쉽다. 터어키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다음에는 미친 개를 피하듯이 그를 피하라. 그가 당신을 물어뜯을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경험이 이 속담 한마디에 들어 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할 줄 모른다고 불평을 한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입고도 아직 감사를 표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목록을 만들어 보자.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다. 부모님, 선생님들, 의사들, 제과업자들, 양복장이들, 농부들에게도 감사하



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몸을 낮추었던 모든 사람들
에게 감사하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언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나... (단 11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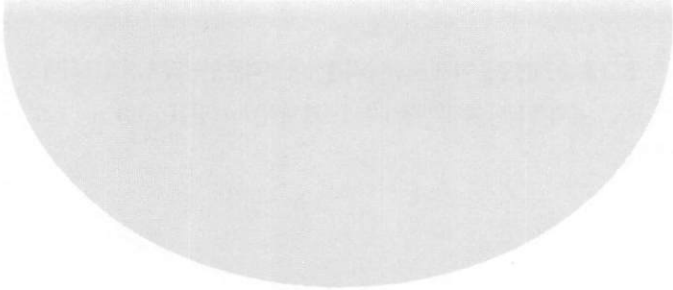
11월 2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 (*disappointment*)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잘못 적는다. '실망'을 제대로 쓰려면 '그의 약속' (*His appointment*)라고 해야 한다. (*disappointment*와 *His appointment*는 두음 외에는 발음이 같다: 역자 주) 십자가의 풀은 "실로, 우리가 착수한 어떤 일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그 일이 놀랍게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때다"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금요일에, 세상의 희망이셨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고 울부짖으셨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사실은 승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이다.

링컨은 파산한 실업가였다. 그랬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혼자나 부부들 중에도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많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나 역시 죽을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죄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이 된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비겁하게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언뜻 보기에는 사도로서의 직분이 그날로 영영 끝난 것 같았다. 시험을 당했을 때 그렇게 어이없게 무릎을 꿇은 그가 다시 교회 내에서 권위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받은 베드로는 교회로 돌아와 열매 맺는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순교자의 죽음을 맞았다.

1759년에 십자가의 풀은 이렇게 썼다.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고요한 심연의 시간에,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꾸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마을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죽어가던 그는 그 후로도 16년 간이나 전도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는 태도로 그 분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받아들이
다면,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계명들을 지켜나가게 된다. 게다가,
그런 불운들을 감수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아주 효과
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실망스런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이라
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11월 3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 : 31). 포도주도 다른 모든 인간적인 기쁨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죄악이 슬픔과 비탄을 이 세상에 가져왔으나 여전히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는 것이다(전 3 : 4).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하는 현관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깨워 주신다. 그러나 잘 정돈된 집은 현관문까지도 아름다운 것이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서는, 제대로 이해된 믿음이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그 안에 악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는 한, 즐거움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런 한계를 지키는 한, 크리스천이 즐거움으로 가득찬 생활을 누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지, 인생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곧, 삶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삶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 그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즐거운 삶을 선사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이상적인 본보기는 건강한 아이의 행복한 본능과 같은 것이지, 금욕주의자의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이 아니다. 금욕주의자로 수행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특별한 소명일 수 있으나 보통의 크리스천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법칙은 아닌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날 가나에 있었다라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성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혼인 잔치에 와서 즐겁게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더 원했을 것인가?

11월 4일

다윗 왕에 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어느 날 왕은 보석공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슬플 때에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또 내가 기쁠 때에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그런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너에게 시간을 이틀 주겠다. 만약 그런 반지를 가져오면 큰 상금을 받을 것이나 만들어 오지 못하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보석공은 절망하며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그런 반지를 만들 수 있으랴?

그가 궁전의 뜰을 가로질러 갈 때에,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어린 솔로몬이 근심어린 그의 얼굴을 보고 까닭을 물었다. 보석공은 왕이 내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관하여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어린 솔로몬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에게 ‘*Gam ze iavoh*’-‘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글씨를 새겨 넣은 간단한 주석 반지를 만들어 드리세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실의에 빠졌을 때, 그 반지를 보고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읽으면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기쁨에 넘칠 때에도 그 반지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테니까요.”

보석공은 그 반지를 만들어 큰 상을 받았다고 한다.

흠정역 성경의 아름다운 점 중의 하나는 ‘지나가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근심으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5년 전의 11월 4일에 당신은 무슨 일로 슬퍼했는가? 그때의 일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근심 걱정도 곧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기쁠 때에도, 당신이 아직한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눈물이 씻겨질 영원한 천국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

11월 5일

이슬람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슬픈 표정을 짓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토록 슬피하는가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아주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 가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역시 슬픈 표정의 사람들을 만나 그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천국에 관해 들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까닭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을 면했으며 천국을 확신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모든 행동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를 열렬히 구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밝은 길이 결국 영원한 과제로 우리들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해도, 또 마귀가 아무리 아름다운 낙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때문이 아니라 그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기욤 부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주님, 당신이 천국에서 제게 주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 친구들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제 적들에게 주십시오. 제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11월 6일

옛날 동양의 어느 황제가 궁전의 발코니에 앉아 해안선을 지나다니는 많은 배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배가 많다는 것은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황제는 곁에 서 있던 신하에게 물었다. “일년 동안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배가 모두 몇 척이나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척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제는 숫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건방진 신하가 면전에서 자신을 우롱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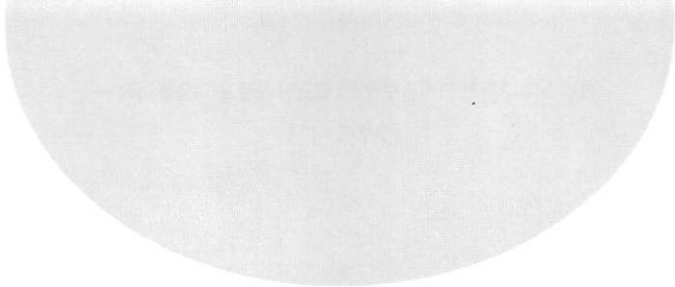
“어찌하여 그대는 내게 감히 그런 대답을 하는가!” 하고 황제가 소리쳤다. “지금 내 눈 앞에만 해도 백 척이 넘는데, 일년 동안 고작 네 척밖에 드나들지 않는다고?”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척뿐입니다.

‘모험을 구하는 욕망’과 ‘흥미를 찾는 욕망’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과 마지막으로 ‘돈을 좇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바다를 향해하는 모든 배들의 궁극적인 이름입니다. 저 배들이 각각 어떤 이름을 새겨넣고 다니든지 간에 말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욕망은 사실 이 네 가지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아주 작은 배가 하나 떠 있었다. 바로 그 배에 예수님께서서 오르셨다. 이 배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다.

이 배는 아주 특별한 배이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신 후에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은 광풍이 그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그날 밤에 일어났던 것이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37절). 배에 물이 가득차게 되면 가라앉게 된다. 광풍이 몰아치거나 바다가 잔잔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물이 가득찬 배는 가라앉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



는 그렇지 않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노 젓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배는 나아간다.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과 분파주의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죄들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차더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유체역학의 법칙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 있는 배는 교회밖에 없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동기가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해하기에 알맞은 배를 주의해서 선택하라.

11월 7일

오늘은 20세기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모스크바에서 열린 무신론자들의 집회에서 어느 연사가 강제로 동원된 청중을 향하여 물이 든 유리잔을 보여주고 준비해 온 가루를 약간 탔다. 그러자 물이 자주빛 포도주 색깔로 변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는 가나에서 소매 속에 이런 가루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기적을 행한 줄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마술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다른 가루를 타자 이번에는 자주빛이었던 물이 다시 원래의 투명한 색깔로 돌아왔다. “다시 포도주로 바꾸어 볼까요” 하고 원래의 가루를 타니 물이 다시 포도주색으로 변했다.

청중석에 앉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크리스천이 일어서며 말했다. “연사 동무, 당신의 기적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든 포도주를 조금만 마셔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물에 탄 가루는 독성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네 공산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분은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해왔던 그런 포도주를 주십니다. 당신도 물을 포도주색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포도주는 독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증오를 심어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한 어떤 혁명도 인류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 태어남만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는다.

11월 8일

초기 교회에서 암송되던 다음의 기도문을 우리도 한번 외워보자. 이 기도문은 요세비우스가 지은 것이다.

오 하나님, 제가 어느 누구와도 적이 되지 말고,
모든 영원한 것들과 모든 지속적인 것들의 벗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을 꾸미지 않게 하옵시고
제게 악한 일이 닥치더라도,
제게 악을 끼치고자 한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제가 그 악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오직 선만을 사랑하고 구하고 성취하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어느 누구도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꾸짖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제 자신을 꾸짖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자신이나 저의 적을 해칠 그런 승리는 얻지 말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친구들을 화해시킬 수 있게 해 주옵시며,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위험에 처한 친구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흥분시킬 충동들은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
소서.
누가 악한지, 누가 악했는지에 관하여 말을 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선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발자국을 따르게 하옵소서.

11월 9일

테바이드 사막에서 은거하던 초기 수도사들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파혼이라는 수도사는 나이가 많이 들자 계곡에다 자신이 거주할 조그만 오두막 집을 짓고는 그때까지 살던 언덕 위의 굴은 조오지라는 수도사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곧 수많은 사람들이 조오지를 성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를 찾아오는 것을 본 파혼은 후회하게 되었다.

시기심에 가득찬 파혼은 조오지 수도사에게 제자를 보내 굴을 즉시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자는 조오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파혼 신부님께서 당신에게 평화의 말을 보내며 당신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경건함을 매우 존경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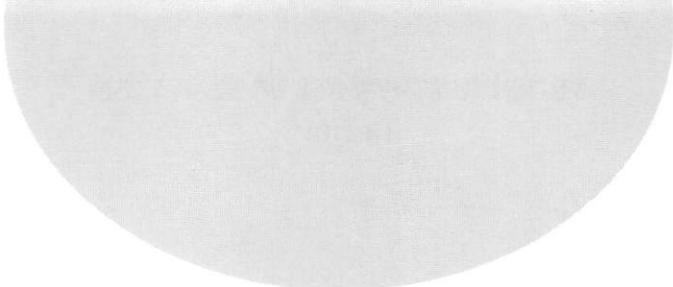
제자가 돌아오자 파혼은 물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전했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그 분이 들어 합당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오지 신부는 굴을 비우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파혼은 제자를 다시 보냈다. “그 위선자에게 가서 내 굴을 지체없이 당장 비우라고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몽둥이로 내쫓을 것이라고 해라.”

제자는 조오지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파혼 신부님께서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저더러 그 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축복을 보낸다는 말도 함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밤낮없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제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조오지 신부님께 필요한 말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조오지 신부가 도무지 굴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파혼은 몽둥이를 찾아 들고 그를 내몰기 위하여 직접 나섰다. 그러나 스승보다 발이 빨랐던 제자는 다른 길로 먼저 조오지 신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제 선생님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당신께 축복을 받으시겠



다며 언덕을 올라오고 계십니다.”

조오지는 파혼을 맞이하기 위하여 굴을 나쳤다. 파혼을 만나자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신부님께서 제자를 통해 여러차례 보내주신 사랑의 말씀들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들도 제게는 과분한 것이었는데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파혼 신부는 제자가 어떻게 일을 꾸뒀는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조오지 신부를 껴안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제자인 그 수련사에게 말하였다. “이 제까지는 내가 너의 스승이었고 네가 나의 제자였다. 그러나 네가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어야겠다.”

11월 10일

모든 나무는 다 생명나무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 13:32)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나무에나 적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나무가 새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의 뿌리에는 오소리들이 굴을 파고 살며, 수백 가지의 식물들과 곤충들과 동물들이 나뭇가지 아래에서 먹이를 찾으며, 연인들은 그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일 장소를 찾기도 한다.

상수리 나무에는 200종류도 넘는 곤충들이 산다. 수많은 말벌들과 벌레들이 그 꽃을 먹이로 삼으며, 딱정벌레들은 그 껍질을 먹고, 여러 종류의 썩기벌레들은 그 잎을 따 먹는다. 게다가 다람쥐들과 들쥐들도 있다. 부엉이들은 그 쥐들을 잡아먹고 오래된 나무의 빈 등지 속에 산다.

각종 덩쿨, 겨우살이, 이끼, 지의(地衣)류, 양치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수명이 다한 나무는 곰팡이의 습격을 받게 된다.

상수리 나무는 자신을 찾는 모두에게 한없이 친절하다. 나무는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연인들이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제공한다. 나무 그늘은 인간이 천사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에 비유되기도 한다(아 7:7). 그들은 또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과도 같다(시 1:3). 그것은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죽을 때에도 나무는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나무는 죽어서도 인간을 위하여 섬김을 다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야겠다.

11월 11일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당한 중국 교회의 가장 어두운 면의 하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기 위하여 서로를 고발한 일들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1951년에 열린 한 '기독교' 협의회에서 152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감리교 감독인 첸과 복음전도자인 쿠 쟈옌의 처형을 탄원하였다. 공산당은 그들의 '형제들' 보다도 더 관대하여 첸 감독에게는 5년 형을 선고하였다. 쿠 복음전도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도 그는 어느 감옥에선가 죽어갔을 것이다.

루 치웨이 목사는 인민 재판에서 자신의 딸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다. “나는 나의 눈을 멀게 하여 인민들과 동참하지 못하게 한 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딸은 이렇게 계속했다. “당신의 거짓 눈물이 내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수천 명의 선량한 크리스천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라는 끊임없는 강요를 당했다. '크리스천 농부' 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손 형제도 그런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위치만 나와 왕 민타오처럼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도 있었다.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에 배신자가 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은 그때까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다소 사람 사울이 개종한 후에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에게 새로 개종한 사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려주셨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 : 16)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주된 종교적 학문인 '고통학' 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임무를 다하지 않는 교회이다. 스스로 고행의 짐을 지라. 좌절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 그런 지식이 필요할 때가 찾아올 수 있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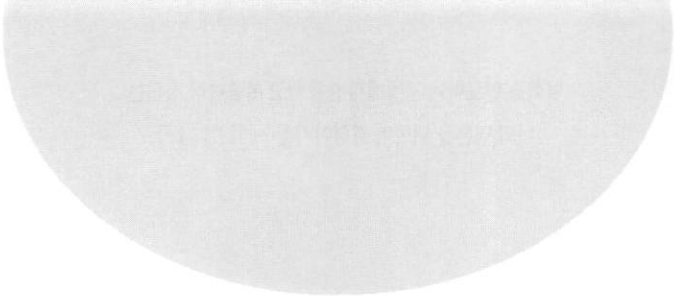
어느 이야기에 따르면 악마와 그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어느 사람이 몸을 구부려 무언가를 주워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자 악마가 친구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금방 한 조각의 진리를 발견한 것일세.” 그러자 친구는 “당신에게는 큰 위협이군” 하고 말했다.

“아, 아니야” 하고 악마가 대답했다. “나는 저 사람의 머릿속에 그 진리를 널리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을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붙여넣겠어. 그것이 성공하기만 하면 그 진리가 백지처럼 무효화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우리는 모든 조직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승천하셨더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간직해온 성경을 물려받았고 교회는 그 성경의 신뢰성을 보증하며,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해주고,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풍부한 경험들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교회는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가족 외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비비(원숭이과에 속하는 동물 : 역사 주)가 사람이 되고 미개인이 고도의 문화 혜택을 입은 천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제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체인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조직이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조직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히 13:17)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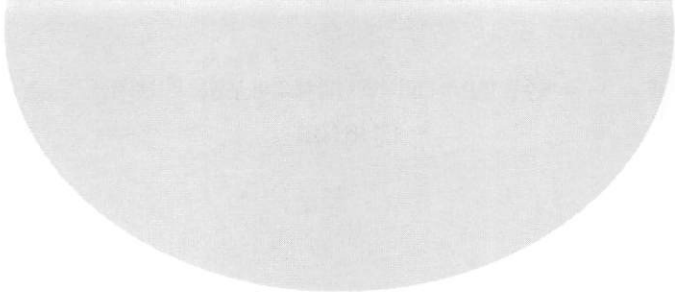
목사들의 흠잡기에 여념이 없고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들기에 열심인 그런 시온의 말썽꾼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는커녕, 지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목사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별들 중의 하나이다(계 2:1).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곁 길로 나간 목사들을 책망하고 벌주는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할 몫이다. 우리는 잘못하여 잡초를 뽑는다고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단에서 끌어내리거나 끊임없는 비판으로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에 관한 좋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다. 그가 떠난 후에야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목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인들이 없었던 것이다. 목사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던 장로가 크게 뉘우치고 어느날 목사를 찾아갔다. 목사의 아내를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들어가자 마세요. 당신을 보면 고통은 더해지실 겁니다.”

죽어가는 목사에게 고통을 안기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그러나 장로는 목사의 방에 들어섰다. 죽음을 앞둔 목사는 기력이 없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가 세운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오. 나는 죄인이었소. 당신이 내게 한 일들은 모두 옳았소. 그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나 당신은 나 말고도 다른 목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당신이 혈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



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가 세운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오.” 이런 말과 함께 그는 숨을 거두었다.

어떤 목사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어떤 이익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 : 31)

11월 14일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성도들이 있다.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다. 안토니오 헤레줄레오는 자신의 복음주의 신앙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줄리앙 헤르난데스라는 사람이 술통에다 스페인어 성경을 숨겨서 몰래 들여온 사실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경을 몰래 들여오는 일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헤르난데스는 적발되었을 때, 3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헤레줄레오도 그로부터 성경을 받아 개종하게 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화형대에 끌려 온 헤레줄레오는 자신과 함께 개종한 아내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을 부인했고, 그리하여 사형을 면제받아 무기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몹시 괴로워했다. 한 마디의 말로 그 자신도 화형을 면할 수는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감옥으로 갈 것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사면을 받아 다시 아내와 결합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나은 희망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가족이 다같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입에 재갈이 물려질 때까지 그는 아내에게 회개할 것을 설득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힘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미끄러진 성도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었다.

헤레줄레오는 화형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아내는 감옥에 보내어졌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 그 후로 8년이나 계속되었다. 8년 후에 그녀는 종교재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신앙을 부인했던 일을 다시 부정하였다. 그녀 역시 화형을 당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다.

당신의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행 20 : 27)

11월 15일

성경 외판원이 어느 집에서 모질게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나기 직전에 그는 그 집의 안주인에게 신약 성서를 무료로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부부요. 그러니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의 반은 내 것이요.” 라고 비웃으며 도끼로 신약 성서를 반으로 나누었다.

몇 주 후에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이 가진 그 책의 나머지가 어디 있소? 지금 좀 필요하오. 내가 가진 반은 방탕한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데에서 그쳐 있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오. 아마 당신이 가진 책에 쓰여 있을 것이요.”

성경을 반으로 나눈 사람은 이 사람 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로 가득차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나 어떤 목사들은 진리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고, 은혜에 관해서는 다른 목사들에게 맡긴다. 그와 반대로 은혜에 관해서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다.

성경은 언제나 회개와 죄사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성경을 반으로 나누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데에서 멈추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도 그 뒤에 쓰여 있다(롬 12 : 1).

11월 16일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에 필요한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 만약 우리 앞에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 잠자리채로 태양을 잡을 수 있을까? 또 바닷물을 골무에 담을 수 있을까? 세 살짜리 어린아이를 도서관에 보내 단테의 신곡을 찾아오게 해보라.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책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진리에 관한 많은 정의들 중에 어느것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종교나 정치나 윤리 등에 있어서 각기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어느것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표적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진리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사상의 역사는 한때 인간들로부터 진리라고 여겨졌다가 결국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명된 모든 주장들의 무덤이다.

나의 인격체와 동떨어진 진리,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진리는 '나' 일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진리요"(요 14:6).

인간 속에 있는 진리의 법칙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체의 진리의 법칙이 될 수 없다.

진리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진리가 내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진리는 내가 찾았다녀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격의 일부가 된다.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인도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 분은 우리 자신이 당신과 동일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11월 17일

피페추아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구세주를 부인한다면 그곳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다. 피페추아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제발 그렇게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작은 주전자가 보이세요?”

“물론이지.”

“이것을 주전자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가 늙은 아버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해도, 또 죄인을 딸로 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또 그녀의 갓난 아기를 상기시키며 그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전자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도 아니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눈 앞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였고 갓난아기도 그녀의 품에서 떠나갔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피페추아가 드디어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졌을 때에 그녀의 겹옷이 옆구리로부터 찢겨어졌다. 그녀는 즉시 그 찢겨진 천으로 다리를 가렸다. 그것은 당장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런 죽음보다도 자신의 별거벗음을 더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순교하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크리스천들이여,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지켜라. 그 외에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불려질 수 없으니.

11월 18일

크리스천은 자신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 시청하고, 어떤 책들을 읽을 것인지에 대해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3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터툴리안은 음란한 쇼를 구경하러 갔다가 마귀들려 돌아오게 된 어떤 크리스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마귀를 몰아내는 의식에서 감히 성도를 공격한 죄로 악령을 나무라자, 악령은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녀가 내 영도에 먼저 들어와 있었소.”

쇼 중에는 즐거우며 아무런 해악이 없는 것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여러모로 아주 뛰어난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한 말을 설명하기는 아주 간단하다. 독약을 담즙에 타서 먹이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독약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자 할 때에는 향기롭고 달콤한 맛이 나는 진미에다 독약을 넣게 마련이다. 그러니 아무런 해가 없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쇼 구경을 갈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기쁨, 즉 그의 혼인 잔치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이 제공하는 오락들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예배 의식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요 16:20). 세상이 기뻐하는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불의를 보고 슬피 울자. 그리하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면서 매일 신문을 뒤적거리지만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십자가를 메고 그를 따르라.

...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마 25 : 10)

11월 19일

종교 개혁이 끝난 지 4백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중세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13세기에는 당대의 수도사에 의해서 쓰여진 다음과 같은 글에 대해서 감히 반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의 피와 동정녀 젖. 그렇다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그 분의 아름다운 피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램으로써 우리의 쓴 잔을 조금이나마 달게 만드는 그 동정녀의 젖,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제대로 활용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려 있다.”

또 그 당시에는 성경의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 얘기한다. 그러나 마리아의 젖에도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여성 성자들도 숭배하기를 즐겼다. 그런 면에서 조금 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루터가 설교한 곳으로만 알려진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은 한때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스가 자라나고 기도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궁전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다 병원을 지었다. 그리하여 왕비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비참한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혼인 잔치에 초청하신 때가 왔다. 신랑은 신부를 찾고 있다. 고요하라. 고요하라.” 11월 19일에 일어났던 일이다.

...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벧전 3:1)

11월 20일

안식일에 마이어 랍비가 회당에 간 사이에, 그의 어린 두 아들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부인 베루리아는 아이들의 시신을 위층 방에 놓고 천으로 덮은 후에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대답했다. “글쎄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애들은 애들일 뿐이잖아요? 어른들처럼 행동할 수는 없나 봐요.”

식사를 마치자 아내가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 여쭙볼 게 있어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제 친구가 아주 값비싼 귀걸이를 남편이 팔아 먹을지도 모르니 저에게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이 죽자 친구는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귀걸이를 너무나 아꼈어요. 당신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저는 거울 앞에서 그걸 달아 보곤 했어요. 그걸 귀에 걸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 귀걸이를 돌려주어야 할까요?”

랍비는 대답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친구에게 오랫동안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저와 함께 올라가세요.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아내는 위층 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천을 걷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한 보석들이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아이들과 있으면서 행복했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랍비가 대답했다. “현명한 아내를 둔 남자는 복이 있을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지이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실의 슬픔들도 이렇게 극복해내자.

11월 21일

어느 크리스천이 동료 크리스천에게 말하였다. “나는 매주 교회에 낼 헌금을 결정한다네. 내가 만약 교회에 못갈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아내에게 맡겨 헌금을 하거나, 다음에 갈 때 그 돈까지 합쳐서 헌금을 한다네. 자네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나?”

형제가 대답했다. “나는 교회에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네. 나에게 목사님을 보내 주심과,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는 것과 그밖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헌금 액수를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네.”

얼마 후에 두 친구가 다시 만났다. 처음의 크리스천이 친구에게 말하였다. “나도 자네가 하는 방법대로 해 보았더니 정말 놀랍더군. 교회에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헌금하기로 작정하는 액수가 늘 부족한 듯이 보이더군. 내가 그 분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말일세.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헌금하게 되더라구. 내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더군. 나는 이제 헌금하는 일이 아주 즐겁다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더군.”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마음내키는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11월 22일

일본 성서 공회의 전직 회장이었던 선 샤우크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병사들은 오키나와 섬에 있는 신만부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마을의 집들과 길거리는 다른 곳들과는 달리 아주 깨끗했으며 그곳 주민들은 다른 일본인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그 이유는 30년 전에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 마을을 다녀갔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는 오래 머물진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교와 성경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갔다.

쇼세이와 모곤 형제는 다른 크리스천들과는 어떤 교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구세주를 발견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다. 형제 한 명은 마을의 시장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선생이 되었다. 그 마을의 학교에서는 날마다 성경이 읽히게 되고 마을을 운영할 때에도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

그 마을을 둘러본 미국인 군목은 30년 전의 성경 한 권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활용되어서 한 마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성경은 혹시 선반위에 올려져 있지 않은가? 성경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가? 성경을 매일 읽고 배우며, 배우는 즉시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는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당신이 몸담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이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일본인 형제에게서 배워야 한다.

…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시 95 : 7, 8)

11월 23일

한 청년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저는 성경에 쓰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아무리 생각해 도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적에, 이런 편지를 내게 보내 지 않았니? ‘3년 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저 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만약 지금 어머니 곁에 있다면 혹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왔기 때문이다. 본향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이해 하는 것들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즉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라.

그리스의 폭군 아케쿠스가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전령이 다가와 몹시 중요한 것이라면서 편지를 하나 건넸다.

왕은 “중요한 일들은 내일 처리하겠다” 라며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 그날 밤 왕이 술취했을 때 살인자의 비수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왕의 피는 아직 뜯어보지 않은 편지 위에 떨어졌는데, 그 편지는 그날 밤의 음모에 대하여 경고 하는 내용이었다.

악의 세력들은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능한한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만 뒹굴 게 하여 심판의 날에 영원한 죽음을 맞게 하려는 것이다.

경고를 주의하라. 돌아오라.

11월 24일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랜 기쁨으로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기도회에 참석할 때는 우산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은 탈무드에서 유대의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씩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이런 말로 기도를 마쳤다고 한다.

“하나님, 나그네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나그네는 자신이 길 떠나는 날은 언제나 맑고 화창하기를 바란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산을 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치시기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는가?

나는 차라리 비를 내리게 해 달라는 기도 요청에 “바람이 지금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는 한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한 어느 신부가 마음에 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람은 제 마음 내키는대로 분다.” 자연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객관적인 법칙들이 있다.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기예보가 틀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돌 굽하기 돌이 넷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크리스천이 해야 할 위대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엘리아는 비를 몰고 올 수 있었으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었다. 그 분들을 흉내내고 싶은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먼저 우리는 날씨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힘있는, 곧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기상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11월 25일

서기 627년에 수도사 폴리누스가 노섬브리아(앵글로 색슨 시대의 잉글랜드 7왕국의 하나 : 역자 주)왕 에드윈의 왕궁에 찾아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설득 하자 왕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왕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 이 땅위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란 집 안으로 잠시 날아들어왔다가 이내 다시 밖으로 날아가는 참새의 비행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겨울 저녁 식사를 앞에 놓고 따뜻한 불가에 앉아 있는데, 밖에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시야를 가릴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날아든 참새는 곧 다른 문을 통하여 집을 빠져나가지만,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겨울의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참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겨울 속으로 날아가버립니다. 겨울에서 또 겨울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잠시동안이지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러한 물음에 대답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주셨다(요 17 : 6).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모든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인 것이다. 많은 다양한 민족들의 고대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 아래에 꾸준히 흐르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의 실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사물이 가진 능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옛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이다. 어떤 물질의 화학 성분을 알아내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다 파악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11월 26일

한 학생이 위대한 철학자를 찾아가 물었다. “선생님, 제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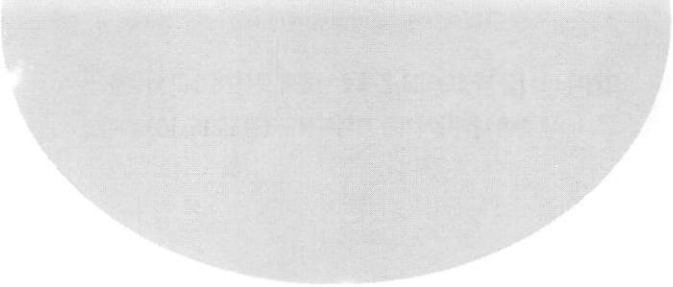
철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학생은 다시 물었다. “선생님, 하나님에 관해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철학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학생이 세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철학자는 입을 열어 대답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미 네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고기잡는 그물로 파도를 잡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말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그것들이 잘못된 어감을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인 중에는 종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몹시 곤란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가 몹시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랑이라는 말은 또 어떤가? 나는 사과 피이를 몹시 사랑하고 나의 개도 무척 사랑한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감정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리빙스톤이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언어에는 ‘사랑’이라는 낱말이 없었기 때문에 난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그는 야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훈제된 사람의 팔에서 나온 고기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들은 그것을 ‘언보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언보이이시다”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지만, 그가 한 일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하나님이 곧 하나의 감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요한이 사랑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킨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알려진 것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이었기 때문이었다. 리빙스톤이 하나님을 ‘언보이’라 칭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완전한 고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다.

11월 27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죄로 인해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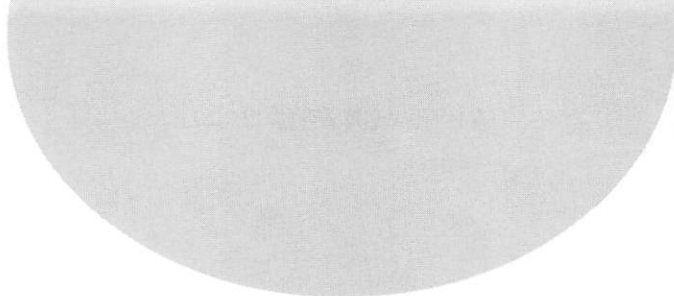
오델로 역을 맡은 배우가 있다고 치자.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질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연기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 질투에 불타는 전형적인 남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성격을 연기해 내야 하는 오델로 역할이 그 배우 자체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배우는 언제든지 자신이 내키기만 하면 오델로 연기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태도, 혹은 마음이 완악해진 죄인의 태도, 또는 회개하는 죄인의 태도 등을 취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역할도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내가 어떤 역할을 취할 것인지는 궁극적인 '나'가 결정하는 일이다.

나에 의해 연기되어지는 오델로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역시 가짜인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에 당신의 진정한 인격,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당신 본래의 모습이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낡은 사람, 극중 인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없다.

들어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고 쓰여 있다 (요 15: 17). (영어로 *come to*라는 표현은 '~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도 사용



되며 재귀적인 용법으로는 '정신이 들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역자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11월 28일

한 크리스천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강도에게 찢렸다. 범인은 경찰에 검거되어 피해인은 사람과 대면하기 위해 병원으로 송환되어 왔다. 경찰은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안심시켰다. “이 사람은 당연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보게 된 것은 제겐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범인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한 다음에 숨을 거두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이 당신을 해한 죄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해야 한다. 예수님, 슬픔을 지닌 인간이셨던 그 분께서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온다.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의인의 편에 서신다. 불의한 사람이 역시 불의한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불의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불의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

게으른 탓에 배고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 우물을 파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 노름으로 속옷까지 다 날려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헐벗은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 나쁜 짓을 하다가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든 자의 편에 서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갇힌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죄인들에 의해 무고하게 핍박을 당한 희생자들이다.

11월 29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는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산업 국가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홀하기 쉽다. 개발 도상국들은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의 15%밖에 얻지 못한다. 바나나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파는 바나나의 총 가격의 매 1달러당 11센트밖에 수익을 얻지 못한다. 옛날 식민지 시대에 가난한 나라들이 싼 가격으로 그들의 천연자원과 열대 식량을 부유한 산업 국가들에게 공급해 주던 패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63년과 1971년 사이에 스리랑카는 영국에 차를 수출한 결과 4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는데 그것은 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영국이 스리랑카에 원조한 돈의 액수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었다.

미개발국가들에서는 사회적인 부정도 많이 발견된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가장 부유한 10%의 국민이 총국민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가난한 40%의 국민은 총국민소득의 12%를 나누어 갖고 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소비생활을 절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기 나라 국민의 평균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넘는 소비 행위는 사치일 수밖에 없다.

엠브로스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당신이 도와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굶고 있다면 당신은 도둑이다. 그러다가 그 이웃이 만약 죽기라도 하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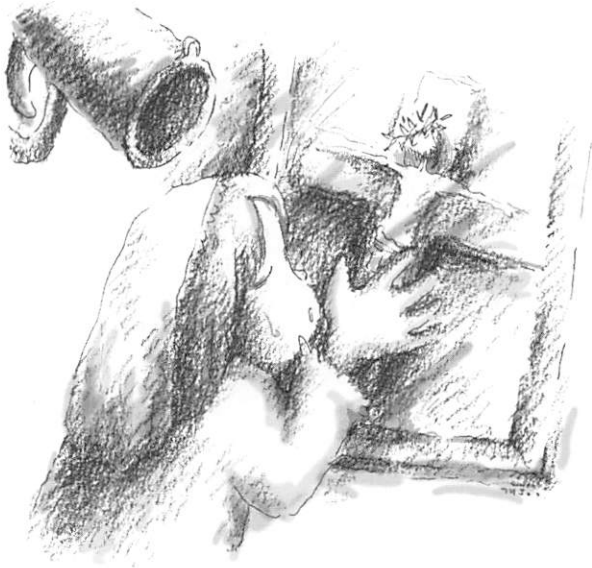
자녀의 지능 발달이 더디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프리츠 리에네커가 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에 있는 다음의 실화를 소개하겠다.

“까뜨린느는 20년 동안을 정신 박약자들을 위한 요양소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치였다. 그녀는 말 한 마디도 배우지 못했고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고 가끔씩 조용히 벽을 바라보거나 뒤틀린 몸짓을 하곤 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고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어느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면서 의료진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기원했다.

어느날 까뜨린느의 담당 의사가 요양소의 소장을 급히 찾았다. 까뜨린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실을 들어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까뜨린느는 그동안 자신이 많이 들어온 찬송가들 중에서도 임종에 적합한 찬송들만을 골라서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혼은 어디에서 안식을 구하는가” 라는 독일 찬송가를 끊임없이 되풀이하였다. 까뜨린느는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모한 얼굴로 반 시간 동안이나 찬송을 하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결국 까뜨린느가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완전히 수동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경우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장애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배일을 들어올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분께서는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천국에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두고 계신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



12월 1일

사람은 단지 흙(저자 주: 히브리어로 *eretz*라고 하며,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earth*가 유래한다)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땅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다마'인데, 이것은 원래 윤택하게 좋은 토양을 가리킨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땅을 가리켜 '아다마'라고 하고 있다. 땅에는 사막도 있을 수 있고 돌이 많은 척박한 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낙원의 땅,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닌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히브리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단수형이 없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단어는 '하임'으로, 이것은 '생명들'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로 복수형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히브리어로 인간에게는 한 생명밖에 없다고 하는 교리에 어긋나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수형이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들을 주셨다.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다음 세상에서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말한 걸로 봐서 대단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시 8:5).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Elohim*)은 그를 당신보다 약간 낮게 만드셨습니다."

신체의 크기로 보면 인간은 우주 속에 떠 있는 한 줌의 먼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 "숨결 하나가, 혹은 물 한 방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주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라.

12월 2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 의사가 그에게 가끔씩 여행을 할 것을 권하자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흥겨운 파티에서 포도주를 한두 잔 하는 것도 때로는 효과적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술을 병 채로 마셔도 제 마음은 슬프기만 합니다” 의사는 좋은 방법이 생각
났다.

“시내에 우스갯소리를 잘 하기로 소문난 익살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
람의 농담을 듣고 그가 하는 마술을 보고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다고 하더군
요. 저녁때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바로 그 익살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제 자
신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즐거움도 오
래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들은 덧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형 언도
를 받은 사람들이며, 죄의 짐으로 짓눌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일시적
탈출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웃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속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우리
의 범죄 함을 위하여 내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
셨느니라” (롬 4 : 25).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는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지속되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다.

12월 3일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한 목사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혼전성교가 왜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누구나 양복을 살 때에는 네 다섯 가지 정도 입어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자와 결혼을 하기 전에 네 다섯 명쯤과 성관계를 가져 보는 것도 그리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대답했다.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양복도 어떤 한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입힐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한 남자를 남편으로 고르기 전에 여러 남자들을 겪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새 양복 대신에 헌 양복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로 혼전성교는 허락될 수 없다. 정직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랑도 없으면서 육체만 소유하려는 것이 어떻게 이성간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의 준비라 할 수 있겠는가?

요즘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죄들은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사 53 : 5). 우리들의 악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성적인 것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후에도 그 악한 행실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혼외정사의 대가는 너무나 비싸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채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당신과 상대방의 부모님들이 느낄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아라.

성범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 어떤 책과 잡지를 읽을 것이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를 볼 것인지를 주의깊게 결정하라. 당신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우라.

12월 4일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 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이다. 스포츠에 소질이 있는 소년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목 아래로는 영원히 마비되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팔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지만 그의 지체들은 기운없이 생명력을 잃고 휠체어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구석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나, 지체들은 마비되어 움직일 줄을 모른 채 두려움과 무관심 속에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온 몸이 마비된 자도 일으키셨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가 앓는 만성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잃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분이 내리시는 명령들을 망설이지 말고 따르자.

12월 5일

어떤 사람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그 밖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 크리스천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악취가 나는 배설물이 없어지는 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위의 구절이 바울에게는 현실이었지만, 슬프게도 우리들에겐 하나의 인용구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이 배설물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안달이다. 종교 개혁 당시에도 이런 점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근검과 가난을 최우선적인 규칙으로 내세운 종교적인 집단을 조직했던 아시시의 프란시스와 피오레의 요아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자인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돈, 명예욕,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쟁 상대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에서 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어느 왕자가 자신의 엄청난 부에 관하여 자랑을 늘어 놓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사가 물었다. “폐하, 제가 드리는 이 편을 갖고 계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제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왕자가 대답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이요? 내가 어찌 편 하나라도 죽을 때에 갖고 갈 수 있단 말이요?”

“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으는 대신에 오늘 잃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인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되었다. “예수 이름 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지나기는 하되 그 위에다 집을 짓지는 말아라’”.

죽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라.

12월 6일

이슬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거리를 걷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 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소리로 자신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길을 갔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을 줄 뿐이오.”

우유로 가득찬 병을 깨뜨려 보아라. 그 안에는 본래 식초가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병을 깨다고 해서 식초가 쏟아질 리 없다. 크리스천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증오와 원한에 찬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몇 개의 행동 노선을 놓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미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세계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그날을 함께 지냈다(요 1 : 38, 39).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이 땅위의 거주지가 아니었다. 그 분은 이 세상에서는 거주지가 없으시며 초라한 오두막이든 화려한 왕궁이든, 어디든 사랑이 통치하는 곳에 머무신다. 예수님은 묻는 자들을 데리고 그러한 곳들을 함께 찾아 다니셨다.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그들은 그 분의 제자들이 되었다.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 11 : 26)

12월 7일

옛날에 고래들이 아메리카의 해안선 가까운 곳에서 헤엄을 치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무엇일까' 하고 철학적으로 궁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면서 "저기 봐! 고래잖아!"하고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고래들은 몹시 기뻐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게 된 고래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들도 바닷가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는 그 이름이 자신들의 내적인 인간을 규명짓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5)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어떤 이름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맥에 사는 농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현관 문을 열어 놓고 난로불을 따뜻하게 피우며 식탁 위에는 먹을 것을 마련해 둔다고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헤룻에게 쫓겨 자신들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해서라고 한다.

볼세비키의 통치하에서 황제들과 정치범들의 귀양지로 유명했던 시베리아의 외곽지대에 사는 몽고 족의 하나인 오스트야크 부족은 언제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 밖에다가 먹을거리를 놔두곤 했다. 그 음식은 지나가는 죄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남에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는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12월 8일

종교의 오랜 의문 중의 하나는 만약 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인간들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눅 6 : 35).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선함만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다. 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악행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신다. 그런데 악한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와 스탈린에게도 오래 참으셔서 그들을 수십 년간이나 너그럽게 보아 주셨다. 그동안 그들은 대량 학살을 일삼았던 것이다.

세상이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찬 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계신다. 그 분은 선하시지만, 선하기만 하신 것은 아니다. 선하신 만큼이나 복수할 줄 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노의 날을 준비해두고 계신다.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의 머리는 우리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좋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야 한다.

12월 9일

어떤 사람이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자들 가운데에는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었다가 훗날에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들이 살아 있을 당시에 교회의 편에 서지 않고 그 성자를 옹호하여 고위 성직자들과 맞선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복종하고 모든 일을 위임한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잘 받들었던 사람들이다.

잔 다크는 교회에 의해 화형에 처해졌다. 셀레스티나 5세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의 뒤를 이은 교황 보니파세 8세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서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지금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성 요한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후스는 이단으로 몰려 화형대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양면을 다 생각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게 된다.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어머니도 때로는 미칠 수 있다. 교회는 신성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이름을 빌려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복종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는 합리적인 이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이 이상형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갖는 것이 흠 없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다.

12월 10일

하나님께서서는 왜 하필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브알리스툽의 랍비 모호리베르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셨더라면 그는 바로에게 가서 노예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불의와, 노예해방의 가치와, 유일신 신앙의 매력과,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의 가치 등에 관하여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열변에 반하여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끝없고도 쓸데없는 논쟁이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말을 더듬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곧장 요점으로 들어가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책이 말재주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1음절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 문장 안에 20개의 1음절 단어가 들어 있으며, 1음절 이상 되는 단어는 고작 여섯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 뒤를 잇는 17절 말씀도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21개의 1음절 단어들이다. 성경 외에는 이런 책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세련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우리를 진리의 본질에 도달하게 하는 책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아... (히 1:1)

12월 11일

일본의 불교 신자들에게 전해내려오는 전설이다. 4영겁 전에 아미다라는 왕이 부처가 되기 직전의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나, 삼라만상이 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들지 않겠다고 스스로 열반에 들기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 신자들은 아미다가 희생의 대가로 초탈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열반에 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무 아미다 부다 부쓰' (나는 아미다 부처를 진심으로 믿나이다)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이다.

이런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희망을 예수라는 실제로 바꾸어 놓으셨다. 예수(히브리어로는 *Jeshua*)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함 속에서 잉태되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신 희생이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분의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신 것이다.

피아노 연주회는 두 개의 독립된 객체-피아니스트와 피아노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아노 앞에 앉은 피아니스트가 함께 이루어내는 특이한 사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에서도 뉘우치는 죄인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이 당신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뉘우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표적이다.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자.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12월 12일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인 크리스천은 박해가 매우 심했던 18세기 때의 로드리고라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체포된 로드리고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모진 고문을 태연하게 이겨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적어도 육체적인 고통만은 덜어달라고 기도를 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어느날 큰 시험이 닥쳐왔다. 수십 명의 크리스천들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고 풀려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신앙을 부인할 필요도 없었고 단지 로드리고가 많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니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형제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발을 내딛어 그림을 밟는 순간,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예수님은 어서 그림을 밟고 형제들의 목숨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가까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의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원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죄없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사의 발 아래 밟혀도 좋다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로드리고는 그 후에도 비밀리에 그의 신앙을 지켰고 마침내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을 회개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성경이 내리는 해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건디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무신론자들의 정부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흔히 배신자라고 불리워지는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들 중에는 교회를 살리고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겠다.

12월 13일

평화를 뜻하는 그리스어 '아이레네' (*eirene*)는 어원학적으로 '상대방과 다시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서로 의미없는 소리만 주고받을 뿐이다. 서로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은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다. 수십 년간 같이 살면서도 서로의 꿈과 생각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서로를 이용한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한다. 우리는 모두가 혼자인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 소리만 내는 단계로부터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다'라고 번역되는 '레다버'라는 히브리 단어의 참 뜻은 이렇다. 어근은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이라는 뜻 외에도 '사물, 실체, 원인'의 뜻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인은 말을 할 때 단지 단어들로만이 아니라 실체들을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 '알다'라는 뜻을 히브리인들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할 때도 쓴다. 그리스어 '그노시스'는 양쪽의 의미를 다 지녔다. 안다는 것은 친밀한 유대관계, 곧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단어 뿐만이 아니라 타오르는 가슴으로 나누는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대화라면 어떤 논쟁도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가서의 신부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아 1:2). 입맞춤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없다.

당신의 형제자매나 동료들과 이런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라. 대화가 말만 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교제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은 직접 인간이 되셨던 것이다.

12월 14일

경건한 아르멜르 니콜라스는 17세기 프랑스의 무식한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이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의 성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녀가 이토록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려 애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녀는 남들이 다 꺼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여주인을 위하여 요리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주인을 졸졸 따라가는 개를 보기라도 하면 자신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양털이 깎이거나 목에 칼이 드리워지더라도 반항하지 않는 양떼를 보면서 예수님도 저들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하나님의 양이었음을 상기했다. 암탉이 제 새끼들을 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매혹당할 때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아 2:1).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은 그녀에게 그 분의 사랑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니콜라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들의 그림자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놀라운 성자가 되었다.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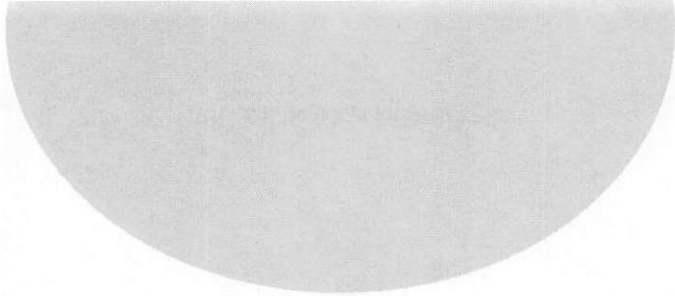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해 그다지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다의 회한은 베드로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는 결백한 사람의 목숨을 팔았노라고 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계집종을 찾아가 해명하지 않았다.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 그와 같은 식으로 보상을 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모든 인간적인 논리에는 모순되어 보이겠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고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나타내보였던 유다는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살을 범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빚어진 결과들도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지나치게 의롭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죄사함의 업적을 쌓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다와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레위기에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죄를 일컫는 단어는 '아쌈'이다. 그러나 도둑이 훔친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뜻의 낱말도 역시 '아쌈'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서인 이사야 53장에서 '아쌈'이라고 불린다. 그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보상도 하신다.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한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만큼의 진주를, 우리가 죽인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우리가 세상적인 부를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보물을 주신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너무 과거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스스로 거룩함으로 이르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유다가 바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자신이 여전히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과거의 죄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음을 알았다. 그 죄가 그의 어깨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1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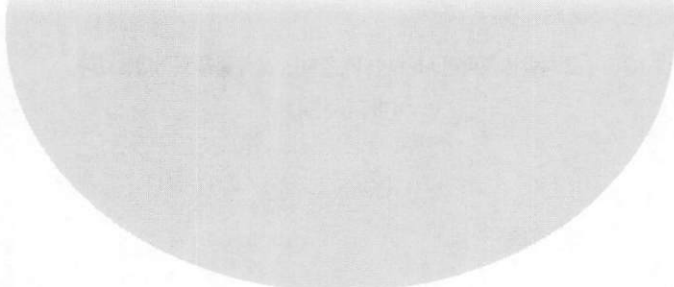
태어나지 않았던 편이 내게는 더 좋았을까? 영혼이 우리의 출생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일생동안 짓게 될 모든 죄악들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그 죄악들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연속적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종류의 슬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면 나는 태어나지 않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에 관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유다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었을까?

우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살게 될 기간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살을 하더라도, 자살을 택하는 심리적인 상황이 언제쯤 닥쳐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권 밖의 문제이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인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나 착실히 해두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영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지금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유다도 그 피로 맺어지는 꺾을 없는 계약에 동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유다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동역자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다.

이 삶을 낙원에서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여길 때에만 태



어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게도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나는 거듭날 수 있다. 이 거듭남에 대하여 나는 기꺼이 “예”라고 대답한다. 내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꺼이 따르면서 나는 기쁘게 새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12월 17일

르소의 테레사 수녀가 저녁 기도회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수녀의 앞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수녀는 조개 껍질이 부딪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늘 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테레사 수녀의 신경을 몹시 건드렸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꾸짖지도 않고 그녀에게 엄한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고 창피를 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끈질긴 소리는 테레사 수녀의 정신을 온통 빼앗았다. 그 소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려고 했으나 식은 땀만 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 신경쓰이는 소리를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더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 음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기도가 되었다.

신경을 거슬리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헛된 희망을 품거나 그런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슬픔들을 억지로 견뎌내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치게 됨을 기뻐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려고 일 부러 사흘이나 걸리는 곳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당나귀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울 수도 있었지만 이삭이 자청하여 등짐을 지고 언덕을 올랐다. 위대한 희생은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그러나 그 일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셨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태도를 취하면 한결 행복해 질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 10 : 32)

12월 18일

▶ 캄보디아 어느 교회의 기도회 중에 공산당 군인들이 그 교회를 포위했다. 몇 명의 군인들이 벽에 걸린 예수님의 그림을 떼어 현관 문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그림에 침을 뱉고 예수를 부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어떤 이들은 온갖 핑계를 둘러댔다. 한 사람은 너무도 사랑하는 약혼녀와 곧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돌보아야 할 늙으신 아버지가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두고온 어린 자식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며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강요에 못 이겨 그렇게 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터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침을 뱉고 목숨을 건졌다.

열여섯 살 난 소녀의 차례가 되었다. 소녀는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았다. 군인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침을 뱉거나 죽음을 맞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림에 입맞추며 그분의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었다. 소녀는 총을 맞고 예수님의 사진 위에 엎드린 채 죽어갔다.

이와 같은 소녀의 영혼은 사람들에게는 조소거리가 되곤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아 2 : 1)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영혼들이 백합화처럼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신다. 그러한 순결함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양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골라 교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들을 가르쳐야겠다.

12월 19일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모두 공통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없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지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없어졌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실제적인 제사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랍비들은 날마다 레위기에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관한 부분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친다.

크리스천이 유대인 가게에 들어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인은 대답했다. “당신은 뭔가 잘못 안 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옛날에 양과 염소들의 피를 바치던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일ियो.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시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좋습니다. 당신과 논쟁하는 일은 그만두고 물건이나 몇 개 사야겠소.” 그는 셔츠 몇 벌과 구두 몇 켤레와 넥타이와 그 밖의 몇 가지 물건을 골랐다. 그리고는 명세서를 받아들고는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셔츠가 얼마고 넥타이가 얼마고... 모두 200달러군요.” 말을 마친 그는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놀란 유대인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떡하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제가 명세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돈은 내지 않았잖소.”

이 말에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저는 명세서를 읽는 것이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당신네 랍비들의 충고를 따른 것 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름으로써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다. 형식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을 찾으라.

12월 20일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는 미워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구약 성서도 역시 이웃 사랑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훨씬 넓혀 놓으셨다.

나치의 포로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중에 일세 블루멘탈 바이스라는 여인이 있었다. 남편은 독가스로 죽었고 아들 또한 그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런 그녀가 수용소에서 쓴 시이다. “나는 미워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매질한다. 그들은 나를 발로 짓밟는다. 그러나 미워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진다. 그러나 나는 미워할 수가 없다. 나는 단지 슬프게 울 수 있을 뿐이다.”

증오를 자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곧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과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성전의 상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항하여 싸우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찬양하고 무조건 꺾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분은 가야바의 목을 끊어 안지도 않으셨고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으셨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를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증오가 그를 눈멀게 한다. 그러나 당신은 편견 없는 눈으로 그의 입장이 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옹호할 때에도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짐을 당신이 지고, 그의 죄를 곧 당신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씻기 위하여 그와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의 눈 앞에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

1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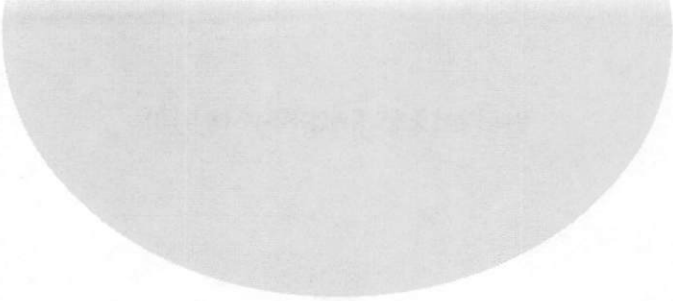
어느 날 르소의 테레사 수녀가 수도원에서 세탁일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일하고 있는 수녀가 세탁물을 물에 집어넣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더러운 물을 튀기는 것이었다.

테레사의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그 자매가 실수를 깨닫도록 얼굴을 닦으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앉아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이 그녀를 엄습해왔다. ‘공짜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서 테레사는 기분 나쁜 것을 숨기기로 작정하였다. 그 대신에 더러운 물을 좋아하는 감정을 조금씩 계발시켰다. 결국 그녀는 그 감촉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 종종 일부러 그 ‘물세레’를 받기 위하여 세탁실을 찾았다고 한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당할 가장 모진 고통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그러니 당연히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거나 묵상하는 것을 싫어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서는 가장 즐겨 읽는 부분이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유일한 예언자였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마 15:7). 당신에게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나쁜 일들을 환영하여라. 어려움들과 당당하게 맞서라. 그러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한 소련인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고문들을 이겨내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회개한 이후로, 저는 고문을 당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관하여 백일몽을 꾸곤 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성에 관하여 에로틱한 상상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막상 그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들이 나를 전혀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는 사람은 동시에 십자가의 자루를 꺼안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십자가의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막 치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그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복을 받았던 것이다(창 22 : 17).

12월 22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성 로렌스 교회에는 '이 세상의 여인'이라는 동상이 서 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지녔으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쪽에서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른 쪽에서 보면 그녀는 온 몸에 뱀이 우글거리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성 프란시스 드 살레스는 프랑스 황실의 귀부인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호화롭게 치장을 하고 연회에 참석해야만 했던 어느 크리스천 부인에게 날마다 잠깐씩 틈을 내어 거울을 들여다 보라고 했다. 만일 뼈만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고 상상함으로써 허황된 마음을 버리라고 충고하였다.

이런 상상은 물론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장의업이 가장 확실한 사업인 것이다. 죽음에 관한 생각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죽음을 문제시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 : 19)고 하셨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 : 1).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간단하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광스런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12월 23일

어원학적으로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곧 동정심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 라는 뜻이다. 중산층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잔치를 벌이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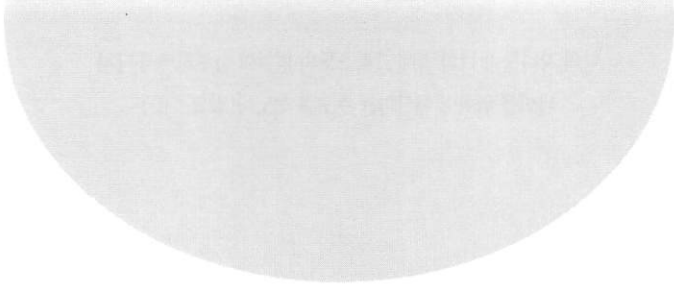
예수님은 배가 고프는데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 황소도 아닌 사람이 거할 곳이라곤 마구간밖에 없을 때, 십자가에 달렸는데 발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런 때와 같이 하늘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직접 알아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중산층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직접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리 공화국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아무 죄도 없는 형제들이 몇 주씩 굶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한번 굶어보는 것이 어떨까?

예수님은 강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흑인이나 옷을 형편없이 차려입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정원에도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천국에 들어간 도둑은 천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자집 아이와 노는 일도 극히 드물다.

개는 여주인과 함께 소파에 누워 지내지만, 하루종일 정원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부엌에서 하루종일 서 있어서 발이 통통 부은 하녀는 주인과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극단적인 호의를 품는 것이 잘못이라는 논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무분별한 호의는 그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 중산층의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사



람들에게, 즉 굶주리고 있거나 최소한의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한 인류의 60%를 차지하는 인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비쳐지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선을 베풀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 즉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집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눅 14:13) 예수님은당신을, 악한 죄인인 당신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다.

12월 24일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신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12월에는 예루살렘의 밤 기온이 매우 낮아서 양치는 목자들이 한밤중까지 목초지에 양떼를 풀어놓고 지키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카니발이 열리는 축제기간이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정부 관리들의 활동이 잠시 위축되는 그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축하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매일 매일 새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적을 축하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워졌다. 적어도 오두막 한 채씩은 다 갖고 있었을 법한 양치기들이나, 안락한 집을 가지고 있었을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시지 않고 쩌더미 속에 누워있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갔어야 옳았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말구유가 아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천국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그 분께서 들고자 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슴속이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살고자 원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그 분의 마리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이다. 예수님은 자신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 : 50).

이 집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자.

12월 25일

히브리 원전에 보면 구세주의 오심에 관한 윗 구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 (*El Ghibor*은 직역하면 ‘영웅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임 : 역자 주)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전 생애를 슬픔 속에 산 후에, 희생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리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천국과 천사들의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영웅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경솔함과 미지근함은 크리스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아주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느 유명한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을 훈련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바닥에다가 술잔, 카드, 주사위, 포르노 잡지와, 약간의 돈을 늘어놓고 그것들을 밟으며 “아니오, 아니오!”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나는 영웅적인 하나님에게 속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죄악의 유혹에도 ‘아니오’ 라고 대답하겠다”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그 훈련의 전부였다.

편안한 길을 버리고 역사상에 있었던 다른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승리 하든지 죽든지, 내게 항복이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자.

12월 26일

열두 살 난 소년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아프리카 선교사요”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왜지?”

“사자 사냥을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천국에 가서도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기이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까?”라는 궁리 대신에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보다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한다.

우리는 우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제자들이 탄 배도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마 8 : 23~2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폭풍우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 분은 제자들에게 폭풍우와 같은 시련이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죽을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은 잠에서 깨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고통을 참고 일을 계속하며 용감하게 싸워라.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런 시련을 견뎌내라는 주님의 뜻이지, 단지 천국을 즐기는 특권을 누리라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교사들은 사자 사냥을 즐기라고 아프리카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다.

12월 27일

그레고리 대교황은 작은 체구였지만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 596년에 앵글로 색슨 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앵글로 색슨 족은 전세계의 축복이 되었다. 영국인 보니파세의 전도로 독일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역시 영국인 윌리브로드는 폴란드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 영국 제국의 탄생은 앵글로 색슨 족에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호주 지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 주었다.

미국으로 복음을 들여온 것도 역시 이 앵글로 색슨 족이었다. 지금도 총 선교사의 60%와 선교 사업에 지출되는 총 사업비의 80%를 미국에서 원조하고 있다.

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략상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점점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겠다. 영국 섬들의 인구 중에서 3%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7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앵글로 색슨 세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왕하 5:18, 19)

12월 28일

유대의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모세가 어린 양치기 소년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제게 나타나신다면, 저는 양털과, 양의 젖과, 고기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떼를 갖고 계시다면 돈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옷을 빨아드리고, 당신의 손에 입맞추겠습니다.”

모세는 소년의 기도를 듣고 놀라 그런 불경스런 기도를 당장에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꾸짖으셨다. 하나님은 그 소년의 천진난만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뒤든지 다 아는 채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보다 더 기쁘셨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혹은 원시적인 신앙관을 다룰 때에 조심해야 한다. 남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단지 교회 출석만 하는 것도, 소심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험거운 일일 수도 있다. 다른 종교에 빠져드는 것도 무조건 악하게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행위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사람이 잡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그에게 충고를 하되 온유한 말씨를 사용하여 그가 가진 얼마 안되는 빛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충고에 인색하라.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 그리고 그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신지라... (고후 12 : 8, 9)

12월 29일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많이 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소원과 기도들도 많이 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 받는다고 소문이 났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그토록 잘 들어주신다면, 어찌서 당신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는 장님이었던 것이다.

성도는 대답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려는 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절당한 경우이라도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야기되는 무서운 결과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곡하게 빌었다. 아들은 방탕하고 악한 생활을 했으며, 온갖 종류의 이교에 빠져서 결국은 제 어미의 소원과과는 달리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엠브로스 신부를 만나 회개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중에 한 분이신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12월 30일

우리가 올 한해 동안 한 일들을 요약하여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이다. 그 죄들을 짓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어찌면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거짓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예수님이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영적으로 의지하는 스승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만약 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눅 6:20)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을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여도 당신은 그를 계속 따르겠는가?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스승은 이런 말로 그 제의를 거절했다. “내게는 오늘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돈은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날 것이요”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이 돈을 받아 뒀다가 그때가 오면 쓰도록 하시오.”

“만약 내가 이 돈이 다 바닥날 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것을 당신께서 보장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받겠습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 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스승을 구하라. 예수님은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가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소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 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 만족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구하라.

12월 31일

한 해가 지나갔다. 지난 해의 모든 걱정 근심과 죄와 다툼은 시간과 함께 흘러 보내라. 우리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내년은 또 그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작년의 근심을 올해로 넘길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다투었던 많은 문제들은 이미 중요하지도 않게 되어버렸다.

사랑으로 맺어진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게 되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서로를 포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소스라치며 놀랐다. “저거 봤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생쥐 한 마리가 저기 저 오른쪽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아무런 해도 못끼칠 거야. 나도 봤어. 아주 조그만 생쥐인데 밀. 저기 왼쪽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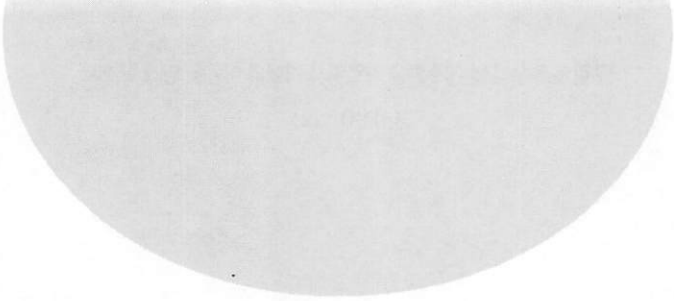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생쥐가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우겼다.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요하려고 했다. 끝내 그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

7년 동안 떨어져 산 후에, 친구들이 중간에서 그 둘을 다시 화해시켰다. 그들은 예전의 그 방, 그 식탁에 다시 앉게 되었다. 그녀가 말했다.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간 쥐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툼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었나봐요.”

남자가 소리쳤다. “아니, 또 그 얘기야?” 그들은 다시 이혼했다. 그들의 사이는 좋아질 줄을 몰랐다. 우리의 다툼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약속의 날에 1년 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근심과 갈등들이 심판 날에 가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나간 일년 동안 우리의 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 새해에도 하나님과 구세주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이유는 충분히 있다.

성 구 색 인 (상)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창	1 : 1	26	마	3 : 15	259	눅	16 : 1	234	갈	3 : 8	177	
	1 : 2	260		3 : 15	262		16 : 10	140		4 : 7	236	
	2 : 15	40		3 : 16	263		16 : 20	122		5 : 22,23	55	
	3 : 5	59		5 : 3	64		18 : 13	69		5 : 22,23	171	
	3 : 9	62		5 : 44	112		18 : 25	61		6 : 5	252	
	6 : 2	20		6 : 6	239		19 : 46	119		엠펜	4 : 14	185
	12 : 1	48		6 : 9	67		22 : 19	96			4 : 24	199
	21 : 15,19	81		6 : 12	103		23 : 39,42	33			4 : 26	173
	22 : 2	110		6 : 14	45		요	1 : 12			248	5 : 18
	41 : 29	224		6 : 24	258			1 : 29		265	5 : 18	144
출	4 : 10	141	6 : 26,28	68	1 : 46	266		6 : 10	220			
	20 : 2	194	6 : 34	46	2 : 9,10	198	빌	2 : 2	142			
	20 : 5	169	7 : 1	24	3 : 16	179		2 : 3	42			
	20 : 8	165	7 : 1	104	3 : 16	191		2 : 3	268			
	20 : 13	196	10 : 29	60	5 : 2	77		2 : 7	25			
민	19 : 14	270	13 : 4	21	5 : 39	151		2 : 9	137			
	22 : 28	16	13 : 30	87	9 : 24	123	2 : 14	157				
	31 : 28	168	14 : 30	32	10 : 35	107	4 : 8	216				
신	28 : 7	28	17 : 20	111	11 : 39	175	살후	3 : 8	203			
	삼상	21 : 13	101	19 : 6	149	14 : 6		115	담전	1 : 17	192	
삼하		14 : 19	43	20 : 28	125	17 : 2	114			2 : 1,2	143	
	욥	1 : 21	27	22 : 39	50	20 : 11	76			6 : 5	85	
시		39 : 26	189	22 : 39	148	20 : 11,12	23	담후		6 : 10	135	
	잠	8 : 5	222	25 : 34,41	121	21 : 9	186		히	3 : 16	163	
14 : 1		79	25 : 6	206	행	13 : 41	207	4 : 3		195		
90 : 12		11	26 : 22	72		21 : 37	77	9 : 27		37		
96 : 1		147	26 : 41	91	롬	1 : 16	164	9 : 27		82		
전		12 : 10	34	27 : 32		99	3 : 24	84		10 : 26	18	
	12 : 11	74	27 : 49	212		5 : 2	193	11 : 34	95			
	23 : 7	57	28 : 17	218	8 : 28	117	11 : 37	128				
아	1 : 2	226	28 : 19	56	12 : 1	139	12 : 1	170				
	2 : 2	47	28 : 19	237	12 : 14	36	약	1 : 5	256			
사	53 : 5	204	막	2 : 25,26	118	13 : 1		58	1 : 22	38		
	56 : 1	209		3 : 28	97	14 : 8	70	벧전	1 : 18	108		
램	6 : 16	22	8 : 1,8	98	고전	1 : 27	113		2 : 9	215		
	겔	1 : 26	31	11 : 23		240	1 : 28	184	3 : 21	249		
단		33 : 8	254	16 : 15	129	13 : 5	210	요일	4 : 8	12		
	을	5 : 15	231	눅	1 : 28	15	13 : 7		53	4 : 19	30	
온		2 : 1,2	161		1 : 48	102	13 : 13	155	요일	1 : 10	66	
	합	4 : 6	201	3 : 11	183	15 : 55	166	유		1 : 3	145	
속		2 : 20	14	5 : 5	241	고후	3 : 3		190	1 : 10	115	
	마	4 : 6	159	6 : 27	238		5 : 16	269	1 : 23	264		
♥ ♥ ♥		1 : 20	188	6 : 35	214	6 : 17	88	계	2 : 10	65		
	10 : 42			246	갈	1 : 2	232		2 : 10	127		
3 : 13	251	11 : 1	244	2 : 20		153	12 : 11	131				
		15 : 11	234	2 : 20	243	22 : 21	261					

성 구 색 인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성 경 구 절	page				
창	1:28	57	마	8:23	202	요	2:5	91	갈	5:19	237
	2:3	54		10:32	254		2:11	98		6:1	113
	2:7	235		10:41	23		2:15	152	엡	4:10	248
	2:9	208		11:1	200		3:5	115		4:31	160
	5:22	243		16:21	186		4:4	158	5:2	180	
	16:2	174		16:24	264		10:4,5	122	5:30	238	
	17:1	210		19:14	151			11:25	146	빌	2:2
출	4:10	244	19:14	232	13:10	190	2:7	73			
	20:4	86	19:21	63	14:6	92	2:7	260			
	20:13	117	19:26	17	15:11	236	2:8	96			
왕하	1:7	34	21:18	19	17:6	225	2:10	140			
	5:18, 19	266	21:22	127	17:17	102	3:8	239			
읍	1:21	69	22:37	201	행	17:21	111	3:13	109		
	1:21	129	23:13	182		4:19	172	3:14	134		
	4:16	226	24:9	42	11:26	241	골	3:1	149		
시	42:10	114	24:10	209	16:31	214	살전	2:6	169		
	90:12	35	24:13	141	20:27	215		5:2	38		
	90:12	269	25:10	219	롬	3:23	175	딤후	6:10	110	
	95:7,8	223	26:24	251		5:3	257		6:20	176	
	100:5	242	26:26	166		5:5	240	6:20	179		
	103:17	183	26:30	164	5:12	259	딤후	3:14	138		
	104:15	99	27:18	133	5:18	135		딤후	2:7	37	
	104:15	199	27:46	95	9:5	154	히	1:1	245		
	잠	15:13	142	28:19	265	9:15		116	9:7	255	
		전	7:16	249	막	1:10	107	12:1	65	9:27	131
아	2:16		45	6:6		51	12:2	218	11:13	31	
	사	5:2	112	눅	1:38	77	12:15	230	12:1	13	
1:3		108	1:52		49	고전	1:27	162	13:2	81	
9:6		263	6:30		20		1:27,28	30	13:3	27	
53:10	253	7:6	159	3:13	181	4:3	120	13:3	156		
겔	34:25	53	7:22	26	4:3	120	4:16	178	13:4	61	
	단	10:21	191	9:23	88	4:16	178	10:31	67	13:17	212
11:35		71	9:31	79	12:4	93	12:4	93	약	1:5	125
11:35		197	11:1	224	15:55	185	15:55	185		4:14	177
합	2:4	62	11:2	205	고후	3:6	40	벧전	2:9	64	
	2:20	76	12:20	168		3:6	29		3:1	220	
말	2:5	119	12:33	231	3:18	29	3:3	217	벧후	3:4	33
	마	1:2	87	14:10	75	5:17	204	요일		3:4	33
5:5		56	15:2	89	8:9	268	1:6		72		
5:9		206	15:20	143	9:7	221	2:1	124			
5:17		222	17:18	195	12:8,9	267	4:18	144			
5:44		170	23:43	47	갈	1:15,16	32	요이	1:1	216	
5:44		256	요	1:14		136	1:15,16		228	1:6	100
5:47		94		1:49	21	2:20	187	유	1:3	44	
7:1	246	1:49	24	4:19	262	1:9	85				
7:7	15	2:4	83	5:17	189	1:13	48				